장편소설

적후에서 홀로

(1)

유리 돌드-미하일리끄
강필주 역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 1 부

불 청 객

전화종이 길게 울렸다.

다른 때 같으면 제1부장 베르트골드대좌는 쏘파에서 다급히 뛰쳐일어나 전화를 급히 받았을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꼼짝도 하지 않고있다. 베르트골드는 아까와 같이 눈을 감은채 누워있는것이 마치 자고있는것 같았다.

대좌의 부관 끄껜뮬레르는 벌써 몇번인가 사무실문을 두드리고는 들어오라는 말을 기다리다못해 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대좌가 눈을 감은채 쏘파에 누워있는것을 본 그는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았다.

부관은 자기 상관이 지난밤 잠들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히틀러에게서 직접 오는 전화를 받은 베르트골드는 새벽녘이 되여서야 조금 눈을 붙인것이다. 부관은 베르트골드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 그자리에 없었다. 대좌가 전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것을 듣자 대위는 조용조용 발끝으로 걸어나왔다. 그때 대위는 방문을 빈틈없이 꼭 닫지는 않았다. 대위의 책상이 놓여있는 옆방까지 들려오는 토막말에 의해서도 히틀러와의 담화가 대좌에게 매우 기쁜 소식인것이 명백하였다.

그러한 담화가 있은 후인지라 베르트골드가 홀로 자기 생각에 잠겨 반시간쯤 누워있자고 하는것도 괴이한 일이 아닐것이다.

히틀러는 도이췰란드군대에게 위험한 벨라루씨일대에서 수행한 베르트골드의 활동에 대해서 최고군부가 높이 평가하고있다는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르트골드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하려고 한다는것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암시해준것이였다.

잠간 사색에 잠기기 위해서 평상시의 일과를 다소 위반할만 한 리

유가 있었던것이다.
베르트골드로 말하면 사실 명상가는 아니였다.
도이췰란드정탐사업에 일생을 바쳐온 그에게는 직무상의 끊임없는 발전과 자그마한 자기 가정의 행복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대좌의 상상력을 적지 않게 자극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 달갑지 않은 지역에서 떠나갈수 있는 가능성이 그앞에 열려진것이다. 베르트골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결코 어떤 다른 장소로 직무를 이동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의 출세에 지장을 줄것이며 상부의 명령집행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장교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믈러자신이 그런 말을 냈은즉…
새로운 전화종소리가 그의 유쾌한 사색을 중단시켰다.
(누가 이렇게 일찌기…) 하고 베르트골드가 머리속에서 생각하고있는데 조용조용히 그러나 지꿎게 사무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대좌는 눈을 감은채 말했다.
《12사단 참모부에서 벌써 두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꼬겐뮬레르가 조용히 말하였다.
《무슨 일인가?》 베르트골드는 가늘게 뜬 눈으로 들어온 부관을 바라보았다. 함께 밤을 새운 부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조금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설핀 머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빗질을 단정히 하였으며 면도도 깨끗이 하였다.
《어제 밤에 12사단구역에서 로씨야군관 한사람이 우리편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는 사단참모부에서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대좌를 직접 만나겠다고 완강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나를 만나게 해달라구?》
《그렇습니다. 그는 대좌님의 직무뿐아니라 성명까지도 말했답니다.》
《무엇이라구?》 베르트골드는 이상한듯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일어섰다.
《사실 이상합니다! 로씨야군관이 어떻게 대좌님의 성명을 알았을가요?》
《심지어 이름까지!》

《하여튼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셔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군관이 대좌님을 암살하려고 파견되였을수도 있으니까. …》

《그건 자네가 나의 신분에 대해 과장해서 생각하는거야. … 날 암살해 무엇하자구, 나같은 평범한 장교를…》

《그러나 대좌님…》 부관은 반대하려 하였다.

《군단이나 집단군사령관에 대한 문제라면 그럴법도 한 일이지만…》 베르트골드는 부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계속하였다.

《대좌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찌 평장교에 대한 문제입니까. 대좌님이야 히믈러님과 직접 우정을 맺고계시는분이 아니십니까. 볼쉐비크들에겐 그것만이래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틀림없습니다.》

《그래, 참모부에 무어라고 지시를 주었소?》

《넘어온자의 문건은 보내고 그자는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억류해두라고 대좌님명의로 명령하였습니다.》

《잘했어! 문건은 이미 도착했나?》

《네!》

《이리 가져와.》

끄겐뮬레르는 급히 사무실을 나갔다가 잠시후 키가 자그마하고 뚱뚱한 중위를 앞세우고 돌아왔다.

《대좌님께 직접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중위는 큼직한 봉서를 내놓으면서 똑똑하게 보고하였다.

베르트골드는 봉투에 붙어있는 길죽한 종이에 수표하였다.

중위는 사무실문밖으로 사라졌다. 베르트골드는 봉투를 차근차근하게 베여내고 보내온 문건을 꺼냈다. 문건이란 큼직한 지형도와 군관증명서였다.

대좌는 지도를 한번 훑어보고나서 아무말없이 부관에게 넘기였다. 대위는 지도를 자그마한 책상에 압정으로 꽂아놓고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여 거기에 무슨 비밀표식이 있는가 해서 지도를 찬찬히 보았다. 그는 어찌나 지도연구에 열중했던지 대좌의 목소리를 듣자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다.

《이자의 얼굴이 로씨야사람의 전형적얼굴같이 생기지 않았소?》

부관은 자기 상관의 등뒤에서 사진을 넘겨다보았다.

《끄ㅡ마ㅡ로브라ㅡ 그렇습니다. 대좌님! 유럽사람의 얼굴입니다. 아리아족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훤칠한 이마와 곧게 자리잡힌 매부리코를 보십시오.》

부관은 사진을 보면서 말하였다.

《참모부에 전화를 걸어서 넘어온 그자를 이리 보내라고 하게.》

베르트골드는 안락의자등받이에 기대앉아 아침에 히믈러와 나눈 담화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면서 절반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으나 아까와 같은 즐겁고 명상적인 기분은 이미 돌아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부관이 전화를 거느라고 웨치는 높은 목소리가 방해될수도 있었다. 어째서인지 부관은 오래동안 작전부와 전화련결이 잘 안되는 모양이였다. 우리편으로 넘어왔다는자는 대체 어떤자일가? 그가 꼭 자기하고만 만날것을 고집한다는것도 괴이한 일이였다. 이러나저러나 이제 다 밝혀지겠지. 대좌는 또다시 군관증명서를 펼치고 이제 자기에게 데려올 그 사람의 얼굴모습을 주의깊게 한참 들여다보았다. 흥미있는 얼굴이였다. 대좌는 매우 작고 꼭 다문 입을 어디선가 본것만 같았다.

《명령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대좌님!》 끄껜퓰레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보고하였다.

대위는 의자 하나를 방 한가운데 내놓았다.

《대좌님, 그자를 여기 앉게 하십시오. 책상옆에 있는 이 의자에는 제가 앉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자와 대좌님사이에 항상 대좌님을 방위할 준비를 갖춘 사람이 있게 될것입니다.》 끄껜퓰레르는 눈을 좁히고 의자와 쏘파를 번갈아보면서 말하였다.

참모부경비대장이 쏘베트군대 중위의 복장을 입고있는 중키에 스물둬살 되여보이는 청년을 사무실로 들여보냈다.

베르트골드는 들어온 청년의 얼굴에 쏠렸던 시선을 급히 책상우에 놓인 증명서의 사진으로 옮겼다. 앞에 서있는 청년이 본인임에 틀림이 없었다. 다만 머리를 사진에서처럼 뒤로 넘겨빗지 않았다. 지금은 가리마를 타고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군살이 없고 해빛에 탄 얼굴이 더한층 드러나보였다. 특히 코와 꼭 다문 작은 입이 그러하였다.

《대좌님, 안녕하십니까!》 젊은이는 깨끗한 도이췰란드말로 인사를 하고 구두뒤축을 철칵 붙이며 바로섰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베르트골드는 좁힌 눈으로 들어온 젊은이의 얼굴을 똑똑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매개 특징을 예리한 눈길로 더듬어가는것과 같았다. 들어온 청년은 그 눈길을 받으며 침착히 서있었다. 베르트골드가 보기에는 그의 크고 연한 밤빛눈에 피뜩 미소가 어린것 같기도 하였다.

《안녕하오, 꼬마로브! 지난밤에 우리쪽으로 넘어왔는가?》

마침내 대좌가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선을 넘어 베르트골드대좌님의 접견을 받게 되였습니다.》

《당신은 대좌를 직접 알고있는가?》 대좌는 경계하는 눈길을 부관에게 돌리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예, 저는 대좌님을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째서 바로 나와 직접 이야기하자고 하였는가?》 베르트골드는 놀라운 기색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꼬껜뮬레르는 바짝 정신을 차렸다. 그의 손은 권총의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저는 앉을것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무기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계시니까.》 하고 말하며 젊은이는 약간 웃음을 띠였다.

《앉으시오!》 베르트골드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젊은이는 의자에 앉더니 구두뒤축을 침착히 비틀어돌리기 시작하였다. 꼬껜뮬레르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 무릎우에 놓았다. 구두뒤축에서 꺼낸 자그마한 쇠곽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랴? 젊은이가 곽을 열고 그속에서 무슨 종이쪽지를 꺼내드는것을 보고야 대위는 안도의 숨을 쉬였다.

《대좌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꼬껜뮬레르에게 부탁하였다.

부관은 종이를 받아 손바닥에 받쳐들고 대좌의 책상으로 가면서도 그 수상한 로씨야군관에게서 주의깊은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태평스럽게 방안을 둘러보고있는것을 보고 부관은 마음을 놓았다.

더우기 대좌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화되는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무엇이라구?》 베르트골드는 소리쳤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의 입가에는 약간 알릴가말가한 기쁜 미소가 한순간 스쳐지났다.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자세를 바로하고 말하였다. 《헨리흐 폰 골드링남작이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대좌는 왈칵 안락의자를 밀치며 역시 일어섰다.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좌님께만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그야 물론…》 대좌는 자기 부관의 경계하는 눈길에 부딪치자 말이 막혔다. 《끄겐퓰레르대위는 나의 부관이요. 그 사람 있는데서는 내게 하고싶은 말을 다 해도 일없소. … 그건 그렇고, 담배피우지 않소? 한대 피우시오!》

대좌는 담배곽을 책상 한끝으로 밀어놓았다. 젊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다. 그는 려송연 한끝을 물어뜯고 끄겐퓰레르가 공손히 가져다놓은 라이타로 불을 붙이고 몇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용서하십시오, 오래동안 못 피우다나니!》

《일없소, 천천히 피우시오!》 베르트골드는 친절하게 말하였다.

《저는 대좌님과의 상봉을 너무나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말씀드리고싶은 심정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문건상으로는 쏘베트군대 중위 안똔 쓰쩨빠노비츠 끄마로브입니다. 저는 련합부대참모부에서 직접 그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헨리흐 폰 골드링입니다. 대좌님께서도 잘 아시는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남작의 아들입니다. 저의 선친은 한때 대좌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신것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젊은이의 눈은 대좌의 넙적한 얼굴을 오래동안 주시하였다.

베르트골드는 흥분을 숨길수 없었다. 그의 부관까지도 조심성을 잊어버리고 권총집에서 손을 떼고 이 심상치 않은 담화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였다.

《골드링남작의 아들이 어떻게 쏘베트군대에 들어갔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끄마로브로 변했단 말이요? 어서 앉으시오, 몹시 피로하겠는데. 흥분된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저는 흥분하고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길지 않은 반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봉을 너무나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 저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만 한 시간이 대좌님께 있으시겠는지… 참, 저는 무한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짜이름을 부를수 있게 되였으니…》

《나 역시 그 이야기가 듣고싶소. 당신은 그 이야기가 나를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게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먼 젊은 시절의 친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만나다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던 동료의 아들을! 더우기 이런 정황에서! 헨리흐 폰 골드링!》

《저는 그 이름을 오래동안 잊어버려야 하였습니다. 지금 대좌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저의 아버님의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습니다. 저는, 저는…》

헨리흐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보자 꼬겐뮬레르는 물을 한고뿌 가져왔다. 젊은이는 단숨에 물을 마시고 다소 진정되였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대좌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의 선친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은 제1차세계대전 직후부터 대좌님께서 복무하시던 부서에서 사업하였습니다. 1928년에 그 부서를 책임지고계시던 알렉싼드르대좌의 명령에 의하여 저의 선친은 로씨야로 파견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곱살이였는데 대좌님과 어떤 아름다운 부인이 계시던 큰 별장에서 보낸 여름밤이 똑똑히 기억됩니다. 후에 아버님은 그날 저녁 윌헬름거리 22번지에 있는 대좌님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송별연을 차려주시였다는것을 설명해주시였습니다. 선친이 그후 이미 로씨야로 간후에 조국에서 송별연이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그 별장의 주소를 말해주었는데 그 번지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기억력이 참 비상하오.》 베르트골드는 젊은이의 말을 가로채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도 당신 아버님과 그 당시 한창 장난을 즐기는 어린애이던 당신이 눈에 선하오. 비록 지금 당신은 이미 어른이 다되였지만 그 송별연이 있었던 날 우리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던 그 총각의 모습을 알아볼수 있단 말이요. 바로 그래서 당신의 얼굴이 어디서 꼭 본 얼굴같더란 말이야. 그렇지 않구! 바로 그 입이 신

통히도 지그프리드의 입이라니까. 언제나 꾹 다물고있었는데 큰 얼굴에 비해선 지내 작은 입이였지. 당신의 모습은 섬세한편인데 눈생김새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닮은게 확실하오. 그래서 내가 당장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한것 같소. … 공연히 당신이야기를 중단시켜서 미안하게 됐소. 나 역시 그때를 회상하니 매우 흥분되는게 사실이요!》

《저는 대좌님보다 몇배나 더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시절의 회상에 대해서 얼마간 더 말씀드릴가 합니다. 그러면 대좌님께서도 우리가 떠나던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가 합니다. 대좌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조국을 떠나던 시기를 기억하실것입니다. 1928년이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외국기사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쏘베트 로씨야로 떠났습니다.》

대좌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볼쉐비크들이 그 당시에는 외국전문가들을 즐겨 초청했습니다. 우리 정탐일군들에겐 황금시절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시기는 인차 끝나버렸소.》

《그러나 그 당시부터도 경각성을 높이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증에도, 바우에르회사의 추천서에도 잘레쓰끼라는 성으로 기록하였던것입니다. 스따니슬라브 잘레쓰끼, 뽈스까태생. 저 역시 변성명을 한것은 물론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조국을 떠나기 전에 매일같이 나에게 나의 진짜이름은 헨리흐가 아니고 유제프며 성은 잘레쓰끼이며 나는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니라 뽈스까사람이라고 가르쳐주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한 일이야— 당신을 그런 야만의 나라로 데리고 가다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한번도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아버지는 일정한 임무를 가지고 로씨야로 가는것이 아니라 될수 있는대로 오래동안 그곳에 머물러있을 과업을 띠고 가게 되므로 어쩔수 없은것 같습니다.》

《난 당신을 우리 집에 두고가라고 권고했더랬소. …》

《대좌님께서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있는데서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팔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원 기억력이 좋기두 하오!》 베르트골드는 경탄했다.

《그때 대좌님 부인이신 엘자부인이 대좌님과 저의 부친을 질책하

시였지요. 부인께서는 건강하시겠지요?》

《그 사람도 우리의 상봉을 안다면 매우 기뻐할게요.》

《제가 드리는 충심으로부터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군 하여 애를 먹이던 금발머리소녀였던 따님 로르헨에게도…》

《아! 로르헨은 벌써 시집갈 처녀로 되였지. 정말 세월은 류수같다더니…》

베르트골드는 몹시 감동되였다. 끄겐뮬레르가 없었다면 자기 딸 로르헨에 대한 자랑을 더 늘어놓았을것이다.

대좌는 의지력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쳐버렸다. 그의 얼굴은 부하들이 있을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또다시 근엄한 표정으로 되였다. 자기 얼굴에 그러한 표정을 유지하는것을 대좌는 정복의 단추를 다 채우는것 같은 직무상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대좌의 기분이 달라진것을 감촉한 헨리흐는 그후의 이야기를 군말없이 집약해서 이야기하였다.

《대좌님의 바쁘신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후에 보고문에 상세한것을 써서 올릴가 합니다. 선친은 처음에 돈바스에서 전기기사로 일하였고 그후 우랄지방으로 조동되여 1930년에는 대수력발전소건설장으로 파견되였습니다. 대좌님께서는 그 사정을 아실줄 압니다. 바로 그 시기부터 대좌님과 직접적인 무선통신을 유지하였으며 우리 첩보망을 통한 우편련락도 있었다는것을 후에 아버지에게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랬소! 그때 우리의 련계는 아주 긴밀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댔소.》 하고 대좌는 그의 말을 확인하였다.

《1934년에 아버님은 상부의 지시대로 원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아버지가 로씨야국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있소. …》

《그러나 원동으로 이동한 후 대좌님과의 직접적인 련계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련락은 대좌님도 알고계시는 그 선을 따라 유지되였습니다. …》

베르트골드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1937년부터 저는 이미 적극적으로 아버님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보고문을 암호화하는 법과 접수한 지시문의 암호를 해득하는 법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그프리드와 같은 로련한 정탐일군으로선 매우 경솔한 일이였소!》

《그러나 대좌님, 아버님에게는 일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방조자가 극히 적었다는것을 고려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저를 도이췰란드의 진정한 애국자로 교양하시였습니다. 어떠한 정황속에서도 비밀을 루설해서는 안된다는것도 아버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헨리흐는 아버지를 변호하여 말했다.

《계속하오, 계속해!》 대좌는 격려해주었다.

《그후 일이 아주 잘되여갔습니다. 그러나 1938년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체까대원들이 냄새를 맡고 련락장소를 습격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불수 있는 첩자가 체포되고말았습니다. 잘레쓰끼기사는 도망칠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똔 쓰쩨빠노비츠 꼬마로브의 이름으로 된 문건을 확보하고 공청원증까지 얻어서 저를 오데싸로 보내여 군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저는 전쟁직전에 군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군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는 아버지와의 우편련락을 유지할수 없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마지막소식은 비극적인것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건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다른 종이장에 급히 몇줄의 글을 써보내주시였습니다. 그 글쪽지에서 아버지는 폭로되였다, 그래 하는수없이 체포되기 전에 독약을 먹을수밖에 없다는것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볼쉐비크들에게 복수할것을 애원한다는 내용이 씌여있었습니다.》

헨리흐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하였다. 꼬겐뮬레르는 또다시 물병있는데로 갔다.

베르트골드는 고개를 돌리고 몇초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대좌님, 매우 감사합니다!》 헨리흐는 물을 한모금 마시고 고뿌를 내려놓았다. 그의 입술은 꽉 다물려있었다. 헨리흐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 대좌님께서도 아는바와 같이 비록 제가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것을 맹세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업할수 없었습니다. 유리한 기회를 기다릴수밖에 없었

습니다. 마침 전쟁이 그 시각을 앞당겨주었습니다. 전선에서 저는 소대장으로 임명되였습니다. 저는 도이취어를 알고있다는것을 물론 숨기고있었습니다.… 며칠전에 저는 우연히 포로가 된 한 도이췰란드군 중위를 심문할 때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익혀 알고있는 대좌님의 이름을 듣게 되였으며 대좌님께서 군단참모부에서 사업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좌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그것을 알수 없었다면 어떻게 할번 했소?》

《조국의 군대로 넘어오자는 결심을 한지는 이미 오랬습니다. 포로된 도이췰란드중위의 심문에서 들은것이 그 일을 촉진시켰을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행복한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사실 대좌님께서 저를 어려서부터 알고계시며 저의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이신만큼 장기간의 검열이 필요없을것입니다!》

《응당한 말이요! 비록… 다소 모험적이라고 할수는 있으나… 사실 자네를 죽일수도 있었으니 말이요.》

《그 생각이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대좌님, 제가 무서워한것은 죽음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무서워한것은 제가 도이췰란드병사의 총알에 맞아죽게 되면 아버지의 원쑤도 갚지 못한채 남의 이름으로 원쑤들과 함께 땅에 묻힐수 있다는 그것이였습니다.…》

《알겠소! 그러나 이젠 자기편에 와있으니…》

《저는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래그래, 나의 죽은 친구의 아들이니 나를 자기의 둘째아버지로 생각할수 있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것조차 겁냈습니다.… 아! 대좌님,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것입니다! 대좌님앞에 놓여있는 마지막편지에서 아버지는 대좌님을 꼭 찾아뵈옵고 모든 일에서 대좌님의 말씀대로 하라는것을 유언하시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버지의 말과 같이 대좌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헨리흐는 벌떡 일어나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뭔가 주저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베르트골드자신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젊은이의 두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이 문건에 있는 유산이란건 무엇이요?》 베르트골드는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서류를 들춰보다가 물었다.

《대좌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아버지는 로씨야로 떠나게 되자 모든 부동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나온 돈가운데서 일부분은 도이췰란드은행에 예금하고 기본적인 금액은 스위스민족은행에 예금하였습니다.》

《다해서 얼마나 되오?》

《2백만마르크를 약간 넘습니다.》

《야!》 끄껜뮬레르의 가슴으로부터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자네 부친은 자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셨소, 헨리흐!》 베르트골드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돈은 저의것이라기보다 조국에 속하는것입니다.》

《그야 더 말할것도 없지! 그 점에 대해선 자네가 좀 휴식하고 안정한 후에 래일 이야기하기로 하세. … 대위.》 하고 베르트골드는 끄껜뮬레르를 향해서 말을 계속하였다. 《모든 점에 대해서 잘 돌봐주게. 내방옆에다 남작의 자리를 잡게 하구 의복이며 기타 필요되는것들을 마련해주오. …》

《대좌님, 걱정마십시오. 폰 골드링남작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폰 골드링남작! 이 말이 저에게는 어릴적부터 무슨 음악소리와 같이 들리군 하였습니다. 이 복장을 벗어던질 때 저는 재생의 기쁨을 느낄것입니다!》

《어서 그렇게 하오. 끄껜뮬레르가 모든걸 도와줄걸세.》

작별인사를 하고 헨리흐가 끄껜뮬레르를 따라 출입문쪽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헨리흐는 걸음을 멈추었다.

《대좌님, 한가지 더 물을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넘어뜨린 비스마르크수상의 립상이 아직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구말구. 자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거네.》

헨리흐가 나간 다음 베르트골드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먼 지평선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가을의 무거운 구름장들이 땅우에 낮게 드리워 나무들의 우듬지며 제1부사무실이 자리잡고있는 학교지붕이

며 학교뜨락 맞은편에 서있는 옛적 교회당의 기울어진 종루우에 거의 거의 닿을것만 같았다. 싫증이 나는 역겨운 풍경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모든것이 변하겠지…

사실 오늘은 시작부터 얼마나 행복하였는가! 히믈러와의 그렇게도 의미심장한 담화, 그다음에는 골드링남작의 아들과의 상봉, 어떻게 해서나 헨리흐가 엘자와 로르헨을 만나보게 해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모든 일이 어떻게 끝장이 날지!

베르트골드는 오늘 두번째로 자기의 습관을 어기고 명상에 잠기였다. 아마도 그 명상이 아주 먼데까지 뻗어나간 모양이였다. 왜냐하면 그는 복장을 반듯이 당겨입고 얼굴에는 너그러운 표정을 띄우고 쏘파등뒤에 걸려있는 네모난 거울앞으로 다가갔던것이다. 거울안에서 노르께한 눈섭밑에 작은 회색눈이 자리잡고 코등은 좁고 끝은 뭉툭한 부르퉁하고 넙적한 얼굴이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대좌는 히틀러식으로 기른 코수염을 빗질하고나서 쏘파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에는 이미 머리는 보이지 않고 그대신 몸전체를 볼수 있었다. 대좌는 만족하였다. 검은색목깃을 단 철색복장이 든든한 어깨와 넓은 가슴에 꼭 맞았으며 연한 색 바지에는 주름살 하나 없었고 때묻은 자리 하나 없었다. 잘 닦은 장화는 번쩍거렸다.

완전무결한 장교는 행군시에도 바로 이러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것이다. 베르트골드대좌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느꼈으며 하루의 시작에 대해서도 만족하였다.

《만사가 다 잘돼가는군!》 하고 그는 헨리흐의 문건을 다시한번 보기 위해서 손을 비비며 책상쪽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말했다.

윌헬름 베르트골드는 도이췰란드정탐기관에서 너무나 오래동안 복무하였기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란 한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건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았으며 조만간 게스타포의 예심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대상자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매개 행동속에서 범죄의 기본적인 추동력으로서 사리사욕을 찾는것이였다.

헨리흐 폰 골드링을 자기 품에 넓게 포옹하였을 때 그는 미리 궁리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흥적인 기분에 의하여 행동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러한 계획을 꾸밀만 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때문

이였다. 그러나 차후에 그는 자기의 행동을 평가해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찬양하였으며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그프리드의 선량하고 인정깊은 옛친구의 배역을 아주 능숙하게 해낸것이 매우 기뻤다.

만일 검열해본 결과 넘어온 그자가 사실로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이며 사실로 애국심에 의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다는것이 확증된다면 그때에는 베르트골드도 훌륭한 인물로 두드러져보일것이다. 그것은 그 젊은이에게도 그렇고 사령부앞에서도 그럴것이다. 그의 고결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지혜롭고 인정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출한 영예로 장식하게 될것이다. 헨리흐 폰 골드링은 영원히 그를 감사하게 여길것이다. 만일 폰 골드링이란 인물이 원쑤라는것이 해명된다 해도 그때에도 역시 베르트골드는 로련한 정탐일군으로서의 영예를 지니게 될것이다.

그러니 그는 두가지 경우에 다 승리한셈으로 된다!

헨리흐가 가지고온 문건들, 골드링의 용모가 그의 부모를 닮은 점 그리고 중요하게는 어린시절부터 그의 기억에 보존되고있는 상세한 점들… 이 모든것은 베르트골드가 사실로 자기의 옛친구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환영해주어야 할 사람이라는것을 증명해주는것이였다. 그러나 검열해서 나쁠건 없는것이다. 이런 일에서는 자기의 직감을 믿어서도 안되며 이야기나 문건의 진실성만을 믿어서도 안되는것이다. 한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세번 검열해보는것이 좋다.

그런데 쏘련물을 먹고 동화되였을 헨리흐 폰 골드링이 무엇때문에 도이췰란드사람편으로 넘어오게 되였는가 하는 점은 아직도 명백치 않다. 이 젊은이가 스물두살이라는것은 사실이다. 그런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는 희망을 품을수도 있는것이고 만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받았다면 조국으로 돌아오자는 희망을 가질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마 주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것이다. 스위스민족은행에 예금해놓은 2백만마르크의 돈에 목적이 있을수도 있다. 만일 헨리흐 폰 골드링이 그대로 쏘련에 있고 가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 유산을 받을수 없을것이다. 혹시 그자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로씨야로 돌아갈 목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온것이 아닐가? 그래서 그가 특별히 우리에게 파견된것이 아닐가?

이런 의심으로 해서 베르트골드는 온밤 잠들수 없었다. 그는 일찌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 될수 있는대로 빨리 이 모든것을 밝혀내야 한다. 사실 베르트골드에게는 멋들어진 계획이 있었다.

젊고 잘생긴 남작 그리고… 2백만마르크, 로르헨의 남편이 되기에 부족한것이 무엇이랴? 그이상 좋은 자리는 구할수 없을것이다.

일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베르트골드는 직접 자기가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정탐부장 꾸비쓰대위를 불러서 오데싸 보병군관학교졸업생 안똔 쓰쩨빠노비츠 꼬마로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오라고 명령하였다.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나에게 보고하시오. 일을 끌지 말고 될수록 빨리 행동하시오.》 대좌는 엄격히 명령하였다.

꾸비쓰가 자기 밀정들과 련계를 가지는 동안 베르트골드는 다른 선으로 검열을 추진시켰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정탐자료문서고에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문건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 만일 헨리흐가 사실로 아버지를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쉽게 확증할수 있다. 아직은 헨리흐 폰 골드링이 극히 겸손하게 처신하고있었다. 그는 한번도 자기 마음대로 베르트골드를 찾아간 일이 없었으며 아무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신문을 온종일 읽는가 하면 때로 오랜 문서들을 보군 할뿐이였다. 그것은 알만 한 일이였다. 젊은이는 장기간 떨어져있던 조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있는지 몹시 알고싶을것이였다.

첫상봉이 있은 후 근 한주일이 지났을 때 베르트골드는 헨리흐를 자기가 거처하는 집으로 오라고 불렀다. 그는 두사람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술과 포도주를 차려놓고있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게 어떻소?》 잘 차려놓은 식탁이 골드링에게 준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대좌가 물었다.

《대좌님, 만일 대좌님께서 제가 아늑한 가정적분위기와 도이췰란드말과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적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하였는가를 알아주신다면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을것입니다.》

《하여튼 좋소, 앉으시오. 무슨 술을 부을가? 참, 그거야 물을것도 없겠지. 물론 로씨야의 독한 워드까에 습관되였겠으니까. 나 역시 그걸 좋아하오. 우리 소주하고는 비교도 못하겠다니까.》

《될수 있으면 저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전 워드까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

이 말은 대좌의 경각성을 다소 자극하였다. 그자신이 첩자들의 행동준칙에 대해서 훈계를 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며 특히 그때마다 알콜음료를 마시지 않는것을 정탐일군의 첫째가는 좌우명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군 하였다.

《그래, 전혀 마시지 않나?》

《꼬냐크 한잔쯤하고 포도주를 한고뿌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는 여기 있고 꼬냐크는 이제 가져올거요.》 베르트골드는 련락병에게 해당한 지시를 주었다.

《여보게 헨리흐, 혹시 네챠예브사건이 기억되나?》 식사가 거의 끝나갈무렵 골드링의 두볼이 술기운에 불그레해졌을 때 대좌는 마치 지나는 말처럼 이렇게 물었다.

《네챠예브 말씀입니까? 제가 아버님과 함께 원동지방에서 살던 도시의 전 국가보안국장 말씀이지요?》

《옳아, 그 사람 말이요.》

《기억나구말구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투서까지 쓴 일이 있는걸요.》

《그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주오.》

《네챠예브는 사냥터에서 아버지와 알게 되였지요. 그후 그들은 함께 사냥을 다니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1937년도에 아버지는 네챠예브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쩐지 수상하게 대하는것을 눈치채게 되였지요. 아버지는 그자가 우리의 활동자료를 얻게 되지나 않을가 해서 그자를 망신시키기로 결심했던겁니다. 아버지는 투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것을 정서해서 국가보안국 상급기관에 보냈지요. 그 투서에서 우리는 네챠예브가 밀림속으로 다니는것은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일본간첩과 만나 그에게 비밀통보를 전하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을 고발하였지요. 네챠예브는 체포되였는데 그후 어떻게 되였는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알아낼수 없었습니다.》

《유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게 다 허튼소리야! 정말 자네의 기억력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거던. 우리들 정탐일군에게 있어서는 기억력이 좋은것이 첫째가는 무기요. 요전에 자네는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들의 암호를 해득하는것과 통보자료를 암호화하는 일을 하였다고 말했는데 어저께 일이 있어서 문서고를 들추다가 우연히 흥미있는 종이장을 하나 얻어보았소. 바로 이거야. 이걸 보면 생각되는것이 없겠소?》

베르트골드는 이미 누렇게 퇴색한 종이장을 헨리흐에게 내밀었는데 그 종이에는 수자를 넉자씩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합시킨것이 석줄 씌여있었다.

헨리흐가 수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있는 동안 베르트골드는 때때로 정신을 집중하고있는 헨리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대좌는 과제가 힘들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여러해동안 그 수자를 가지고 사업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풀기 어려운것이였다.

침묵은 계속되였다. 베르트골드는 그러한 복잡한 검열방법을 적용한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4～5년전에 그것도 몇번밖에 써보지 않은 암호의 열쇠를 머리속에 넣어둔다는것은 오랜 로련한 정탐이라면 몰라라 어린 방조자에게는 진정 불가능한 일이다.

마침내 헨리흐는 머리를 들었다.

《이 종이가 어디 있었나요?》 헨리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아버지는 이걸 몹시 기다렸고 신경질까지 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는수없이 독자적인 결심을 채택하고 자기 견해대로 행동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야 대좌님께서 감사하다는 간단한 통지를 보내주셨지요. 이건 〈따우베〉작전수행에 대한 지시문입니다! 아버지가 로씨야사람들이 밀림속에 호수달린 공장을 건설하고있다는것을 통보한 후 대좌님께서는 〈건설의 시작을 백방으로 제지시킬것.〉이라는 회답을 보내시였지요. 구체적인 임무를 주기로 약속은 되여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직접 〈베－49호〉 첩자를 통해서 〈따우베〉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바라크에 불을 질렀고 로동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리던 그 지시문을 보게 되였군요.》 헨리흐는 비장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였다.

《용서하게, 곤난하던 시기를 회상케 해서. 그러나 우리들 정탐일군은 철의 심장과 강철의 신경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하

네.》

베르트골드는 원동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오래동안 여러가지를 물었으며 성명들, 날자들,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헨리흐는 기꺼이 대답하였으며 그자신도 회상하는것을 흥미있게 느끼는듯하였다.

끄겐뮬레르는 옆방에 은밀히 설치해놓은 록음기의 다섯번째 테프를 바꾸어끼웠는데 베르트골드는 계속 묻는것이였다.

헨리흐가 밤늦게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베르트골드는 오래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베를린에서 보내온 문건들과 록음테프의 기록을 대조해보았다. 1937년도의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총화보고는 헨리흐 폰 골드링이 말한것을 전적으로 확증하였다.

그러니 베르트골드가 자기 친구의 아들을 양자로 삼은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였다.

처음 당하는 불쾌한 일
처음 받은 임무

헨리흐 폰 골드링은 마치 용수철이 튕기기나 한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선을 넘어온 후 벌써 몇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리해도 새로운 환경에 익숙되지 않았으며 모든것이 뒤에 남아있다는 생각뿐이였다. 사실 모든 일이 잘되였다. 너무나 잘되였다고 말할수 있었다. 혹시 바로 거기에 위험이 숨어있는것이나 아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 사람은 주의를 약화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언행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를 소홀히 할수 있는것이다. 례컨대 그는 베르트골드대좌의 지나친 호의때문에 정신이 흐려진것이나 아닌가? 헨리흐에게 정식 군사칭호가 수여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에게 사업내용을 료해시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대좌는 군단장인 요르단중장이 지지해주리라는것을 담보하였다. 중장은 젊은 골드링남작의 래력에 매우 관심을 가졌으며 헨리흐에게 장교의 칭호를 수여해주기 위하여 직접 최고군부에 제기해주었다. 쏘베트군관학교는 도이췰란드군관학교에 못하지 않은 지식을 준다고 하는 요르단중장의 주장은 옳은것이였다. 아마도 헨리흐를

참모부에 두고 제1부에서 직접 베르트골드의 지도하에서 사업하게 하자는 문제도 이미 중장과 합의가 된 모양이였다. 그 측면에서는 불쾌한 일이 아무것도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기분과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불만감은 어디서 오는것일가? 헨리흐는 최근 며칠동안에 있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았다. 그렇다, 그는 과오를 범하였다. 참모부의 모든 장교들과 우의적인 호상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대신 부서의 사업을 연구하는데만 열중하였다. 그를 시기하는가하면 좋지 않은 눈길로 보거나 지어 다소 경원하는 눈치가 보이는것이 충분히 리해되였다.

시계는 아침 여덟시를 가리키고있었으나 방안은 아직 어두웠다. 창밖에서는 막이나 쳐놓은듯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담배를 한대 피우고나서 헨리흐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어저께 있은 일을 세세한데 이르기까지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그는 매일 아침 그렇게 하였다. 그것은 매일 아침 세면을 하는것처럼 그의 습관으로 되였다.

어저께는 특히 뜻깊은 날이였다. 헨리흐에게 도이췰란드군대 중위의 군사칭호가 제기된것과 그와 관련하여 베르트골드는 제1부장교들을 위한 소연회를 차렸다.

헨리흐는 그가 주인으로서 장교식당 문앞에서 장교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와 인사를 하는 장교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하게 대하던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베르트골드가 축배를 든 후에 손님들의 행동이 얼마나 변했던가! 베르트골드는 사실 축배를 들것을 제의하고 간단한 축하연설을 하였다. 젊은 남작이 조국을 위하여 세운 공훈에 대해서 능란하게 암시한 후 베르트골드는 조국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들을 바친 골드링가문에 생긴 가정적비극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대좌는 자기 친구인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헌신적투쟁에 대해서 몇마디 한 다음 젊은 남작이 아버지를 대신하게 된것을 거대한 영예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마지막말은 참모부장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모두 술잔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명복을 위하여 잔을 들었으며 그다음 베르트골드와 헨리흐를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그러자 연회의 분위기가 당장 달라졌다. 골드링에 대한 장교들의 태도에

서 이미 랭담하거나 거만한 빛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대좌가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이 아들에게 영예로운 이름뿐만아니라 2백만마르크가 넘는 유산까지 남겨주었다는것을 지나는 말처럼 비치자 야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로골적인 아첨기가 나타난것을 헨리흐는 볼수 있었다.

헨리흐를 위하여 많이 마시였다. 참가자들은 누구나 새로 생긴 동료에게 가서 우정을 약속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야회가 끝날 즈음에는 모든 장교들이 이미 거나하게 취하였다. 언제나 그런 경우에 그렇듯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중단되고 몇개의 패로 갈라져서 제각기 제나름으로 취흥에 잠기는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에 정신을 팔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열렬히 론쟁을 하는가 하면 그저 앉아서 끊임없이 술만 마시는 축들도 있었다. 헨리흐는 이리저리 모여앉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몇분씩 앉아서 술도 권하고 말하자면 친절한 주인노릇을 하였다. 그때 그는 슐쯔소좌와 꾸비쓰대위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였다.

《우리 대좌는 운수가 좋거던. 보라구, 그 젊은 남작인가를 양아들을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그에게 자기 딸을 주고 그대신 자기의 두개 곡물공장에 그자의 2백만마르크를 더해보는 놀음판을 벌리자는거야. 그렇게만 되면 그자도 앞길이 걱정없이 열리겠으니 자네나 나하구야 문제가 다르지!》 하고 슐쯔가 부러움을 감추지 않고 말하였다.

《슐쯔, 자네에게 딸이 없는게 분한가? 제길할, 될대루 되라지! 딸두 좋고 2백만마르크도 출세도 다 좋아! 난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맨몸으로 저세상에 가겠네. 술이나 마시자구! 이 전쟁이 빨리 끝장이 나고 자네나 내나 로씨야에서 행정장관자리나 하나 얻기 위해서 마시세.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안락한 여생을 보낼수 있겠는데… 문제는 〈철권〉작전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는데…》 꾸비쓰의 말이였다.

헨리흐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러나 《철권》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수는 없었다. 그때 대좌가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말았다.

참 대좌가 아주 공교롭게도 나타났거던. 그러나 부서에서는 물론 작전결과에 관한 통지가 있을것이다.

헨리흐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철권》작전에 대해서 전혀 알자고 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알게 된것이였다.

골드링에게 히틀러군대 중위의 군사칭호가 수여되기 며칠전에 베르트골드가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때는 밤이 늦은 때였으므로 헨리흐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기 위하여 일부러 천천히 옷을 입었다. 설마 베르트골드에게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단 말인가? 혹시 의심이 남아있다기보다 어떤 새 정황이 생긴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어떤것일가? 차라리 대좌가 직접 믿지 못하겠다고 나섰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헨리흐도 베르트골드와의 첫상봉에서 진실을 말했다는것을 증명하며 최단시일내에 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바칠수 있을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당장에 바로 잡혀질수 있을것이다. 이렇게나저렇게나 결말이 있을것이며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이냐 하는것이 명백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밤중에 불러일으켜서 골치아프게 만들고있다.

끄겐뮬레르는 자기 상관이 밤늦게 일할 때 늘쌍 그렇듯이 오늘 역시 제자리에서 서류를 들추고있었다.

《대좌님이 날 불렀소?》 하고 헨리흐는 불의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사람에게 응당히 있을수 있는 흥분과 놀라움을 나타내며 물었다. 끄겐뮬레르의 얼굴표정이나 그가 대답하는 어조에 따라서 베르트골드와의 담화의 성격을 가늠해보려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좌의 부관은 보통때와 같이 랭담하고 인사성이 없었다.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관은 일어나서 자동자물쇠의 열쇠를 돌렸다.

베르트골드는 일어서서 팔꿈치를 상에 의지하고 커다란 지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대좌가 무슨 작전계획을 연구하고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잠간만 기다려주게.》 대좌는 머리를 숙인채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늦은것 같은데 끄겐뮬레르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네는 오히려 좀 일찍 도착했다고 할수 있지. 이제 인차 끝내

겠네. 여기서 기다려도 무방해. 그동안 이거나 좀 보아주게. 어제 저녁에 얻어온것인데.》 하고 말하며 대좌는 방의 안쪽을 가리켰다. 헨리흐는 그때에야 비로소 오른쪽구석에 있는 쏘파우에 금과 보석이 번쩍거리는 커다란 교회당용 반원형술잔이 놓여있는것을 알았다. 천천히 쏘파로 가까이 가서 헨리흐는 그것을 조심조심 집어들고 찬찬히 보았다.

《마음에 드나?》 베르트골드는 지도를 말면서 간단히 물었다.

《진짜예술품입니다! 저는 대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물건의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박물관에 전시될만 한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런것이야 부르는게 값이지요. 이 새로운 물건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계시는 대좌님께 큰 소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좌는 만족한듯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짐을 지고 방안을 뚜벅뚜벅 거닐었는데 그것은 근심에 싸인 사람이 거니는 그러한 무거운 걸음걸이였다. 헨리흐는 대좌의 얼굴표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그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침울해짐에 따라 헨리흐의 불안도 역시 커갔다. 베르트골드가 재밤중에 자기를 불러낸것이 어찌 그 술잔을 자랑하기 위해서이겠는가?

그렇다, 제1부장이 지금 생각하고있는것은 자기의 수집품에 새로 보충된 술잔에 대해서가 아니라 골드링과 관련된 자기의 계획들에 대해서였다. 며칠후이면 헨리흐에게 장교의 군사칭호수여에 관한 명령서가 도착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도이췰란드제국의 당당한 공민의 권리를 회복하게 될것이며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유일한 법적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게 될것이다. 베르트골드의 방조가 아니였다면 이 일이 그렇게 빨리 비교적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을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패장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러나 만일 무엇인가 그가 오산하였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2백만마르크에 눈이 어두워 옳지 않은 전제에 의거하여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그때에는 파산이다. 완전한 몰락이다!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검열을 빈틈없이 하였다. 록음테프가 모든것을 확정하였다.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부책에 헨리흐의 손가락지문이 보존되여있지 않은것이 유감이였다. 정탐준칙에 의하면 정탐일군자신뿐아니라 그와 함

께 그의 가족도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의 지문까지 받아 놓게 된것이 사실이였다. 분명히 누가 실수를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받아놓은것을 잃어버린것이였다. 그것은 범죄와 가까운 실수였다! 베르트골드는 어제께 베를린에 바로 그렇게 통보하였다. 지금 그는 완전무결한 문건이 없는 대신 또 하나의 심리적공격을 들이대자는것이였다. 헨리흐의 기억력이 좋은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때 있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수는 없는것이다. 그의 지문이 문서고에 보관되여있다고 그를 납득시켜야 한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는지 흥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밤중에 불러냈으니 헨리흐가 불안을 느낄것은 물론이고 만일 그에게 지문문제에서 겁이 날 근거가 있다면 불안한 기분을 숨기고 자제한다는것이 헐치 않을것이다. …

《내가 이렇게 밤늦게 불러서 놀랐겠군?》 하고 베르트골드는 헨리흐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묻는것이였다.

《놀랐을뿐만아니라 좀 흥분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별로 큰 문제가 아니요. 보통 형식상문제일뿐이요. 그다지 기분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네의 문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요.》

《전 언제까지나 2중성을 띤 상태에 있는것이 못 견디게 싫증납니다. 저는 어떤 불쾌한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네의 기분과 초조한 심정을 충분히 알수 있네. 그러니 시끄러운 일을 제꺽 해치우잔 말일세. … 자네는 지문감정에 대해서 리해하고있는가? 혹시 기억이 나겠는지, 도이췰란드를 출발하기 직전에…》

《조국을 떠나기 전에 저의 지문을 받으신 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

헨리흐는 근심에 싸인듯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네의 비상한 기억력도 때로는 빠치는것이 있단 말인가?》

《그럼요, 아이들의 기억력이란것은 자기와 관계가 되는것에만 국한되는것이지요. 그 절차가 저의 주의를 끌지 않은걸 보니까 아마 그것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였다면 그 누구인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의 손가락지문에 관심을

가질수 있었다는것이 사실이지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정탐기관이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것이요. 다행히도 그 지문이 보존되여있소.》

《이제야 대좌님께서 어떤 형식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헨리흐는 혐오를 느끼는듯 상을 찌프렸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도 그저 장난처럼 생각해주게. 왜냐하면 이 놀음이란 꼭 장난과 비슷하니 말이네. 사실 나두 매우 불쾌하고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했지. … 그래서 딴사람들이 없는데서 해버리자고 내가 그 일을 맡기로 했네. …》

《정말 대좌님을 만나게 된것은 저로서 더없는 행복입니다!》

베르트골드는 책상으로 다가가서 서랍을 열고 인쇄용잉크가 번득거리는 쇠판대기와 작은 종이장을 꺼냈다.

《이젠 이리 와서 오른손을 내놓으라구.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손바닥을 누르라구. 그렇지, 그렇게. …》

베르트골드는 능숙한 동작으로 헨리흐의 손가락을 쇠판대기에 놓고 약간 누른 다음 빙 돌렸다. 그러니 엄지손가락의 안까지 잉크가 고르롭게 묻었다. 그때 베르트골드는 그 손가락을 종이장에 가져다눌렀다. 반질반질한 흰 종이우에 똑똑한 지문이 나타났다.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다 받았을 때 대좌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헨리흐는 시련을 이겨낸것이였다. 베르트골드는 오산하지 않았다!

헨리흐도 만족한 기분이였다. 이 작업을 하는 전과정에 그의 길다랗고 섬세한 손가락은 어느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돌아갈만 합니까?》 대좌가 다시 지도를 펼치였을 때 헨리흐는 물었다.

《돌아가시오. 나는 좀 더 일을 해야겠소. 원쑤를 틀어쥐는 우리의 주먹이 사실로 강철같은 주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요. 참모부에서는 이번 작전을 〈철권〉이라고 멋지게 부르고있소.》

헨리흐는 지도에 눈도 돌리지 않고 대좌에게 너무 수고를 하신다고 인사를 한 다음 경례를 하고 나왔다.

헨리흐는 급히 옷을 입었다. 그의 련락병이 방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준비가 다되여있었다.

《중위님, 아침식사를 가져오랍니까?》

《커피 한고뿌하고 쌘드위치를 가져오오.》

련락병은 비난하듯 머리를 흔들었으나 헨리흐의 말없는 시선에 부딪치자 말없이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헨리흐의 련락병으로 보내온 몸이 호리호리한 에르빈 브렌네르는 헨리흐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 고양이눈같은 노르께한 작은 눈이 똑바로 보지 않고 방안을 두리번거리는것이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이였다.
《련락병을 교체해야 하겠군.》 하고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헨리흐는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참모부로 떠났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로서 헨리흐는 대좌의 직접적지시하에 있었으며 그때문에 매일 아침 이러저러한 임무를 받기 위하여 자기 상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였다. 지금까지 베르트골드는 헨리흐에게 힘에 겨운 일을 맡기지 않았다. 사소한 과업들은 참모부를 나가지 않고도 능히 완수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야회가 있은 전날 밤 대좌는 헨리흐에게 더 복잡하고 책임이 중한 과업을 주겠다는것을 예고해주는것이였다.
베르트골드는 벌써 사무실에 나와있었다. 헨리흐는 대좌가 무슨 일때문인지 흥분하고있다는것을 즉시에 알수 있었다.
《마침 잘 왔소! 지금 데리러 보낼가 하던 참이였소.》
헨리흐는 시계를 보았다.
《대좌님, 지금 정확히 아홉십니다. 일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좌님께서 오늘 지나치게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게 말이요!》 대좌는 침울하게 말했다.
《전선에서 무슨 좋지 못한 소식이라도 있었나요?》 헨리흐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베르트골드는 대답을 피하고 방안을 왔다갔다하다가 헨리흐 맞은켠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자넨 우리가 〈철권〉이라고 부르는 작전에 대해서 알고있었나?》
《저는 대좌님께서 직접 그러한 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참모부성원으로 되여있지 못한 조건에서 그러한 작전에 참가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 그렇다고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것으로 저를 치부하시지는 마십시오. 부하로서 넘어서면 안될 일정한 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철권〉 작전은 끝났소. 그런데 사태는 우리가 예견했던바와는 전혀 다르게 되였소. 공격개시 두시간전에 로씨야군대가 이 구역에 미증유의 강대한 포화력을 들씌웠는데 지금까지 그곳에 없었던 로케트포까지 리용하였단 말이요. 약 15분동안에 적들은 돌파를 위하여 집결되였던 우리 부대들을 문자그대로 싹 쓸어버렸단 말이요. 포사격이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수십대의 폭격기가 이 구역을 폭격하여 일을 끝장내고말았소. 비행기가 사라지기 바쁘게 우리의 격파당한 잔여부대를 향해서 로씨야땅크들과 기계화보병들이 나타나 포사격과 폭격의 두가지 선행한 타격에서 살아남은 유생력량을 문자그대로 소탕해버렸소. 다행히도 로씨야군은 이 승리를 리용하여 공격을 더 하지 않고 이전 진지로 돌아갔소. 끄른도르프사단은 극도로 곤난한 처지에 놓여있소. 왜냐하면 로씨야군은 타격조와의 전투를 끝내고 자기의 모든 예비를 그쪽으로 돌렸기때문이요. 그 사단, 더 정확히 말해서 사단의 남은 력량은 최고사령부예비대가 구출하였소.》

대좌는 지도에서 물러나 쏘파에 앉았다.

《어저께 자네에게 장교의 군사칭호가 수여된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술을 마시고있었을 때 로씨야사람들은 이미 일을 다 끝장내고있었소. 자네도 아마 눈치챘겠지만 나를 포함해서 몇명의 장교가 야회에서 직접 참모부로 오라는 부름을 받은것도 그때문이였소.》

《저도 알기는 하였지만 대좌님이 그저 휴식하시기 위하여 나가시는가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소!》

《대좌님의 심중을 충분히 리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권〉 작전이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헨리흐는 초조히 물었다.

대좌는 대답을 끊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오래동안 깐깐히 문질렀는데 그것은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더 잘 궁리해보기 위하여 시간을 끌자는것 같았다. 대좌는 조심조심 말을 시작하였다.

보다싶이 로씨야군대가 계속 이동하고있었다면 이 구역에서의 공격을 계획할수는 없었을것이요. 그러므로 포병대, 항공대, 기계화보병들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사전에 집결하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요. 즉 우리의 작전지도외에 다른 한개 지도가 쏘베트군지휘부에 있었다는것이 분명하단 말이요. 그런데 슐쯔소좌가…》

《그러니까 슐쯔소좌는 그 다른 한개 지도를 로씨야군에게 넘겨준것이 나라는것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네?》 헨리흐는 격렬하게 말했다. 헨리흐는 어찌나 세게 의자등받이를 틀어잡았던지 의자가 떨릴 정도였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암시를 하려고 했을뿐이야. …》

《그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헨리흐는 미친듯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되였으며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을 앙다물었으며 눈에는 피대가 섰다. 손은 경련적으로 권총집을 잡았다. 그는 정신없이 문쪽으로 달렸다. 만일 대좌가 문턱에서 강제로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달려나갔을것이였다.

《서게! 자넨 군대라는걸 잊었나!》 하고 베르트골드가 무섭게 웨쳤다.

그는 헨리흐의 손에서 강제로 권총을 나꾸채서 자기가 직접 권총집에 집어넣고 고리를 채웠다.

《진정하라구! 슐쯔의 암시는 자그마한 후과도 없었단 말이야. 모두가 다 그것을 어리석은 불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참모장 다니엘소장도 그에게 주의를 주었소.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겠소. 슐쯔는 바로 여기서 회의를 할 때 땀을 빼고 나에게 용서를 빌었네.》

헨리흐는 쏘파에 앉아 두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방바닥을 침울하게 보고있었다.

《그렇게 하는게 좀 나을걸세! 얼마간 앉아서 모든 점에 대해서 침착하게 생각해보게. 그래, 자네는 무엇을 원하나? 스물두살인데 이미 조국앞에 일정한 공로를 세웠지, 중위지, 게다가 상당한 자본의 소유자이지. 그런데 슐쯔는 그럴듯한 례복 한벌 구할수 없는 형편이야. 돈에 대한 그의 탐욕심은 유명하지. 그가 어찌 출세의 앞길이 훤히 열려있는 젊고 돈이 많은 자네를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말일세.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구. 내가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한것은 우리 나라 어디서나 횡설수설과 밀고가 성행하고있다는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네. 자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네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러워할것일세.》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슐쯔와 담판을 하겠습니다.》

헨리흐는 무섭게 덤비였다.

《나는 상관으로서 그것을 엄금시킬뿐이네. 자네의 아버지를 대신하고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충고하는것은 아닐세. 자네는 그 일을 무시해버릴수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네.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란 말일세. 약속할수 있나?》

《그러나…》

《〈그러나〉가 절대로 있을수 없어. 그런 눈치도 보이지 않겠다는것을 장교답게 약속하세.》

헨리흐는 말이 없었다.

《약속하겠지?》

《대좌님…》

《나는 장교의 언약을 요구하네. 다시말하지만 나는 자네 부친의 친구일뿐만아니라 자네의 상관일세.》

《좋습니다. 그 문제로 말썽이 나지 않게 할것을 장교답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 슡쯔에게 〈사의〉를 표할 권리를 간직하고있겠습니다.》 헨리흐는 침울하게 말하였다.

《그럼 약속이 되였네! 이젠 우리가 서로 리해를 하였으니 다른것을 토론하세.》

《어저께 무슨 과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헨리흐가 상기시켰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자네하고 토론해보자는거야. 주의해서 들어주게. 문제는 새 작전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작전준비에 대한 문제일세. 이번 작전은 규모에 있어서 실패한 〈철권〉작전보다 다소 작은것이지만 그것이 대빨찌산부대소멸과 관련된만큼 일정한 특성과 곤난성이 있는것일세.》

《다만 그것뿐입니까?》 헨리흐의 목소리에는 실망한 기분이 어리여있었다.

《다만 그것뿐인가구. …》 대좌는 기가 막힌듯 그의 말을 되풀이하더니 문득 열을 올려 말했다. 《자넨 여기 온지 얼마 안되니까 누구나 이 저주로운 땅으로 다니는데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야 하는가를 아직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군. 전선이 오히려 더 낫소. 전선에서는 적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거리로 다니거나 사무

실에 앉아있거나 자리에 누워있거나 임의의 순간에 적이 나타날수 있단 말이요. …》

《모르겠는데요! 전유럽을 승리적으로 정복한 도이췰란드군대가 후방에 있는 빨찌산을 소멸할 힘이 없단 말입니까?》

베르트골드는 랭소하였다.

《어느때 화재가 난것을 본 일이 있나?》 하고 대좌는 뜻밖에 물었다.

《물론 본 일이 있습니다.》

《집이 탈 때, 집뿐이 아니라 온 구역이나 마을이 불탈 때에도 불과 싸울수 있소. 소방대가 와서 목적물을 포위하고 불이 번져가지 못하게 하면 화재는 진압되는 법이요. 그러나 초원이 불탈 때, 광대한 수림이 불탈 때에는 소방대도 어쩌는 수가 없소. 그런 화재는 있는것을 몽땅 태워버리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것이요. 빨찌산운동이란 바로 초원의 화재와 같은거요. … 아니, 건조한 수림의 화재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게요. 여기에서는 보통방법으로는 안되오. 여기에는 극히 사소한 점에까지 빈틈없이 연구한 특별히 준비된 작전과 같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오! 자네는 웃고있군!》

《용서하십시오. 경험이 없는 저를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

《자네가 주어진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리해하게 하기 위하여 전반적정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겠소. 마리야노브까촌으로부터 동남방향에 로씨야사람들의 큰 빨찌산부대가 자리잡고있소. 그곳이 우리 군단의 후방인만큼 그 부대를 소멸하는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이요. 그리고 지금이 그것을 해내기 위한 가장 유리한 시기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철권〉작전시에 격파된 44사와 12사의 잔여부대를 마리야노브까구역으로 배비변경하고있기때문이요. 빨찌산을 소멸하는데 그 부대들을 리용하자는 허락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오. 빨찌산부대의 수효에 대해서는 매우 모순된 자료가 있을뿐이요. 그러나 상당히 큰 부대이고 무장도 잘되였고 쏘베트군 지휘부로부터의 부단한 지원을 받고있다는것만은 의심할바 없소. 이 모든것은 우리가 될수 있는대로 작전에 대한 준비를 잘할것을 요구하는것이요. 이제는 이 준비에서 자네가 맡아야 할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배비변경해오는 부대들만 믿을수는 없소. 모든 가

능한 방법으로 힘을 강화해야 하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개별적부락들에 배치되여있는 경찰을 계산에 넣고있소. 전체 경찰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두개 대대를 조직할수 있는데 그것을 역시 빨찌산부대소멸에 돌리기로 하였소.》

《이제야 저는 자기 눈으로 빨찌산을 한사람이라도 볼수 있게 되였군요.》

《자네가 그들을 보기보다 먼저 그들이 자네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게! 그들은 사격을 매우 정확히 하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운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그러나 다 무사히 되겠지. 자네에게 승용차 한대와 병사 15명과 기관총 두문을 설치한 장갑차를 한대 주겠소.》

헨리흐는 어깨를 으쓱하였으나 반대하지는 않았다.

《자네의 임무는 경찰이라는자들이 배치되여있는 장소를 한바퀴 돌아서 그들의 전투능력을 알아내는것이요. 돌아와서 인원수, 무장, 기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서면으로 나에게 보고하오. 그 자료가 정확해야 우리가 림시 〈푸른 산보〉라고 명칭을 붙인 작전을 얼마만 한 력량으로 시작할수 있는가를 알수 있는것이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볼만 합니까?》

《무어요?》

《대좌님께서는 경찰이라는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는데 경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좋게 생각하지 않느냐구? 그건 너무 약한 표현이요!》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을 무장시키고 조직하나요?》

베르트골드는 불쾌한듯 씽긋 웃었다.

《모든 주민지점에 위수부대를 다 두기에는 우리의 력량이 부족하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둘째로, 그것이 중요한 조건인데 경찰에 뽑힌자들은 빨찌산의 가장 악독한 원쑤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 그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빨찌산과 싸우지 않을수 없는것이요.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대부분 흐리터분한 사람들과 쏘베트군대탈주병들로 모집한것이요. 탈주병이란 우선 비겁분자인데 비겁분자란 그가 어떤 복장을 입던지 자기의 본성을 고칠수는 없는것이요. …》

《언제 임무수행에 착수하랍니까?》

《한시간후에 출발준비가 다될거요. 오늘과 래일 검열을 하고 글피 아침 열시에 보고하시오. 〈푸른 산보〉작전은 불의에 시작될수 있소. 부대들은 비상소집을 할것이요. 겸사해서 경찰부대도 비상소집을 해서 동원상태를 검열해보시오. 특히 뽀드고르니마을구역에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뽀드고르니로부터 이와노브까에 이르는 구역의 산림을 봉쇄할것을 지시해주오. 당면한 작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아서 안될것은 물론이고 짐작을 해서도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오. 알았소?》

《알았습니다. 돌아갈만 합니까?》

《가서 좀 휴식하도록 하오. … 잠간, 하마트면 잊어버릴번 했군. 오늘 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는데 자네에 대한 글줄이 있더군. 바로 여길세.》

베르트골드는 필요한 장소를 손톱으로 표시하고 그우를 접은 다음 헨리흐에게 내주었다. 헨리흐는 표식된 글줄을 한번 훑어보고 감동어린 눈으로 대좌를 쳐다보고나서 천천히 다시 읽어내려갔다.

《전 지금 당장 엘자부인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헨리흐는 편지를 돌려주면서 격동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야 자네 마음에 달린것이지. 나도 답장을 보내려고 하던 참인데 원한다면 몇줄 쓰라구. 여기 내 방에서 쓰지.》

헨리흐의 편지는 몇줄의 글로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존경하는 베르트골드부인! 방금 저는 베르트골드대좌님에 의하여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처해있습니다. 대좌님께서는 사모님께서 보내신 편지에서 저에 대하여 쓰신 부분을 읽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저는 무한한 흥분속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존경하는 사모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하고계시며 제가 전혀 외로운 몸이 되였다는것을 아시고는 친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저를 동정해주시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또다시 가족이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더없이 행복합니다. 대좌님께서는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주시고있으며 저

는 대좌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제 어머니까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누이동생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가요? 제가 비록 어렸을 때이지만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뵈옵던 그때 저를 친절하고도 인정깊게 대해주시던 그 일이 저의 기억속에 력력히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을겁니다. 사모님께 많은것을 쓰고싶습니다. 더우기 한번 직접 뵈옵고싶습니다. 저는 그 상봉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 상봉의 날이 빨리 올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봉의 그날이 오기 전에 사모님의 간단한 편지를 받는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로르헨에게 입맞춰주십시오. 저의 기억에는 애기때의 로르헨이 간직되여있답니다. 만일 로르헨이 저를 생각해서 편지를 써보내준다면 저는 오빠로서 그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을줄 압니다.

내내 옥체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아들
폰 골드링남작

헨리흐는 다 쓴 편지를 대좌에게 보였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좌님! 지나치게 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넨 례절있고 사랑하는 아들답게 썼네!》 대좌도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헨리흐에게로 다가서서 그를 포옹하였다.

《자, 이젠 가보게. 길떠날 시간이 되였어. 자동총을 가지고 가는걸 잊지 말라구.》

헨리흐가 문턱을 넘으려 할 때 베르트골드는 다시한번 그를 불러세웠다.

《한가지 흥미있는 소식을 알려준다는걸 잊었댔군. 쏘련의 법정에서 자네를 결석재판했는데 조국반역죄로 총살에 처했다고 하데. 꾸비쓰대위가 내게 알려주었네. 그는 첩보부문에서 일하고있네. 우리 정탐이 아직은 좋은 첩자들을 가지고있는데…》

《정말 흥미있는 소식입니다!》 헨리흐는 웃었다. 그러나 문득 웃

음을 그쳤다. 그의 얼굴은 준엄해졌으며 그의 눈은 날카롭게 번쩍였다.

(나는 임의의 정황속에서 죽을수 있다. 우리의 세계에서 그것을 보증할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한가지만은 확고히 알고있다. 내가 결단코 조국의 반역자로 되지는 않으리라는것을…)

헨리흐는 구두뒤축을 척 붙이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다.

베르트골드와의 담화는 그를 흥분시켰다. 베르트골드의 참모부에서 공작하기 시작한 첫시기는 아무러한 의심도 살것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 그를 고발하다니! 사실 대좌가 그의 손가락지문을 받을 때는 그가 의식적으로 상우에 놓인 지도를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누가 쏘베트군지휘부에 작전계획을 전달할수 있었단 말인가?

뽀드고르니에서의 사건

빨찌산참모부에서는 도이췰란드장교를 선두로 한 자그마한 도이췰란드부대가 뽀드고르니마을로 왔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에 앞서 그들은 쏘련군지휘부로부터 라지오를 통해서 새 과업을 받았다. 그 과업인즉 최근에 있은 작전의 실패로 붕괴상태에 있는 도이췰란드군을 교체하여 새 력량을 투입하는것을 백방으로 저애하며 또한 어떻게 해서나 도이췰란드군지휘부의 계획을 탐지하며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도이췰란드군대의 혀를 잡으라는것이였다.

부대가 도착한것을 통보한 련락병은 군단참모부가 자리잡고있는 뚜르나비노촌으로부터 자동차가 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부대를 지휘하는 중위는 참모부장교이리라는 추측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은 바로 좋은 혀를 잡기 위해서 안성맞춤이라 할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이췰란드지휘부의 기도를 참모부성원보다 더 많이 알 사람은 없기때문이였다.

두개 중대를 전투에 인입시키고 뽀드고르니마을을 포위하여 어떻게 해서나 장교를 생포하기로 결정되였다.

다른 마을들에서 온 련락원들도 어저께 그들의 마을로 장갑차와 승

용차가 왔다는것과 장교가 경찰부대를 소집하고 지시를 주더라는것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분명 빨찌산을 반대하는 무슨 큰 작전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이 뻔했다. 그러니 도이췰란드장교를 생포하는것이 2중으로 필요하게 되였다.

뽀드고르니에서 히틀러군대를 공격할 임무를 받고있는 두개 중대외에 자동총수들을 보내서 뽀드고르니로부터 뚜르나비노와 특히는 마리야노브까로 통하는 길을 차단할 임무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그곳에 경찰들뿐아니라 도이췰란드병사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위수부대가 주둔하고있기때문이였다. 이 자동총수조들에는 도이췰란드군대가 자기 부대를 돕기 위하여 뚜르나비노나 마리야노브까로부터 보내올수 있는 적부대들을 제지하며 둘째로는 뽀드고르니에서 공격당한 히틀러도당이 만일 도망칠 돌파구를 여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할 두가지 임무가 주어진것이였다.

작전은 즉시에 시작해야 하였다. 그것은 련락원이 알려준 자동차가 매개 마을에서 지체한대도 한시간반이나 두시간밖에 시간이 없기때문이였다.

빨찌산숙영지에서 뽀드고르니까지는 10키로쯤 되는데 7키로만이 수림지대이고 3키로는 개활지대였다.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로 한 빨찌산부대장은 수림지대를 벗어나자마자 자기 부대를 두개로 나누어 되도록 빨리 마을을 포위하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말을 달릴것을 명령하였다. 히틀러도당이 위험성을 눈치챌수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부대장도 근심하지 않았다. 서쪽은 큰 진펄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있었는데 그 진펄은 자동차로도 말을 타고도 통과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걸어가는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이였다. 왜냐하면 진펄이 심하게 수렁졌고 그곳을 통과할수 있는 오솔길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기때문이였다. 따라서 히틀러도당에게는 전투를 하거나 (그것은 빨찌산에게 유리한것이였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는 길밖에 없었다. 그들이 리용할수 있는 두 길은 다 진펄옆을 통과하는것이였다. 한길은 북쪽으로, 뚜르나비노로 가는 길이고 또 한길은 남쪽으로, 마리야노브까로 가는 길이였다. 빨찌산들은 이 퇴각로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말을 달렸으며 그다음에 산개해서 뽀드고르니에 대한 공격을 할 작정이였다.

뽀드고르니에 와서 헨리흐는 다른 장소에서보다 약간 시간이 더 걸렸다. 도중에 식사를 할 기회가 없었기때문에 경찰지서장 바라노브쓰끼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초청한데 대해서 쾌히 응한것이였다. 더우기 구역경찰서장인 월프는 바라노브쓰끼가 믿을만 한 사람일뿐아니라 자기 손님들 특히는 장교어른들을 대접할줄 아는 인사성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것이였다. 골드링을 호위해온 자동총대의 지휘관인 부체르는 처음에 뽀드고르니에서 지체하지 말고 해있을 때 참모부로 돌아가자고 주장한것은 사실이였으나 바라노브쓰끼가 손님대접을 잘한다는 부체르의 구수한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자신도 이런 유리한 기회를 리용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키가 크고 동작이 굼뜬 바라노브쓰끼는 자기 집에서 다름아닌 남작자신이 식사를 하게 되였다고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손님들에게 앉을 자리를 권하고나서 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분주히 돌아쳤다. 그의 껑충한 형상이 그래서 더 우습게 보였다. 그가 입고있는 소매에 흰 띠를 두른 낡은 도이췰란드제복은 청년들에게 맞게 지은것이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입을것은 고려하지 않은 모양이였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그 배를 도저히 제복안에 숨길수 없었다.

가운데단추는 자주 벗어져서 채워진것은 우와 아래쪽단추들뿐이였다.

바지앞섶의 터진 구멍으로 흰 내복이 삐여져나와 도무지 도이췰란드제복에 어울리지 않았다. 골드링은 이것을 보자 그가 모범적인 경찰이라던 말이 생각나서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바라노브쓰끼는 부인에게 새끼돼지를 구워놓으라고 명령하였으며 손님이 베를린에 가서도 생각할만 한 만찬을 준비하라고 독촉하였다. (경찰서장은 골드링이 로어를 모르는줄 알고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였다.)

그다음 바라노브쓰끼는 월프의 명령대로 밀정명단을 작성하였다. 헨리흐는 그가 검열한 매개 부락에서 그런 명단을 받았다.

명단이 다되였을 때 헨리흐는 비상소집신호를 주라고 명령하였다. 3분후에 뽀드고르니촌 경찰부대가 정렬하였다.

《명단에는 스물세사람인데 어째 대렬에는 스물한명밖에 없는가?》 헨리흐는 바라노브쓰끼와 월프를 거느리고 대렬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스물두번째고 종루보초가 스물세번째입니다!》 하고 바라노브쓰끼가 아첨조로 말하였다.

골드링은 종루쪽을 보았다. 정말 그곳에도 경찰이 서있었다. 그자는 망원경을 눈에 대고 먼곳을 보고있었다.

《빨찌산들이 자주 찾아오는가?》

《아직은 무사했습니다만…》

바로 이때 종루에서 보초의 총성이 울렸다.

《아! 하느님맙시사!》 하고 바라노브쓰끼가 웨치더니 어째서인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털썩 주저앉았다.

골드링이 월프와 함께 종루로 달려가니 거기서는 망원경없이도 주위에서 벌어진 일이 다 보였다. 수없이 많은 기마병들과 빨찌산들을 태운 짐수레들이 마을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있었다. 몇명의 기마병과 기관총을 실은 마차가 앞서서 달리고있었는데 그들은 벌써 가까이에 와있었다. 아마도 보초가 아래쪽에 정렬하고있는 경찰을 보느라고 제때에 빨찌산을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였다.

골드링은 서쪽을 보았다. 그곳에는 갈대가 우거진 진펄이 있었다. 한순간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무슨 계획을 궁리하는듯 진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무엇인가 결심한듯 종루에서 급히 달려내려와 대원들에게 전투준비를 시키고있는 부체르에게 명령하였다.

《경찰대에 대한 지휘를 맡으시오. 자동총수들과 함께 북쪽 뜨르나비노쪽으로 빠지시오. 그 방향에 적의 력량이 좀 약한것 같소.》

《그러면 중위님은 어떻게 할셈인가요?》

《내 걱정은 말고 명령대로 집행하시오.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월프에게 명령하였다. 《아니, 먼저 바라노브쓰끼 집으로 달려가 내 비옷을 가져오오, 빨리!》

월프가 비옷을 가지러 갔다오는 동안 골드링은 경찰서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중위는 이 위급한 시각에도 매우 침착하였다. 월프가 상우에 놓고간 명단묶음을 급히 집어 서랍안에 넣었다. 월프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을 때 골드링은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중위님, 서두르십시오! 들리지 않습니까? 벌써 총을 쏩니다!》

《쏠테면 쏘라지! 우리는 전투에 참가하지 말고 진펄로 갑시다. 우

리는 어떻게 해서나 수집한 자료를 참모부까지 가져가야 하오. 우리의 유일한 출로는 진펄을 곧바로 뚫고나가는것이요.》
헨리흐는 몸을 숙이고 진펄로 달려갔다. 마흔살이 된 뚱뚱한 월프는 겨우 그를 따랐다. 그러나 남작은 훌륭한 경주자였을뿐아니라 참된 전우였다. 월프가 뒤떨어지는것을 보자 그는 걸음을 늦추고 동행자를 기다렸다.
《당황하지 마시오, 월프! 코로 숨을 쉬시오. 팔을, 팔을 휘저으시오! 이렇게 말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월프는 감사히 여기는 심정으로 중위를 보았다. 그렇게 하니 정말 더 빨리 달릴수 있었다. 중위의 충고가 은을 낸것이였다.
그때쯤에는 마을쪽에서 총소리가 더욱 심해졌다. 자지러지는듯한 기관총소리에 자동총련발사격이 합치였고 잠시후에는 수류탄폭발소리도 들렸다.
《어서! 어서! 월프! 우리를 구원해줄것은 속도밖에 없소!》 중위는 숨이 턱에 닿은 월프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진펄에 다달았다.
《내 발자욱만 따라오시오! 한걸음이라도 옆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골드링은 이렇게 명령하고 용감하게 빽빽한 갈대숲으로 들어섰다. 한 백걸음 걷고나서 중위가 돌아보니 월프는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있었다. 너무나 공포에 떨어서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였다. 더우기 한번 빠지면 살아나지 못하는 무서운 진펄로 중위의 발자욱을 따라 한걸음한걸음 걸어야 하는것이다.
《몇분동안 숨을 돌립시다.》 헨리흐는 걸음을 멈추고 몇번 코를 통해서 깊이 숨을 들이쉬였다.
《중위님, 우리 사람들이 뚫고나갈수 있을가요?》 좀 쉬고나서 월프가 물었다.
《글쎄 근심이요. 력량이 지내 대비가 안되거던. 참, 월프! 그 밀정과 경찰명단이 어디 있소? 그 자료묶음을 당신이 사무실 상우에 놓은것 같던데…》
월프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였다.
《난… 난 생각하길 중위님이…》
《그러니까 잊어먹었단 말이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만

하오?》
《그러나 난 생각하기를…》 월프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거릴 뿐이였다.
《잘도 생각했소! 그 명단이 빨찌산의 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줄 아오? 이에 대해서 당신이 대좌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생각해봤소?》
《중위님! 동정해주시오! 날 버리지 말아주시오! 그 복새통에 무슨 명단에 대해서 어찌 생각할수 있었겠습니까? 제발 그것을 부체르가 가지고있었다고 해주십시오!》
멀리서 웨침소리와 절망적인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기관총의 련발사격이 잠잠해지고 단발사격소리만이 들렸다.
《너절하게 됐는걸! 창격전이 시작됐군!》 골드링은 밸듯이 말하고 급한 걸음으로 진펄깊이 들어갔다.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 할 때 인간의 힘을 측정할수 있겠는가? 월프는 온밤 무릎까지 오는 물속으로, 수렁진 진펄에서 겨우 발을 뽑으며 물신물신한 땅이 그의 몸무게를 받아 자꾸 흔들거리기때문에 감히 걸음을 멈추지도 못하고 한걸음 잘못 디디면 진펄속에 영영 빠져버릴 위험한 길을 헤쳐나올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도 못했을것이였다. 더우기 그는 어제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은것이 없어 맥이 진할대로 진한것이였다. 중위는 때때로 갈숲속에서 그 혼자만이 알고있는 무슨 풀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듬어서 먹는가를 월프에게 가르쳐주면서 권하군 하였지만 월프는 그것을 먹으면 구역질만 나는것이였다. 게다가 손이 몹시 아팠다. 중위의 손도, 월프의 손도 사초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생겨 피투성이가 된것이였다. 월프는 숲이 우거진 진펄로 걸어가는것이 그렇게까지 위험한줄은 도저히 상상도 못했다.
《중위님! 이렇게 오래 가야 합니까?》 이미 날이 밝게 되였을 때 기진맥진한 월프가 이렇게 물었다. 그는 추워서 몸이 새파랗게 되였고 벌벌 떨었다.
《진펄쪽으로 쏘는 총소리를 들었지요. 아마 우리를 찾고있을겝니다. 우리는 빨찌산이 가버렸다는것이 확실할 때까지 여기서 나가면 안됩니다.》

《우리는 또 되돌아가야 하나요?》

《잠자코 나를 따라오시오!》

골드링자신도 맥이 진했다는것을 느꼈다. 그도 겨우 걸음을 옮겼으며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그러는지 혹은 숨을 돌리느라고 그러는지 자주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내 헨리흐는 멈춰섰다.

《자동차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기 서있읍시다.》

《여기서 들릴라구요?》 월프는 희망없다는듯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도로에서 백메터쯤 되는 곳에 와있습니다. 대좌의 명령에 의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돌아갔어야 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아침일찍 도착할수도 없습니다. 참모부에서는 놀랐을것이며 늦어도 아홉시전에 수색이 시작될것입니다. 열시쯤에는 병사들이 탄 자동차가 여기로 올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일찍 방조의 손이 미쳤다. 골드링은 그가 돌아가는 문제가 대좌뿐만아니라 제1부의 아니, 전체 참모부의 관심사로 되고 있었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이였다.

기다리던 골드링이 오지 않게 되니 베르트골드는 밤 세시에 그의 방에 들렸다. 그리고 중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자 그는 전체 참모부를 일떠세웠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강력한 기계화보병부대가 뽀드고르니방향으로 떠난것이였다.

항상 단정하고 멋쟁이로 차리고 다니던 참모장교 폰 골드링이 기진맥진하고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 붕대를 감으니 도저히 알아보기 힘들었다.

골드링은 온밤을 정신모르고 잤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눈을 떴을 때 첫번으로 본 사람은 베르트골드였다.

《누워있게, 누워있어. 더 쉬라구! 월프가 내게 다 보고했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그런 빨찌산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걸세. 우린 이 저주로운 나라를 떠나게 되였네!》 큰 비밀을 알리듯 작별할 때 베르트골드가 귀속말로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군단이 프랑스로 이동하네!》

꾸비쓰의 간계

적당한 건물이 없었기때문에 자그마한 촌병원이 2중적인 부담을 지게 되였다. 낮에는 장교들이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때에는 큰 방에 식탁을 T자형으로 놓았다. 식사때에는 상급지휘부의 대표성원들이 앉고 상관과의 개별적인 친분관계와 군사칭호등급에 따라 차례로 앉았다. 그러나 저녁때에는 그러한 복종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 그때에는 식탁을 두개씩 혹은 하나씩 따로따로 놓고 술을 마시거나 투전노름을 하는데 따라 무질서하게 앉는것이였다.

그런 때에는 약냄새와 소독내가 특별히 느껴지게 되는데 그 냄새는 벽을 긁어내고 마루바닥을 닦아내고 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그 냄새는 술을 마신 뒤에 입맛을 텁텁하게 하는것이였다.

빠울 꾸비쓰대위는 오늘 그 냄새에 기분이 상했다. 그 냄새는 그로 하여금 이딸리아국경도시의 자그마한 정거장을 회상케 하는것이였다. 도이췰란드군대 장령인 자기 삼촌의 부름을 받고 도이췰란드로 떠나온것이 바로 그 정거장에서였다. 혹시 그 정거장에서도 역시 독한 소독내가 풍기였었기때문에 꾸비쓰가 그 생각을 하게 된지도 몰랐다. 하여튼 그때 그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2년동안이나 로마에서 류학하였으며 종교계에서 출세할것을 꿈꾸고있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변동되게 되였으니 무리도 아니였다. 승려의 직업대신 정탐사업을 하게 된것이다. 꾸비쓰는 승려복을 벗어던진것이 아수하지는 않았다. 그의 몸에는 군복이 더 어울렸다. 군복의 검은 깃은 그의 흰 얼굴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런지 눈이 더 깊어보였다. 클라라양은 그 눈이 수수께끼같다고까지 말하고있다. …

그러나 역시 로마에서 공부하던 두해가 아까왔다. 그때에는 출세에 대해서 믿었으며 많은 점에서 자기가 매우 흥분하고있었던것은 사실이였다. 그는 비록 한번이라도 그때와 같이 초조한 기대, 정열을 느껴보고싶었다. 이제는 얼마나 감정이 흐리멍텅해졌는가! 지금 그가 흥분을 느끼는 때는 오직 한가지 경우인데 그것은 투전노름을 할 때 화투장을 처음 펼치는 때였다.

빠울 꾸비쓰는 상대자를 구하느라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저 골드링 남작을 한번 끌어올가? 그에게는 돈이 넘어날 지경이라는데. 하여튼 정신을 잃지 말고 타산적으로 놀아야 하는데…

최근 꾸비쓰는 노름에서 운수가 나빴다. 매번 노름을 놀 때마다 그는 잃은 돈을 몽땅 다시 찾을것만 같은 전변이 닥쳐올것을 믿군 하였다. 운수가 트이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였다. 혹시 바로 오늘이 그런 기회나 아닌지…

꾸비쓰는 골드링이 무엇인지 끄껜뮬레르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남작, 내 짝패가 돼주지 않겠소, 물론 화투놀이를 하겠지요?》

골드링은 두팔을 벌려보이면서 진정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참 안됐습니다. 난 모르는데요. 전혀 백지랍니다. 꼭 배웠으면 합니다만…》

《만일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 짝패가 되지.》 하고 끄껜뮬레르가 말했다.

《또 누굴 청할가?》

《슐쯔는 물론 넣을수 있고 웨르네르가 있지 않아.》 하고 끄껜뮬레르는 주위를 둘러보다 이렇게 말하며 《웨르네르! 자네 화투장을 가려볼줄은 알지?》 하고 물었다.

한쪽식탁에서 침울하게 술을 마시고있던 웨르네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고 흐리멍텅하였으나 몸가짐은 빨랐으며 모든 동작이 마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정확하였다.

끄껜뮬레르가 의자를 벌려놓았다. 그는 오늘 매우 기분이 좋았으며 흥분하고있었다. 오늘 아침 그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포를 꾸려보냈는데 이번에 보낸것은 시시한 옷감들이 아니라 진짜 값진것들이였다. 그는 오늘이 자기에겐 행복한 날이니까 운수가 좋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슐쯔는 마치도 이제부터 화투놀이를 하는것이 아니라 무슨 중대한 사업에 착수하기나 하듯 아주 점잖게 자리를 잡았다.

《옆에 앉아서 조금씩 배워도 일없겠지요?》 하고 골드링이 꾸비쓰에게 물었다.

꾸비쓰는 노름을 놀 때 누가 자기 화투장을 들여다보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신경을 자극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남작이

모처럼 그러는것을 반대할수도 없어서 친절히 그에게 의자를 내밀어 주었다.

노름이 처음에는 시들하게 진행되였다.

꾸비쓰는 지내 몰두하지 않기로 한 자기 계획을 잊지 않고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게 조심성있게 놀았다. 끄껜뮬레르에게는 좋은 패장이 들지 않았다. 슐쯔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를 엿보고있었다. 다만 운이 오르기 시작한 웨르네르만이 점점 열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모험을 하였으며 생각지도 않던 수를 썼으며 매번 돈을 따서 모든 사람들을 놀래우군 하였다. 꾸비쓰도 역시 열이 올랐다. 조심하자던 자기 결심을 잊어버리고 돈을 곱으로 붙였다. 그러나 패장이 시시하게 들어왔다. 더우기 그의 짝패인 끄껜뮬레르가 연방 실수를 거듭하였다. 흐뭇해진 슐쯔는 상밑에서 손을 비비였다. 슐쯔와 웨르네르는 이미 많은 돈을 땄다. 꾸비쓰는 정신을 잃은 사람같았다. 노름판을 끝낼것이 선포되였을 때 그는 자기가 따야 할 점수를 절반도 따지 못한것이였다.

이번에도 꾸비쓰는 운수가 좋지 못했다.

슐쯔와 웨르네르가 기대했던대로 돈을 땄다. 끄껜뮬레르는 텁텁한 얼굴로 자기가 진 몫으로 315마르크를 상우에 내놓았다. 꾸비쓰는 하는수없이 그 깍쟁이로 소문난 슐쯔를 한구석으로 끌고가서 래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슐쯔는 자기도 래일 12시까지 체면상 돈을 물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극히 무뚝뚝하게 점잔을 빼며 대답하였다. 그가 《체면상》이라고 한말에 대해서 꾸비쓰는 그 뜻을 알만 했다. 만일 제때에 그 돈을 물지 않는다면 무사하지는 못할것이였다.

자기의 좋지 않은 기분을 숨기기 위해서 꾸비쓰는 식당에 주저앉아 골드링과 웨르네르와 함께 술을 마시였다. 슐쯔는 물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벌써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러나 웨르네르는 장교답게 처신하였다. 그는 자기 식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한턱 냈다.

그다음 골드링도 샴팡술을 두병 청해서 모두 함께 마시고 헤여졌다.

헤쳐갈무렵에 꾸비쓰는 술기운이 몹시 머리에 올라 어떻게 해서 숙소에까지 찾아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차라리 그렇게 취한것이 더 나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슐쯔에게 갚을 돈을 구할 생각에 더 머리가 아

팠을것이였다.
아침에 잠을 깼을 때는 머리가 아팠고 그 무엇인가 불쾌한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는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조차 처음에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세면을 한 후 아침상을 받고 슐쯔에 대한 생각이 났다. 그 뚱뚱보협잡군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거나 원만히 풀릴것 같았다. 단단히 걸렸거던! 체면상 지불이라구! 그자가 체면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나 하는가?
꾸비쓰는 일부러 다른 때보다 일찌기 참모부에 나갔다. 혹시 누구든 붙잡고 필요한 금액의 일부분이라도 돌릴수 있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끄겐뮬레르의 호주머니에는 20마르크가 있을뿐이였다. 돈을 꾸러 대좌나 장령앞으로 가기도 난처한 일이였다.
꾸비쓰는 자기 사무실에서 혹시 누구에게 가면 돈을 변통할수 있겠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물론 그들에게도 돈이 없을것을 뻔히 알면서 해보는 놀음이였다. 《제길할, 될대로 되라지!》 하고 그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놓고 일을 시작하였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그는 흠칫 놀랐다. 벌써 슐쯔가 왔나 하는 생각이 피뜩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시계를 보자 안도의 숨을 쉬였다.
아직 10시였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는 소리치고 합석을 씌운 문으로 다가가서 자동자물쇠를 열었다.
복도에는 골드링중위가 서있었다.
《어서 들어오시오! 참 이상두 하군. 바로 지금 나는 부탁할것이 있어 찾아갈가 하던 참인데!》하며 꾸비쓰는 진정으로 기뻐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지요. 나는 용서를 빌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요.》
손님에게 자리를 권하고 꾸비쓰는 책상우의 서류묶음을 대강 밀어놓고 옆에 있는 쏘파에 앉았다.
골드링남작이 자기를 찾아온것이 꾸비쓰에게는 천만다행이였다. 첫째로는 슐쯔에게 청산할 3～4백마르크를 융통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어째서 아까는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가?
둘째로는 베르트골드의 위임을 수행하기에 절호의 기회였다. 《극비》도장이 찍힌 서류를 상우에 그냥 놓고 금고문을 열어놓은채로 남작만 남겨놓고 잠시 자리를 뜨면 된다. 만일 골드링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지는 못할것이다. 자기는 금고옆에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장치해놓은 잠망경렌즈만 들여다보면 되는것이다. 그러면 남작을 현장에서 체포할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묘하게 꾸미는가 하는것이다. 만일 그가 사전에 준비를 하였더라면 그럴듯하게 계획대로 밀고나가면 되였을것이였다. 누구보고 자기에게 전화를 걸게 만들고 잠간만 갔다오겠다고 남작에게 용서를 빌고 나가면 될것이였다. 그때에는 자연히 모든 문제가 풀릴것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골드링이 갑자기 나타났은즉 림기응변의 술책을 쓸수밖에 다른 대책은 없었다. 무엇인가 궁리해내야 한다! 골드링을 지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것인가. 돈도 융통하고 동시에 남작을 검열도 하는 일석이조의 묘안을 꾸미기 위하여 어떻게 할것인가?
《내가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저 다른게 아니구, 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싶어 그러는데 말입니다. 내가 지도하고있는 첩보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제가 아는데까지…》
《당신은 로씨야에서 사업하였으니 로씨야사람들의 수법에 대해서 물론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쏘베트반탐기관에 우리 첩자가 폭로되여 체포되였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가 살아나올 무슨 수가 없을가요?》
《지지개판우에 놓인 물고기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기보다 더 힘들겝니다. 평화시기라면 우리 정탐이 죄를 완화시킬수 있는 이러저러한 방도를 타산할수도 있겠지만, 례컨대 성실한 자백을 한다던가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전시법이 준엄하다는것이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첩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높은 표창을 받기 위하여서 쏘베트정탐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조만해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돈에 의해서 일하는 첩자들에게 의존하고있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쏘베트정탐에서는 선발원칙이 전혀 다르다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쏘베트정탐일군들은 사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강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돈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꾸비쓰대위는 자기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있는 문제로 화제를 돌릴 구실을 찾느라고 잠시 말을 끊었다.

골드링자신이 그를 도와나섰다.

《대위님, 말씀을 가로채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한가지 대위님한테 죄송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반대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대위님이 화투놀이를 할 때 내가 좀 배우겠다고 부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옆에서 들여다보군 해서 자연히 대위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신경을 자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장기를 둘 때 누가 등뒤에서 훈수나 하면 몹시 신경질이 나군 하니까요. 그래서 전번에 대위님이 노름에서 진데는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노엽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내가 보니 좀 곤난한 문제가 있던것 같던데, 그 슐쯔와 말입니다. …》

《아, 그거 무슨 큰 문제도 아닌데! 적은 돈이라도 일시 돌려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드링은 뒤주머니에서 새 지전묶음을 꺼내들고 꾸비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거 참 안됐긴 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린 사귄지도 얼마 안되는데…》

《진정한 우애심이란 흔히 첫 상봉때부터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며 골드링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남작! 당신은 진정한 장교요! 당신의 친절한 호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물론 인차 돌려드리겠지만…》

《일없습니다. 급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50마르크인데, 이

거면 될가요?》
《되구말구요.》
꾸비쓰는 수첩장을 뜯어서 령수증을 써서 골드링에게 내밀었다.
골드링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호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이런건 전혀 필요없는건데… 그러나 정 받으라고 하면…》
《나는 이 기회에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꼬냐크를 한잔씩 들자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제 술이 깨지 않았는지 머리가 윙윙거려서…》
《해정을 하시자는데 어떻게 혼자만 드시게 하겠습니까?》 골드링은 웃으며 동의하였다.
《그럼 미안한대루 한 5분만 실례하겠습니다. 내 방까지 피뜩 갔다오면 되니까요.》
골드링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꾸비쓰는 문쪽으로 향했다.
《잠간… 비밀서류가 상우에 있는데 그냥 가십니까? 금고에 넣고 가는게 좋지 않을가요?》
《일없어요!》 꾸비쓰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당신이야 나보다 더 중요한 비밀도 관계하고있지 않소. 더우기 나는 당신의 겸손성을 아니까.》
자동자물쇠가 절컥 닫기였다. 멀어지는 꾸비쓰의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서류쪽을 힐끗 보고 담배를 꺼내 천천히 비비면서 창문쪽으로 갔다.
문밖에서 걸음소리가 들렸을 때 골드링은 마치 그 소리를 듣지 못한듯 돌아보지 않았다.
《용서하시우, 5분에 갔다온다는게 7분 걸렸군!》 꾸비쓰는 금고로 다가가서 금고문을 꽉 닫고 그다음에야 한쪽주머니에서는 술병을 꺼내고 다른쪽주머니에서는 술잔 두개를 꺼내 꼬냐크를 붓기 시작하였다.
《실패가 다시 승리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한잔 듭시다.》 하고 대위가 선포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도!》 하고 골드링은 꾸비쓰의 투를 따라 잔을 들며 말하였다.
《또 하나의 검열을 이겨냈구나!》 하는 기쁜 생각이 헨리흐의 머리를 스치였다.

슐쯔소좌의 사진첩

여러날만에 검은구름사이로 해가 나와서 땅우에 빛을 뿌리였다. 휴식시간에 장교들은 참모부뜨락으로 쏟아져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현관에서 해빛에 눈이 부시여 눈을 좁히 뜨고 해바라기를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열심히 하면서 패를 지어 뜨락을 거닐었다. 참모부입구 맞은편 길가에 설치해놓은 엄페부옆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항공습격이 있을 때는 보통 장교들이 그 엄페부로 들어가군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는 참모부의 사격명수들인 슐쯔와 끄겐뮬레르가 사격시합을 하고있었다.

시합조건에 의하여 사수는 30메터 떨어진 엄페부의 흙표면에 세워놓은 유리병의 모가지를 쏴떨구어야 하는것이였다. 정확하게 맞힌 경우에는 상대자에게서 꼬냐크 두병이나 또는 그만한 값을 받는다. 만일 총알이 병모가지에 맞지 않고 그저 병을 맞히면 사수는 상대자에게 꼬냐크 한병을 내야 하며 만일 총알이 전혀 목표에 맞지 않을 때에는 벌로 꼬냐크 두병을 내야 한다.

첫번으로 끄겐뮬레르가 쏘았다. 상등병에게서 대형권총을 받은 대위는 그것을 깐깐하게 살펴보고나서 목표를 향하여 모로 서더니 열심히 묘준하였다.

사격! 병보다 약간 오른쪽우에서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다. 끄겐뮬레르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묘준하였다. 이번에는 총알이 병 한복판에 맞아 병을 깨버렸다. 셋째 총알 역시 병을 깨뜨렸을뿐이였다.

《벌금! 4병! 상금은 한병도 없음!》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장교가 웃으며 소리쳤다.

《요다음번엔 진것까지 봉창하겠소. 이제야 총의 성질이 알리거던.》 끄겐뮬레르는 침착히 한마디 하였다.

《참모부장교들에겐 유익한 운동이야!》 하는 말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모두 돌아보았다. 참모장 다니엘소장과 베르트골드대좌가 모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

슐쯔소좌가 시합조건을 설명했다.
《헨리흐, 자넨 참가하지 않나?》 모여있는 사람들중에 골드링이 끼여있는것을 알아보고 베르트골드가 묻는것이였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당도하였을 때에는 시합이 이미 시작된 때였습니다.》
《골드링중위, 상관없습니다. 첫 돌기가 시작되였을뿐이니까요. 더우기 나는 큰 상품을 좋아하는데요.》 하고 슐쯔가 롱을 하였다.
《꼭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헨리흐가 물었다.
슐쯔소좌는 만족한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대신 권총을 헨리흐에게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번은 소좌님 순번입니다. 난 그다음에 쏘겠습니다.》
슐쯔소좌는 별로 묘준도 하지 않고 연거퍼 세방을 쏘았다. 첫발에는 병이 깨지고 둘째 총알에 병모가지가 끊어지고 셋째 총알은 병옆으로 달아나 맞지 않았다.
《그만하면 괜찮소!》 하고 다니엘소장이 칭찬하였다.
《이번에 쏠 차례입니다, 남작!》 하고 슐쯔가 말했다.
골드링은 권총집에서 장교용권총을 꺼내들고 사격진지에 나가섰다.
《그런 장난감같은걸로 쏘렵니까?》 끄겐퓰레르는 놀랐다.
《이걸로 쏘면 규정위반인가요?》
《아니요, 그 총으로 쏘았다가는 열걸음앞에서 쏘아도 병모가지를 못 맞혀요, 아니면 내기를 합시다.》 끄겐퓰레르는 완강히 주장하였다. 다른 몇명의 장교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자넨 다른 시합참가자들보다 나쁜 조건에서 쏘겠단 말이군.》 다니엘소장도 한마디 하였다.
《그러나 소장님, 장교는 각종 무기를 다 될수 있는대로 잘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른 총으로 쏠바에야 차라리 슐쯔소좌에게 한발에 10병씩 걸고 쏘겠습니다.》
《한번 입밖에 낸 말을 잊지 마시오. 한발에 10병!》 슐쯔가 웨쳤다.
골드링은 묵묵히 권총을 들었다. 그 순간에 세방의 총성이 울렸다. 첫째 병은 깨지고 둘째와 셋째 병은 모가지가 간데온데없었다.
《시시하게 됐는걸!》 구경군들의 환성도 들리지 않는듯 골드링은

상을 찌프리고 중얼거렸다. 《새 병을 세워주오!》 하고 그는 상등병에게 부탁하였다. 세발의 새로운 총성은 전체 참가자들의 환성을 불러일으켰다. 세병의 모가지가 칼로 벤듯 잘라져버린것이였다.

《상금 50병, 벌금 10병! 꼬냐크 40병을 슐쯔소좌에게서 받을것!》 중재자가 유쾌하게 소리쳤다.

주위에서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소좌가 린색한것은 모두에게 알려져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길다란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가는것을 흥미있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슐쯔소좌님은 아직 세발을 더 쏠 권한이 있습니다. 소좌님, 장교용권총이 있습니까?》 헨리흐가 말했다.

슐쯔는 하는수없이 권총집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더 벌겋게 되였다.

《원래 자동속사권총으로 쏘게 되여있소.》 소좌는 떠듬거리며 말하였다.

헨리흐는 유쾌히 웃었다.

《내가 10병이라고 한것은 롱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한병이면 흡족합니다.》

《그럼 저녁 아홉시에 당신이 상으로 탄 술을 함께 마시러 나에게 와줄것을 바라오.》

슐쯔는 헨리흐를 무슨 성대한 연회에나 초청하듯이 례절을 차리며 인사하였다.

《매우 감사합니다. 꼭 아홉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헨리흐는 웃음을 참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난 당신과 결투의 적수로 되고싶지 않은데요, 남작!》 꼬껜뮬레르는 헨리흐와 함께 참모부로 돌아올 때 롱을 한마디 더 하였다.

《오늘 당신은 흉악한 적을 하나 만들었다는걸 알아야 할겝니다.》

《내 생각에는 슐쯔와 친구로서 다정한 기분으로 갈라진것 같은데요. 사실 나는 그가 벌금으로 내게 된것을 거의다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이 참모부의 우수한 사격수로서의 그의 영예를 빼앗은데 대해서 당신을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

랑할수 있은것은 오직 그것 한가지였으니까요.》 하고 ╨겐퓰레르가 설명하였다.

골드링과 ╨겐퓰레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직일병은 대좌의 방에 다니엘소장과 렘베르그대좌가 와있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렘베르그라?》 헨리흐는 의아한 눈길을 ╨겐퓰레르에게 돌리며 마치 무엇인가 생각나는듯 상을 찌프리였다.

《〈푸른 산보〉 작전을 지도할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소.》 대위가 설명해주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책상에 마주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한 5분쯤 지났을 때 다니엘소장이 대좌의 응접실을 지나 장교들쪽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지나갔으며 먼지를 들쓰고 기진맥진한 렘베르그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절반쯤 열려진 문을 통해서 베르트골드가 방안을 왔다갔다하는것이 보였다.

그것은 대좌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렘베르그가 맡았던 임무에 대해서 ╨겐퓰레르가 알려준 말을 듣고 몹시 궁금한 헨리흐는 용기를 내서 대좌를 찾아들어갔다.

《아, 자네가 왔나! 하여튼 승리를 축하하네. 자넨 모범적인 사수이군!》 하고 대좌는 침울했던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했다.

《바로 그 문제때문에 대좌님께 찾아왔습니다! 무기에 대해서 정통한 자기의 능력을 ╨냐크가 들었던 빈병이 아니라 진짜 원쑤들을 과녁으로 삼는 〈푸른 산보〉 작전에 나가서 시위하는것이 더욱 적절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찾아온것입니다.》

베르트골드의 얼굴에는 비웃는듯 한 미소가 피뜩 지나갔다.

《〈푸른 산보〉 작전은 이미 수행되였네.》

《벌써요? 언제 말입니까?》 헨리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어리여있었다.

《오늘 새벽 여섯시에 시작되여 열두시에 끝났소.》

헨리흐의 침울한 시선은 아마도 베르트골드를 진정으로 위로한듯 하였다.

《정말 자네는 진짜 괴벽한 사람이야. 털어놓고 말해보라구. 어째서 그렇게 그 작전에 참가했으면 하는가?》

《상관으로서가 아니라 저의 두번째 아버지로 생각하는만큼 대좌님께 아무것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로 그렇게 나를 대해주기 바라네.》
헨리흐는 자기의 진짜속심을 털어놓는것을 저어하는듯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좌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였습니다. 대좌님덕분에 저는 장교의 군사칭호도 빨리 받을수 있었으며 흥미있는 사업을 할수 있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솔직한것이 좋은것일세! 그런데 어째서 말을 꺼냈다 마는가?》
《저는 참모부의 많은 장교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투공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작전들에 참가한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가슴에서 보게 되는 훈장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
베르트골드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헨리흐는 말을 끝낼수 없었다.
《그게 다인가!… 참 자네도 천진하이! 참모부장교들이 달고있는 훈장의 절반이상은 전선일군들이 참모부성원들에게도 조국을 위해서 세운 공로가 있다는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준거요. 사실 그들의 공로란 지방의 고문서보관소의 관리인의 공로보다 더한게 없소.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빨찌산의 총알밑으로 머리를 들이댈 필요는 전혀 없소. 그것을 위해서는 자네보다 혈통이 높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낼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자네를 그 작전에 보내지 않은것을 내게 감사해하라구. …》
《어째서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19명의 병사와 16명의 장교, 경찰의 절반을 잃었기때문이요. …》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른 산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산보로 되고만것이요. 우리 부대가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빨찌산숙영지로 접근했을 때는 그곳이 완전히 비여있었소. 숙영지와 그곳으로 가는 통로들에는 지뢰가 매설되여있었소. 게다가 빨찌산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쳤기때문에 우리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는 감쪽같이 없어져버

렸단 말이요. 작전은 수치스럽게 파탄되고말았소. 유일한 결과란 그 주민지점부근에 있는 공동묘지에 2백개이상의 새 십자가가 섰다는것뿐이요.》

《그러니까 렘베르그대좌는…》

《그 렘베르그가 무어 말라빠진거요. 난 그 사람의 실패때문에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싶지 않소. 제자신이 상급지휘부앞에서 변명하라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분을 좀 돌리기 위해서 하루저녁쯤 가까운 도시까지 자동차로 소풍이나 하지 않겠나?》

《저도 그것이 좋겠습니다.》

《좋아할줄 알아. 청년시절에는 쓸쓸한 구석보다 각양한 환경이 공기처럼 필요하니까. 오늘 저녁에 떠나보지 않겠나?》

《래일 가는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슐쯔소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좌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근심이 되네. 슐쯔소좌는 오늘 자네에게 당한 수치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걸세. 한잔 들면 그 사람은 자네를 노엽게 할거구 그러면 자네도 격한 성격이라…》

《전 얼음처럼 랭정히 자신을 제어하겠습니다, 대좌님!》

《그래도 하여튼 마음이 놓이지 않네.》

《어째 그러십니까? 전번에 제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넨 아직 젊으니까! 전쟁이 아니라면…》

《저는 대좌님의 아들이 되는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것입니다. …》

《그건 사실이야. … 그럼 가보게. 소좌와는 조심해야 한다는걸 잊지 말게. 일찍 돌아오거든 내게 들리라구.》

《알았습니다, 대좌님!》

지정된 시간에 새 군복을 입은 헨리흐는 단장끝으로 슐쯔소좌의 방문을 두드렸다. 슐쯔자신이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오시오, 존경하는 골드링남작!》 소좌는 친절한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우정보다도 아첨기가 엿보였다.

헨리흐는 슐쯔의 방을 슬쩍 둘러보고 꾸비쓰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미소를 겨우 참았다. 한번은 슐쯔의 련락병이 자기 장교의 방을 아늑

하게 꾸려보려고 어디 가서 가죽쏘파를 두개 끌어다놓았더니 소좌는 당장에 그 가죽을 벗겨서 장농비슷하게 생긴 자기의 큰 가방속에 숨겼다는 이야기를 꾸비쓰에게서 들은 일이 있었다.

그 방은 지나치게 갖춘것이 없고 딱딱해보였기때문에 아늑하게 만드는것도 좋을상싶었다. 투박한 병사용모포를 덮어놓은 좁다란 침대, 상 하나와 의자 네개 그리고는 그 소문난 트렁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궤짝과 같았다. 철띠까지 두른것이였다. 그속을 들여다본다면 흥미있을것이였다. 아마 거기에는 차곡차곡 개여놓은 장교용담요가 맨 밑에 들어있을것이다. 그런데 슐쯔는 벽에 사진기를 걸어놓고있었다. 아마 손님이 오면 자랑하려고 꺼내놓은 모양이였다. 슐쯔는 또 누구인가를 기다리고있었다. 상우에는 꼬냐크 두병과 잔이 네개 놓여있었다.

《또 누가 옵니까?》 헨리흐가 고개로 상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꼬껠뮬레르에게 벌금술을 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십분전에 어딘지 대좌의 심부름을 간다고 쪽지편지를 보내왔군요. 꼭 와주어야 할 꾸비쓰도 역시 바빠서 못 오겠답니다.

그래서 아마 둘이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겠지요?》

《소좌님과 함께 저녁을 보내게 된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별로 유쾌할것 같지는 않았다.

주인도 손님도 이야기거리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 모양이였는데 그들의 화제는 극히 제한된것이였다. 슐쯔의 관심은 참모부생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야기가 베르트골드와 관계되기만 하면 소좌는 좀 활기를 띠는것이였다. 대좌의 사업경험에 대해서와 그의 품성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면서 어쩐지 최근에 와서 대좌가 자기에게 랭랭하게 대하며 지어 좋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다고 불평을 말하는것이였다.

《어째서 그런것 같은가요?》 골드링은 슐쯔의 눈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소좌는 눈길을 피했다가 마음을 다시 먹고 헨리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측으로부터의 영향이 약간 작용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나 소좌님도 아시겠지만 나에게는 소좌님을 적대적으로 대할 근거가 조금도 없고 대좌님께 영향을 줄것도 없는데요.》

《아마 무슨 뒤소리가 있었거나 내 말을 그릇되게 퍼뜨리는데서 올수 있겠습니다. …》 하며 슐쯔가 시작했다.

《우리들이야 장교이지 남의 말에 귀를 솔깃해하는 식모아주머니는 아니니까요. … 저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의 명예를 걸고드는 모욕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떠도는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그건 나의 인격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사이에 어떠한 오해도 결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잔을 듭시다. 남작, 어째 입에 댔다 떼기만 합니까?》

《난 언제나 한두잔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두번째 잔이기때문에 천천히 마시자는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는 찬양할만 한 일이군. 그러나 우리들 늙은것들은 제 어깨에 지워진 일에 쫓기우고 몰리우고 하다나면 자연히 술을 들게 된다니까.》

《그러나 소좌님은 휴식할 시간이 있으신것 같군요.》 헨리흐는 침대우에 걸려있는 사진기를 눈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사진첩에 새 사진을 보충하는것을 재미로 알지요. 내가 지나온 도시들은 얼마나 많으며 내가 참여하게 된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로년에 가서 사진첩을 척 펼치면 자기의 전행로뿐만아니라 그 행로의 매 걸음걸음을 볼수 있을겝니다.》

소좌는 많이 마시였다. 늘쌍 흐리터분하던 그의 눈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으며 누렇던 긴 얼굴이 불그레하게 되였다.

《그 사진첩을 한번 보았으면 흥미있겠는데요. 물론 특별히 비밀이 아니라면…》 헨리흐는 능청스럽게 눈을 가늘게 좁히며 말하였다.

《비밀은 무슨 비밀이겠소! 나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오. 모두 점잖게 찍은 사진들이지.》

슐쯔소좌는 가방열쇠를 여느라고 몸을 굽히고 자물쇠를 만지더니 잠시후에는 큼직한 사진첩을 내놓았다.

사진첩은 정말 내용이 풍부하였다. 벨지끄, 노르웨이, 체스꼬슬

로벤스끄, 프랑스, 뾜스까 등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였다. … 전에 슐쯔 소좌가 복무하던 부대가 걸어온 전행로를 다 더듬어볼수 있었다. 거기에는 《로씨야》라고 표식한 부분도 있었다. 헨리흐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면서 보았다. 파괴된 도시들과 농촌들, 철조망너머에 서있는 굶주리고 극도로 피로한 사람들, 교수대, 거기 사람들이 달려있는것까지 찍은 사진, 또 교수대의 사진—거기에는 거의 아이라고 할만한 젊은이의 목에 바줄이 걸려있다. 이 모든것들은 배경으로만 쓴것이였다. 전경에는 장교들이 있는데 흔히 슐쯔자신이 서있었다. 아마 누군가가 그를 찍는것을 도와준 모양이였다. 슐쯔가 혼자서 전신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점잔을 뺀 뿌루퉁한 얼굴, 자만자족한 미소, 죽은 사람우에 한다리를 올려놓은 모습, 번쩍번쩍하게 닦은 장화가 해빛에 빛난다.

《표현이 풍부한 사진이군요.》 헨리흐는 사진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난 그것을 상징적이라고 말하고싶소.》 하고 소좌는 그의 말을 시정하였다.

《문건으로 보관해야 할 사진입니다.》

《위대한 시대의 문헌으로!》 소좌는 격조를 높여 덧붙여 말했다.

헨리흐는 눈을 들지 않고 사진첩장을 넘기였다. 마치 그 눈을 보면 자기의 속심을 짐작할가 겁내는듯 하였다.

《이게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요.》 소좌는 사진 한구석에 표시된 날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다니엘소장이 자기 사무실에 서있는 사진이였다. 그는 무슨 서류인지 손에 들고 책상옆에 서있었다. 배경으로는 굉장히 큰 지도가 걸려있는 벽이였다. 지도에 표시된 선들은 똑똑치는 않았으나 굵게 표시한 화살표는 잘 보였다. 헨리흐는 지도에 《철권》작전계획이 표시되여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훌륭한 작품인데요. 우수한 직업적인 사진사와 경쟁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좌님의 사진을 한장 얻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슐쯔의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두장 있는것중에서 아무거나 택하시우.》

《그러면 최근에 찍으신 사진을 택하겠습니다. 나도 다니엘소장의 사진을 책상우에 놓고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사진이 내게 두장 있습니다. 나는 한장을 소장님께 드리자고 생각했댔는데 지금은 〈푸른 산보〉작전이 실패된 후인지라…》

소좌는 사진첩에서 사진을 꺼내 헨리흐에게 주었다.

《그렇게 심심하게는 받지 않겠습니다. 선물에는 수표를 해주셔야지요.》 골드링은 슐쯔의 손을 밀치며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슐쯔는 펜을 들고 사진뒤면에 《골드링중위에게 슐쯔소좌로부터》라고 썼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헨리흐는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소좌님 말과 같이 다니엘소장이 요새는 선물을 받을 경황이 아닐것입니다, 두번째 작전이 연거퍼 파탄되였으니.》하며 헨리흐는 한숨을 쉬였다.

《첫째 작전이란 〈철권〉작전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번의 〈푸른 산보〉작전도…》

《당신 생각에는 원인이 어디 있는것 같소?》 슐쯔는 헨리흐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물었다.

두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어려서부터 정탐일군입니다. 비록 나는 군단의 모든 정탐장교들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참모부안에 잘 위장한 간첩이 활동하고있다는 나의 신념을 아무도 반박할수 없을것입니다.》

슐쯔는 쏘파등받이에 기대앉았다. 그의 큰 코구멍은 무슨 로획물이라도 냄새맡은듯 벌름거렸으며 눈가에는 잔주름이 몰리였다.

《그렇게 생각하오?》 슐쯔는 갈린 목소리로 헨리흐에게 다시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더 확신하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유쾌하게 놀기 위해서 모였지 우리들 두사람의 참모부장교에게 있어서 그러한 가슴아프고 불쾌한 문제를 론하자고 자리를 같이 한것은 아닌줄 압니다.》

《사실 그렇소. 무슨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슐쯔도 동의하였다.
《소좌님, 이 많은 사진원판들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헨리흐는 궁금한듯 물었다.
《원판은 태워버리지요. 사진이 있으면 되였지 쓸데없는 짐을 무엇때문에 끌고다니겠소. 그런데 그건 왜 묻소?》
《혹시 그전에 찍은 사진을 다시 만들 필요가 생긴다면 원판이 소용되겠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한번도 없었소.》 소좌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례컨대 당신의 어떤 사진을 게스타포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진첩의 사진을 떼여내야 하겠으니 그러면 그 사진은 아주 없어지고말것입니다.》
슐쯔는 눈이 둥그래졌으며 불안한 기색이 스쳐지나갔다.
《무엇때문에 게스타포에서 내 사진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요?》
헨리흐의 얼굴에서는 문득 미소가 씻은듯 없어졌으며 그의 눈은 랭랭하고 무섭게 슐쯔를 바라보았다.
《소좌님이 생각하는것처럼 모두가 다 어수룩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었으면 좋겠소. 당신 말대로 한다면 난 모욕을 참을수 없소. 당신의 암시가 모욕으로 느껴진단 말이요. 내가 당신보다 직급상으로도 우이고 이 부문에서 이미 근 십년이나 복무하고있다는걸 잊지 않는게 좋겠소.》
《직급상문제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욕이나 당한듯이 가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넣은 그 사진원판을 로씨야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얼마나 받았는지 솔직히 말하시오.》
소좌는 기가 막히는듯 하였다. 그는 얼굴이 어찌나 백지장같이 되였던지 그의 흐리터분한 회색눈조차 검은빛으로 보일 지경이였다.
《무엇? 무엇이라구 했소?》 마침내 슐쯔는 입을 열었다.
《몇번이래도 합시다. 로씨야사람들께 사진을 아니, 사진원판을 넘겨주고 값을 얼마나 받았느냐 말이요?》

《비렬한 놈!》 슐쯔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침대등받이로 달려가더니 권총집이 달린 혁띠를 벗겨들었다.

《조용하오! 소좌님은 기억하겠지요, 내가 당신보다 사격을 잘한다는것을. 권총을 꺼내는 사이면 내 권총에 장탄된 탄알을 모조리 당신께 쏠수 있소. 진정하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항상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토론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골드링은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경고하였다.

헨리흐의 침착한 어조, 그의 위협이 슐쯔를 정신들게 하였다. 그는 권총집이 달린 혁띠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책상쪽으로 다가왔다.

《중위, 당신은 나의 장교의 명예를 모욕하였소. 난 그냥둘수 없소.》 소좌는 계속 격분에 떨면서 말했다.

《고상한 분노군. 아주 연극을 잘합니다, 소좌! 그러나 당신이 지금 놀고있는 연극이 나에게는 자그마한 인상도 주지 않는다는것을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은 나를 어쩌자는거요?》 슐쯔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께 묻고싶소. 당신은 반역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게스타포에서 어떻게 고문하는가를 본 일이 있소? 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소. 그건 당신자신도 그곳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말을 시키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겠으니까.》 골드링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하였다.

《어째서 바로 나에게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가 말이요, 내가 거기 무슨 관계가 있소?》

《직접적 및 간접적관계가 있소. 설마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매우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는것 그리고 당신이 어찌하여 사진에 애착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게스타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리유를 모르겠단 말이요?》

《난 항상 장교로서 나의 의무를 성실히 집행하였소. 나는 비난받을 일을 한적이 없소.》 슐쯔는 다소 침착해지면서 말하였다.

《물질적증거가 있소. 아마 말보다도 그걸 더 믿을거요.》

《대체 무얼 가지고 당신은 나를 고발하자는거요?》 소좌는 다시 열이 올랐다.

《천만에, 내가 당신을 고발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소.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잘못 리해하고있소. 나는 다만 매우 불쾌한 일이 생길수 있

다는것을 당신께 경고해드리고싶었을따름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쏘아죽일 잡도리를 했으니…》

소좌는 꼬냐크병을 집어들고 병나발로 몇모금 마시였다. 이발이 유리에 마주치는 소리가 났다.

《그럼 남작, 말해주오. 내가 기소당할수 있는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슐쯔는 거의 신음하듯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소좌님, 하녀의 앞치마를 두른게 아니라 장교의 정복을 입고계시지 않습니까! 몇주일전에 참모부회의가 있을 때 〈철권〉 작전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을 때 당신이 로씨야군지휘부에 도이췰란드지휘부에서 작성된 지도의 사본이 있는듯 하다는 말을 꺼낸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주 명백하게 나라는 사람에게 의심이 간다는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추측에 불과한것이였소.》

《그건 죄를 병든 사람의 머리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넘겨씌우려는 수작이였습니다! 꼬리를 감추려는 사람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그때에 벌써 나는 당신이 어찌하여 그러한 경각성을 발휘하였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확증할수 있었단 말입니다.》

헨리흐는 상우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고 다니엘소장의 사진이 붙어있는 곳을 펼치였다.

《직접 보십시오. 이 사진에는 구체적으로 작전도가 촬영되여있으며 다니엘소장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당신께 필요되였던것입니다. 만일 이 사진원판을 사진암실을 통과시킨다면 전략적지도의 가장 정밀한 사본을 얻게 될것입니다. 당신자신이 날자를 기록해놓았는데 사건은 12일, 즉 작전개시이전에 만들어진것입니다. 로씨야사람들과 만나자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것도 아닙니다. 금전에 대한 당신의 애착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인지라 당신이 비싼 값으로 지도를 로씨야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면 그것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두개 사단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 당신에게 그 원판이 없습니다. 즉 로씨야사람들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좌는 방금이라도 실신할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같았으며 눈은 공포로 해서 퀭해졌다.

《말씀해보십시오. 당신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인 론거를 가지고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론박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소장을 찍었지 지도를 찍지는 않았소.》
슐쯔가 웨쳤다.
《그건 당신의 말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원판을 로씨야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소좌는 말이 없었다. 그의 아래턱이 덜덜 떨리였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닥쳐왔는가 하는것이 이제야 똑똑히 알리는 모양이였다. 그는 기껏해야 말로써 반대할수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그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렇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아닌가!》 소좌는 절망적으로 불쑥 말했다.
《이젠 그걸 깨달았습니까?》
《무섭다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고발할 그런 일을 나는 결코 하지 않았기때문이요.》
《소좌님, 당신을 고발하는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때문에 자식들이 고아로 되여버린 수백수천의 사람들입니다.》
《아, 하느님 맙시사!》 소좌는 신음소리를 냈다.
《도이췰란드장교의 명예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사실을 당장 상급기관에 통보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남작!…》 슐쯔는 헨리흐의 손을 잡고 입이라도 맞출 태세였다.
《그러나…》 하고 헨리흐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다시 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애처롭다고 해서 그러는것만은 아닙니다. 털어놓고 말한다면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당신을 일러바쳤다는듯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싶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이 참모부회의때 부주의한 암시를 한데 대해서 말입니다. 내 뜻을 리해할만 합니까?》
《알구말구요, 남작!》
아직도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슐쯔는 너무 기뻐서 리성을 잃은것 같았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겠지요?》
《난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나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슐쯔는 감격해서 말했다.

《물론 돈으로 보상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무슨 동지적인 방조를 줄수 있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소좌님, 동의하십니까?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구말구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힘자라는대로 다 하지요.》

《그러나 만일 한번이라도 도이췰란드군대 장교로서의 나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원 별말을 다 하오. 어떤 정황속에서도 결코 그럴수 없지!》

《그럼 좋습니다. 약속대로 하십시다. 그런걸 소좌님은 무기를 잡으려 하셨군요.》

슐쯔는 권총에 눈길을 돌리였다. 그다음 아직 펼쳐져있는 사진첩을 바라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였으나 감히 말이 나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소좌님의 심정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소좌님이 약속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건 해주시였을 때 나는 이 사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요구하시려던것이지요?》

소좌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군복을 벗었을 때 헨리흐는 문득 대좌한테 들리기로 약속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다시 군복을 입으려 하였으나 잠시 망설이다가 군복을 쏘파에 집어던지고말았다. 지금 그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극도로 긴장했던 신경을 쉬우기 위해서 당장 자야 한다. 그러나 그날 밤 헨리흐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슐쯔소좌의 사진첩이 눈앞에 떠올라 한장 또 한장 펼쳐지는듯 하였다. 《위대한 시대의 기록이지!》 하고 슐쯔는 말하였었다. 그렇다, 문헌인것은 사실이다. 그 언젠가 슐쯔소좌의 사진첩을 모두가 보게 될 때 그것은 고발의 문건으로 될것이다.

차창앞에서의 생각

심대한 손실을 입은 군단이 프랑스로 이동되고 그 자리로 다른 군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전체 장교들을 흥분시키였다.

아직은 그 말을 무슨 큰 비밀이나 말하듯이 수군수군 말들 하였지만 모두 흥분해서 다니는것이 사실이였다.

장교들의 일부는 동부전선에 남겨둔다는 말이 어디서부터인지 떠돌기 시작해서 불안한 기분이 도는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장교들은 그것이 전선장교들의 말이고 참모부일군들의 말이 아닐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안을 받고있었다.

군단의 배비변경에 대한 최고군부의 공식명령이 있은 후에야 전반적흥분상태가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날 베르트골드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헨리흐를 불렀다.

《드디여 명령서가 도착했네. 이젠 가야지! 사실 나는 우리를 여기 남길가봐 겁이 나더라니까. …》

《출발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랍니까?》

《자넨 정거장에 나가 우리 부서 짐싣는 일을 돌보아주어야 하겠네. 이틀동안이면 충분하겠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 보기엔 자넨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닥 기뻐하지 않는것 같군그래. 최근 자네 기분이 왜 그렇게 우울한지 말할수 없겠나?》

《저는 그다지 동부전선을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자네 취미가 아주 괴상하단 말이야.》

《저는 로어도 알고 로씨야의 풍습과 일반적환경을 알고있는 조건하에서 여기서 일해야 더 유익할수 있겠다고 단순히 생각했을뿐입니다.》

《그러나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네. 자넨 이런 벽지에 그만큼 있었으면 되였네. 프랑스! 프랑스가 어떤 곳이라구! 거기 가서 며칠만 있어보지. 자네의 우울한 기분이 씻은듯이 없어질테니. 그건 그렇고, 자네 슐쯔소좌가 다른 부대로 조동된단 말을 들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비겁분자군!》 하고 헨리흐는 의미심장하게 미소하였다.

《그 사람과 티각태각한 일은 없었겠지?》

《없습니다. 극히 친선적인 담화가 있었을뿐입니다. 그는 저에게 한가지 자그마한 선물까지 주었는걸요. 기억에 남길 기념품으

로 말입니다.》

《슐쯔는 상급기관으로 조동되여간다고 보고하러 왔더군. 슐쯔는 어제께 떠났네. 자네 무슨 의견은 없나?》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전 지금 슐쯔소좌의 운명을 가지고 운운할 경황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착수하랍니까?》

《래일 아침부터 해주게. 전적으로 자네에게 맡기니 잘 처리하게.》

《빈틈없이 잘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좀 상쾌하게 가지라구. 아름다운 프랑스의 모든 매혹적인것들이 자네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지 말게.》

골드링의 기분은 베르트골드와의 담화가 있은 후에도 좋아지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더 침울해졌다.

항상 례절있고 명랑하던 그가 부서의 짐을 기차에 싣고있는 병사들에게 야단을 쳤으며 련락병 에르빈 브렌네르를 어찌나 몰아세웠던지 련락병은 그의 눈앞에 나타나려고 하지 않았다. 항상 침착하던 남작은 마치 다른 사람으로 된것 같았다.

다음날 저녁때 부서의 짐을 다 실었다. 그러나 제때에 임무수행을 끝낸것도 헨리흐의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았다. 그는 침울한대로 장교식당으로 가서 식당안에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가에 있는 가장 구석진 식탁으로 갔다.

접대원이 헨리흐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중위가 가까이 왔다.

《중위님, 옆에 앉아도 일없겠습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난 함께 식사하는것을 좋아합니다.》

중위는 의자에 앉더니 료리가격표를 보기 시작하였다.

《가격표에는 맥주가 있는지 없는지 씌여있지 않군요! 혹시 모르시나요? 나는 흑맥주를 한조끼 마셨으면 좋겠는데.》

헨리흐는 그 장교를 유심히 보았다.

《아마 있을겝니다. 려행길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조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헨리흐에게 저녁을 가져오느라고 접대원이 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중단되였다.

《무슨 음식을 가져올가요?》 접대원이 새로 온 중위에게 물었다.

《커피 한고뿌하고 비스케트를 좀 주시오.》 중위는 맥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답하였다.

접대원은 주문받은것을 가져오려고 달려갔다.

《휴가를 갔다오십니까?》 헨리흐가 궁금해하였다.

《얼마간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국의 새 소식이 없습니까?》

《여전하지요.》 새로 온 중위는 맥없이 말을 이었다. 《마침 내가 보던 드레즈덴신문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소식을 알수 있을겝니다.》

새로 온 중위는 신문 접은것을 꺼내서 헨리흐에게 내밀었다.

《매우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헨리흐는 이렇게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무슨 소책자를 꺼내면서 대답하였다. 《난 이 책을 오늘에야 다 읽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선물로 드리지요.》 새로 온 중위는 책제목도 보지 않고 소책자를 받아넣었다. 그는 침착하게 커피를 마저 마시고 상우에 돈을 놓고 헨리흐에게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15분후에 골드링은 기차의 좌석으로 들어갔다. 그 차칸은 이틀동안 그가 림시주택으로 쓰고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참모부로 돌아가야 한다는것을 미리 일러준 련락병은 짐을 꾸리고있었다. 그러나 헨리흐는 떠나려고 서둘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차광막도 내리운 그는 신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아마 거기서 극히 흥미있는것을 발견한 모양이였다. 오래동안 읽었다. 그리고 이상한것은 밑으로부터 우로 읽는것이였다. 개별적인 단어를 때로는 글자 하나에 한참씩 주의를 집중하면서 읽었다. 아마 읽은 내용이 매우 재미있던 모양으로 30분후에 참모부로 가느라고 자동차에 앉았을 때 련락병은 중위의 기분이 좋아졌다는것을 느끼였다. 도중에 중위는 줄곧 무슨 노래인지 휘파람을 불었으며 전에는 련락병과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쾌한 롱담까지 하는것이였다.

기차는 느릿느릿 서쪽으로 갔다. 몇백메터 거리를 두고 앞에서는 기관차가 짐을 실은 무개차를 끌고갔다. 그것은 기차가 무사히 가기 위한 담보였다. 만일 빨찌산들이 레루에 지뢰를 매설하였다면 우선 그 기관차와 무개차가 하늘로 날아오를것이고 군용렬차는 무사하게 될수

있는것이였다.

이 군용렬차에 타고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벨라루씨경내를 무사히 지나갈것을 바라고있었다. 지금까지 빨찌산들이 주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는 기차에 주의를 돌렸다. 그러나 경각성을 높이는것은 언제나 필요한것이다. 그래서 무개화차를 단 기관차를 앞에 보낸것이였다. 화물차의 열려진 문으로부터 중기관총의 총구가 삐죽이 나와있었으며 병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있었다.

장교들이 타고가는 상급객차에서는 위험을 적게 느끼였다. 그것은 장교들이 더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럴 경황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어떤 장교들은 술에 취해 자고있었으며 어떤 장교들은 술을 마시고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가한 때 언제나 그렇듯 주패놀음을 하고있었다.

헨리흐와 대좌는 렬차 중간쯤에 있는 상급객차를 타고갔다. 끝의 좌석에는 련락병들이 들고 다음좌석부터는 두명씩 혹은 세명씩 배치되였다. 개별좌석은 대좌, 끄겐퓰레르 그리고 헨리흐에게만 차례졌다.

헨리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준데 대해서 베르트골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 덕분에 그는 혼자서 자기 생각에 잠길수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란 그다지 즐거운것이 아니였다.

차창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다. 헨리흐는 언제 그 풍경을 다시 보게 될것인가? 그가 이 증오스러운 남의 나라 군복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보통 입던 옷을 입고 수림속에 들어가 눈이 쌓인 나무사이로 마음놓고 산보할 날은 과연 언제이겠는가? 여름이면 푸른 잔디밭에 바로 누워 끝없이 푸른 하늘을 마음놓고 바라볼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가? 그가 사랑하는 노래, 아버지가 늘쌍 그에게 부르라고 하던 그 노래를 목청껏 부를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가? 과연 그는 아버지를 다시 볼수 있기나 할것인가? 자기 동무들, 친구들을 다시 만날수 있겠는가?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된 학습을 다시 계속할수 있을것인가?

그는 친척들에게 《행방불명》으로 되여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통지를 받았다.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온 집안이 얼마나 슬퍼하였을가!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모든 친척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는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다. 모스크바에 있는 몇몇 사람만이 지금 그를 헨리흐 폰 골드링이라고 부르는것을 알고있다. 그 사람들만이 그가 지금 어디 있으며 래일 또는 모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있다.

그는 그에게 위임된 일을 할것이다. 만일 그 일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 해도 그는 그 일을 할것이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지금도 그를 생각하며 슬퍼하고있으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슬퍼할 아버지를 위하여 그 일을 할것이다.

슐쯔의 사진첩을 보던 날 저녁에 그는 과연 무엇을 느꼈던가! 헨리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슐쯔에게 덤벼들고싶은 충격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 그가 자기자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던가를 그 누구도 결코 알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견디여냈다. 그것이 필요하였다.

이제는 그가 공작하기 더 힘들것이다. 지금부터 그는 원쑤들속에서 살뿐만아니라 또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의 군단이 벨라루씨에 있었을 때에는 만일 일이 틀어질 경우에는 산속으로 빨찌산을 찾아갈수도 있었다. 비록 그가 원쑤들속에서 살고있었지만 그래도 제 나라, 제 조국에서 살았으며 자기 인민의 거대한 힘을,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를, 그들의 정신의 무진장한 힘을 항상 감촉할수 있었다. 그렇다, 이제부터 그는 남의 땅에서 살것이며 만일의 경우에 유일한 출로는 그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몸에 품고다니는 소형권총밖에는 없다.

그러나 골드링은 살것이다! 원쑤를 증오하며 오래오래 살것이다! 그에게는 게스타포의 개들이 그의 흔적을 냄새맡지 못하도록 자신을 유지할만 한 힘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그에게는 때로 이 골드링남작의 배역을 놀기가 혐오스러움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후일에 가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침묵해야 하며 자기가 누군가, 무엇때문에 원쑤의 소굴에 파견되였는가를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견딜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인가! 극장의 배우들은 막간시간에 휴식할수도 있고 온종일이라도 자기자신으로 돌아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매 순간마다 연극을 놀아야 하며 그것도 최대한 잘 놀아야 하는것이다. 밤에조차 휴식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밤에도 정신을 차려야 하며 꿈속에서라도 무슨 말이 입밖

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식은 아직 얼마나 먼 앞날에 있겠는가. 그가 과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것인가? 벼랑끝에 서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오래 걸어갈수 있을가? 아니다, 이따위 생각은 집어치우자! 그는 지금 골드링남작이다. 골드링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남작인데… 주패놀이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그를 기다리고있는 오락에 대해서, 그가 지금까지도 아직 읽지 않고있는 로르헨의 편지에 대해서 생각할것이다. 그 편지를 읽긴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좌가 헨리흐와 로르헨사이에 편지거래가 중단되지나 않는가 주의깊게 살피고있기때문에…

로씨야국경을 넘어서서부터는 기차가 현저히 빨리 달렸으며 큰 정거장에서 잠간씩 정거할뿐이였다. 그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래도 베를린까지 휴가를 갔다오자고 타산했던 많은 장교들의 계획이 틀려지게 되였다. 그러나 지휘부의 명령이 엄격하였으므로 례외없이 제때에 지정된 장소까지 도착하여야 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 기차는 프랑스국경을 넘었으며 바로 그날 저녁에 지정된 장소인 자그마한 프랑스 도시에 당도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헨리흐는 제1부 사무실들을 꾸리느라고 분주히 보냈다. 그대신 점심식사때에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래일은 사업에 착수할수 있다는것을 대좌에게 보고할수 있었다.

그가 이상하게 생각한것은 대좌가 그의 보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들었을뿐아니라 전같으면 이러저러한 자기 취미에 맞게 꾸리라고 잔소리가 많았겠는데 그런 말도 전혀 없는것이였다.

《대좌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거라도 있습니까?》 헨리흐는 다소 노여운 기분으로 물었다.

《이젠 그게 나에게도 자네에게도 관계없는것으로 되였네!》 하고 베르트골드는 심중하게 말하는것이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얼마동안 갈라져야 하겠네. 지난밤 나는 히믈러 수하로 조동되였다는 명령을 받았네. 무슨 일을 보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리 돌아올것 같지는 않네. 십중팔구는 베를린에 떨어질것 같네.》

헨리흐의 얼굴에는 섭섭한 그리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어리였다. 대좌의 출발은 그의 형편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것이였다. 새로 만날 상관과의 호상관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랴?

베르트골드 역시 인차 작별하게 된것을 매우 섭섭해하는게 분명했다.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렇다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것은 아니니까. 자네를 돌봐주는것을 나는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있네. 그래서 이미 이것저것 부탁도 해놓았네. 만일 나의 새 임무를 똑똑히 알고있다면 자네를 데리고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리 단순치 않구만. 우선 혼자 가서 후에 자네를 부르기로 해야겠네. 우리 군대를 재편성한다는 소문도 있네. 혹시 자네가 어떤 궁벽한 곳에 떨어질수도 있거던. 마침 내 오랜 친구인 에베르쓰소장이 프랑스에서 사단장으로 있는데 그 역시 자네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이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네를 자기 참모부에서 역시 특수임무장교로 쓰겠다고 동의하였네. 물론 내가 평정을 아주 잘해주었지. 그는 자네를 전적으로 도와줄것과 지내 힘든 일은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네. 여기서도 관계부서들과 역시 토의를 해놓았으니 오늘 저녁이면 필요한 문건이 다 될걸세. 자네는 래일까지, 늦어도 모레까지는 에베르쓰소장의 참모부에 도착해야 하네. 나는 래일 낮 열두시에 베를린으로 떠나니까. 내가 떠난 다음 자네도 떠나면 될걸세.》

《제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에베르쓰사단은 여러 주민지점들에 분산배치되여있소. 그 사단은 군사대상물들을 경비하고있고 참모부는 쎈－레미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그마한 휴양지라네. 그런데 자네에게 미리 주의를 줄게 있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프랑스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거네. 그곳에도 역시 빨찌산이 나타날수 있는데 거기 빨찌산들은 도이췰란드장교사냥에 독을 올리고있다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네.》

《대좌님과 작별하게 되니 정말 섭섭하다는걸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새 임무를 받으시면 소식이래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빨리 에베르쓰사단 참모부앞으로 편지를 써보내겠

네. 명확히 알게 되는 차제로 즉시 편지하지. 자네도 정기적으로 나한테 꼭 편지를 쓰고 사업형편을 자세히 알려줘야 하네. 내가 에베르쓰소장에게 보낸 평정서에 손상이 없도록 일을 잘하리라고 믿겠네.》

《저때문에 대좌님이 얼굴을 붉히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자에게 소식을 전하는것도 잊지 말게. 그 사람도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있다네. 짐작컨대 로르헨도 자네 편지를 기다리고있을거야. 내 짐작이 틀림없지?》

《제가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말은 다한것 같네. 가서 쉬라구. 반시간후부터 사무인계를 시작하겠네. 래일 떠나기 전에 복잡하지 않게 말이야.》

다음날 12시에 베르트골드는 베를린으로 떠났고 헨리흐는 정거장에서 곧바로 쎈-레미를 향해 자동차를 몰았다.

모니까는 양보하였다

자동차길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련상케 하였다. 헨리흐는 자연풍경을 감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하였다. 경치가 사실 아름다왔다. 평야는 뒤로 물러나고 이제는 도로를 따라 푸른 숲으로 덮인 구릉들이 계속되였다. 그 구릉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서로 키돋움을 하는것이 마치 알프스산기슭으로 밀려드는 높은 파도와도 같았다.

도로가 꼬불꼬불해졌을 때 헨리흐는 에르빈과 운전대를 바꿔잡았다. 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운전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도 가끔 마치 자동차도로가 높은 절벽이나 산과 갑자기 부딪치지나 않는가 해서 깜짝깜짝 놀라군 하였다. 가까이 가서야 헨리흐는 나란히 뻗어나간 신작로와 철길이 차굴속으로 사라지고 절벽이나 산 건너쪽으로 순식간에 뚫고나가게 된것을 깨닫군 하였다. 한굽인돌이를 돌아가자 도로와 철길은 크지는 않았으나 물살이 빠른 강기슭으로 구불구불계곡을 따라나가고있었다. 서북쪽으로부터 산들이 어찌나 강기슭으로 바투 붙어있었던지 그것이 길을 가로막지나 않는가 하는감을 주더니 그곳을 돌아서니 강은 급격히 구부러져 흘렀다. 강은 마치도 살아있

는 길안내자처럼 앞으로 달렸으며 헨리흐가 조향륜을 우로 돌리면서 전진하는대로 신작로는 자동차바퀴밑에 계속 깔려들어가는것이 마치 그끝이 없을것만 같았다.

쎈－레미라는 곳은 그러한 굽인돌이를 하나 지났을 때 전혀 뜻밖에 눈앞에 펼쳐졌다. 그 소도시는 널직한 분지에 자리를 잡고있었는데 아마도 자연자신이 이곳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라고 미리 마련해놓은듯 사람살기 적합한 곳이였다. 바늘잎나무수림이 덮인 나지막한 지맥들이 동북쪽으로부터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있었다. 서남쪽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었다. 바로 강기슭으로부터 우로 포도원이 자리잡고있었다.

신작로는 이 도시의 중심거리로 바뀌여졌다. 길 량쪽에는 쎈－레미의 좋은 건물들과 기관들이 자리잡고있었다. 헨리흐는 참모부를 오래 찾지 않아도 되였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었을 때 에베르쓰소장은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별장에 살고있고 사단참모부는 가장 큰 려관인 유럽호텔에 자리잡고있다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다.

5분후에 벌써 헨리흐는 《사단장 부관 류쯔대위》라고 쓴 패쪽이 붙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하는 듣기 좋은 저음으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헨리흐가 들어서자 책상건너쪽에 대위의 표식을 단 키가 호리호리한 장교가 일어섰다. 아마도 그가 류쯔인것 같았다. 그의 전체모습, 특히는 그의 커다란 회색눈은 그가 극도로 지쳤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저 되는대로 만들어놓은 류쯔의 머리꾸밈새는 피로했다는것과 또한 자기 몸치장에 등한한 성미를 보여주는것이였다. 그의 짙은 검은 머리는 가리마를 타고 빗은것이기는 하였으나 대위가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늘쌍 흘어져내려와 이마를 덮는것이였다.

《골드링중위입니다.》 하고 헨리흐가 보고하였다.

류쯔대위는 책상을 에돌아 몇걸음 헨리흐앞으로 나왔다.

《사단장 부관 류쯔대위입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저는 이 사단 참모부로 임명되여…》 하고 헨리흐가 말을 꺼내자 류쯔는 그의 말을 막았다.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도착할것이라고 기다리

던중입니다.》
류쯔는 책상건너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헨리흐는 그에게 문건을 내주었다. 말없이 문건을 보던 류쯔는 그중에서 임명장만 빼고 다른것은 헨리흐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도착했으니 매우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기주의적타산에서도 기쁜것입니다. 당신이 오셨으니 내 짐이 얼마간 가벼워질것입니다. 일은 많은데 혼자서 다 떠맡아보아야 했으니까요.》 류쯔는 인사성있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대위는 매우 소탈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좋은 방조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나의 방조자로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당신은 특수임무장교로 임명되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부관의 일을 하면서 당신이 할일까지 해왔으니까 당신이 온것이 사실 저의 짐을 많이 덜어주는 폭이 되지요. 아마 앞으로 사업상 자주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위님.》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거처할 집을 가리켜드리겠습니다. 나는 참모부에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개 층을 쓰고있는데 몇개 방은 장교들의 살림방으로 배당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다 찼습니다. 1층에는 위병대와 장교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려관에서 지내야 하겠는데 그 려관은 유럽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깨끗한 려관입니다.》
헨리흐를 위하여 잡아놓은 방들은 템플리려관 2층에 있었다. 작은 첫방에는 세면대, 쏘파, 둥근 상과 의자 두개가 있고 큼직한 둘째 방에는 비품들도 훨씬 좋은것이였다. 널직한 나무침대, 책상, 쏘파, 옷장, 큰 거울, 가방을 올려놓게 된 받침대가 있었다. 헨리흐는 그렇게 아늑한 방이 차례질것을 기대하지 못했던만큼 류쯔대위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여기서는 시내경치를 바라볼수 있습니다.》
대위가 문을 열자 둘이 다 로대로 나갔다.
《정말 경치가 좋은데요.》 헨리흐도 동의하였다.
《고운 처녀들을 구경하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류쯔는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처녀를 눈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 처녀는 길 건너편에 서서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사실 고운데요. 누굽니까?》

류쯔는 미소하였다.

《마음에 듭니까?! 바로 이 려관집주인 딸이랍니다. 모니까라고 부르지요.》

《고운 처녀군!》 헨리흐는 생각에 잠기며 되뇌였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게 아닙니다. 우리 장교들이 모두 한번 모니까와 친해보려고 해보았으나 다 실패하고말았지요! 모니까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처녀마다 다 그렇게 엄격한건 아닙니다. 마음이 순한 처녀들이 몇명 있는데 내 소개해드리리다.》

《나는 순한 처녀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취미에는… 말하자면 모니까같은 처녀가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이곳 미인들이나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가한 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지금은 우선 자리를 정돈해야 하니까.》

헨리흐는 로대 란간너머로 몸을 굽히고 아래쪽 자동차에 있는 련락병을 불러 짐을 들여오라고 일렀다.

《옳습니다. 그래야지! 이 련락병을 그냥 쓰게 됩니까, 다른 련락병이 필요합니까?》

《그는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 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곧 병사를 한명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때까지 림시로 쓸만 한 사람 말입니다. 나는 련락병을 직접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나도 동의합니다.》

에르빈이 큼직한 트렁크 두개를 들고 들어왔다.

《에르빈, 수고했네. 이젠 다 됐어. 래일 새벽에 떠나지. 오늘은 푹 쉬고 술이나 한잔 하라구.》 헨리흐는 100프랑짜리 지전을 에르빈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돈을 헤피 쓰다가는 새로 오는 련락병도 버릇을 궂히겠소.》 하고 에르빈이 나간 후에 류쯔가 주의해주었다.

《난 오늘 저녁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인심이 후하다는 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련락병이 되자고 모여들테니까요.》
《당신은 가장 완강한 사람을 택하겠지요.》
《정 반댑니다. 많은 사람들중에서 선택할수 있기때문에 그러지요. 단정한 사람과 함께 있고싶을뿐입니다.》
류쯔는 웃었다. 헨리흐 역시 웃었다. 그러나 어쩐지 흥미없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뿐이였다. 그래서 류쯔는 헨리흐의 얼굴에 나타난것이 피로때문인지, 슬픔때문인지 그 표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작별할 때 헨리흐는 대위의 손을 잡고 잠시 있다가 물었다.
《대위님,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잡수십니까?》
《점심식사는 장교식당에서 모두 함께 먹지요. 소장님이 그걸 요구한답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은 임의의 장소에서 먹을수 있지요.》
《그러면 오늘 저녁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류쯔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럼 제가 정각 아홉시에 대위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대위를 보내고 헨리흐는 짐을 정돈하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모든 짐을 제자리에 놓을건 놓고 옷장에 걸것은 걸어놓았다.
먼길을 온 후이라 목욕을 하고싶었다. 류쯔가 보낸 련락병이 목욕물도 데우고 잠자리도 정돈하였다. 헨리흐는 목욕을 하고 자리에 누우면 되였다.
새로온 련락병에게 몇가지 세세한 지시를 주고 사전 두개(도이췰란드－프랑스어사전과 프랑스－도이취어사전)를 꼭 사오라고 했다.
그후 헨리흐는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잠이 들었다. 그는 저녁 8시가 되여서야 잠이 깼다. 그가 임무를 준것은 다 수행되였다. 물건들을 잘 닦아놓았고 다릴것은 제때에 다려놓았다. 키가 크고 머리빛이 담갈색인 프리쯔 젤레르는 집행력이 있는 련락병이였다.
잠자리에서 좀더 딩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침까지 내처 자고싶었다. 헨리흐는 몹시 피곤했다. 그러나 류쯔와 저녁식사를 할 일이며 소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지방정세를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각나서 서둘러 일어났다.
15분후에 헨리흐는 벌써 그리 크지는 않으나 아늑하고 좋은 비

품들로 차려놓은 템플리려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시간에는 손님들이 없었다. 왼쪽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큰 찬장옆에 출입구쪽에 등을 돌리고 어떤 뚱뚱한 녀자가 서있었다. 저 부인이 아마 려관주인인 모양이다 하는것이 헨리흐에게 느껴졌다. 그의 주의를 끈것은 그 녀자뿐만은 아니였다. 헨리흐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면서 무엇인지 그 녀자와 열렬히 이야기하고있는 처녀를 주의해서 바라보았다. 그 처녀는 아까 류쯔가 말하던 이 려관집 처녀였다.

그때 로대에서 헨리흐는 모니까가 사실 아주 고운 처녀라는 대위의 의견에 동의하였었는데 이제 보니 말로는 그 처녀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수 없음을 느끼는것이였다. 그의 얼굴과 균형이 잡힌 체격에는 아름다움보다 그 무엇인가 더 큰것이 숨어있는것 같았다.

헨리흐는 무엇때문에 그 처녀가 그렇게 마음을 끄는지 처음에는 리해할수 없었다. 새까만 큰 눈이 번득이는 정기로 해서인지, 조각과 같이 훤칠하게 높은 이마아래에 나는듯이 그려진 눈섭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그 부드러운 둥근 얼굴, 탐스럽게 둘러싸고있는 물결치는 검은 머리때문인지도 몰랐다. 모니까의 코는 형태가 특별히 곧은것은 아니였는데 입술과 턱에 조화롭게 자리잡고있었다.… 그렇다. 조화, 모든 특징들, 눈빛갈, 머리, 약간 고부라진 긴 속눈섭들이 처녀의 얼굴을 무엇인가 비반복적인 매력있는 얼굴로 되게 한것이였다.

그 두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나서 헨리흐는 부인을 향해 이야기하였다.

《부인께선 도이췰란드말을 아십니까?》

《약간 압니다. 손님은 아마 골드링남작이시지요? 류쯔어른께서 손님이 도착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한하신분이 우리 려관에 정주하시는 손님으로 계시게 되여 매우 반갑습니다.》

려관집 주인의 얼굴에는 남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직업적인 친절한 미소가 나타났다.

모니까는 어딘지 헨리흐옆을 보고있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기있고 밝던 처녀의 얼굴은 교제성이 없는 새침한 얼굴로 되여버렸다.

《오늘 저녁 아홉시에 두사람분의 저녁식사를 주문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무슨 료리를 요구하시나요?》 려관집 주인이 대

답하였다.

《은어료리하고 프랑스식으로 만든 닭곰하고 생채료리를 할가 합니다.》

《요사인 재료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 려관에 기숙하시는 손님인데 대접해야지요. 저녁식사를 독방에다 차릴가요?》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방으로 포도주, 꼬냐크 한병씩 하고 과실 감로주 두병과 쵸콜레트술 한병을 가져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흐는 매대에 돈을 놓았다.

《거스름돈은 일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는대로 말하고나서 도이췰란드말로 써놓은 음식가격표를 들고 찬찬히 보기 시작하였다.

《이 남작이 아주 부자라고 류쯔가 말하더니 정말 그런가부다.》 프랑스말로 소곤소곤 주고받는 말들이 헨리흐에게도 날아왔다.

《략탈을 한거겠지요!》 하고 모니까는 성이 나서 뱉듯이 말했다.

《말조심해라, 모니까!》

《저 사람도 보나마나 나무토막같이 아무것도 모를거예요.》

《주문받은걸 가져다드려라!》 하고 부인은 명령하였다.

헨리흐는 웃음을 숨기고 음식가격표를 제자리에 놓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모니까가 포도주병을 놓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상우에 술병을 놓자 모니까는 말없이 문쪽으로 향했다.

《잠간만, 아가씨!》

모니까는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음말을 기다렸다.

《도이췰란드말을 아십니까?》 헨리흐가 물었다.

《할줄은 알지만 말하는 일이 드물어요. 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말도 그렇고…》 모니까는 말끝을 흐리였다.

《…도이췰란드사람자신도 말이지요.》 헨리흐가 모니까의 말을 대신 끝내주었다.

모니까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용감하군요! 그러나 나는 도이췰란드장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군요.》

《매 사람의 취미는 자유이겠지요. 례컨대 저에겐 로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음악적인가요.》

《나도 로어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 동부전선에서 왔으니까요.》
《동부전선에서요?》
헨리흐는 모니까의 눈을 보고 그가 몹시 호기심을 가지고있는것을 알았다.
《로씨야의 녀성들은 당신처럼 그런 말을 도이췰란드장교들에게 하지 않는다는걸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묵묵히 참아가나요?》
《아니요. 그들은 쏘지요. 자기의 원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쏘아버린단 말입니다.》 헨리흐는 프랑스말로 이렇게 말하였다.
모니까는 눈이 둥그래졌다. 한순간 모니까는 힐끔 헨리흐를 보고나서 무슨 말인가 대답하려는듯 입술을 오물거리는데 마침 련락병이 들어오는 바람에 처녀는 나가고말았다.
정각 9시에 헨리흐는 류쯔의 방을 찾아갔다. 류쯔는 아직 일을 하고있었다.
《대위님,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벌써 아홉십니다! 그냥 일만 하시는군요.》
《난 당신을 기다리고있었소. 멍하고 앉아있기 무엇해서 래일 할 일을 준비하고있는 참이요. 그래 자리를 잘 잡았소?》 하고 류쯔는 서류철을 치우며 설명하였다.
《괜치 않습니다. 벌써 려관집 주인과 그의 딸하구 인사까지 했는걸요.》
《그래 모니까가 불손하게 말하지 않습디까?》
《약간 그럽디다만 나는 그 처녀와 결국은 서로 리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며 류쯔는 진정으로 놀라는것이였다. 《당신이 행복하게도 그 처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맺게 된다면 모든 장교들이 당신을 부러워할것이며 당신을 굉장한 외교관으로 여길것입니다.》
얼마후 두사람은 아늑한 방에 함께 앉아 저녁식사를 하였다. 려관주인 따르왈리부인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식탁에 내놓았으며 식사도 특별히 공을 들여 준비한것이기때문에 대위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은어지짐이 나왔을 때 놀란 류쯔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모니까의 동정은 못샀다 하더래도 따르왈리

부인의 동정은 충분히 쟁취한것 같소. 첫날부터 이런 료리를 대접하는걸 보니…》
저녁식사후 헨리흐는 꼬냐크 한병과 려송연 한갑을 더 청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단 말이지요?》 그는 술잔을 입에 댔다 떼고 물었다.
《전에는 아주 헐했다오. 그때에는 사단이 촘촘히 있었으니까. 참모부는 엑크슬레베니예에 있었는데 일이 훨씬 적었소.》 류쯔는 긴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단의 배비변경을 왜 했나요?》 헨리흐가 궁금해하였다.
《처음에는 프랑스사람들이 조용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부근 전투에서 우리가 패한 후에는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소. 마키라고 부르는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많은 경우에 골목에 숨었다가 주로 장교를 쏜단 말이요. 철도, 교량, 군사대상물들을 폭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소. 비밀경찰부대들과 경찰만으로는 이미 그들을 감당할수 없게 되였소. 그래서 군사대상물에 대한 경비임무가 우리 사단에 떨어지게 되였단 말이요. 우리 사단을 쎈-미쉘로부터 샴베리에까지 이르는 90키로메터나 되는 지역의 각처에 분산배치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도 다 그때문이요.》
《그래 그후에는 마키가 조용해졌나요?》
《천만에,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였소. 주민들이 그들을 돕고있기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있소. 두주일전에 마키부대는 로씨야포로수용소를 습격하였소.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스럽게 서있던 우리의 경비를 돌파하고 수백명의 로씨야병사들이 그들과 함께 산으로 가버렸소. 추격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소. 당신이 도착하기 며칠전에는 마키가 벌써 로씨야병사들과 함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자동차대렬을 습격하였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든든히 무장을 하였소.》
《난 동부전선에서 왔으니 좀 휴식이라도 할가 하였는데 노루를 피하니 범을 만난 격이군.》
대위는 얼마전에 있은 빨찌산토벌작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면서 류쯔의 술잔에 계속 술을 따랐다. 얼마후에는 대위가 거나하게 취하였다.

골드링과 류쯔가 템플리려관의 아늑한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고있을 때 모니까는 자그마한 폰쩨마프레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그 부근에 있는 주민지점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었다. 4키로나 되는 아스팔트길을 모니까는 15분가량 되는 시간에 달렸다.

《프란수아를 좀 불러주세요. 저녁을 가져왔어요.》 모니까는 낯이 익은 선반공에게 부탁하였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땅속에서라도 찾아다드리지요. 프란수아가 행운아거던! 이런 미인이 직접 보고싶어 찾아왔다니.》

이 선반공도 그렇고 발전소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모니까를 프란수아의 약혼녀로 알고있었으며 그것을 모니까도 프란수아도 부인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니까는 젊은 로동자들이 가까이 있는데서 자그마한 저녁꾸레미를 프란수아에게 내주었다. 프란수아는 처녀를 뜨락 한구석으로 데리고가서 널쪽에 앉아 음식꾸레미를 펼치였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정말 애인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면 몹시 놀랐을것이다. 그 곱게 생긴 처녀와 키가 호리호리하고 머리를 짧게 깎은 날쌔보이는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애인들이 주고받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모니까?》 프란수아가 저녁을 먹으며 불안한 빛으로 물었다.

모니까는 자기가 오늘 골드링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가 하던 말도 한마디 빼놓지 않고 전하였다.

프란수아는 생각에 잠기였다.

《무슨 음모인게 분명하오. 그다지 교묘하다고 할수 없군. 그 남작이 아마 아직 젊어서 말을 삼가할줄 모르는 모양이군. 그러나 모든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자가 참모부에서 현저한 역할을 하게 될건 명백하오.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하숙집까지 마련해놓지는 않겠으니까. 그러니까 동무는…》

처녀의 얼굴이 침울해지는것을 보자 프란수아는 조용히 웃었다.

《좀 유쾌하게 놀라구.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무룩해 그러나! 자꾸 그러면 주름살이 생겨서 지레 늙는다니. 너무 성내지 말라구. 자꾸 그러면 내 입을 맞추겠어— 나야 동무의 신랑감이 아

닌가.》
《프란수아, 그 버릇은 좀 고칠수 없나봐. 좀 생각해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신중하다는건 결코 장례식에나 참가한 사람처럼 다니라는게 아니야. 롱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거던. 나쁜 배역을 할 때에도 좋은 기분을 가져야 한단 말이요. 우리가 하는 연극은 매우 나쁘다 할수 있지. 왜냐하면 그 두꺼비가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다스러운 남작이란 작자를…》
《프란수아…》
《또 성이 났소? 나를 믿으라구. 내가 나쁘게는 안하니까. 그저 그 작자와 어물어물 알은체 하고 지내면 된다니까. 그런 작자 하나 속여넘기지 못한다면 무슨 녀자랄게 있소? 좀 생각해보오. 아주 좋은 기회라니. 왜 그런가? 첫째로 그 장교가 동무어머니 려관에 살고있지, 둘째로 그자가 참모부에서 일하게 될것이지, 셋째로 그자가 말이 좀 헤프다는것이요. 넷째로 고운 처녀와 매일 만나게 되기때문이요. 동무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따금 그렇게 속눈섭을 내리우고 미소를 띠우면서 자신은 적게 말하고 그자가 지껄이는것을 더 들으면 된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참모부에서 진행되는 일을 다 알게 될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지 알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다른 장교들 같지는 않아요. 치근거리거나 선물을 쥐여준다거나 하지도 않고 본체만체 하는걸요. …》
《그야 동무에게 달렸지.》
《그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하자거나 영화구경을 가자면 어쩔가요?》
《물론 가야지. 술이 좀 들어가면 사람이란 말이 많아지는 법이니까.》
《마키는 히틀러도당을 따라다니는 처녀들의 머리를 깎아버리는데 후에 나도 그렇게 될려구요?》
《그 걱정은 말라구. 동무 머리카락 한오리 다치지 않게 해놓을테니까. 그럼 약속합시다. 다시한번 말하겠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요. 그리고 이 분공을 맡은데 대해서는 어머니도 알아선 안되오. 특히 남작에게서 얻어낸 비밀은 더 그렇소.》
모니까는 한숨을 쉬였다.
《꼭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아주 필요하오. 그것은 동무가 동무의 오빠를 포함한 우리모두를 돕는 일이요. 아마 얼마후에 오빠 쟌을 만날수 있을거요.》

《언제요?》 모니까는 기뻐하였다.

《후에 알려주겠소. 아마 여기, 발전소에서 만나게 될거요. 다행히도 도이췰란드놈들은 이 발전소전기를 쓰지 않기때문에 우리에겐 관심을 덜 돌리고있소. 그러나 특별한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곳에 오지 않는게 좋겠소. 동무가 나의 약혼녀라구 모두 생각하고있기는 하지만 그래두 조심해야 하니까. 도이췰란드놈들이 동무가 이곳으로 자주 다니는걸 눈치채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모니까와 프란수아는 일어나서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프란수아는 다시 그의 장난궂은 기분으로 돌아갔다.

《자, 내 목에 매달리라구. 그래야 모두 신랑과 떨어지기 어려워한다는걸 알게 아니요. 정 싫다면 손수건으로 눈을 문지르던지!》 하며 그는 모니까를 놀려주었다.

모니까는 웃었다. 그의 눈에는 능청스러운 불꽃이 번뜩이였다. 갑자기 프란수아에게 다가가서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프란수아는 얼굴이 벌개서 당황한듯 뒤더수기를 문질렀다.

《내가 훈계를 했더니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 프란수아는 점직해하며 말했다.

《동문 말하구는 아주 다르군요. 처녀앞에선 경험도 없구 용기도 없는걸요!》 모니까는 문을 넘어서서 웃으며 그에게 소리쳤다.

헨리흐가 만취된 류쯔를 식당에서 데려내갔을 때 모니까는 집에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방금 받은 기분나쁜 임무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이튿날 아침 정각 9시에 헨리흐는 참모부에 도착했다. 류쯔는 중병을 앓다가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같은 몰골이였다.

《아마 어저께 과음한 모양인걸요.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군.》

대위는 그러지 않아도 그다지 단정하게 빗질하지 않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하소연을 하였다.

사단장이 올 때까지 류쯔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베르쓰소장은 부관방에 머물렀다. 이미 고령이였으나 아직 정정한 체격이였다. 그는 눈시울이 무겁게 늘

어져 보기에는 몹시 엄격해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류쯔, 무슨 새 소식이 있소?》 하고 그는 부관에게 물었다.

《새 소식이요? 새 장교가 도착했습니다.》 류쯔는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에베르쓰소장은 헨리흐쪽을 보았다.

《중위 골드링!》

《아, 나의 옛친구. 베르트골드가 자네를 추천해주었소. 내 방으로 갑시다.》

소장의 방에는 책상옆에 놓은 자그마한 상에 약수가 몇병 놓여있었다. 소장은 한고뿌 따라서 자기앞에 놓았다.

《이 씁쓸한 물을 당신께 권하진 않겠소. 나도 할수없이 마신다오, 간이 나빠서! 당신들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흥미가 없겠지… 그래, 대좌가 어떻게 지내시오? 어떤 새 임무를 받았는지 아직 모르나?》

《베를린에 떨어질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베르트골드를 축하해야겠군! 히믈러의 지시를 받으면 중요한 자리에 갈게요. 중위도 운이 좋소! 베르트골드 같은 그런 후견자를 만나기도 쉬운 일이 아니요. 내게 말하기를 자네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더군.》

《대좌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대좌님은 저의 부친과 가까이 지내신 관계로 정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주십니다.》

《베르트골드에게서 당신의 래력을 다 들었소! 매우 랑만적이거던! 나 역시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과는 아는 사이였소. 친우관계였지. 일찍 작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매우 섭섭했소. 그러나 당신은 아버지를 자랑할수 있소. 그는 초소에서 병사의 참된 일생을 마치였으니까!》

《소장님, 전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서 특수임무장교로 일하게 될거요. 출장이 많겠는데 젊으니까 아마 려행을 싫어하지 않겠지?》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니겠습니다. 전시인만큼 자기자신의 희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요!》 소장은 물을 한모금 마신 후 사무적인 어

조로 넘어가면서 덧붙여 말했다. 《임무는 나에게서 직접 받거나 류쯔를 통해서 받게 될거요. 그 사람과는 이미 인사를 했지?》
《그렇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주 훌륭한 장교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니 나도 기쁘오. 앞으로 그와 함께 일해야 할 경우가 많겠는데… 그럼 중위,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또 만납시다.》
《소장이 어떻게 맞아줍디까?》 헨리흐가 에베르쓰의 방에서 나오자 류쯔가 물었다.
《아주 친절히 맞아줍디다. 내가 앞으로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될거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에게서 내가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만족해하십니다.》
《매우 감사하오, 남작.》
《소장님은 내가 직접 소장에게서 임무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서 받게 될거라고 말씀합디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할가요?》
《얼마간 휴식도 하고 시내구경도 하시구려. 오늘은 나자신도 도무지 정신이 들지 않소.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리다. 행처를 꼭 련락병에게 알리시오. 그리고 점심식사때 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하오. 소장은 그런걸 좋아하지 않소. 식당에서 정각 한시에 모두 함께 먹는다오.》
《저녁은 어제께 먹은데서 함께 합시다.》 하고 헨리흐가 덧붙여 말했다.
《너무 비싸지 않을가.》 류쯔는 망설이는것이였다.
《그런건 걱정마시우, 대위님!》 헨리흐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남기고 나갔다.
시내구경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제께 헨리흐가 생각한대로 쎈-레미의 중심거리는 자동차도로를 따라 이루어지고있었다. 그곳에 려관들, 별장들, 영화관, 상점들, 관청들이 집중되여있었다. 이 중심도로에서 벗어난 다른 골목들은 불결하고 구불구불하고 좁고해서 자동차 두대도 서로 어기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간 거리를 거닐고난 헨리흐는 려관으로 돌아와 점심때까지 사전을 들추어보았다. 그는 한시바삐 프랑스어에 대한 자기 지식을 갱신하고싶었다.
한시를 몇분 앞두고 헨리흐는 장교식당으로 갔다.
30명가량의 참모부장교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있었다. 그들은 흰 식

탁보를 씌운 긴 상두리를 왔다갔다하고있었다. 상우에는 식기들이 놓여있고 국자를 놓은 큰 국그릇이 있었다. 헨리흐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길로 보는것을 감촉하였다. 아마 그가 례복을 짓는 비싼 천으로 만든 새 군복을 입고있는것이 참가자들의 주의를 끈 모양이였다.

소장이 들어오자 모두 자세를 바로하였다. 에베르쓰는 웃자리로 갔으나 앉지 않고 자기 의자뒤에 섰다. 장교들도 자기들에게 배정된 자리곁에 섰다. 에베르쓰는 손짓으로 골드링을 자기 오른쪽자리로 오라고 알려주었다.

《장교여러분, 우리 참모부에 새로 오게 된 중위 골드링남작을 소개합니다.》 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말했다.

헨리흐는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는 앞으로 나의 특수임무장교로 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골드링중위는 요르단중장이 지휘하는 군단참모부 제1부장의 특수임무장교로 사업하였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존경하는 눈길로 헨리흐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더 친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소장이 앉았다. 그를 따라 장교들도 앉았다. 소장이 자기 국그릇에 국을 떠담자 모두 차례로 국자를 들었다. 헨리흐 보기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상관 하는대로 따라하는것이 우스웠다.

점심식사는 오래 끌었다.

마침내 소장이 일어섰다. 장교들도 일어섰다. 헨리흐도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오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헨리흐는 류쯔와 함께 식당을 나서면서 물었다.

《일은 래일 아침부터 하기로 합시다. 어쩐지 정신이 들지 않는군. 소장도 간이 아파서 오후엔 별장에 그냥 계실겝니다.》

《그럼 9시에 다시 만납시다. 참모부에서 내가 만나지 못할 때엔 직접 내 방으로 와주시오.》

려관현관에서 헨리흐는 모니까와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헨리흐는 극히 랭랭하게 인사하였다.

이상한것은 모니까가 빙긋 미소하며 인사를 받는것이였다.

《안녕하세요, 남작님.》
《아가씨도 웃을줄 압니까?》 놀란척 하면서 헨리흐가 물었다.
《저도 아마 생물이겠는데 그게 그리 이상한가요?》
《당신네 나라에는 훌륭한 소설이 있지요. 물론 아가씨도 읽었겠지만 〈웃는 사람〉이라는 책 말입니다. 여기선 아가씨를 〈웃지 않는 처녀〉라고 한답디다. 우리 장교들이 내게 말해주는데 아가씨는 한번도 웃은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들에게 웃음을 웃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특례를 만드시였군요?》
모니까는 아마도 프란수아가 준 위임을 생각한듯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것을 꾹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끝내 참을수 없어 한마디 하였다.
《남작님께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이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제가 좀 친절히 대했다면 그것은 남작님이 다른 장교들보다 더 문화적인분으로 보였기때문일뿐입니다.》
《아가씨는 우리들 도이췰란드장교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니까 모든 사람을 같은 자로 재는것이지요.》
모니까는 길게 한숨을 쉬고 속눈섭을 내리깔았다. 아마도 증오의 눈길을 숨기기 위해서이리라. …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가씨, 전쟁을 시작한것은 나도 아니요, 아가씨도 아닙니다.》 헨리흐는 다정히 말했다.
모니까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가버리지도 않았다. 헨리흐의 머리에는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모니까아가씨, 내가 자그마한 한가지 청을 하고싶은데 나를 지나치게 뻔뻔스러운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내가 남작님께 무슨 도움이라도 드릴게 있나요?》
《있구말구요. 아가씨는 도이췰란드말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를 연구하는걸 얼마든지 도와주실수 있습니다.》
《심문할 때는 통역관을 쓰면 될텐데요.》
《아가씬 설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나야 게스타포도 아니요, 군대에 초모된 평범한 장교일따름입니다. … 전쟁전에 나는 당신네 나라의 아름다운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

한 기회가 이루어져서…》
《장교님껜 훌륭한 기회이겠지만 우리들 프랑스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비록…》 하고 모니까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전 믿어요. 프랑스가 아직도 위대한 강국으로 되리라는것을…》
《나 역시 그것을 믿습니다, 아가씨! 자유를 사랑하는 인민,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진 인민을 어찌 오래동안 정복할수 있겠습니까?》
처녀의 입술은 너무 놀라서 어린애처럼 벙싯하니 벌려져있었다. 헨리흐는 자기 말이 던져준 인상에 대해서 못 본척 하였다.
《나를 도와줄것을 동의하십니까?》
《말을 연구한다는것이 그렇게 헐한건 아니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전이 있어야 하고 학생과 선생의 능력도 있어야 해요.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방조자를 구할수 있을줄 알아요.》 모니까는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피하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난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보았는데 바로 아가씨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적다는것을 고려해주십시오. 그렇기때문에 내가 당신네 려관에서 살고있다는 그것이 이 문제를 쉽게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와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 부합될 때 그때 나의 학습을 도와주면 될겝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가씨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줄뿐만아니라 말하자면 한 인민과 다른 인민간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버릴수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나라의 말을 연구할 때에는 부지중 그 나라 인민의 정신을 리해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인민의 문화, 지향, 희망을 더잘 리해하기 시작할것입니다. 난 말주변이 없어 갈피를 잡기 어렵게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진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런데 사전하고 교과서가 있어야겠는데…》 마침내 모니까가 동의하였다.
《다 구해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걸 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것을 구해야 하지나 않겠는지.》
모니까는 망설였다. 모니까가 주저하는 원인을 알아차린 헨리흐는 분주히 다짐하였다.
《당신의 완전한 안전에 대해서 진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처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헨리흐의 방이 있는 2층으로 가는 층

계를 올라갔다.
모니까를 앞세워 들여보내고 헨리흐는 현관방에서 잠간 지체하였다.
《프리쯔, 피뜩 달려가서 이 돈으로 가장 좋은 과자하고 과일을 사오게!》 그는 조용히 련락병에게 말했다.
헨리흐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모니까는 벌써 책상옆에 앉아 사전을 보고있었다.
《쓸만 하겠습니까?》
《사전은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여기엔 문법규정도 있고 끝에는 성구들도 있습니다. 려행가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되여있군요. … 정복자들에게도…》
《아가씨는 가혹하십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저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용어들에 대해서 나는 다소 정통했기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당신이 어머님께 하시던 말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작님께서 기억하실만 한 그렇게 의의있는 말을 하였나요?》
《몹시 노여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가 많이 략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니까는 얼굴이 진하게 붉어졌다.
《전 프랑스말을 아시는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용서해줍시사고 빌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모니까는 변명조로 말했다.
《나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는가를 말씀해줄걸 한가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선 존경하는 어머님, 따르왈리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지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래일부터라도 시작하지요.》 모니까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히 이렇게 말하고 랭랭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게스타포가 헨리흐의 신분에 관심을 갖는다

《소장님이 주는 긴급한 과업이 생겼소. 골드링, 박격포의 시험사격을 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구하는것이요. 길이가 6백메터이상이고 너비가 2백메터되는 면적을 가져야 하오. 그 지형은 될수록 나무

가 덮이지 않고 경비초소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좋을것 같소.》 하고 류쯔가 말했다.

《풀은 있어도 일이 없을가요?》

《현지에서 정하시오. 신형소이탄의 시사가 있을것이랍니다. 내 생각엔…》 류쯔는 탁상지도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이었다. 《바로 여기 쎈—레미로부터 서북쪽에 비슷한 대지가 있소. 그곳을 돌아보시오. 그곳은 자동차길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가야 할거요. 위수중대에서 병사 두명을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꼭 자동총을 휴대하시오.》

《내 신형 16련발권총은 자동총만 못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오. 교외로 빨찌산이 배회한다는 정보가 있소.》

《즉시 떠나겠습니다, 대위님.》

헨리흐는 무기를 들고 15분후에는 벌써 자동총으로 무장한 기병 두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댓키로메터 가니 길이 끊어지고 그다음에는 급히 경사진 좁은 오솔길이 있을뿐이였다. 급한 경사에 겁을 먹은 말들이 뒤걸음질쳤다.

《말을 가지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오.》 헨리흐는 기병들에게 명령하였다.

헨리흐는 말고삐를 병사에게 던져주고 오솔길을 따라 톺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얼마 올라가니 대지가 나타났다. 대지는 정말 길이가 한키로메터나 되고 너비가 4백메터나 되는 넓은 곳이였고 산기슭쪽에는 높은 암석이 가로막고있었다. 풀이 났을뿐 다른 식물은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격장의 맨끝에 약간의 넓은 잎나무가 자랐을뿐이였다. 헨리흐는 대지를 가로질러 암석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 빈터주위에는 큰 돌덩이들로 덮여있었다.

《아주 안성맞춤이군!》 헨리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격장을 돌아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바위있는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나무밑에 나섰을 때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헨리흐가 사방을 둘러보니 대지 반대편쪽에서 사복을 입은 두명의 프랑스사람이 방금 바위뒤에서 나오고있었다. 그들중 나이가 들어보이는 한사람은 어깨에 도이췰란드자동총을 걸머지고있었다. 또 한사람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들은 굵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쪽으로 가고있었다.

헨리흐는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의 자동권총은 실수없이 작용할것이고 저 두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태평스럽게 걸어가고있다. 더 가까이 접근시켜서 자기를 보지 않을 때 쏘아버릴것인가? 그러나 저 사람들은 원쑤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원쑤와 싸우고있는 친구들이다. 그들앞으로 나서서 평화적으로 일을 끝낼것인가? 그러나 그가 한마디 말을 할 사이도 없을것이다! 빨찌산들은 그의 군복을 보기가 무섭게 사격할것이다. 나무뒤에 숨을것인가? 그러나 거기서 하여튼 발각되고말것이다. 빨찌산들은 나무숲과 잇닿은 과수원으로 가고있다.

헨리흐는 나무뒤에 바싹 몸을 숨기고 자기 권총을 굳게 틀어쥐였다. 그리고 그 두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가까이 왔다. 빨찌산들이 그에게서 여섯메터쯤 되는 곳에 당도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앞으로 뛰여나가 큰소리로 소리쳤다.

《섯!》

무슨 영문인지 몰라 벙벙한 빨찌산들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을 향한 권총을 보자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젊은 축이 약간 움직일가 하는 눈치를 챈 헨리흐는 왼손에 또 한자루의 권총을 꺼내들고 무시무시하게 위협했다.

《손을 내리지 말것!》

빨찌산들은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두 권총의 총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생명뿐만아니라 자유도 보장해주겠다.》 헨리흐는 급격히 어조를 바꾸면서 말했다.

《거짓말 말아!》 나이든 빨찌산이 밸듯이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팔을 내리우거나 무기에 손을 대려고 하기만 하면 내가 쏠것이다. 내가 쏘기만 하면 당신들은 저승으로 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나이든 빨찌산이 의문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당신은 우리를 쏠겁니다!》 분한듯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두손에 권총을 들고있는 조건에서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쏠수 있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당신들은 없다.… 군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충고하겠다. 빨찌산이야 무기를 손에 들고있어야지 주머니에 넣고다녀선 안된다. 당신은 휴양소에나 간듯이 행동하고있으니 그게 무슨 군인인가! 이야기는 그만하자. 뒤로 돌앗! 달려갓!》

젊은이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다. 그뒤를 따라 늙은이도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등뒤에서 총을 쏘리라는것을 우려하는듯 천천히 걸었으나 점차 걸음을 빨리 하더니 그다음에는 이따금 돌아보면서 냅다 달려갔다.

헨리흐 역시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로 향했다. 빨찌산들은 이미 암석있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이 괴상한 도이췰란드장교가 어쩌는가 하고 유심히 보는것이였다. 골드링은 방금전 자기에게 포로가 되였던 빨찌산들에게 친절히 손을 흔들고나서 급히 대지에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빨찌산들이 암석에까지 다달았을 때에는 헨리흐도 이미 멀리 갔었다. 마키는 기병 두명이 시내로 달려가는것을 보았을뿐이였다.

《이게 웬일인지 알겠소?》 젊은 축이 의아한듯 늙은 빨찌산에게 물었다.

《나두 모르겠네.》

포도원에서 은밀히 이 광경을 바라보던 늙은 농촌할머니도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쟌 따르왈리와 삐에르 끄르빌리가 도이췰란드장교와 맞다들린것을 보자 할머니는 겁이 나서 혼이 나갈번 하였다. 할머니는 총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막았다. 그러나 총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우 괴상한 이야기가 토막토막 그에게까지 들려와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반시간도 될가말가해서 명랑하고 기분좋은 헨리흐는 신형박격포 시험을 위하여 찾아낸 훌륭한 사격장에 대해서 대위에게 보고하였다.

《시험은 언제 한답니까?》 하고 그는 류쯔에게 물었다.

《곧 할게요. 우리 소장이 접수위원회 위원이니까, 날자는 그에게 달렸소. 내 생각엔 오래 끌것 같지 않소. 더우기 박격포도 포탄도 여기서 만드는것이니까.》

《그건 아마 잘못 생각한게 아닙니까? 쎈—레미부근에서 내가 본바에는 그런걸 만들만 한 공장이 하나도 없던데요.》

류쯔는 씽긋 웃었다.
《사격장으로 가는 도중에 신작로 오른쪽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보지 못했소?》
《한키로반쯤 가서 말입니까?》
《그렇소. 그게 바로 그 공장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건 공장이라기보다 무슨 수리소같던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소. 겉으로 보기엔 정말 큰 군수공장같지 않지. … 그건 공장이 지하에 있기때문이요! 거기서 수천명이상의 포로들이 일하고있소. 로씨야사람, 프랑스사람, 뽈스까사람, 체스꼬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해빛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지. 그들은 땅밑에서 일하고 먹고 잠자고 죽어가고있소. 그들은 죽으면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오!》
《묘하게 궁리를 했군요!》 헨리흐의 말이였다.
그는 정말 뜻밖에 그런 정보를 알게 되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 지휘부에 즉시 알려야 할 정보였다.
《내가 그들이 죽으면 그곳에 묻는다고 한것은 땅밑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지방농민들에게 비료로 판단 말이요. 그걸 사는 사람들이 그 비료의 출처를 도저히 알수 없지… 페물리용이란 그런거란 말이요.》 류쯔는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끝냈다.
헨리흐는 대위가 그 마지막말을 야유조로 한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소장이 날 부르는거요. 오래 걸릴것 같지는 않소. 별일 없으면 여기서 기다려주구려.》
《아니, 난 가서 세면을 하겠소, 말을 타고 갔다오느라고 먼지를 뒤집어써서. 점심때 장교식당에서 만납시다.》
소장은 손님과 함께 있었다. 그와 마주앉은 사람은 게스타포일군들을 지도하는 밀레르소좌였다.
부관은 그 거만하고 잘난체 하는 게스타포일군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기 참모부에서 그를 보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 아마

도 류쯔가 자리를 떴을 때 에베르쓰를 찾아온 모양이였다.

《류쯔, 소좌가 일이 있어 찾아오셨는데 당신도 함께 토의하자고 불렀소. 밀레르씨는 새로 우리 특수임무장교로 배치된 골드링중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어하는데.》 소장은 밀레르옆에 놓인 안락의자를 권하면서 말하였다.

류쯔는 놀라운 눈길로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다음 시선을 밀레르에게로 돌렸다. 참으로 구역질나는 추물이였다. 특히 뾰죽한 코와 상판대기를 개상으로 만든 그 턱이 그러하였다. 똥그란 작은 눈이 마치도 송곳으로 뚫기나 하듯 상대방을 쏘아보는것이였다.

《난 골드링중위가 우리 참모부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귀고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것은 그가 문화성이 있고 유능하며 아주 미더운 장교라는것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밀레르씨, 우리 부관 의견도 내 생각과 같습니다.》 하고 에베르쓰가 말하였다.

《나 역시 골드링남작이 믿음직하다는데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소장님, 그러나 우리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신호인가 하는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뿐만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밀문건을 취급하게 되는 새 장교들을 검열하는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때문에 찾아오게 된것입니다. 방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밀레르씨, 그 사람은 어떤 미지의 인간이 아니라 베르트골드대좌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골드링남작이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틀러의 친우인 베르트골드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베르트골드대좌는 베를린으로 가서 히믈러님의 수하에서 사업하고있습니다. 이 검열에 대해서 베르트골드대좌가 알게 되면 어떻겠는가 상상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검열하라는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어저께 골드링중위의 래력을 상세히 모르고 검열하라는 신호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였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즉시 검열을 하라는 지시를 상관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골드링은 이 검열에 대해서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소?》 에베르쓰는 다소 역증을 내며 물었다.

《우리에게 소장님의 방조가 필요합니다. 골드링남작을 리옹으로 출장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계획을 실현하는데 방조가 될것입니다. 제일 좋기는 골드링에게 군단참모부로 가는 문건을 주어 보내는것입니다. 그밖의 일은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검열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조해주실것과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게 해주실것을 믿습니다.》

《좋소. 그 대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언제 중위를 보내면 되겠소?》

《오늘 보내주십시오. 기차는 16시 40분에 떠납니다.》

《이 이상 우리 장교들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기 바라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드링과 베르트골드대좌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걸 듣고나니 저자신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결정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 자그마한 작전계획에 대해서 상관과 토의까지 하였으므로 지금 물러서는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밀레르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난 저런 장난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권리는 없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골드링이 검열에 대해서 모르도록 해야하겠소. 만일 그걸 안다면 베르트골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불쾌한 일이 있을수 있소. 하여튼 히뜰러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것은 화약통우에 앉아 손에 도화선을 쥐고있는것과 같으니까.》

《호두알같이 단단한 골드링이니까 아마 밀레르도 이발이 들지 않을겝니다.》

《그러나 오늘 남작을 리옹으로 보내긴 해야 하오.》

《그는 특수임무장교니까 보통군사문건을 가지고 군단참모부에 갔다오게 해도 본인이 의심스럽게 생각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골드링은 봉서의 내용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밖의 일은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봉서를 준비해서 내 이름으로 중위에게 주면서 리옹에 전달

하고 오라고 지시를 주게. 한마디라도 입밖에 내지 않도록 하게.》
《걱정마십시오, 소장님!》
템플리려관 현관에서 헨리흐는 농촌차림의 늙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가 정이 어린 눈길로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르고 스쳐지나갔을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나리님!》
《안녕하십니까, 할머님!》 헨리흐는 몹시 놀라서 답례하였다.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미 프랑스사람들이 도이췰란드사람과 인사하기를 피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려관으로 들어가 헨리흐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 하였는데 따르왈리부인이 부르는 바람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 그 부인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려관집주인의 직업적인 미소가 아니였다. 부인의 얼굴은 감동되여있었고 입술은 떨리였다. 그러나 두눈은 심상치 않은 애정과 의문 비슷한 표정을 담고 바라보는것이였다.
《밖은 몹시 덥지요, 남작님!》 따르왈리부인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런 기후는 처음인데요.》 헨리흐도 동의하였다.
《시원한걸 좀 마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손님을 위해서라면 훌륭한 오래된 샴팡주를 갖다드리지요.》
헨리흐는 식당방에 들어섰다. 따르왈리부인은 어디론지 달려나갔다. 잠시후 부인은 술병과 잔을 가지고 돌아왔다.
《정말 훌륭한데요. 부인, 이제야 알겠군요. 프랑스샴팡주의 명성이 멀리까지 전파된 원인을…》 헨리흐는 한잔 마시고나서 찬양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게 마지막병이예요. 무슨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보관해두었던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모인데서 나누어마실걸 그랬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원, 별말씀 다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행복한 날이랍니다.》
《렴치없는것 같지만 기쁘게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잔에는 붓지 않습니까?》

따르왈리부인이 또 한잔 따랐을 때 헨리흐가 말했다. 황금빛술은 빛났으며 얇은 유리잔에서는 끓는 소리가 났다.
《무엇을 위한 축배로 할가요?》
《우선 첫째로, 남작님의 건강을 위하여 마시고싶습니다. 정말 남작님때문에…》 따르왈리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록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부인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오! 남작님께서는 저에게 얼마나 큰 은덕을 주셨는지!》
헨리흐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의아한 눈길로 려관집 주인을 보았다. 부인은 절을 하고나서 마치 누가 엿듣기나 할가 념려하는듯 소곤소곤 말했다.
《정말 잊을수 없는 은덕이지요! 유감스럽게도 그 사정을 소리내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걸 저도 알고있어요! 그러나 제발 기억해주세요. 따르왈리부인도 은혜를 갚을줄 안다는것을… 저는 항상, 언제나…》
《부인을 실망케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정말 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도 못하겠군요.》 헨리흐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알만 합니다. 남작님! 저는 침묵을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목청껏 말할수 있는 그때가 오기까지…》
《부인께선 매우 흥분한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때가 올 때까지 그 이야기는 미루십시다.》
헨리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탁자우에 돈을 놓으려 하였다.
《오늘은 제가 손님을 청했습니다, 남작님!》
따르왈리부인의 괴상한 행동과 려관입구에서 만났던 농촌할머니의 친절한 태도, 이 모든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 하고 두루 생각하면서 헨리흐는 자기 방안에서 오래동안 왔다갔다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을 설명할수는 없었다. (아마 나에게도 역시 행복한 날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그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사전을 보기 시작했다. 어저께 그는 오늘 오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자고 모니까와 약속한것이 생각난것이였다.
그러나 그때 모니까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발전소뜨락에서 모니까는 초조하게 프란수아를 기다리며 그가

인차 나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땐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소.》 프란수아는 이렇게 말을 꺼내다가 모니까의 흥분된 얼굴을 보고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믿을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프란수아는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반시간전에 쥬렐할머니가 달려와서 말하는데요, 할머니네 포도원 옆 산속에서 도이췰란드장교와 우리 쟌과 삐에르 꼬르빌리가 맞다들린걸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대요. …》

《저런! 쟌과 삐에르가 체포되였겠군!》 프란수아는 신음소리를 냈다.

《좀 기다리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장교가 둘 다 놓아주었대요. …

오히려 작별할 때 그렇게 부주의하게 다니면 되느냐구 야단을 다했대요!》

《무엇이라구? 당신이 미치지 않았소, 아니면 그 할머니가 정신이 나간게 아니요?》

《쥬렐할머니는 조금도 미치지 않았어요.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맹세했어요. 할머니는 그 장교가 누군가도 알아낸걸요.》

《그래, 누구요?》

《골드링남작이예요! 할머니는 그이를 우리 식당에서 본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에게서 포도주를 사기때문에 자주 우리 집에 오군 한답니다.》

《또 골드링이야!》

생각에 잠겨 그 긴 코를 문지르며 프란수아는 걸상에 앉았다. 모니까는 그의 얼굴표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황한 기색밖에는 다른것을 찾아볼수 없었다.

《동무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모니까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소. 오늘 기어코 쟌을 만나 물어봐야겠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에는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나자신도 도무지 모르겠소. … 파시

스트장교요, 남작인 사람이 두명의 마키를 잡았다가 놓아주다니… 여긴 무엇인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 있소. 혹시 그가 음흉한짓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얻어보려고 그럴수도 있고… 하여튼 결론을 신중히 내려야 할거요. 그러니 동무도 그 골드링에 대해서 더 주의해서 감시해야 하겠소. 조심도 더하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있소?》

《그는 나에게 프랑스말을 배우는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동의했겠지?》

《동무의 엄격한 명령을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어요.》

《그의 행동이 어떱디까? 무얼 좀 알아낸게 있소?》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점잖고 례절바르고 나한테 치근덕거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소?》

모니까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미래에 대해서 헨리흐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프란수아는 골드링과 관계되는 몇가지 문제를 모니까에게 물었으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가 궁금해하는것을 풀어주지 못한 모양이였다.

《그 남작이 괴상한 인물이거던. 하여튼 우리 동무들에게 그 사람을 우연히 모르고 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두어야 하겠소. 혹시 그가 사실로 반파쑈투사이고 우리를 도우려 하는것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잘 검열해보아야 하오. 아직은 조심해야 하오. 프랑스어학습시간을 리용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오.》

《알았어요.》

《어머니하고 쥬렐할머니에게 아무에게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오. 그리고 동무는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오.》

프란수아는 자전거를 밀어주면서 롱으로 말했다.

《오빠를 놓아주어 감사한 나머지 그 남작인가 하는자에게 반하지 말라구!》

모니까는 성이 난듯 눈을 흘기고 자전거발디디개를 힘껏 밟았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장교들이 모두 일어섰을 때 류쯔는 골드링에게 다가갔다.

《소장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주시였소. 리옹까지 갔다와야 하겠소.

참모부로 갑시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참모부로 가는 도중 항상 수다스러운 류쯔는 말이 없었다. 그가 기분이 좋지 않은것 같아서 헨리흐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류쯔는 자기 방에 가서도 소장이 주었다는 임무에 대해서 인차 말하려 하지 않았다. 부관의 그러한 이상한 행동은 헨리흐에게도 불안을 주기 시작하였다.
《대위님, 소장의 임무란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헨리흐는 공식적인 투로 물었다.
류쯔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있소. 16시 40분에 리옹으로 기차가 떠나오. 당신은 중요한 봉서를 군단참모부까지 전달하여야 하오. 봉서는 이미 되여있으니 즉시 드리겠소.》
류쯔는 금고에서 몇군데 봉인랍을 찍은 큼직한 봉투를 헨리흐에게 내주었다. 헨리흐는 봉인상태와 봉투를 붙인 정형을 주의해서 살펴본 후 모든것이 제대로 된것을 확인한 다음 군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갔다오겠습니다, 대위님!》 헨리흐는 태연스럽게 말하고 류쯔가 내놓은 등록부에 수표하였다.
헨리흐는 부관이 별로 자기를 쓸쓸한 눈길로 보고있는것 같이 느껴졌다.
《류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헨리흐가 친절히 물었다.
류쯔는 상을 찌프리고 방안을 왔다갔다할뿐이였다.
《골드링, 이번에 호위병도 없이 혼자 갔다와야 하는만큼 주의해야하겠소. 도중에 특별히 조심하시오. 그 봉서가 비밀문건이니까 아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걸 잊지 마오. 그걸 참모장이나 그의 부관에게 직접 전하시오. 꼭 수표를 받아야 하오.》 류쯔는 걸음을 멈추고 헨리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였다.
《무슨 대단한 출장이나 전선정찰을 보내는 사람같군요!》 하며 헨리흐는 롱을 하였다.
《간단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후방에서 공작하는것은… 전선에서 싸우는것보다 더 나쁠수도 있소! 그래서 다시한번 경고하는거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한번 조심하오.》
《충고를 잊지 않겠소. 류쯔, 안녕히 계시오!》

두 장교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출발준비를 하면서 헨리흐는 오늘 자기가 당하게 된 사람들의 괴상한 행동에 대해서 줄곧 생각하였다. 처음에 그 농촌할머니, 다음 따르왈리부인과 그의 이상한 암시 그리고 이번엔 류쯔의 침울한 기분과 조심하라는 그의 당부… 참으로 오늘은 이상한 날이였다. 어찌하여 봉서를 보내는데 사단에 있는 련락장교를 보내지 않고 특수임무장교인 그를 보내는것인가? 만일 봉서가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어찌하여 규정에 있는데로 호위병을 주지 않고 혼자 보내는것인가? 무엇인가 이상한것이 있다. 류쯔는 분명 알고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것 같다. 그것이 또한 무슨 징조가 있는 일이다. 그들사이에는 친근한 관계가 맺어져있는데 류쯔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것이 분명하다. … 하여튼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최악의 사태에 대처할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헨리흐는 다시한번 봉서를 주의해보고 그것을 세르로이트주머니에 넣어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단추를 든든히 채웠다. 그다음 권총을 꺼내 오른쪽바지주머니에 라이타와 함께 넣었다.

헨리흐가 막 떠나자고 하는데 모니까가 문을 두드렸다.

《우리 공부는 어떻게?》 모니까는 길떠날 준비를 한 헨리흐를 보자 놀라며 말하였다.

《미안합니다만 내가 리옹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학습을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출장 가시나요? 그렇게 갑자기? 아마 무슨 급한 일이신게지요?》

《친구를 만나자구 한 이틀 휴가를 얻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갖다드릴가요? 혹시 부탁할거라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친절히 말씀해주시니 감사해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무사히 갔다 빨리 돌아오세요.》

《진심으로 원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통 인사말인가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예요.》 하고 모니까는 동요함이 없이 대답하였다. 모니까는 적의 군대 장교가 돌아오는것을 사실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있다는 생각에 두볼이 붉게 물들었다. 헨리흐앞에서 혹은 자기자신에게 마치 그것을 변명이라도 하려는듯 처녀는 급히 덧붙여 말했다.

《장교님이 저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하신게 없으니까요.》
《좋은 일도 별로 없었지요.》
《장교님은 우리들 프랑스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세요. 그거면 다예요! 제 생각에는 다른 장교분들과는 다르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처녀입니다. 모니까! 나는 당신의 일생이 당신이 훌륭한것처럼 훌륭할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는 고맙게 구는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남을 잘 믿으면 흔히 속히우는것입니다. 우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이 필요합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친구가 되고싶은 사람은 언제나 말에서 사업으로 넘어갈수 있겠지요.》 모니까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헨리흐를 보고있는 처녀의 눈에는 기대와 의문이 어려있었다. 거기에는 약간의 공포도 섞여있었다. 만일 모니까가 잘못 보았다면,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전혀 친구가 아니고 원쑤이라면 어떻게 할것인가? 세상사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로서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수 있으랴!
헨리흐는 그러한 눈길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리해도 못한체 하였다. 사실인즉 그 역시 알수 없었다.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려관집 주인의 딸인 고운 처녀인지 아니면…
《다음번 학습날에 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시다. 모니까, 기차에 늦으면 안되니까.》
헨리흐는 처녀의 손을 굳게 잡고 밖으로 나갔다.
정거장 플래트홈에서 출발을 앞둔 부산한 분위기며 멀리 뻗어나간 철길을 볼 때면 항상 헨리흐는 불안을 느끼게 되군 하였다. 오늘은 그러한 기분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미지의 세계에로 떠나는 또 하나의 려행길! 그런데 뜻밖에 떠나게 된 이 리옹출장이 어찌하여 필요한것인가? 류쯔는 어째서 작별할 때 별난 태도를 취했는가? 봉서가 극히 중요한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심하라고 충고를 주면서 어째서 호위병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었는가? 하여튼 전혀 모를 일이였다! 리옹까지는 길이 머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있겠지.
헨리흐는 그를 사로잡고있는 불안감을 의지의 힘으로 누르고 장교칸으로 빨리 걸어갔다. 련락병은 자그마한 가방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거기서 기다리고있었다.

《객차호실로 다 들여다놓고 돌아가오!》 헨리흐는 련락병에게 명령하였다.

련락병은 왜 그러는지 주저주저하며 말하였다.

《중위님께 편집니다! 중위님이 막 자동차로 나가셨을 때 사환군아이가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중위님이 먼저 가셨기때문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

헨리흐는 련락병의 변명을 듣는둥마는둥하면서 호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좋소, 좋소, 가보오!》

헨리흐는 객차호실에 들어가서야 방금 받은 편지를 주의해보았다.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분명하였다. 필적은 누구의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글씨체를 변경시켜 쓴것이였다. 그렇지 않다면 글씨가 그렇게 심하게 뒤로 자빠질수도 없는것이며 그렇게 빈틈없이 정확하게 될수도 없었을것이다. 흥미있는 일이야!

간단하게 쓴 글줄밑을 보니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다.

《당신을 뒤따르고있소. 조심하시오!》 무기명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기계적으로 편지장을 뒤집어보니 뒤면에 역시 연필로 간단히 더 쓴것이 있었다.

《한눈에 붕대를 감은 대위를 주의하시오.》

이건 무엇인가? 류쯔가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인가? 아니야, 이런 괴상한 놀음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아. 그렇다면 혹시 이 글쪽지를 모니까가 썼을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모니까가 다소 흥분하고 당황해하던건 사실이다. 그때 혹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싶었으나 하지 못했을수도 있다. 이것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추측인가? 그를 위협하고있는 위험을 모니까가 어떻게 알수 있단 말인가?

만일 이 경고가 전혀 다른 선에서 오지나 않았을가? 그의 참된 친우로부터? 《철권》작전에 대해서 로씨야지휘부에 제때에 통보한 사람이 누군지 있은것만은 사실이다. 그 누군가가 헨리흐와 마찬가지로 가장을 하고 그옆에서 일한것이 사실이다. 혹시 지금도 어딘지 옆에 있을수 있다. … 그러나 그것 역시 그다지 믿음직한 추측이 아니다.

정탐가는 그렇게 경솔하고 유치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것이다. 닉명

의 경고가 리옹출장과 부합된다는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다. … 바로 거기에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실머리가 있지 않을가? 소장이 준 불의의 임무… 류쯔의 심상치 않은 행동… 이 편지… 그것은 마치도 하나의 사슬에 꿴 고리들과 같은데 그끝을 도저히 잡아낼수 없다.

하여튼 우선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 그를 뒤따르고있는가 아닌가를 확증해야 한다. 만일 사실 그렇다면…

헨리흐는 담배를 피우고 호실에서 나갔다. 차간 저쪽끝에 한패의 장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활기있게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들중의 대위의 한쪽눈에 검은 붕대가 감겨있었다.

19시 20분에 헨리흐는 샴베리정거장에 나갔다. 그는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였는데 경무부에 알아보니 리옹으로 가는 기차는 래일 8시에 가는것이 있을뿐이였다. 경무장은 기차시간이 맞지 않는데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푹 휴식이나 하라고 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려관을 알려주는것이였다.

경무부옆에는 흔히 그렇듯이 많은 군인들이 몰켜있었다.

(물론 나의 외눈백이파수군도 여기 있겠지.) 헨리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오른쪽눈을 검은 붕대로 가리운 그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그는 새처럼 옆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헨리흐는 짐군을 크게 소리쳐불러 자기 가방을 맡기였다.

《여기서 날 기다리오. 상점에 들려오겠으니.》

대위는 옆으로 기울어진 머리가 긴장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귀를 기울이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여기에도 틀림없이 나타날것이다.) 헨리흐는 매대로 가까이 가면서 생각하였다. 그가 담배를 사면서 곁눈질로 출입문쪽을 주시하고 있을 때 정말로 잠시후 그 재수없는 추격자의 낯익은 모습이 또 나타났다.

《그놈 몹시도 밉게 구는데. 주의해라, 너를 따르고있다, 그 말이지!》하며 헨리흐는 화가 나서 생각하였다. (경험이 없는 형사도 저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감시가 아니다! 이건 타산이 있는 놀음이다. 감시에 의한 고문이

요, 특이한 심리적공격이다. 내가 당황하고 마음의 안정을 잃는것이 그 누구에겐지 필요한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무엇인가 확정적인것을 알고있다면 이와는 달리 행동할것이다. … 그렇다면 모든 주패장은 나의 수중에 있다. 거기서 주되는것은 내 주위에서 그들이 벌리고있는 쥐새끼같은 소동을 완전히 무시하는것이다. 아무 일도 없은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것처럼 태도를 취하자. 주타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힘을 아껴야 한다. …)

한 10분후에 헨리흐는 태연히 역전광장을 가로질러가서 려관현관으로 들어갔다.

2층계단 옆방을 차지한 후 헨리흐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반찬, 비프테끼 그리고 진한 커피!》 헨리흐는 접대원이 내보이는 료리표를 보지도 않고 청했다.

《술은 어떤것을 가져오랍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오. 여기 손 씻을데가 어디 있소?》

접대원은 구석진 곳을 가리켰다.

위생실은 불결하고 소독내가 풍겼다. 헨리흐는 계획적으로 들어가 있는 5분동안도 겨우 참았다.

그가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생각하던대로 되여있었다. 나프낀 밑에 네모나게 접은 글쪽지가 있었다. 뒤로 자빠진 글씨체가 아까 그 종이에 쓴 글씨와 같은 체였다. 다만 그 내용이 좀 더 확정적이며 장황한것이였다.

《당신과 이야기할게 있습니다. 당구실에서 만납시다. 나는 회색비로도중절모를 들고있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친구로부터.》

의아해하는 기색으로 어깨를 으쓱한 헨리흐는 접대원을 불렀다.

《상을 잘 치우시오. 나는 돼지굴같은데서 식사하지 못하겠소!》 헨리흐는 노한 목소리로 접대원에게 소리치고는 손가락끝으로 글쪽지를 마구 밀어던졌다.

《중위님, 사실은…》

《잔소리 말아, 그 쓰레기를 싹 거두지 못할가?》

접대주임쪽을 불안한 눈길로 힐끔거리면서 접대원은 그 글쪽지를 구

겨버리고 나프낀으로 식탁을 급히 문지르기 시작하였다. 헨리흐는 방안을 슬쩍 둘러보았다. 앉아있는 사람들중에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을것이였다. 그렇다면 더욱 좋다! 이제는 은밀하게 글쪽지를 쓴 사람이 똑똑히 알았을것이다. 자기의 타격이 과녁을 바로 맞히지 못하였다는것을… 골드링남작은 무기명편지를 쓰레기처럼 집어던지고 당장에 그런것은 잊어버리고말더라는것을…

그날 하루동안 여러가지로 체험한 일로 해서 피로를 느낀 헨리흐는 저녁식사후 인차 자기 호실로 올라갔다. 이제야 휴식할수 있게 된것이다! 군복을 벗고 그는 방안을 거닐었다. 창가림뒤도 옷장안도 다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문을 걸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권총집의 권총을 꺼내 오른쪽바지주머니에 넣으면 되였다.

복도에서 조용한 걸음소리가 들려와 헨리흐는 바싹 정신을 차렸다. 하녀인가?

아니다. 하녀라면 문을 두드릴것이다. 문뒤에 서있는자는 조심하는듯 거의 알릴가말가 하는 동작으로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

헨리흐는 번개같은 동작으로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방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불쑥 열리더니 역시 급하게 닫기였다. 문턱에는 회색 봄가을외투를 입고 역시 회색비로도중절모를 든 키 큰 사나이가 서있었다.

(아, 나와 당구실에서 만나자던자구나!) 하는 생각이 헨리흐의 머리를 스치자 그는 주머니속에서 권총손잡이를 으스러지게 잡았다.

《당신이 골드링남작이시지요?》 낮모를 사나이는 한걸음 나서며 물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 내 방에 함부로 뛰여들었소. 당신은 량해를 구하고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이렇게 무례하게 침입해 들어오게 된 원인을 말해야 하지 않을가요?》

《남작! 쓸데없는 형식을 차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내게도 당신께도 시간은 제한되여있소. 모든것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하겠소. 나는 당신을 돕자고 하며 오래전부터 당신을 찾고있던 친구요. 당신은 내가 만나자는 제의를 피했소. 그래서 할수 없이 내가 직접 찾아왔소. … 이제는 내가 앉는것을 허락하겠지요.》 권하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낯모를 사람은 책상으로 가더니 그옆에 있

는 의자에 앉았다.

헨리흐는 반대편에 앉아 담배곽을 앞에 내놓았다.

《내 생각엔 직접 사업토의로 들어가는것이 현명할것 같소. 동의합니까?》 불청객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시오!》 헨리흐는 랭랭하게 한마디 하고 손을 천천히 오른쪽바지주머니에 넣었다.

낯모를 사람은 헨리흐의 동작을 긴장한 눈길로 보았다. 헨리흐는 천천히 라이타를 꺼내서 담배불을 붙이고 다시 라이타를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낯모를 사람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몸을 편히 고쳐앉더니 다리를 앞으로 쭉 폈다. 그는 말을 시작하였다.

《난 정치정세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싶지는 않소. 그것은 나만 못하지 않게 당신도 다 알고있을터이니까. 시간문제이지만 결국은 도이췰란드의 파멸이 가까와지고있는건 사실이요. 도이췰란드는 이미 맥이 진했으며 쏘련,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이겨낼수 없소.》

낯모를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따져보려는듯 헨리흐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헨리흐는 간단하게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계속하시오!》

《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걸 보니 당신도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오. 하여튼 도이췰란드의 멸망은 불가피하오. 결정적타격이 가해지면 그날은 가까와질것이요. 성숙되고있는 사건들에서 제1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이 시간문제라는것은 당신도 리해하리라고 의심치 않소. 이로부터 오직 한가지 결론을 얻을수 있는데 그것은 파시즘에 적대되는 모든 력량이 더 긴밀히 련합되면 될수록 전쟁의 결말을 결정하는 그 타격을 더 빨리 가할수 있다는것이요.》

《당신은 나에게 국제정세에 대한 통속강연을 하려고 여기 찾아왔소?》

《나는 당신께 협력할것을 제의하자고 여기 왔소, 골드링남작!》

《누구를 반대하여 누구와 협력하는거요?》 이렇게 말하며 헨리흐는 낯모를 사람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 사람은 헨리흐의 눈길에 사람좋은 친절한 미소로 대답하였다.

《당신은 아주 내 마음에 드오. 남작! 견해를 똑똑히 세우자는 말이 옳소. 이젠 숨박곡질을 그만 집어치우고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당신은 내가 당신께 어떠한 협력을 제의하는가고 물었지요? 똑바로 대

답합시다. 영국정탐과의 협력이요.》
《나에게? 도이췰란드장교에게 말이요?》
《로씨야정탐인 당신께…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있소.》
《물어봅시다. 어디서 그걸 알았소?》 헨리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나 분격보다도 오히려 조소의 기분이 어려있었다. 그는 이미 그들이 하고있는 연극의 내막을 알아차렸다. 지금 그는 다음순간에 자기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침착히 궁리하고있었다.
《우리 정탐부서들이 얼마전부터 긴밀한 련계하에 사업하고있소. 그것이 없이는 제2전선의 개시가 무의미한것이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응당 알고있어야 할 몇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릴수 있소. 당신의 부친인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의 사업에 대해서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로씨야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바와 같이 당신이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 물들어간 과정과 여기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활동 말입니까? 그걸 확언했으면 좋겠는데요.》
《말하자면 〈철권〉작전의 파탄 같은것을 말이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부주의하게 활동하였기때문에 당신의 활동에 대해서 게스타포가 관심을 가지고있소. 자신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숨는 길밖에 없소. 바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께 경고한바 있으며 지금도 경고하는거요.》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오?》
이 질문을 하는 헨리흐의 목소리가 어찌나 침착히 울렸던지 그자신도 놀라울 정도였다.
《이제야 우리의 이야기가 구체적성격을 띠게 되였군!》 도발자는 기뻐하였다. 헨리흐는 자기앞에 도발자—게스타포도당이 앉아있다는 것을 이미 의심치 않았다. 도발자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당신에게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해줄것을 제의하오. 더 말할것도 없이 당신은 이에 대해서 당신네 지휘부의 동의를 얻어야 할거요. 그러한 승인이 있으리라는데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소. 로씨야사람들은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제2전선을 열것을 바라고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겠소.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오.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할 정도지. 그래서 나는 약간의 보증이 될것을 당신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이 지금 리옹으로 가지고가는 봉서가 그러한 보증이 될수 있소. 내가 그것을 가져갔다가 한시간후에 지금의 그 상태대로 정확히 돌려주겠소. 그속에 있는 내용을 누가 읽었다는것을 아무도 짐작조차 할수 없을거요. 그렇게 해준 교환조건으로 내가 오늘 당신을 빨찌산의 한조와 련계를 맺게 해주겠소.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는 경우에 당신을 도와 마키에게 넘겨줄것이요. 놀랄것은 없소. 정탐사업규칙과는 어긋나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우리 첩자들이 마키와 련계를 가지고있소. 프랑스에 조성된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헨리흐는 묵묵히 상대편의 말을 듣고있었다.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머리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사색이 벌어지고있었는가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어려울것이다.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있다! 그들은 나를 계속 헨리흐 폰 골드링으로 알고있다! 그들의 수중에는 아무러한 실머리도 잡혀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러한 우둔한 도발을 하지 않을것이다. 그들이 봉서에 대해서 알고있다는 사실은 리옹출장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출장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그들이 도이췰란드에 대한 나의 헌신성을 검열하자는것이라면 좋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겠다!)

천천히 권연을 비비던 헨리흐는 호주머니로 손을 내리웠다. 도발자 역시 담배를 집었다. 그는 골드링이 라이타를 꺼내기를 기다리면서 손가락으로 담배를 비비였다. 그러나 도발자가 권연을 입에 물고 불을 붙이자고 몸을 앞으로 숙이였을 때 그는 라이타가 아니라 권총의 총구를 눈앞에서 보았다. 그다음 일은 문자그대로 순식간에 벌어졌다. 도발자는 발로 힘껏 상을 밀쳤다.

골드링이 비틀거리며 한순간 권총을 놓쳤을 때 그자는 나는듯이 호실에서 뛰여나갔다. 헨리흐가 문으로 달려나갔을 때 도발자는 이미 복도로 질주하고있었다.

한방 또 한방 두발의 사격소리가 울렸다. 절망적인 웨침과 거의 동시에 무거운 몸뚱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인차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게스타포제복을 입은 중위와 병사 두명이 나타났다.
(준비하고있었구나!) 헨리흐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피뜩 스쳤다.
《쏘지 마시오. 우리는 순찰병입니다!》 장교가 멀리서 웨쳤다.
《증명서를 봅시다!》 헨리흐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게스타포장교는 증명서를 꺼내서 헨리흐에게 보였다. 병사들은 쓰러진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아직 숨은 붙어있었으나 의식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빨찌산들과 결탁한 적의 간첩이 려관으로 침입했소. 응당한 징벌을 받았소!》 헨리흐는 권총을 집어넣으면서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헨리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낯모를 사람이 하던 말을 정확히 이야기해주었다. 중위는 증언을 기록하고 골드링에게 수표를 요구하였다.
《밤에 문을 잘 걸고 주무십시오!》 장교는 돌아갈 때 말하였다.
《려관경비에 주의를 더 돌려야겠소. 이게 무슨 꼴이요? 외국간첩이 장교용려관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있으니!》 헨리흐는 앙천대소하고싶은걸 꾹 참고 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밀레르소좌가 골드링과 친하자고 한다

에베르쓰소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장교식당으로 가려고 차비하고있을 때 류쯔가 그에게 알렸다.
《밀레르씨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째서 우릴 자꾸 찾아오는가? 또 무엇을 궁리해냈는가? 혹시 나를 검열하자는게 아냐?》 하며 에베르쓰는 불만스럽게 말하였다.
《십상 나를 검열하잘겝니다.》
《하여튼 들여보내오.》
《또 무슨 기분나쁜 일을 가지고오지 않았소?》
《아닙니다. 이번에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왔습니다, 소장님!》 하고 밀레르는 앉으며 대답하였다.

말로는 즐거운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극히 시무룩한 표정이였다.

《저, 우리는 계획대로 소장님네 특수임무장교인 골드링중위에 대한 검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소?》 소장은 흥미있게 물었다.

밀레르는 샴베리려관호실에서 있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확히 이야기하였으며 거기서 진행된 이야기를 록음기에 전부 수록하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랑그헤인은 오른쪽페에 두발을 맞아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해 거기서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소장은 진정으로 시원히 웃었다. 류쯔도 따라웃었다.

《그래, 밀레르씨! 이제는 골드링의 믿음성을 확인했습니까?》

《전적으로 믿습니다.》

《류쯔, 오늘 골드링중위에게 철십자훈장 2급을 수여할데 대한 제의서를 준비하시오!》

《알았습니다!》 류쯔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중위는 게스타포중위인 랑그헤인이 자기앞에 앉아있다는걸 몰랐군. 그렇지요, 밀레르씨?》

《그렇습니다. 만일 남작이 자기와 이야기하고있는 사람이 누구이라는것을 짐작이라도 하였던들 이번 검열이 류혈로 끝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골드링중위의 진실성에 대해서 완전히 믿게 되였습니다.》

《밀레르씨, 이제 우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에베르쓰가 청하였다.

골드링의 검열결과에 대한 밀레르의 이야기는 분명 소장의 기분을 좋게 만든것이였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밀레르는 경례하였다.

그전에 있은 많은 식사때와는 달리 활기있고 유쾌하게 진행된 점심식사때 골드링의 용감성에 대한 이야기로 꽃이 피였다. 식사가 끝날무렵에 소장은 기분이 고조된 나머지 동부전선에서 시작된 공격의 성과를 위하여, 그 좌석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금년내로 모스크바에 가볼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될 공격의 승리를 위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하였다.
헨리흐는 샤베리에서의 사건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빨리 쎈－레미까지 퍼질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소문이 그를 앞서온것이였다. 그가 도착해서 참모부로 가는데 출입문에서 참모장교인 펠드네르중위가 그를 붙잡고 인사를 하였다.
《아 남작님, 무사히 다녀왔습니까?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남보다 먼저 내가 축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슨 행동에 대해서요?》 골드링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소장께서 어제께 점심식사후 전체 장교들에게 당신의 공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밀레르씨가 보고하였지요.》
《아— 난 또 무슨… 축하해주어 감사합니다.》
헨리흐가 현관으로 들어가 층계를 오르려고 할 때 한 병사가 걸상에 앉았다가 중위를 보고 발딱 일어나 차렷자세를 하는것이였다. 그는 19살이나 2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병사였는데 몸이 가냘프고 푸른 눈에 총기가 있었다. 그 젊은이의 눈길에는 절망에 가까운 슬픔이 어리여있어서 그저 지나쳐버리기 어려웠다. 병사의 발앞에는 배낭이 놓여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상등병 꾸르트 슈미트입니다, 중위님.》 하고 병사는 똑똑히 대답하였다.
《어디서 왔는가?》
《117련대 제2대대 제2중대에 복무하다가 지금 동부전선으로 가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애같은 젊은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여있었다.
《어째서 그쪽으로 이동되였는가?》
《중대장 펠드네르중위의 보고에 의하여 그렇게 되였습니다.》
《중위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흘전에 중위님께서 좀 술에 취하였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대로 하느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인사를 하는것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중위는 〈엎디엿〉, 〈일어섯〉구령을 치기 시작하였

습니다. 저는 힘이 있는 때까지는 그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얼마후 기진맥진해서… 전 원래 약하지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 그는 나에게 야단을 치더니 그후 내가 그의 명령집행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를 동부전선으로 보내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당신이 말한것이 전부 사실인가?》
《정말이고말고요, 중위님. 진정입니다!》
젊은이는 어찌나 애원하는 눈길로 골드링을 바라보는지 그는 이 병사외투를 입은 젊은이가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동부전선으로 가는게 몹시 겁나는가?》
《중위님, 저의 형님 두분이 거기서 전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나 남은 나를 바라보고있는데 나까지 동부전선으로 갔단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할겝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소장님께 하지 않았소?》
《련대장님도 저와 담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
《배치명령서가 당신께 있소?》 헨리흐는 좀 생각한 후 물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샴베리로 가는 자동차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려보겠소. 그런데 당신을 여기 남겨둘만 한 원인이 있어야 하겠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을 내가 련락병으로 쓰겠다고 말해볼수 있소. 그렇게 하겠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위님의 지시를 잘 수행하며 힘껏 일도 하겠습니다.》
《그 문건을 내게 주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오.》
병사는 마치도 중위가 생각을 달리하지나 않을가 겁이라도 나는듯 떨리는 손으로 급히 문건을 꺼내 중위에게 주었다.
헨리흐는 2층으로 올라가 류쯔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여 골드링, 다시 만나니 참 반갑소! 소장님이 즉시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셨네.》
봉서접수에 대한 참모부의 령수증을 대위에게 주고 헨리흐는 소장에게로 갔다.
《골드링중위!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주게!》 하며 에베르쓰는 골드링을 보자마자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헨리흐는 사소한 점까지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철십자훈장 제2급을 제기하였소.》 하고 에베르쓰가 알려주었다.

《소장님,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로 그것을 베르트골드대좌님께 알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극진히 돌봐주시는 소장님께 그 역시 감사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 소장을 기쁘게 해주었다.

《대좌에게 나의 인사도 전해주게.》 하고 소장이 부탁하였다.

《소장님, 한가지 청할것이 있는데 말씀드릴만 합니까?》

《어서 말하오.》

《저기 현관에 펠드네르중위의 보고에 의해서 동부전선으로 가게 된 병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중위가 옳지 않게 처사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병사가 육체적으로 매우 약하고 그의 형 두사람이 이미 동부전선에서 전사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마침 저에게는 련락병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그 병사를 저의 련락병으로 쓸것을 허락해주십시오.》

《그게 다요?》 소장은 특출하게 행동한 이 장교에게 무엇인가 큼직한 혜택을 베풀어주지 못하는것이 몹시 아쉬운듯 한 기분이였다.

헨리흐에게서 꾸르트의 문건을 받은 소장은 전에 한 비준을 지워버리고 그우에 굵은 글씨로 썼다.

《골드링중위의 련락병으로 참모부에 둘것.》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의 첫 소청을 그렇게 속히 풀어주시니 두번째 소청을 말씀드릴수 있을가요?…》

《그 청도 들어줄수 있지!》하며 에베르쓰는 미소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장님을 위해서 리옹에서 구해온 오랜 프랑스샴팡주 10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류쯔가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좋은 샴팡주를 즐기신다고 하기에…》

에베르쓰는 웃었다.

《그 청이야 첫째 청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겠소.》

《돌아갈만 합니까?》 헨리흐가 물었다.

《가도 좋소.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표창휴가를 주겠소.》

《아!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이 있기는 하

였으나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헨리흐가 아래로 내려가니 꾸르트 슈미트가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 복종관계도 잊어버리고 중위에게로 달려갔다.
《꾸르트, 이젠 자네가 내 련락병이요.》
젊은 병사의 기쁨, 그의 환해진 얼굴을 보니 부지중에 중위도 기뻤다. 그는 애정에 넘친 미소를 띠우고 병사외투를 입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중위님!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꾸르트 슈미트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두볼이 상기되여 벌개가지고 조용히 속삭였다.
《보답이라는게 다른게 없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되는거야. 이제 가서 지금 내 련락병일을 보고있는 프리쯔 젤레르를 만나오. 그가 자네에게 할일에 대해서 알려줄걸세. 참모부에 가서 거처할 곳을 알아보고 참모부건너편에 있는 템플리려관으로 오라구.》
헨리흐가 려관으로 향해가고있는데 참모부 서기가 그를 따라왔다.
《중위님, 편지가 왔습니다.》
골드링은 편지를 되는대로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호실에 들어가 보니 베르트골드의 편지였다.

《보고싶은 헨리흐! 나의 친자식과 같이 네가 보고싶구나. 오래동안 편지도 쓰지 못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나는 최고군부내의 한개 부서에서 책임자로 일하고있다. 사흘전에 소장의 군사칭호를 받았다. 지금 당장 너를 데려오는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기회가 생기는대로 그렇게 하자. 엘자부인과 너의 누이 로르헨은 매우 너를 보고싶어한다. 그래서 날 보고 자네네 소장에게 휴가를 주라고 부탁해보라고 한다. 나의 친구 에베르쓰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일이 잘 안되거든 나에게 편지를 쓰거라. 편지를 더 자주 보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월헬름 베르트골드》

편지를 읽고난 헨리흐는 급히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이제야 그는 얼마나 피로하였는가를 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샴베리에서 지낸 하

루밤이 막대한 신경적긴장을 요구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오늘은 또 어떠하였는가! 그는 태평스럽고 유쾌한 기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리옹신문들은 동부전선에서 온 기사들, 사진과 보도들로 차있었다. 히틀러군대의 대공격이 시작된것이였다. 신문들이 강조하는바에 의하면 그 공격이 거침없이 발전하고있다는것이였다. 물론 유명한 겝벨스식과장에 대한 에누리를 해야 할것이지만 그러나 그 보도들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히틀러도당이 공격하고있다! 만일 할수만 있다면 이 모든것을 집어던지고 보통 붉은군대군인의 외투를 입고 손에 자동총을 잡는다면 얼마나 기쁠것인가! 그러나 지금 그는 전선에서 들어왔다는 승리의 보도를 읽으면서 그 보도가 자기에게 기쁨을 준듯이 행동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자들을 권총을 뽑아 쏴눕히고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승리를 위하여 잔을 들어야 한다. 그에게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연극을 놀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이건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그처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없을것이다.

몹시 급한 일이 있어 기차를 타고가는 사람은 길이 단조롭고 기차가 지나치게 느리게 가는것만 같이 느낄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자기가 목적한 장소에 당도할수만 있다면 도중에 소용되는 몇시간동안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것도 서슴없이 동의할것이다.

총각이 처녀를 만나러 갔다 하자. 와보니 처녀가 없다. 처녀가 늦은것이다. 총각은 의혹과 기대에 찬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리는 그 괴로운 몇분동안 자기 생명을 단축시킬수 있다면 그는 선뜻 단축하자 할것이다.

만일 운명이 말을 잘 들어서 사람의 뜻에 복종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생애는 현저하게 짧아질것이다. 사람들은 어서 빨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면, 견디기 어려운 기대속에서 보내야 할 초조한 분과 시간과 날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애를 서슴없이 단축시키려고 할것이다.

지금 헨리흐는 조국에 가있을수만 있다면 생애의 절반이라도 서슴없이 바칠것이다!…

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만일 운명이 말을 잘 듣는다면이라니… 우리는 운명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리석은 생각에 잠길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며 매 분을 아껴야 하며 만일 필요하다면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기다려야 하며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를 벼랑끝을 태연히 걸어가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방으로 들어올수 있으며 모든것이 끝장날수 있는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쎈－레미부근 땅속에서 일하고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어렵지 않다. 헨리흐는 그래도 조심만 한다면 승리의 밝은 날을 볼수 있을것이다. 모든것은 그자신에게, 그의 용감성, 기민성,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땅속에 처박힌 로씨야사람들, 프랑스사람들, 체스꼬사람들, 뽈스까사람들, 언제 해빛을 볼지, 언제 신선한 공기를 마실지, 아름다운 세계를 감상하겠는지, 언제 조국으로 돌아가 친척, 친우들을 만날수 있겠는지 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원쑤를 위하여 신형포탄으로, 더 살상력이 강한 포탄으로 원쑤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 매개 포탄이 그들자신의 죽음을 접근시킨다 하더라도 지하군수공장에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모든 포로들은 죽음보다 무서운 생활을 하고있다.

언젠가 류쯔는 그러한 지하공장이 있다는데 대해서 말한적이 있다. 헨리흐는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를 없애기 위하여서도 싸워야 한다. 아니다. 그에게는 피로를 느끼거나 휴식할 권리도 없다. 그는 자기에게 신경이 있다는것을 느낄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그가 수행하게 되는 매개 임무가 바로 승리의 시각을 앞당기는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누워서 휴식하고있는 바로 이 시각에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가고있는 그 모든 사람의 원쑤를 갚는 길이다.

그에게는 휴식이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헨리흐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층계를 내려가면서 그는 소장에게 약속한 일이 생각나 식당에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아! 벌써 오셨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걱정했어요. 우린 모두 아침부터 기다렸답니다. 어서 앉으세요!》

《따르왈리부인, 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작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힘자라는데까지 한다는걸 아시지요.》

《난 내가 길떠날 때 부인께서 나에게 한턱 낸 그것보다 못하지 않은 정말 좋은 샴팡술이 한 10병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집엔 없지만 얻어올수 있는 곳은 알아요. 반시간쯤후에 어김없이 가져다놓겠어요.》

《그걸 잘 꾸려주십시오. 내가 새로 온 련락병을 보내겠으니 그에게 주십시오. 련락병이 그걸 필요한 곳에 가져갈겝니다.》

헨리흐가 나가려고 돌아서는데 마침 옆문이 열리더니 모니까가 식당칸으로 달려들어왔다.

《어머니! 저…》 모니까는 문에서부터 말을 시작했다가 헨리흐를 보자 문득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다.

《안녕하십니까, 모니까아가씨! 그래 기분이 어떠신지요?》

《다 좋은데 그저 걱정하는건 남작님의 학습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어머니!》 처녀는 비난하듯 말했다.

《이젠 열성이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상학시간에 늦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리옹에서 가져왔지요. …》

헨리흐는 주머니에서 곽을 꺼내서 모니까의 손을 잡고 팔목에 작은 손목시계를 채워주었다.

《아이, 저런!》 모니까는 팔을 빼려 하였다.

《아가씨, 이것을 무슨 선물로 생각지 마십시오. 아가씨가 나를 위해 쓰게 되는 시간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아가씨가 도이췰란드장교에게 학습을 도와주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그저 동정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니까요.》

《그러나…》

헨리흐의 말은 분명 모니까를 당황하게 하였다. 사실 무엇때문에 모니까는 이 장교의 학습을 돕느라고 자유시간을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헨리흐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할것이다! 그

러나 모니까도 남작과의 관계를 어떻게나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간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처녀는 부지중에 어쩌면 좋으냐고 묻는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감사하다는 말이나 하려무나.》 어머니는 말했다.
《감사해요, 남작님!》 모니까는 가늘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아가씨에게 별일만 없다면 정각 여섯시에 학습을 시작합시다.》
《그럼 우리 시계를 맞추자요. 보세요. 거의 5분이나 차이가 나요. 우리 둘중 누가 서둘고있고 누가 늦장을 부리고있을가요?》
《틀림없이 내가 서둘고있을겁니다. 이리 내려오기 바로 전에 나는 시간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생을 바칠데 대해서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어째서요?》 모니까는 신중히 물었다.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지요.》
《무슨 목적이요?》
《후에 한번 아가씨에게 말씀드릴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기다려야 할거요.》 헨리흐는 절반 신중하게, 절반 롱처럼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와 딸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참모부현관에는 승용차가 서있었다. 그옆에 에베르쓰와 류쯔가 서있었다. 헨리흐가 다가갔다.
《소장님, 베르트골드소장님께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어라구? 벌써 소장인가?》
《네, 방금 편지를 받았습니다. 베르트골드는 지금 히틀러의 참모부에서 사업하신답니다.》
《아, 그렇군! 진심으로 축하하네!》 에베르쓰는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소장은 헨리흐의 손을 오래동안 놓을줄 몰랐다. 그는 마치 히틀러수하에서 일하는 영예를 지닌것이 베르트골드가 아니고 골드링남작이기나 한것처럼 느끼는듯 하였다.
《나는 일이 있어 류쯔와 함께 떠나니 점심때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전하게.》 벌써 자동차에 오른 에베르쓰의 말이였다.
《그러면 저녁을 주문해놓을가요? 템플리려관 식당의 음식솜씨가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겠소. 당신의 행복하고 승리적인 귀환을 축하해야지. 대위,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전 벌써 몇번인가 남작과 저녁을 같이 하였습니다. 남작이 프랑스료리에는 아주 박사입니다.》

《저녁 몇시로 정할가요?》

《우린 여덟시에 돌아오겠소.》 소장은 한마디 말하였다.

《골드링중위, 여기 내 금고열쇠가 있소. 금고를 열면 우에 서류묶음이 있는데 당신이 보아두어야 할거요. 내 방에서 읽으시오. 열쇠만 잃지 않으면 되오. 읽은 문건마다 수표를 해주오.》

헨리흐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형태의 문건중에서 당신이 내게 대접하는것이 제일 재미가 없는데요. 대위님!》

소장은 웃었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떠나자고 지시를 주었다.

류쯔가 말하던 서류묶음에는 《극비》라는 표식이 있었다. 헨리흐는 사무실을 잠그고 그안에 있는 서류를 읽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은 대부분 별로 흥미없는것이였다. 헨리흐는 대강대강 보고서 끝에 수표를 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한 문건은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것은 반땅크방어방법과 그에 대한 도면이였다. 적의 땅크의 소멸과 강화된 지점을 진압할 목적으로 쓰는 《골리아프》형 소형땅크에 대한 내용이였다. 《골리아프》땅크는 거대한 폭파능력을 가지고있으며 무선으로 조종하며 막대한 기동력을 가지고있어 시속 90키로까지의 속도를 낼수 있다. 다른 땅크와 충돌하거나 화점에 부딪치면 그것은 폭발하며 그가 타격한 장애물을 순식간에 소멸해버린다. 그것은 무엇인가 새로운것이였다. 헨리흐는 지시문과 거기 첨가된 도면들을 몇번 촬영하였다.

이제는 서류철을 접어놓고 금고를 잠글수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고싶지는 않았다. 좀 산보라도 해서 안되겠는가? 그다음 정각 6시에는 모니까와 함께 사전과 필기장을 들고 앉게 될것이다. 그의 작은 선생님은 그가 철자를 틀리거나 력점을 틀리게 발음할 때에는 무섭게 눈섭을 찌프릴것이다. 학습이 끝나면 그들은 몇마디 말을 주고받을것이며 또 본의아닌 말다툼을 할것이다. 그리고 둘이 다 자기들의 진심을 숨기려 할것이다. 그들의 담화는 무슨 시합을 련상케 하는것이였다. 선생과 학생인 그들 두사람은 마치 검을 맞대

고 마주서서 정확한 타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있는 두명의 격검선수 같았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모니까가 더 친절해졌고 그를 어쩐지 좀 이상하게 보게 되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헨리흐를 불안케 하는것이였다. 그는 모니까가 자기 마음에 든다는것, 매우 마음에 든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어찌 지금 그에게 그러한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겠는가. 헨리흐는 자기 인민의 원쑤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라는것, 프랑스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뜻을 같이한 사람이라는것을 모니까가 확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상관계가 무엇인가 더 큰것으로, 사랑으로 자라는것을 허용할 권리가 그에게 있겠는가? 사실 그는 모니까에게 장가들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일시적인 련애인가? 아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이 귀엽고도 훌륭한 처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만 하다. 그런데 그는 이 처녀를 낭떠러지로 끌고들어갈수 있다. …

또 여기엔 베르트골드가 문제이다. 그는 분명 헨리흐를 미래의 사위감으로 타산하고있다. 물론 그는 당분간 자기 후원자를 실망케 해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은 히믈러의 참모부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허용할수 없는 일이다. 히믈러참모부의 한개 부서책임자의 비호하에 있다면 안전성이 보장될것이다. 에베르쓰와의 관계도 좋아질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는 헨리흐 폰 골드링이 게스타포 고위급간부의 양자라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헨리흐가 로르헨과 결혼하리라는 희망을 베르트골드가 계속 가질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로르헨이 보낸 편지를 한장이라도 모니까가 읽는다면 얼마나 웃을것인가!

로르헨은 속물적인 감상주의자이며 고관집 딸로서의 우둔성과 교만성이 가득차있다.

바로 그런 처녀에게는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있는것이다. 그러나 잘생기고 지혜로운 모니까는 식당에서 술취한 도이췰란드장교들의 시중을 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그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겁낼만 하게 그렇게 처신할줄 아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니까가 한걸음만 실수를 한다면 그에게는 접근할수 없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것이며 그때에는 장교들이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모니까가 그에게 방조를 주고있는 학습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야 하며 도대체 그의 이름이 모니까와 련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모니까를 게스타포로 끌고갈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는지 누가 알랴! 헨리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것을 모니까가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만일 모니까가 빨찌산과의 련계를 가지고있다면? 모니까가 빨찌산과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헨리흐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모니까와 같은 도고하고 비굴할줄 모르는 진정한 애국자인 그런 처녀가 자기 인민의 원쑤와의 투쟁을 외면하고있을수는 없을것이다. 헨리흐는 반드시 그러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낼수 있겠는가? 그의 자그마한 녀선생은 항상 경각성이 높으며 자신이 말하기보다는 묻는 일이 많은것이다. …만일 모니까를 통해서 빨찌산운동의 지방지도자와 련계를 맺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렇다면 그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매우 요긴하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도 모니까와 친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자기의 심장을 조이고 평온하고 침착해야 한다. 나이는 스물둘이요 앞에 몹시 마음에 드는 곱게 생긴 훌륭한 처녀가 앉아있다고 할 때 그렇게 한다는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두사람에게 다 좋을것이다.

그러한 결심을 다지니 헨리흐는 마음이 안착됨을 느꼈으며 학습할때에도 다른 때보다 현저하게 더 평온하며 침착할수 있었다. 그것은 다소 모니까를 놀라게 하였으며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까지 하였다. 모니까 역시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대했다. 그래서 두사람이 그렇게도 초조하게 기다리던 학습시간이 흥미없이 심심하게 지나갔다.

저녁 여덟시에 템플리려관의 아늑한 방으로 에베르쓰소장, 사단참모장 큔스트대좌, 류쯔대위 그리고 골드링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모였다.

식사도구며 안주며 술을 차려놓은것을 보자 에베르쓰는 헨리흐의 어깨를 만족한 기분으로 두드리면서 말하였다.

《남작, 당신이야말로 진짜 특수임무장교요. 자기 상관의 구미까지 알아맞출줄 알거던!》

오늘 따르왈리부인은 기대하던 이상으로 수완을 나타냈다. 료리가 련달아 바뀔 때마다 특별한 포도주가 나왔다. 간이 나쁘다고 항상 불평을 말하는 에베르쓰는 좋은 음식을 즐기였으며 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박식가였다. 그는 따르왈리부인의 료리솜씨와 술의 선택을 높이 평가하였다. 큔스트와 류쯔는 입맛이 있느니, 없느니 말할 여지가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였다. 헨리흐는 항상 고뿌나 술잔이 비여있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다과시간에는 과실, 꼬냐크 그리고 얇게 베여놓은 치즈가 나왔다. 려송연은 아까부터 상우에 있었다.

꼬냐크를 첫잔 들 때부터 담화는 활기를 띠였다. 보통 말이 없는 큔스트대좌까지도 이야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때에 맞지 않는 화제를 꺼냈다. 그가 말하는것은 전반적인 유쾌한 기분에 어울리지 않았다.

《소장님, 지난밤에 우리 사단구역내인 쎈－률리엔과 란쩨르노주민지점사이에서 에쓰에쓰장교 두명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식사전에 기분상해하실가봐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참모장은 술에 취해서 말을 꺼냈다.

《자취를 감추었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며 에베르쓰가 놀랐다.

《밤에 그들은 지정된 시간에 쎈－률리엔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밀레르소좌를 만나기 위하여 란쩨르노촌을 떠났습니다. 밀레르는 그들이 떠났다는 소식은 받았으나 제때에 도착하지 않기때문에 걱정이 되여 란쩨르노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거기서는 장교들이 자동차로 떠난지 오래되였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 걱정이 된 밀레르는 몇명의 오토바이병을 그들이 오는 길로 마주보냈는데 그들은 장교들을 만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자동차조차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1호지점에 비상경보를 울렸습니다. 한개 중대 병사들을 장교들의 수색에 동원하였으나 아침에야 비로소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서 장교들이 타고가던 자동차가 전복된것을 발견하였답니다. 그런데 장교들자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있습니다. 나는 또 한개 중대를 이를 위해 동원시켰

습니다.》
《제길할것! 얼마후엔 밤에 거리에도 못 나간단 말이 나겠는걸. 수색하는데 사람을 더 보내오. 어떻게 해서나 범인을 잡아내야 하오. 잡아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버릇이 떨어지게 무섭게 처벌하시오.》
큔스트의 보고는 골드링의 손님들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난 그만 가봐야겠소.》 하고 에베르쓰는 시계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저녁식사의 자기 몫을 치르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러나 헨리흐가 말했다.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저런! 어떻게 그렇게?》 소장은 흡족해하며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감사히 여기는바이요, 남작! 덕분에 잘 먹었소! 큔스트!》 하고 에베르쓰는 참모장을 향해 말했다. 《골드링남작이 중위견장을 지내 오래 달고있는것 같지 않소, 상급중위쯤 다는게 더 어울릴것 같은데?》
《소장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고 대좌는 그에 응했다.
《그럼 래일 필요되는 문건을 준비하시오.》 소장은 헨리흐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언제 휴가를 떠나겠소?》
《없어진 장교들을 수색하는 사업을 돕고 떠나겠습니다. 그들이 유감스럽게도 살해당하지나 않았는지 근심됩니다.》
《옳소, 찬양할만 한 일이요. 곤난할 때 동료를 버리지 않는것이 장교의 의무요, 도이췰란드장교의 의무란 말이요.》 라고 에베르쓰는 강조하였다.
그렇게 수수께끼같이 없어진 게스타포장교에 대한 수색이 이미 사흘째나 계속되였다. 헨리흐도 그 수색사업에 참가하였다. 베르트골드의 직무가 급격히 승격한것을 안 후에는 소장이 헨리흐에 대해서 더 각별한 호의를 보이게 되였다. 골드링의 개인용으로 신형승용차까지 배당되였다.
그리하여 헨리흐는 자기 일을 더 헐하게 할수 있었다. 이제는 련락병의 임무와 함께 운전사의 일까지 맡아보는 꾸르트와 함께 란쩨르노촌과 쎈－률리엔촌사이의 도로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잃어진 장교들

의 흔적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밀레르 역시 별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매일같이 상급으로부터 수색결과에 대해서 물어왔으나 매번 한가지 말로 대답할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헨리흐의 립장에서 보면 성과적으로 끝났고 도발자로서는 실패로 된 검열이 있은 후 밀레르는 골드링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느끼였다. 더욱 그것을 촉진시키게 된것은 베르트골드소장이 밀레르의 직속상관이 된것이였다. 골드링이 자기 양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밀레르에 대한 극히 사소한 불만이라도 비친다면 밀레르소좌는 프랑스대신 동부전선으로 갈수도 있는것이였다.

밀레르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공훈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가 1933년 파시스트폭동에 참가하여 히틀러가 직접 자기와 악수를 한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동부전선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최근 이틀동안 밀레르는 골드링의 차에 함께 타고다니면서 자기가 중위의 정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있다는것을 그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였다.

오늘 밀레르와 골드링은 낮 두시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장교들은 이미 점심식사를 끝낸 때이므로 장교식당에 들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점심시간을 지나쳐버린것이 섭섭치 않았다. 그들은 먹고싶지 않았다. 그들은 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피곤한데다가 더위에 시달려 차라리 야외식당에서 시원한 과실술이나 마시기로 하였다.

그러나 밀레르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여도 정신이 들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끓어번지는것 같았다. 지금 그는 그 어느때보다도 흔적을 잃고 독이 올라 신경질을 부리는 사냥개 비슷하였다.

《남작! 그래 이렇게 빈손을 털고 앉아서야 되겠소? 오늘은 부끄러워서 전화기앞에 가질 못하겠소. 대체 무어라고 말하겠소?》

《두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수는 없습니다. 비록 작은것이라도 흔적이 꼭 있을것입니다. 흔적이 있다면 찾아낼수 있겠지요. 쉬였다가 더위가 떨어지거든 다시 떠납시다. 혹시 이번에는 운수가 트이겠는지…》 하며 헨리흐는 위로해주었다.

《기대를 걸어봅시다.》

밀레르는 일어나더니 헨리흐에게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남기고 떠나갔다.

헨리흐는 천막밑 식탁에 남아있었다.

그 시각에는 거리에 행인들이 적었고 모두 그늘에 들어앉아있었다. 그래서 모니까의 낯익은 모습이 인차 헨리흐의 주의를 끌었다. 모니까는 길 건너편으로 서른살쯤 되여보이는 호리호리한 남자와 무엇인가 활기있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있었다. 그 남자는 모니까의 팔을 끼고 아마도 무슨 퍽 재미나는 이야기를 모니까에게 들려주는듯 하였다. 그 프랑스남자는 줄곧 긴 코를 쓰다듬었으며 때로는 처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웃기도 하였다.

헨리흐는 함께 가고있는 즐거워보이는 남자와 모니까를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출입구로부터 세번째 식탁에 약간 비스듬히 앉아있는 늙은 프랑스사람이 자기를 주의깊게 유심히 보고있는 시선과 마주쳤다. 그 사람은 두개의 흐린 유리알을 련상케 하는 검은 눈을 헨리흐에게서 떼지 않고 눈도 깜박이지 않고 보고있었으며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프랑스사람이 앉아있는 식탁으로 접대원처녀가 다가갔다. 그는 잠시 음식값을 치르는 동안 시선을 딴데로 돌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동안에 불과하였다. 그의 눈은 또다시 헨리흐에게 쏠리였다.

그 괴상한 사람의 행동과 찌프린 얼굴에 마음이 끌린 헨리흐 역시 몇번이나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이췰란드장교가 자기에게 주의를 돌렸다는것을 확인한 그 프랑스사람은 마치도 그 누가 감시하고있지나 않는가를 겁열이라도 하듯 급히 사방을 둘러보고나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상우에 놓고 그 봉투가 도이췰란드장교에게 가는것이라는것을 그에게 알리느라고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려 신호하였다. 프랑스사람은 다시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또 도발인가!》 하는 생각이 헨리흐의 머리를 스쳤다.

상우에 돈을 놓고 헨리흐도 일어나서 프랑스사람이 앉아있던 식탁옆으로 천천히 지나가면서 남모르게 봉투를 집어 군복앞섶에 감추었다.

피로의 기분이 당장에 자취를 감추었다. 헨리흐는 또다시 그의 뇌수로 하여금 빠르고 최대한의 정확성을 가지고 작용할것을 요구하는

긴장한 기분을 느끼였다.

2분후에 그는 벌써 자기 방에 와있었다. 헨리흐는 응접실에 앉아있던 꾸르트에게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문을 꽉 닫고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주소도, 어떠한 표식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봉투였다. 봉투를 손에 들고 뒤적여보던 헨리흐는 조심조심 봉투 한끝을 뜯었다. 네모나게 접은 작은 종이장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헨리흐는 종이에 씌여있는것을 읽고 몹시 놀라고 흥분하였다.

편지는 유치한 도이취어로 씌여져있었으나 그 필치는 정확하고 활달한것이였다. 미지의 필자가 쓴 글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프랑스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가지 문제에서 당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을 나의 의무로 생각한다. 나는 아직 이 편지를 바로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주소성명없이 이 글을 쓴다. 나는 참모부로 찾아갈수 없다. 내가 도이췰란드사람들과 의사가 통한다는것을 지방주민들이 벌써 의심하고있다. 만일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있다는것이 확인된다면 마키는 나를 죽일것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 도이췰란드장교에게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받는 도이췰란드장교는 해당한 곳으로 이 편지를 보내줄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당신들이 며칠째 마키에게 잡힌 두명의 장교들을 찾고있다는 것을 안다. 두 장교는 피살되였으며 그 시체는 당신들이 자동차를 발견한 장소에서 동쪽에 외따로 서있는 참나무밑에 묻혀있다. 장교들을 살해하는데 네명의 마키가 참가하였다. 그들중 두사람은 내가 알고있다. 뽄쩨마프레촌에서 온 죠르즈 마로트와 삐에르 고르트이다. 그밖의 두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보면 알아낼수 있다. 만일 당신들이 이미 렬거한 사람들을 체포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방조를 요구할 때는 언제나 당신들에게 복무할 준비가 되여있다. 그러나 결코 나를 당신들 있는 곳으로 부르지 말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다. 다른 방법을, 례컨대 나를 체포했다가 담화를 한 다음에 석방하는것과 같은 방법을 연구해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들이 틀림없이 알고싶어할 약간의 다른 정보도 가지고있다. 봉사한데 해당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나의 주소는 뽀쩨른촌, 쥴리엔 레베크.》

날자는 편지에 씌여있지 않았다. 헨리흐는 생각에 잠기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게스타포의 자원적인 공모자의 편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발자의 작간인가? 만일 도발이라면 샴베리에서 있었던것보다 훨씬 더 서투른 솜씨이다. 어찌하여 편지를 언제나 뜻하지 않던 증인이 나타날수 있는 야외식당에서 전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설마 첫번째 검열때 그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보통 밀고라고 보는게 옳을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비렬한 인간은 그가 밀레르와 둘이 앉았을 때 편지를 남모르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가? 그때에는 그자도 자기 편지가 도이췰란드군 지휘부에 알려지리라는것을 전적으로 확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역시 도발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가 이 편지를 숨긴다고 하자. … 그때에는 그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고발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검열을 시작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골드링남작이란 이름밑에 누가 숨어있는가를 알아낼수도 있을것이다. 아니다, 그런 모험을 할수는 없다. 출로를 찾아야 한다. 어떠한 출로를? 편지를 에베르쓰에게 전한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그 편지는 그를 통해서 밀레르에게로 갈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두명의 프랑스애국자를 총살당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빨찌산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면? 그러나 어떻게 알린단 말인가? 아니다, 전혀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한다. … 그는 편지를 소장에게 전해야 한다.

《꾸르트! 지금 모니까아가씨한테 가서 내가 시간이 있으니 와줄수 없는가 알리라구. 아가씨가 이리 오거든 자넨 참모부에 들려서 직일관에게 내게 오는 편지가 없는가 물어보구 거기서 나한테 전화루 알리라구. 알았나?》

《알았습니다.》

꾸르트는 나갔다.

헨리흐는 편지를 다시한번 읽어본 후 《장교들을 살해하는데 네명의 빨찌산이 참가하였다.》는 구절이 우에 나타나도록 조심히 접어서 그 구절을 헐히 읽을수 있게 해놓았다. 이제는 구깃구깃 해놓은 편지장을 모니까가 늘쌍 앉군 하는 안락의자앞에 있는 상우에 놓으면 되는것이였다.

《어유! 담배도 몹시 피우셨네!》 모니까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

마살을 찌프렸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피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모니까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 사람은 정도에 맞게 피우는가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예요?》

《내가 오늘 거리에서 아가씨와 함께 있는걸 보았는데요.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고 매우 유쾌한분 같더군요.》

《아, 그건 내가…》 하고 말하려다가 모니까는 입술을 깨물고 입을 다물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것을 겁내는가요?》

《그이 이름을 말했대야 남작님께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또 그이는 전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 좋은 친우일따름이예요. …》

《어느때 가서는 당신의 친우들을 내게 소개해주겠습니까?》 헨리흐는 특별히 찬찬히 처녀를 보았다.

《만일 그럴만한 일을 하신다면…》 모니까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라도 그런 가능성을 얻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약속하였지요?》 헨리흐는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주면서 말하였다.

《약속했어요. 이젠 공부를 시작하시자요.》

모니까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헨리흐는 침대옆의 함우에 놓인 담배를 가지러 가는척 하면서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곁눈으로 처녀의 거동을 살폈다. 모니까의 전신이 긴장되면서 약간 앞으로 내밀사 한 머리가 마치 굳어져버린듯 움직이지 않는것을 보고 헨리흐는 모니까가 그 구절을 읽었다는것을 눈치챘다.

(왜 이렇게 꾸르트의 전화가 늦는가.) 헨리흐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있을 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모니까는 깜짝 놀랐다.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말씀하시오. … 알았소. 곧 가겠소.》

《아가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 5분동안 참모부에 피뜩 갔다올 일이 생겼군요. 여기서 그냥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또 찾아가지 않도록 말이요.》

《좋아요. 그저 늦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모니까도 쾌히 동의하였다.

방을 나서면서 헨리흐는 모니까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흥분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헨리흐와 꾸르트는 5분이 아니라 10분후에 함께 돌아왔다.

모니까는 방에 없었다. 사전우에는 간단한 글쪽지가 놓여있었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가도 될줄 알아요. 처녀를 기다리게 하는것은 례절에 어긋나요. 특히 처녀가 유쾌한 친우들을 기다리고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해요. 언제인가 앞으로 그 친우들을 소개해드리겠어요.》

헨리흐는 글쪽지를 쪼각쪼각 찢어버리였다.

《꾸르트, 주인한테 가서 뜨거운 다리미를 좀 빌려오고 아가씨에게 내가 늦어서 사과를 하더라고 일러주게. 내가 기다리고있으니 와달라고 하게.》

꾸르트는 인차 돌아왔다. 다리미는 가지고 왔으나 모니까는 만나지 못했다는것이였다. 따르왈리부인의 말에 의하면 모니까는 연기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파 바람을 쏘이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는것이였다.

모니까가 편지를 읽었다는것은 명백했다. 종이장이 헨리흐가 접어놓은것과는 전혀 다르게 접혀있었다. 그리고 놓인 자리도 전과는 달랐다. 더우기 그 글쪽지가 아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모니까는 얼마나 재치있게 편지를 써놓았는가. 트집을 잡을데가 하나도 없게 썼고 동시에 한마디한마디에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 친구는 리해할것이고 원쑤는 짐작할수 없게… 이름도 쓰지 않았다. 비밀공작원의 솜씨다.

바람쏘이러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는 마키가 경고를 받았을게 분명하다. 헨리흐는 편지를 에베르쓰에게 전해도 된다.

헨리흐는 구겨진 편지를 다리미로 펴기 시작하였다.

《중위님, 그런 일이야 저에게 맡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꾸르트는 솔질을 한 군복을 옷장에 걸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자 섭섭해하면서 말했다.

《아무에게도 맡길수 없는 일도 있다네, 꾸르트.》

《저에게는 무슨 일이나 믿고 맡기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남작님께 헌신적인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의 어머님까지…》

《자네 어머니는 무슨 상관인가?》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 하며 꾸르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흥분으로 해서 말을 더듬으며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매일밤 너의 중위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른이 너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주시였고 너와 함께 나까지 구원해주시였기때문이다. 정말 너를 내놓고는 나에게 남은 자식이 아무도 없다. 그 어른께 성심성의 잘 복무하여라. 나는 어머니로서 너에게 명령하는바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다 벌을 내릴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자네 어머니는 참 좋은분이시군. 어머니는 자네를 극진히 사랑하고계시는군. 어머님께 나의 충심으로부터의 인사를 전해주게. 그리고 자네가 어머니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있다고 써보내게.》

《그럼요, 전 이미 썼습니다. 중위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구요. 전 사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명령으로 불속에 뛰여들어가야 할 일은 없겠지만 자네와 나와만 알아야 할 이러저러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될수는 있을걸세.》

《지금이라도 명령만 주십시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네. 혹시 앞으로도 없을수 있지. 자, 내 군복이나 내주게.》

헨리흐는 쥴리엔 레베크에게서 받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시계를 보자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들었다.

(20분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직 빠르다. 모니까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밀레르는 좋아서 어쩔줄 몰랐다. 성공이 틀림없는것이다! 래일 아침전으로 그는 자기 상관에게 학살된 장교들의 시체가 발견되였다는것과 살인자들은 처벌하였다는 보고를 보낼수 있을것이다.

이번의 처벌은 온 부근마을들에서까지 떠들썩하도록 무섭게 할 작

정이였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골드링중위의 적극성에 대하여서도 지적해야 한다. 밀레르는 골드링남작의 리력이나 베르트골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척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을것이다. 상관은 젊고 재능있는 장교들에 대한 밀레르의 객관적태도를 찬양할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골드링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말할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밀레르와 골드링의 우정은 더 두터워질것이다.

밀레르는 영광과 안정된 출세의 길을 골드링과의 우정에서 찾았다. 사실 그 길은 독자적으로 최종목적지까지 다달을수 있거나 또는 기여서라도 갈수 있는 그런 순탄한 길은 아니다. 그에게 공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는 한때에 폭동에 참가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잊어버린지 오래다. 밀레르는 소좌의 견장을 바꾸어달 때가 이미 되였고 사업의 범위도 확장하여야 할것이다. 사단이 맡은 구역은 중요한건 사실이나 이왕이면 빠리나 그 부근에서 살아야지 쎈－레미같은 작은 촌구석에 박혀서 무슨 재미가 있으랴!

밀레르는 자기의 보고서가 상관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는가를 상상해보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고서의 내용까지 생각해보았다. 보고서는 응당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수색을 할 때 얼마나 막대한 곤난을 극복해야 하였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써야 한다. 끝에 가서는 범죄자들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하라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들의 처리방법은 밀레르자신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일이 다된 지금에는 모르는체 하고 상관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래서 상관이 마키를 반대하는 작전에 참가하고있다는것을 느끼고 히믈러에게 보고할 때도 이점에 대해서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밀레르는 운이 트는 모양이다. 젊고 민첩한 남작이 사단참모부에 오게 된것자체가 그것을 확인해준다. 수색사업과 레베크를 체포하는 연극에 골드링도 참가하게 하는것이 아주 현명한 일일것이다.

밀레르는 에베르쓰소장방에서 회의가 있을 때 자기가 교묘하고도 외교적으로 처신한것을 돌이켜보고 너무나 만족해서 손을 비비기까지 하였다. 다음과 같은 말을 례로 들수 있다.

《나는 범인을 체포하는데 골드링을 참가시킴으로써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범인들은 분명 필사적으로 반

항할것이 예견되기때문입니다. 차라리 그에게 쥴리엔 레베크의 체포를 위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극은 극히 안전합니다. 더우기 중위는 그의 얼굴을 알고있기때문에 일을 헐하게 처리할수 있고 아무러한 착오도 범하지 않도록 할수 있다고 봅니다. 뽄쩨마프레에서의 작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고 교묘하게 한 말인가? 그래서 에베르쓰도 참모장도 그의 말을 지지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작전의 중심주인공의 배역은 밀레르가 맡게 된것이였다. 그대신 골드링은 한옆으로 물러나게 만든것이였다.

그런데 중위가 돌아올 시간이 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일가? 그가 떠난것은 일곱시인데 벌써 시계는 열시가 되였다. 혹시… 밀레르는 전번에 두 장교와 같이 골드링에게도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쳤다. 그때에는 출세도 끝장이고 프랑스도 끝장이다. 베르트골드는 그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로씨야로 떠나야 할것이다. 최소한도로 생각해서 그렇다.

밀레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오토바이분대를 즉시 골드링중위에게 마주보내시오.》 그는 사무실로 들어서는 부관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오토바이병들이 발동을 걸가말가할 때 골드링의 승용차가 에쓰에쓰부대 청사앞에 다달았다. 밀레르는 창문으로 그것을 보자 급히 책상에 앉아 앞으로 진행할 작전도를 들여다보는척 하였다.

《내가 시간을 공연히 보내고있지 않다는것을 보라지.》

그는 문기척소리가 났을 때도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소좌는 소리쳤다.

《들어오시오!》

골드링의 그쯘한 모습이 문앞에 나타나자 밀레르는 일어섰다.

《무사히 돌아와서 반갑소!》

《그다지 무사할게 없습니다!》 골드링은 텁텁하게 한마디 하고 무슨 종이장을 밀레르에게 내밀었다.

《그게 무엇이요?》 비록 첫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나 밀레르는 당황한김에 이렇게 물었다. 그는 그러한 종이장을 한두번만 본것이 아니였으며 그 내용도 잘 알았다.

《프랑스인민의 반역자, 변절자에게 죽음을… 아마 그렇게 씌여있지요?》 골드링은 맥이 빠진듯 이렇게 말하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쥴리엔 레베크는…》
《우리가 도착하기 한시간전에 가슴에 총알 두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살인자는 잡았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레베크를 뒤따른게군.》
밀레르는 이마에 이슬처럼 돋은 식은땀을 문질렀다.
《아마 그자는 지방주민들이 좋지 않게 그를 대한다고 편지에 썼더니 무슨 의심되는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를 걸음마다 감시하였을수 있습니다.》 헨리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다 망칠수 있소! 밀고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들이 마키에게도 사전에 알릴수 있단 말이요!》 얼굴이 새파래진 밀레르는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소좌님의 립장에 있다면 단 일분도 지체할수 없습니다.》 하고 골드링이 충고하였다.
《그 말이 옳소, 그 말이 옳아!》 하며 밀레르는 분주히 서둘더니 부관을 부르며 문쪽으로 달려갔다.
《비상소집! 비상소집!》
5분후에 에쓰에쓰부대는 화물자동차를 타고 쎈－레미 대통로를 따라 뽄쩨마프레쪽으로 내달렸다.
…이튿날 아침에 밀레르는 돌아왔다. 그의 몰골은 비참하였다. 이번 작전의 유일한 전리품인, 땅에서 파낸 장교들의 시체가 선두차에 실려있었다. 레베크가 진실대로 쓴것은 사실이였다. 피살당한 장교들은 외따로 서있는 참나무밑에 있었다. 시체를 묻은 장소는 위장이 잘 되여있었다. 레베크의 편지에 도이췰란드장교들을 살해하는데 참가하였다고 지적된 두사람의 마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사람 다 촌에 없었다. 그들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지어 가까운 친척들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것이였다.
류쯔가 밀레르의 실패에 대해서 골드링에게 말해주었을 때 헨리흐는 동정어린 한숨을 쉬였다. 그러나 즉시 그의 얼굴은 밝아졌다.

《이젠 휴가를 떠날수 있겠군!》
《소장이 하루이틀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디다.》 류쯔의 말이였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시우?》
《모르겠소. 아마 소장자신이 당신께 말할게요.》 류쯔는 직접 대답하기를 피했다.
그러나 에베르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헨리흐도 묻지 않았다.
밀레르의 실패한 작전이 있은 후 이미 이틀이 지났다. 휴가문제가 일정에 올랐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식사전에 헨리흐는 자동차로 소풍을 하기로 하였다. 오늘 해야 할 임무는 받은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자기 의도에 대해서 류쯔에게 알렸다.
《갔다오시구려. 그러나 점심식사때에는 늦지 않도록 하시오. 소장께서 당신이 제때에 장교식당으로 오게 하라고 특별히 내게 주의를 줍디다.》
《그렇다면 소풍을 미루지요. 혹시 오전에 무슨 임무를 줄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당신은 모르시오?》
류쯔는 어깨를 으쓱할뿐이였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대위. 어째 최근에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동지적으로 대하지 않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서 나의 태도가 동지적이 아니라고 봅니까?》
《언제나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게 바로 그것이지요. 당신은 에베르쓰가 어째서 나의 출발을 지체시켰는가를 알고있을겁니다. 그러나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왜 장교식당에 꼭 가야 하는가도 틀림없이 알고있을겁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있습니다. 그다음 그 수수께끼같은 미소가… 대답대신에 어깨만 으쓱해보이군 합니다.》
《여보, 남작! 나는 당신이 뜻밖의 좋은 일을 당하여 더 기쁘게 해주자는거요! 나를 믿어주오. 무슨 불쾌한 일이라면 내가 틀림없이 미리 알려주었을게요.》
《그렇다면 내 말을 취소하겠소.》
류쯔가 암시한 뜻밖의 선물에 대해서 헨리흐는 점심식사를 앞두고 장교들이 다 모였을 때 알게 되였다. 소장은 전체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최고군부에서 골드링에게 철십자훈장 제2급을 표창하고 상급중위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였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모두 축하하러 달려왔다. 헨리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았으며 그러한 두가지 특기할 사변을 한시에 당했으니 동료들에게 한턱 내는게 나쁘지 않겠다는 암시를 적지 않게 받게 되였다.

헨리흐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술을 가지러 보냈다. 그래서 점심식사는 굉장한 주연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것을 젊은 상급중위는 일생에 처음 보았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두 마시였다. 얼마후에는 장교들이 복종관계뿐아니라 소장이 그 자리에 있다는것조차도 잊어버리였다. 헨리흐는 두번, 세번, 네번이나 술과 꼬냐크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일부 장교들은 벌써 만취되여 쓰러져버리였다. 에베르쓰도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을 제어할수 있었으며 위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에베르쓰와 참모장, 그밖에 몇명의 상급장교들이 가버린 후에는 주연은 말그대로 수라장이 되였다. 다만 헨리흐와 류쯔가 아직 옷을 제대로 입고있었다.

장교들은 상관들이 가버린 후에 역시 어디론가 은밀히 사라졌던 크론베르그중위가 다시 나타나자 야생적인 환성을 올리였다.

《여러분, 여러분들! 존경하는 상급중위 골드링남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녀성들이 왔습니다.》 하고 크론베르그가 웨쳤다.

《창문에 덧문을 내리우라!》 하고 누군지 소리쳤다.

술에 적게 취한 사람들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아직 일어설수 있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놀란 눈을 둥그렇게 뜬 부인들이 방으로 들어오는것을 맞이한다고 밀려나왔다.

헨리흐는 혐오와 격분을 이기지 못해서 치를 떨었으며 방안으로 깊이 물러섰다. 류쯔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굉장한 주연이군.》 하고 류쯔는 부인들을 끌어당기고있는 장교들쪽을 고개짓으로 가리키면서 조소하는 기분으로 말을 이었다.

《여보, 남작! 동물적본능대로 움직이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혐오스러운것이 있을가?》

《그래서 술을 적게 마시였소?》

《나는 여럿이 한데 모여 마시는걸 좋아하지 않소. 보아하니 당신도 술잔을 입술에 댔다 떼기만 하더군.》

《머리가 몹시 아파서.》
《나 역시 그렇소.》
《그럼 슬쩍 사라지는게 어떻소?》 헨리흐가 말을 꺼냈다.
《그게 좋겠소.》 류쯔도 동의하였다.
장교식당주인을 만나 그날 소비한 술값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헨리흐는 류쯔와 함께 뒤문으로 빠져나갔다.

이튿날 아침 모니까는 흥분하고 성이 나서 다녔다. 어째 그러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도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몇명 안되는 단골손님들인 프랑스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그 지방의 종교적관습에 따라 오랜 포도주를 한두잔 들기 위해서 따르왈리부인을 찾아오는 손님들이였다. 프랑스사람들은 도이췰란드장교들이 모여드는 저녁때는 식당에 오기를 피하고 낮이나 아침에만 들리군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비록 시간은 일렀으나 운수가 사나왔다. 그들이 한잔 포도주도 채 마시기 전에 려관앞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멎더니 해골을 그린 견장을 단 도이췰란드병사 여섯명이 식당으로 밀려들었다. 불청객들, 특히 에쓰에쓰대원들이 달려드는것을 보자 프랑스사람들은 활기있게 하던 이야기를 그쳐버리였다. 그들은 가까이에 앉은 이웃들과 소곤소곤 이야기하였으며 도이췰란드병사들이 앉아있는쪽은 보지 않으려 하였다.
에쓰에쓰대원들은 아마 오는 도중에도 벌써 여러번 술잔을 기울인듯 상당히 방자하게 행동하였다.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는가 하면 따르왈리부인에게 야비한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안주도 없이 《그라프》라고 부르는 포도주를 마구 마시였다.
한 반시간 지나자 병사들은 완전히 취해버렸다.
《여! 그라프 한병 더!》
뚱뚱한 불머리병사가 소리치며 주먹으로 식탁을 탕 쳤다.
《얼른 한병 갖다주고 즉시 네 방으로 올라가거라. 저 사람들이 너를 보지 않도록 말이다.》 따르왈리부인은 안주거리를 준비하면서 딸에게 일렀다.

모니까가 요구하는 술병을 상우에 놓고 돌아서 가려 할 때 그 불머리의 에쓰에쓰대원이 모니까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기 무릎우에 앉히였다.

《놓아요!》 하고 모니까는 소리치며 빠져나오려 몸부림쳤다.

에쓰에쓰대원은 껄껄대고 웃으며 모니까의 허리를 둘러잡았다. 그의 동행자들도 역시 껄껄대며 웃었다.

《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모니까는 필사적으로 웨쳤다.

류쯔와 밀레르와 함께 현관에 들어선 헨리흐가 그 웨침소리를 들었다. 헨리흐는 식당으로 달려들어갔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있는지 한눈에 환히 알수 있었다. 그는 익숙하고 잘 훈련된 동작으로 불머리대원의 팔목을 잡고 손목을 눌렀다. 불머리는 비명을 올리며 벌떡 일어나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헨리흐는 절반 구부린 오른손으로 그자의 턱을 힘껏 갈겼다. 에쓰에쓰대원은 상을 뒤집어엎으며 넘어졌다.

그자의 동행자들이 헨리흐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앞에는 권총이 번쩍거리고있었다.

《썩 나가지 못할가!》 헨리흐는 무섭게 소리쳤다.

그의 등뒤에서 류쯔와 밀레르가 권총을 빼들고 나타났다.

무장을 든 세사람의 장교와 그중에 게스타포장교까지 있는것을 보자 에쓰에쓰대원들은 서로 뒤질세라 출입구로 몰켜갔다.

《대위님.》 하고 헨리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듯 침착하게 류쯔를 향해 말하였다. 《내 방이 어딘지 아시지요? 밀레르님을 그리로 안내해주십시오. 내 여기서 무엇 좀 주문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술취한 병사들이 탄 자동차가 떠났다는것을 확인한 다음 류쯔와 밀레르는 헨리흐의 방으로 올라갔다. 모니까도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의 속눈섭에는 아직도 분한 눈물이 어리여있었다. 헨리흐옆을 달려지나면서 모니까는 감사해요! 하는 한마디를 급히 남기고 문밖으로 사라졌다.

헨리흐는 매대로 가까이 갔다.

《내 방으로 좋은 꼬냐크를 한병 보내주십시오.》 하고 따르왈리부인에게 부탁하고 돈을 세여주면서 덧붙여 말했다. 《이건 내가 쫓아버린자들의 술값입니다. 그자들이 아마 돈도 내지 않고 간 모양이니…》

따르왈리부인은 손을 내저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세만 지고있는데요!》

따르왈리부인의 만류도 듣지 않고 헨리흐는 매대건너 금고에 자기가 직접 돈을 던져넣었다.

그가 자기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식당에 있던 단골손님인 프랑스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장교어른, 고상한 인간성을 위하여 한잔 들것을 허락하십시오!》 하고 헨리흐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였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손에 잔을 들고 일어섰다.

헨리흐는 매대로 돌아서서 따르왈리부인이 주는 포도주잔을 받아들고 손님들에게 답례하였다.

모두 친선적으로 마시였다.

헨리흐는 나갔다.

기차가 떠나기 전 20분가량 앞두고 꾸르트는 이미 자기 상관의 짐을 자동차에 실었다. 헨리흐는 주인아주머니와 모니까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렸다.

《한주일동안 휴가를 떠나게 되여서 부인과 따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들렸습니다.》

《남작님께선 매우 기쁘겠습니다. 어서 잘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내 모니까를 인차 불러오지요.》

헨리흐와 작별인사를 하고 따르왈리부인은 딸을 찾으러 나갔다. 헨리흐는 작은 상에 앉았다. 일분 또 일분이 지나도 모니까는 나타나지 않았다. 헨리흐가 떠나기 전에 만나기는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는 참에 처녀가 나타났다.

《골드링어른께서 절 만나자고 하셨나요?》 모니까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어째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진 일이 있었는가요? 나를 보기조차 싫어하시는군요.》

처녀는 눈을 내리깔고 창백하고 침울한 모양으로 서있었다.

《천만에요, 저는 남작님의 기사다운 행동에 매우 감동되였어요. …》

《난 휴가를 떠나게 돼서 작별하러 들렸습니다.》

《새 견장과 철십자훈장을 수여받으신것을 열렬히 축하하러 모였던 그 부인들과는 벌써 작별인사를 하셨나요?》
태연하다는것을 강조하는 어조로 물어보는 그 물음에는 비애의 기분이 어리여있었다.
《모니까, 나의 착한 선생님, 난 사실 그들을 보지도 못했소!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류쯔대위와 함께 집으로 오고말았소.》
《제앞에서 변명하시나요?》
《마치 나를 질책하는것 같군요. …》
《전 선생의 권리로 질책하는거예요.》 하며 모니까는 처음으로 미소하였다.
《나는 학생의 권리로 변명하지요. 휴가기간에 지켜야 할 어떠한 훈시를 나에게 주시렵니까?》
《설마 남작님께 나의 훈시가 필요할가요? 남작님은 사실 자기 양어머니에게 가시는데 그리고 누이에게… 그들이 오죽 잘 돌봐드리겠나요.》
《어째서 누이란 말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처녀를 누이라고 부를수 있다는것을 전 상상할수 없어요. 남작님이 직접 일곱살때 본 일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누이에게라면 그렇게 비싼 선물을 가져가지 않을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길떠나는 나에게 할말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처신을 잘하시고… 될수록 빨리 돌아오세요.》
《그 두가지 말씀을 꼭 집행하겠습니다.》
헨리흐는 모니까와 굳은 악수를 하고 급히 나갔다.
모니까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것일가? 그는 정거장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기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슬프기도 하였다.

어부들과 물고기들

베르트골드는 골드링이 뮨헨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밤늦게야 받았다. 그는 이미 사무실을 떠나 하루일을 끝내고 휴식하러 가려던 때였다.
베르트골드는 오래동안 전보를 기다렸다. 그는 헨리흐가 뮨헨에 빨

리 오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썼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도저히 집으로 갈 생각을 할수 없었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엘자와 로르헨이 제대로 일처리를 해내겠는지?

베르트골드는 전보를 손에 든채 상옆에 놓인 큼직한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헨리흐의 도착에 얼마나 많은 계획, 희망, 기대를 걸었던가. 그런데 막상 오게 되니 일이 삐뚤어졌다! 베르트골드가 하루만이라도 자리를 뜰수 없는 바로 지금 그가 도착하다니.

베르트골드는 골드링의 도착에 대해서 안해에게 몇번이나 편지를 써보냈다. 그들사이에는 골드링이 도착할 때 그도 꼭 집으로 가겠다는 약속이 되여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전보를 쳐야 할 형편이였다. … 무슨 궁리를 해낼수 없겠는가? 참모부의 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리유로 해서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가 정탐기관에서 지내온 생활의 전기간에 그는 자기 가정일때문에 직무에 지장을 준 일은 없었다.

베르트골드는 28년동안 정탐기관에 있었다.

벌써 28년이 되였단 말인가? 그는 젊은 장교로서 오스트리아－마쟈르군대 참모부에 자리를 잡고 참모부장교들의 기분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 상관인 브란트중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윈으로 갔던 때 있은 세세한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새겨져있었다.

그때는 빛나는 출세에 대한 희망과 젊은이의 랑만적인 공상이 얼마나 컸던가! 윌헬름 베르트골드는 출신으로 보나 교육받은것으로나 직업으로나 다 정탐일군이였다. 믿음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 고관들과 이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뒤를 캐고 그들을 사냥하는것을 베르트골드는 의사나 교원 또는 광산기사의 직업과 같이 필요할뿐만아니라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였다. 젊은 그가 윈에 갔을 때도 그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당에 들어가 첩보사업과 같은 힘든 사업에서 자기를 부축여주고 도와줄것을 하느님께 열렬히 기도드리였다.

1916년까지 젊은 베르트골드는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그의 운명이 그렇게 순탄하게 풀린것은 그의 사업에 대한 브란트의 찬양하는 반

영이 수다히 올라간것과 관련되였다. 그러나 1916년에 베르트골드는 이미 대위가 된 때였는데 용납될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마쟈르군총참모부의 한 고위급장교로 가장한 직업적도이췰란드정탐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기보고때 그의 사업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게 서술한것이였다.

그후 베르트골드의 별은 오래동안 굴러떨어졌다. 그를 내쫓지는 않았지만 알아주지 않았으며 풋내기간첩이라도 힘들지 않게 해낼수 있는 과업을 맡기였다. 베르트골드는 자기를 멸시하는것을 1918년까지 묵묵히 참고견디였다. 1918년에 그의 운명은 또다시 풀리기 시작한듯 하였다. 강점한 우크라이나로 내보내기 위하여 각종 직업의 정탐일군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뽑아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의 어린시절의 친구이며 정탐학교에서 한가마밥을 먹은 지그프리드 폰 골드링이 베르트골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였다. 남작의 직위는 고위급상관의 사무실에서뿐만아니라 그들의 부인들의 객실에서도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골드링과 베르트골드는 비록 각이한 임무를 받기는 하였으나 우크라이나로 함께 떠났다. 지그프리드는 운수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간첩들을 모집해야 하였으며 베르트골드는 남부우크라이나의 경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위임을 받았다.

자기의 옛 과오를 씻기 위하여 베르트골드는 피로를 모르고 휴식도 없이 일하였다. 그는 지방의 고문서들이며 통계자료들, 먼지가 수북한 지질탐사자료들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1918년 가을 도이췰란드군대가 혁명적우크라이나로부터 도망치게 되자 베르트골드 역시 성당에서 훔쳐낸 성상과 남부우크라이나경제에 대한 보고자료를 가지고 도망쳐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성상에 박혀있는 보석은 후에 판명된바와 같이 위조품이였으며 그의 보고자료를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도이췰란드는 붕괴전야에 있었으며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였다.

만일 그의 이전 상관이던 브란트중위가 그에 대해서 상기하지 않았다면 세습적인 정탐의 출세는 그것으로 끝났을것이다. 상부로부터 돌봐주는 일에 익숙되지 않은 베르트골드는 제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브란트의 방조자로 되였으며 거의 동시에 그의 딸 엘자의 남편으로 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 장인은 손녀 로르헨의 출생후에 사망하였고 그가 손녀에게 물려준것은 거의 50년동안 수집한 우표뿐

이였다.

베르트골드는 일생동안 그 누구에게도 애착이나 지어 동정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 딸을 무척 사랑하였다. 그는 항상 교제를 싫어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출세에 리로운가 아닌가 하는 견지에서만 평가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일생에 한번도 사랑한적이 없는 엘자의 남편이 되였으며 지금까지도 엘자에게는 남과 같은것이였다. 베르트골드부부를 련결시키고있는 유일한것이 로르헨이였다. 그래서 로르헨의 운명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결같은 관심사로 되는것이였다.

어린 로르헨은 드물게 보는 귀여운 소녀였다. 통통한 팔다리며 발그레한 두볼, 곱실곱실한 금발이 다 귀여웠다. 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부모는 그후 딸의 외모가 점점 변해가는것도 보지 못하였다. 로르헨은 키가 훌쩍 커갔으며 얼굴의 모습이 팽팽해져서 소녀다운 고운 맛이 없어지게 되였다. 12～13살이 되였을 때 로르헨은 매우 균형이 잡히지 않은 처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딸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베르트골드는 로르헨을 시집보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갈것을 꿈꾸게 되였다. 사실대로 말해서 베르트골드는 자기 딸의 미래의 남편이 지참품을 적게 가져왔다고 불평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의 딸의 지참품은 적지 않았다. 1933년 히틀러당파의 폭동이 있은 후 베르트골드는 뮨헨에 있는 어느 유태인음악교수의 소유였던 별장을 선물로 받았다. 그후 히믈러와 련계를 가진 덕분으로 또 두개의 곡물공장을 받았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있는 동안을 그는 로르헨의 미래와 자기의 로년기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물을 긁어모으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그는 다른 장교들이 하듯이 의복이나 가구나 식료품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의 부하장교들은 자기네 상관이 요구하는 선물은 오랜 로씨야의 은제품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위하여 특별히 은식기 등속을 가져오면 베르트골드는 그것을 자기 안해 엘자에게 보내기 전에 자기가 혼자서 그것을 오래동안 감상하기를 즐기였다. 자기를 예술품에 대한 섬세한 전문가로 자처하고있는 베르트골드는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조각의 값싼 모조품을 사거나 공장들에서 만든 모전을 방에 걸어놓기 좋아하였다. 지금 그는

조각품과 모전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며 오래동안 진짜 예술작품대신에 모조품이나 가지고 만족하던 시기의 불만을 보상할수 있게 되였다. 그의 요구는 때를 따라 더 커졌으며 취미는 더 고상하게 되여갔다. 이제 와서 그는 조각품도 모전도 박물관에서만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그의 수집품이 모조품이거나 제2류의것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였다. 매사에 정확한걸 좋아하는 베르트골드는 새로운 획득물을 발송하기 전에 조각품이나 모전에 자기 손으로 카드를 붙이였는데 거기에는 조각의 명칭과 조각가의 이름, 이러저러한 모전을 짜낸 시대, 그 물품을 가져온 박물관주소 등 자기가 알고있는것을 다 써넣는것이였다. 엘자부인은 남편의 명령대로 그 모든 카드를 세심한 사람들이 늙은 다음 생활의 원천으로 될것을 찬찬히 간수하듯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였다.

안해는 한주일에 두번씩 집안소식을 다 베르트골드에게 전하였다. 물론 그 편지에서 주되는 이야기거리는 딸의 건강, 행동, 기분 등이였다. 어머니는 지금 많은 사업을 맡아보고있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평을 말하는것을 극력 피하였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에는 로르헨의 상태가 원만치 못하다는 신중한 암시가 점점 자주 비치는것이였다. 도대체 무엇이든지 써보내라는 베르트골드의 단호한 요구에 응해서 엘자부인은 길다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 로르헨이 매우 이상하게 번져나가고있다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그 사연인즉 뮨헨에서 멀지 않은 곳에 1년전부터 베르트골드의 소유로 되고있는 농장에 로르헨이 열심히 다니고있는데 그것이 모든 도이췰란드녀성에게 특징적인 경제에 대한 욕심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때문이라는것이였다. 베르트골드는 그 농장을 거의 공짜로 얻었다. 그는 그 농장에 막대한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것은 그 농장으로 훌륭한 우량종자인 네데를란드젖소를 얻어보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주되는 수입은 무보수로동력에서 얻은것이였다. 베르트골드는 동부전선에 있을 때 빨찌산과 련계를 가졌다는 구실로 벨라루씨처녀 아홉명을 농장으로 보냈다.

로르헨은 처음에 아버지가 새로 얻어낸 농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농장에 자주 다니게 되였으며 개를 몰때 쓰는 길다란 채찍까지 샀다.

엘자부인은 처음에 딸이 농장으로 가는것을 보고도 근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르헨이 똑똑한 살림군으로 되려는 모양이라고 친지들에게 자랑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번은 엘자부인이 딸의 뒤를 따라 농장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된것이였다. 물론 문제는 로르헨이 벨라루씨처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못살게 구는데 있는것이 아니였다. 엘자부인에게는 그 처녀들이 보통 부림짐승에 불과하였으며 그리고 부림짐승은 항상 무섭게 몰아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처녀들의 눈물이나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부인을 놀라게 한것이 아니였다. 부인은 자기 딸의 얼굴을 보자 번개불에 놀란 사람처럼 우뚝 서고말았다. 동공이 크게 확장된 로르헨의 명상적인 눈은 미친 사람의 눈과 같았다. 엘자부인은 그것이 우연한 증오의 폭발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베르트골드는 하는수 없이 뮨헨에 갔다올것을 상급장관에게 청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안해가 편지에 써보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싶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로르헨의 건강을 전면적으로 검진하기 위한 의사협의회를 하고싶었다.

의사들의 결론은 그리 락관적인것이 못되였다. 그러나 의사들은 처녀를 빨리 시집보내는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사들은 처녀에게 변태적인 잔인성의 병이 조장될수 있기때문에 농장으로 다니는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변태적잔인성이 조장되면 정상적인 심리생활과 가정생활을 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부모앞에는 한시바삐 딸을 시집보낼 문제가 제기되였다. 딸은 남편과 자식을 가져야 하며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베르트골드집안은 응당 건강한 계승자를 얻어야 할게 아닌가!

그러나 딸을 시집보낸다는것이 말하듯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베르트골드는 자기가 데리고있는 장교들중에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를 고를수도 있었다. 빈한하고 별로 뛰여나지 않은 중위쯤 되는 사람을 골라서 그후에 그의 사위감이 될만 하게 제발하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베르트골드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미래의 장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강제로 결합된 안해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았다. 그의 안해인 엘자는 비록 크게 부족한것이 없고 최근에 와서는 부유하다고까지 생각

할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수 있게 되였으나 자기를 행복하다고 느낀적은 없으리라는것은 부인할수 없었다. 베르트골드자신도 부부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였다. 남이 보는데서는 그들이 서로 다정해보이고 관심이 많은것 같았으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으면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으며 랭랭하고 서먹서먹하게 되는것이였다. 로르헨에 대한 말이 날 때만은 그렇지 않았으니 사실 그들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로르헨뿐이였다.

딸의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메마르고 깐깐한 베르트골드도 명상가로 되는것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뮨헨에 갔을 때 로르헨을 뮨헨의 상류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엘자가 그러한 련계를 공고화시킬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닌것이다. 어쨌든간에 로르헨이 자기 대상자를 구할수 있는 사교계로 나설수 있는 길이 막힌것이였다. 그래서 베르트골드는 딸을 시집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착수해야 하겠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더우기 로르헨은 별로 이상할것도 없겠지만 몹시 민해지기 시작하였다. 얼굴에는 지나치게 살이 지고 코는 가늘어져서 로르헨의 눈은 실물보다 훨씬 더 작아보였다. 처녀의 머리만은 변함없이 화려한 금발이였다.

헨리흐 골드링이 베르트골드의 사무실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당시 아직 대좌였던 그는 헨리흐를 운명의 선물처럼 생각하였다. 자기의 죽은 친구의 아들이며 2백만마르크의 소유자인 이 젊은 남작이 바로 베르트골드에게 굴러들어왔다는것은 사실 운수가 트이는것으로 설명할수 있었다. 죽은 지그프리드의 아들과의 상봉에 감동된 대좌는 그때 완전히 충심으로부터 아버지를 대신하겠다는것을 헨리흐에게 약속하였다. 밤에 모든 문제를 두루 생각할 때면 대좌는 자기가 얼마나 천재적인 한걸음을 내디디였는가를 알았다.

그렇다. 그보다 더 좋은 로르헨의 신랑감은 구할수 없다. 그는 젊고 국가앞에 공로도 세우고있다. 슐쯔와의 관계를 놓고보면 정탐일군으로서 다소 과격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정탐부문에서 계속 사업하는 과정에 골드링도 단련될것이다. 그는 앞으로 빛나는 출세의 길을 걸으리라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있다. …중요한것은 돈이 많은것이다. 더우기 남작이 아닌가! 사실 요즈음에는 작위에 대해서 큰 의의를 부여

하지는 않지만 로르헨이 남작부인이 된다고 나쁠것은 없다. 그의 외모도 나쁘지 않다. 잘생겼다고 할수 있다. 이마가 훤하고 매부리코에 지혜롭게 보이는 연한 갈색눈, 단정한 체격… 몹시 변덕이 많고 까다로운 시집갈 나이의 처녀일지라도 그만한 신랑감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베르트골드는 자기의 계획과 희망에 대해서 안해에게 즉시 알렸으며 양아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보일것을 명령하였다. 로르헨에게는 예고할 필요도 없었다. 로르헨은 자기에게 오빠가 나타났고 그가 소설처럼 기구한 운명을 지닌 장교라는것을 알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헨리흐와 엘자부인 그리고 로르헨사이에는 활발한 편지왕래가 시작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극히 원만히 진척된것이였다.

베르트골드가 작성한 계획에서 큰 의의를 가진것은 헨리흐와 엘자부인과 로르헨의 첫상봉이였다. 베르트골드는 미리부터 마치 이름난 연출가처럼 이 상봉의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였으며 배역까지도 분담시켰다.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자기가 하기로 하였다. 베르트골드는 자신이 연기를 잘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연극의 전과정을 지도할줄도 알았다. 그러던 차에 뜻밖에도 이 모든 계획이 파탄되고 만것이였다. 그것은 헨리흐가 바로 베르트골드가 없을 때 뮨헨으로 오게 되였기 때문이였다.

하루쯤 휴가를 신청해볼가? 단 하루만…

베르트골드는 래일과 모레 해결을 기다리고있는 모든 긴급한 사업을 생각해보았다. 그렇다. 좀 다르게 해보자. 오늘 밤새도록 일하고 래일도 낮에 일하고 저녁때 하루휴가를 신청해서 뮨헨으로 떠나보자. 자동차길은 훌륭하고 폭격으로 상한데도 없으니까 프랑스제승용차 《레노》를 타고가면 집에까지 8～9시간이면 달려갈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하루동안을 마음대로 쓸수 있을것이다. 하루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놓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해에게는 집에 갈수 없다고 전보를 쳐야 하겠다.

남편의 전보를 받은 엘자부인은 몹시 흥분하였다. 헨리흐가 와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엘자는 기진맥진하게 피로하였다. 그것은 헨리흐때문이 아니였다. 오히려 엘자는 례절바르고 교양이 있다고 하던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더우기 헨리흐는 엘자부인에게 어

찌나 좋은 인상을 주었던지 엘자는 남편의 세세한 지시가 없었더라도 이 섬세하고 고상하며 스위스은행에 2백만마르크를 저금해놓고있는 이 체격좋고 알뜰한 장교가 신랑감이 되고 후에는 자기 딸의 남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을것이다.

헨리흐는 아침에 도착하였었다. 그를 마중나온 사람은 없었다. 엘자부인은 로르헨에게 오빠가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줄 사이도 없었다. 어머니생각에는 로르헨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련달아 잘못을 저지르고있는것만 같았다. 물론 헨리흐와 로르헨은 남매인지라 례의범절의 요구를 무시할수 있었다. 헨리흐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누이동생에 대해서 존칭으로 부를수 없다고 말한것은 옳았다. 그러나 헨리흐와 로르헨이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춘것은 응당 허용될수 있는 일이였다. 주의깊고 경험이 많은 부인은 로르헨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며 누이로서는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는것을 눈치챘다. 그러한 행동은 남작에게 혐오감을 줄수도 있고 반대로 자진해서 매달리는 처녀를 너무 헐하게 쟁취할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계획도 희망도 다 끝장이다.

남편이 올 때까지 로르헨과 헨리흐를 단둘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엘자부인은 자기 할 일을 다 미루고 온종일 딸과 손님이 어디를 가던지 계속 따라다녔다. 아침식사후 그들은 정원구경도 하고 거리를 산보하기도 하고 점심식사때까지 자동차로 소풍도 하였다. 헨리흐는 운전대에 앉고 로르헨은 헨리흐가 운전을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찬양하였으며 남작이 자동차운전기술을 배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물론 로르헨이 제대로 처신할줄 안다면 여기에 이상할것도, 금지해야 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도저히 로르헨을 믿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엘자부인도 자동차를 탔다. 부인은 지금 너무나 피로해서 래일은 일어날수 있겠는지도 알수 없었다. 남작은 로르헨에게 례절바르고 단정하게 대하는것이 사실이지만 로르헨과 단둘이만 있게 된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런지 누가 알랴?

부인은 남편이 밤에는 오리라는것을 기대하였다. 오기만 하면 모든 책임은 그가 지게 될것이였다. 그런데 뜻밖에 오지 못하겠다는 전보가 온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모든것을 책임지고 해나갈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

었다. 점심식사후에는 부인이 헨리흐가 피로하겠으니 휴식을 해야 한다는것과 자기와 로르헨은 선물을 보자는것을 구실삼아 로르헨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로르헨은 헨리흐가 가져온 선물을 미처 볼 사이가 없었으므로 쾌히 승낙하였다. 처녀는 의복이며 구두를 재여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옷감을 얼굴에 대보기도 하였다. 부인은 자기 말귀를 처녀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것을 보고 락심하였다. 극단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넌 잊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지금은 너의 오빠지만 래일에는 신랑감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는 너의 남편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로르헨은 뜻밖이라는듯 잠간 앉더니 인차 뛰여일어나 어머니목에 매달렸다.

《원, 이렇게 주책이 없다구야! 정말 어린애라니까!》 엘자부인은 감동된 목소리로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로르헨에게 모든 전망을 다 펼쳐보인것은 현명한 처사였다. 처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신중하고 주의깊게 듣게 되였다. 골드링 남작부인이 된다! 잘 생긴 이 장교의 안해가 된다! 이제부터는 모든 면에서 어머니말을 들을것이며 헨리흐와 단둘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한것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어머니에게 전할것이다. 그렇다. 로르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행복을 원하고있다는것을 깨달을것이다. 그는 지시하는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것이다. …

헨리흐는 흡족한 기분으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얼마나 피로하였던가! 헨리흐는 우둔한 처녀와 자기 딸을 위하여 신랑감을 낚아보려는 꼼꼼한 어머니와 함께 반나절을 보낸다는것이 그렇게 피로를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베르트골드본인과 관계를 가지는 편이 훨씬 좋았다. 그는 지혜도 더 있고 더 전술적이기도 하였다. 이 희극은 한없이 혐오스러운것이기는 하였으나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베르트골드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온갖 구실을 붙여서 이 연극을 될수록 오래 끌어야 한다. 베르트골드가 중요한 인물로 된 지금에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략탈한 재부속에서 살다니. … 엘자부인은 남편이 로씨야박물관들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가! 점심식사를 할 때 오랜 로씨야의 은으로 만든 그릇들에 헨리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던가! 아마도

이 별장에 있는 모든것은 략탈해온것일것이다. …옛날것이라고는 비스마르크의 동상이 있을뿐이였다. 오늘은 그 동상을 헨리흐가 잘 볼수 있게 방안에 세워놓아 어린시절의 그리운 회상을 하게 하였으며 로르헨은 그들의 상봉기념으로 그것을 선물하였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와 첫대면이 있었을 때 이 조각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일이 생각나서 빙긋 웃었다. 하여튼 그의 사업에서는 그러한 세부들이 많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비스마르크씨, 다시 만납시다!》 헨리흐는 귀족들의 제2제국 창시자인 비스마르크를 향해 한마디하고는 돌아누워 머리까지 담요를 뒤집어쓰고 힘든 일에 피로한 사람들이 자듯이 깊은 잠이 들었다.

저녁때가 되여서야 하녀 안나가 헨리흐를 깨웠다. 문뒤에서 로르헨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주무세요, 게으름뱅이! 전 어머니와 벌써 세시간째나 앉아있어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손님들이 벌써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의 주인공이 아직도 주무시나요?》

《곧 나갑니다.》

정말 헨리흐는 잘 휴식한 후이라 신선한 기분으로 례복차림을 하고 로르헨앞에 나타났다. 처녀 역시 자기 옷차림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로르헨은 화려한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생생한 붉은 장미꽃을 달고있었다. 가슴으로 넘겨놓은 금빛머리가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것이였다.

《마르가리따! 파우스트가 정신없이 사랑한 진짜 마르가리따 같군요!》

로르헨은 그 말을 듣자 노여워하였다.

《그런 무례한 말은 하지 마세요! 파우스트는 마르가리따를 파멸시켰지요. 그 처녀는 전혀 옳게 처신할줄을 몰랐어요.》

헨리흐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오, 로르헨. 난 전혀 그 말을 하자는게 아니요! 그 녀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녀자의 긴 머리채에 대해서 생각했을뿐이요. 그 녀자가 어떻게 처신했는가는 생각도 안했소.》

《그렇다면 용서해드리겠어요. …》 로르헨은 헨리흐의 손을 꼭 잡았다. 식당문이 열렸다.

밝은 불빛에 눈이 부시여 헨리흐는 많은 손님들을 당장에는 가려볼

수 없었다. 다만 손님이 매우 많다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그는 모든 손님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매 사람에게 악수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개 녀성들과 악수하였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곳에는 주로 녀성들, 즉 게스타포장교들의 부인들과 딸들이 모여있었다. 늙은이, 젊은이, 여윈 사람, 뚱뚱한 사람, 금빛머리와 붉은머리, 고운 녀자들과 미운 녀자들 가지각색이였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보는 그 얼굴들에 나타난 호기심의 표정이였다.

참가자들중에서 한사람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데 아마 그것은 처음에 헨리흐에 대해서 사소한 주의도 돌리지 않는 그 점에서였다.

그 녀자는 28살의 곱게 생긴 처녀였는데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대리석같이 창백하였다. 눈은 크고 푸른색이였다. 길다란 검은 눈섭 한끝은 거의 관자노리에 이르렀으며 다른 한끝은 코마루우에 합쳐졌다. 검은 속눈섭은 눈의 색갈과 잘 조화되여 어딘지 이상한 그 눈의 표정을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 처녀는 에쓰에쓰부대 중좌의 제복을 입고있었다. 새 철십자훈장이 잘 지은 례복 왼쪽주머니우에 달려있었다.

《우리 사촌언니예요. 동부프로씨아에 있는 로씨야포로수용소 소장이예요. 베르찌나중좌랍니다.》 로르헨은 절반 엄숙하게, 절반은 롱조로 자기 친척을 소개하였다.

(동공이 커진것을 보니 아편중독자같군.) 헨리흐는 베르찌나의 작으나 굳은 손을 악수하면서 생각하였다.

로르헨은 자기와 베르찌나사이에 헨리흐를 앉혔다. 그래서 자연히 온밤 함께 지내게 되였다.

베르찌나는 처음에 헨리흐에 대해서 그다지 친절하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헨리흐가 두세번 재치있는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마음을 맞추어주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롱에는 롱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였으며 헨리흐와 춤추기를 즐겨하였다. 그날 밤은 헨리흐가 유일한 춤의 상대자였으므로 모든 부인들을 차례로 춤에 초대해야 했다. 춤을 추면서 베르찌나는 골드링이 신부를 택하는 취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로골적으로 암시하는것이였다.

온밤 헨리흐는 로르헨을 돌봐주었으며 베르찌나에 대해서도 잊지 않

왔다. 그들은 래일 아침에 다시 만나 셋이서 시외로 자동차놀이를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사흘동안 로르헨, 베르찌나 그리고 헨리흐는 함께 다녔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시외에도 가고 뮨헨을 돌아보기도 하였으며 극장과 음악회에도 함께 갔다.

엘자부인은 처음에 베르찌나가 있기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딸과 헨리흐와의 관계를 감시하는 쓸데없는 근심걱정에서 해방되였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엘자부인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베르찌나는 로골적으로 헨리흐에게 애교를 피웠으며 부인이 아무리 딸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멀었다 하지만 로르헨이 베르찌나와 경쟁하기는 어렵다는것을 인정할만 한 객관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부인은 또다시 딸을 시집보내고싶어하는 어머니의 힘들고도 세심한 의무를 자기 어깨에 젊어지게 되였다. 헨리흐의 행동도 부인을 신중한 근심에 잠기게 하였다. 헨리흐는 로르헨 주위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마음에 드는 말도 해주고 세심하고 친절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오빠로서의 감정보다 더 큰것에 대해서는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는 베르찌나의 죄가 있는듯싶었다. 베르찌나에 대해서 헨리흐는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것 같았다. 사촌언니라는것이 자동차놀이를 할 때면 앞에 앉아 차례로 차를 몰았다. 로르헨은 뒤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었다.

엘자부인은 헨리흐가 로르헨도 베르찌나도 한결같이 증오하고있다는것을 몰랐으며 알수도 없었다. 이 증오심은 베르트골드의 집에서 야회가 있은 후 더욱 돌발적으로 폭발한것이였다. 이튿날 아침에 베르찌나가 약속대로 로르헨에게 왔다. 그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젊은 처녀에게는 너무나도 특이한것이였다. 그것은 베르찌나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채찍이였다. 그것을 받자 로르헨은 어떠한 야생적인 만족감에 잠겨 사촌언니의 목을 둘러잡고 어찌나 몹시 입을 맞추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그다음 로르헨은 그 방안에서 마치도 누구를 동강내려는듯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자기 동생의 이런 꼴을 보자 헨리흐는 로르헨에게 손이 나가는것을 겨우 참았다. 처녀의 얼굴, 그 눈, 벌름거리는 코, 그의 모습이 그가 손에 채찍을 들기만 하면 그를 사로잡군 하는 야수적인 잔인한 향락에 대해서 말해주

는것이였다.

《이건 내가 수용소에 가지고 다니는것과 꼭같이 만든거야요.》 하고 베르찌나는 설명하였다.

헨리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편지를 하겠어요.》 로르헨이 선물을 어머니에게 보이겠다고 달려가자마자 베르찌나는 헨리흐에게 말했다.

헨리흐는 전혀 다른것을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주소를 대주었다. 그앞에는 미친 사람처럼 이지러지고 협오를 느끼게 하는 로르헨의 얼굴이 그냥 얼른거렸다.

《엄마는 날 농장에 못 가게 해요.》 로르헨은 돌아오더니 울먹울먹하면서 불평을 말했다.

《농장엔 무엇하러 가려고 그럽니까?》 헨리흐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이 선물을 시험해보려구요. 거기엔 로씨야처녀들이 일하고있거던요. …》

헨리흐는 로르헨의 손에서 채찍을 가로챘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생각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빼앗은체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채찍이였으나 가죽속에 가는 쇠줄이 들어있었다. 헨리흐는 그것을 한번 휘둘렀다가 안락의자등받이를 힘껏 후려갈겼다.

《아! 저것 보세요. 안락의자가죽이 터졌어요.》 로르헨이 좋아라고 소리쳤다.

모두 내려다보았다. 사실 가죽안락의자등받이는 채찍을 맞은 자리가 터져나간것이였다.

《수용소 감시인을 하면 제격이겠어요.》 하고 베르찌나는 골드링을 뜻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용소에서는 채찍을 써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베르찌나는 수용소의 질서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 집안사람들이였으므로 베르찌나는 숨길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반대로 베르찌나는 녀성게스타포장교이며 수용소 소장인 자기의 엄격성을 장교앞에서 마음껏 시위하려고 하였다.

헨리흐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이를 악문채 그 무서운 말을 들었다.

로르헨은 치마두른 살인자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빠칠세라 사촌언

니에게서 죄다 들었다. 헨리흐가 로르헨과 베르찌나에 대한 증오를 더욱 느끼게 된것은 그 순간부터였다. 그는 당장에라도 모든걸 집어던지고 쎈－레미로, 모니까에게로 가고싶었다. 지금 이 시각에 모니까는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먼 그리고 또 얼마나 가까운 한없이 귀중한 존재인가! 귀엽고 착하고 원쑤에 대한 증오에서도 깨끗한 모니까다.

그러나 골드링은 이 모든것을 집어던지고 쎈－레미로 갈수 없었다.

부인과 베르트골드사이에는 빈번히 전보가 왔다갔다하고있으니 오늘 아니면 래일 베르트골드자신이 뮨헨에 도착할수 있다. 그러니 그대로 있어야 한다. 애인의 배역을 더 놀고있어야 한다. 혐오스럽고 끝없이 역겨운 일이다. 그러나 해야 한다. 엘자부인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젊은이들이 산보하는데도 따라다녔으며 그들이 노는데도 함께 있었고 춤을 출 때에는 무도장의 악사역할을 하였다.

베르트골드는 헨리흐가 출발하는 전날 밤늦게 뮨헨에 도착해서 이 영웅주의를 찬양하였다.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곱게 생긴 사촌언니의 침해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대책에 대해서 안해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베르트골드는 다정하게 손가락으로 부인의 둥근 볼을 건드리며 말했다.

《참, 우리 귀염둥이가 잘했어!》

남편의 그러한 다정한 애무를 받자 부인은 온몸이 녹아드는듯 했다.

이튿날 아침 헨리흐가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기분이 상쾌한 베르트골드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양부와 아들의 상봉은 진정이 어리고 정다운듯 했다.

《다 잘돼, 다 잘돼!》 하며 소장은 자기가 즐겨하는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소장견장을 다시니까 아주 어울리십니다.》

《다 잘되여가고있어. 로씨야에서 우리 공격이 잘되여가고있소. 한두번 힘을 집중하면 동방의 강국이 드디여 무릎을 꿇게 될거요. 전쟁도 끝나게 되겠지! 나나 자네가 승리한 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활을 이룩할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해서 오늘에 와서 우리를 공상가라고 할 사람은 없을거네.》

《그 승리에 제가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것이 유감입니다!》 라고 헨

리흐는 한숨을 쉬였다.

《그런 걱정은 말라구, 그런 생각을 말아. 지금 로씨야군대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같이 필사적으로 싸우고있소. 중상자들이 물결처럼 동부에서 서쪽으로 밀려나오고있소. 우리 손실도 굉장하오. 그러나 다 될대로 될거요. 그건 그렇고,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말해보게.》

《저의 출세는 전적으로 소장님의 호의와 인자하신 충고에 달려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항상 믿어도 될거요. 그런데 자네 개체문제를 어떻게 하겠나? 쎈－레미로 자네가 돌아오기를 초조히 기다리고있는 프랑스처녀들이 한둘이 아니겠지? 그렇지 않은가?》

《저는 로르헨과 약속한대로 하고있습니다. 로르헨의 녀동무가 아닌 다른 처녀들과는 사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름이 무어라던지…자네가 들고있는 려관집 딸이 있지 않나? 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있으니까.》

(설마 밀레르가 그것을 통보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헨리흐의 머리를 스쳤다.

《소장님, 걱정마십시오.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외에는…》

《내 말을 듣게. 나도 자네나 다름없는 군인이요, 남자란 말이야. 오락이라든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 하여튼 육체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귄다든지 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충분히 리해하네. …부끄러워할게 없어, 나는 아버지니까. 자네와 털어놓고 솔직히 말할수 있어. 난 무슨 프랑스어선생을 반대하는게 아냐. 난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거야. 나는 장래에 대한 자네의 계획과 신중한 문제에 대한 자네의 의도를 알고싶네. 자네 나이에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이 필요해.》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내게도 알려주게나.》

《소장님께 숨길 비밀이 저에겐 없습니다. 저의 장래는 소장님의 가족과만 련결되여있습니다. 로르헨의 미래와 말입니다.》

베르트골드는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흥분했을 때 항상 하는 버릇대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 애한테 그 말을 했나?》
《아니요.》
《어째서?》
《로르헨은 아직 어린앱니다. 천진란만한 어린애예요. 로르헨은 아직 보통 애착을 진정한 사랑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
《자네 말이 옳네. …그래 자네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제 우리는 서로 사귀였으니까요. 로르헨은 나의 성격을 다소 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편지를 쓸 작정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정기휴가를 받게 되면 로르헨과 신중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뮨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한순간 베르트골드는 동요하였다. 혹시 독촉을 해서 일을 급히 성사시키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은 무례한 짓이며 현명한 일도 못된다. 그래서 소장은 헨리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옳네, 헨리흐, 아주 현명한 처사일세!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바이네. …그럼 약속하세. 2월 4일이 로르헨의 생일날이니까 그날…》
《제가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것이 로르헨에게 기쁜 선물로 될가요?》
《되다뿐이겠나! …그렇다는것을 내가 증명해주지.》 소장은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말을 이었다. 《이젠 아침식사를 하러 가세!》
베르트골드는 헨리흐의 몸을 포옹하고 그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거기서는 로르헨의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있었다. 베르찌나는 지난밤에 헨리흐에게 작별기념으로 아침을 함께 하러 꼭 오겠다고 귀속말로 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았었다.
헨리흐는 휴가의 마지막날을 베르트골드의 식구들속에서 편안하고 유쾌하게 보냈다. 모두가 유쾌하고 감동적이였다. 산보할 때도 딸은 헨리흐와 한패가 되고 어머니는 남편과 한패가 되고 당구실에서 당구를 칠 때에도 점심식사를 할 때에도 소장은 딸을 보고 유쾌하게 눈을 끔쩍해보이면서 헨리흐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군 하였다. 그는 자기가 오래동안 힘들게 기다리다가 큼직한 농어를 잡아낸 어부와 같이 느껴졌다. 헨리흐도 역시 불만스럽게 생각할 근거는 없었다. 약혼식을 몇달동안 미루었으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랴? 하여튼 지금 그는 자기 장인의 지지를 백방으로 받게 되였다. 게스타포의

장령이고 더우기 히플러의 친구인 그러한 비호자가 모든 장교들에게 다 차례지는것은 아니다. 진짜 누가 어부이고 누가 물고기인가 앞으로 두고보자!

엘자부인과 로르헨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문자그대로 행복에 취해있었다.

(아침에 베르트골드와 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분명 알려진게군.) 하고 헨리흐는 단정하였다.

베르트골드의 온 가족이 헨리흐를 바래우러 정거장까지 나왔다. 바래움은 다소 쓸쓸하였다. 부인은 마른 눈을 손수건으로 문지르고 헨리흐에게 달려든 로르헨은 정말 울음을 터치였다.

베르찌나는 정거장에 나오지 않았다.

사선을 뚫고

모니까는 언제나 그렇듯 토요일에는 자기 방을 대청소하였다. 그는 이미 닦아내고 씻어낼수 있는 모든것을 청소해냈다.

이제는 부드럽고 흰 프란넬천쪼각으로 소장식품들을 문지르고있었다. 친근하고 소중한 기념품이였다.

곱게 만든 이 사탕곽은 모니까가 여덟살이 되였을 때 아버지가 선물로 준것이였다. 그속에 사탕이 든것이 아니라 진짜 금목걸이가 들어있는것을 처녀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 그날에는 어머니도, 쟌도, 더우기 모니까자신도 몇년후에는 그 장식품안에 자그마한 사진—아버지의 마지막사진을 세우게 되리라는것을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이 화장품들은 성인이 되는 례식이 있던 날 어머니가 준 선물이다.

아!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먼 옛일로 되여버렸는가! 그때 모니까는 얼마나 천진한 소녀였던가! 흰 옷을 입고 흰 꽃을 손에 들면 모니까는 온 세상을 굽어보는 녀왕이나 된듯이 느끼였다. 정말 해님도 그를 위하여 밝게 빛을 뿌리고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얹은 수선화도 그를 위하여 아름답게 피여 그윽한 향기를 뿜는듯 하였다. 풍금도 그를 위해서 장엄하게 울리는것 같았다.

그날 잔 역시 볼테르의 작은 청동흉상을 그에게 선물하였다. 이 선물을 보고 이모남편인 안드레아저씨가 얼마나 웃었던가! 그는 그 선물이 전혀 오늘의 행사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쟌과 한참동안 볼테르에 대해서 론쟁을 하였다. 쟌은 볼테르가 프랑스의 가장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것을 론증하였으며 안드레는 그가 단순히 현명한 현학가이고 리지와 자유에 대해서 말로만 찬양하였지 자신은 귀족들과 자산가들에게 복무하였기때문에 그의 정신속에는 신성한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모니까는 지금 아저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모니까는 볼테르가 쟌 다르크에 대해서 조소하였기때문에 그를 증오하였다. 그가 프랑스의 녀성영웅 쟌 다르크를 모욕한것을 보면 사실 신성한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프랑스에 대한 사랑이 한방울도 없었다.

모니까의 방에는 갑옷을 입고 검을 든 군대앞에 서있는 쟌 다르크를 형상한 그림의 모사화가 걸려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면 모니까는 오를레앙이 낳은 인민영웅인 쟌 다르크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군 하였다.

모니까 역시 프랑스의 영예를 위하여,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공훈을 세울것을 꿈꾸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쟌 다르크와 같이 자기 인민의 원쑤를 증오하였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조국강토를 강점자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일이였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침대우에서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점자들에게 원쑤를 갚고 승리의 시각을 앞당기겠는가 하는것을 골똘히 생각하군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 떠오른 영웅적인 활동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공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사단참모부입구에서 왔다갔다하는 보초병들의 걸음소리만 들려올뿐이였다. 밤의 정적속에서 무겁고 공허하게 울리는 그 걸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치는 타격과 같았으며 머리를 괴롭히며 마음의 안정을 주지 않았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니까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으며 그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식당에서 봉사해야 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는 프란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였다. 술취한 장교들은 흔히 지나치게 로골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그

들이 부주의하게 던지는 한마디 말이면 그들이 마키나 또는 지방주민들을 반대하여 준비하고있는 이러저러한 작전의 본질을 빨찌산들이 리해하는데 충분한것이였다. 그러나 모니까가 프란수아에게 그런 말을 전한것은 극히 얼마되지 않았다.

쟌은 지금 어딘지 산속에서 마키와 함께 싸우고있다. 모니까도 쟌과 함께 가버리고싶었다. 프란수아는 그가 쎈－레미에서 떠나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고있다. 프란수아는 모니까를 가장 적절한 련락원으로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니가 경영하는 려관에 헨리흐가 살고있는 지금에는 더욱 그렇다. …

모니까는 도이췰란드참모부 장교인 골드링남작을 아무개라고 부르게 된 자기를 생각하며 은근히 얼굴을 붉혔다. 최근에 와서 모니까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잘 알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모든것이 명백하고 단순하였다. 모니까는 골드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기회를 리용해서 그의 부주의한 말을 잡아내기 위하여 그에게 프랑스어학습을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느 한 도이췰란드장교에게도 웃는 낯을 보이지 않았으며 접대원으로서의 형식적인 미소도 띠운적이 없는 모니까가 그 알뜰한 남작과 때로는 우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며 만날때나 갈라질 때 다정한 인사를 해야 하며 때로는 그에게 애교있는 눈길도 돌려야 할것을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 초기에는 이런 모든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였던가!

학습지도가 끝나면 모니까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자기에게 이 작은 침대가 있는것이, 자기 방이 있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세계, 낯익은 물건들, 그것들은 마치 친구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말해주는듯 하였다. (그대는 여기서 자기자신의 세계를 가질수 있다. 그대가 때로 우리들에 대해서 모른척 해도, 그전에는 그렇게 그대를 즐겁게 해주던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전에는 그대가 그렇게 즐기던 피아노의 뚜껑을 열지 않는다 해도 그런건 다 일없다. 그대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던 신선한 꽃이 지금은 상우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대가 적의 강점이후에 영화관이나 극장에 한번도 가지 않은것을 잘 알며 그 리유도 짐작된다. 사실 그대는 마음속에 상복을 입고다닌다. 우리는 그대를 자랑한다. 우리는 그대를 만족하게 생각한다. 귀여운 모니까여! 그대는 우리들, 자기

집을,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프랑스를 배반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행복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하여 그대는 응당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면 쟌 다르크는 벽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정답게 웃어주는것 같았다.

최근에 모니까는 그 사랑하는 그림을 보기를 피했다. 모니까는 쟌 다르크가 그의 마음속을 너무나 꿰뚫어보며 그가 자기자신에게도 숨기고있는 마음속의 변화를 알게 되는것을 겁내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쥬렐할머니가 쟌과 또 한사람의 마키를 골드링이 놓아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때로부터 처녀는 장교에 대한 태도를 부지중에 변경시켰다. 그것은 모니까가 어떠한 정다운 감정을 그에 대해서 느꼈기때문은 아니였다. 사실 모니까는 헨리흐가 어떠한 리유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다른 참모부장교와 전혀 다른 이 사람에 대해서 그저 호기심이 생겼을뿐이였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찌하여 다른 장교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가? 자기 방에 돌아오면 모니까는 그 한마디한마디의 말, 매개 행동을 기억속에 되새겨보는것이였다.

그렇다. 그는 모든 다른 장교와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의를 가진단 말인가? 하여튼간에 그는 그대의 원쑤가 아닌가! 만일 그가 원쑤가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물론 도이췰란드사람들중에도 반파쑈운동가가 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을 숨겨야하며 자기들의 견해를 말해서는 안된다. 혹시 헨리흐도 모니까와 같이 파시즘이 소멸되는 밝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고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레베크의 추악한 편지를 모니까가 읽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고의적으로 편지를 방에 놓고 나간것만 보아도 명백한 일이 아닌가? 그가 강조해 말한바와 같이 그는 모니까의 친구들과 사귀고싶어하고있다. 혹시 그는 모니까를 통해서 마키와 련계를 가질것을 기대하는것이 아닐가.

…

골드링의 행동은 무서운 음모일수 있다고 하는 프란수아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모니까를 항상 그렇게도 정답게 바라보군 하는 그 큰 갈색눈에 게스타포의 교활성이 숨어있단 말인가? 모니까로 하여금 레베크의 편지를 읽게 함으로써 그는 그 편지에 지적된 두명의 마키와 그

들의 가족들을 구원할수 있었다. 그래 그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그들은 후에 신임을 얻은 다음 수백명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두명의 빨찌산쯤 살려주는것은 문제로 삼지도 않을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사건의 론리로 본다면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통 론리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례컨대 직감이라는것이 있다. 모니까의 직감은 헨리흐라는 사람이 범죄를 범하거나 반역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다. 심장의 론리라는것이 있다. …

모니까는 자기 머리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생각에 겁이 났다. 혹시 그가 적군의 이 장교에게 사랑을 느끼는것이나 아닌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반해버린것이다. 정직하자. 자기자신앞에 정직하자.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것이다. 그대 혼자만 알고있을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대는 헨리흐에게 훈장수여가 있은 날 녀자들이 그 야회에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아파하였는가. …프란수아가 마키들이 골드링을 모르고 쏘지 않도록 경고할것을 약속했을 때 그대는 몹시 기뻐하였다. 헨리흐가 리옹으로 떠날 때 빨찌산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흥분하였다.

그대는 헨리흐가 뮨헨으로 가서 비록 누이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처녀와 한 지붕밑에서 살게 될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못 견디게 괴로와하였는가! 그러니까 모니까는 이미 그 사람을 질투하고있으며 그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며 이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그래서는 안되는것이다! 모니까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아니, 저건 무엇인가? 낯익은 자동차다! 처녀의 심장은 뛰였다. 이제 곧 그는 차에서 내려 려관으로 들어올것이다. 그러나 그는 참모부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벌써 현관으로 사라졌다. …

모니까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침착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창백하였다. 그의 눈은 공포로 해서 커졌으며 심장은 견딜수 없는 아픔으로 해서 고동쳤다.

그렇다. 그는 사랑하고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한단 말인가?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단 말인가? 어머니에게? 천만에, 어머니는 조언자로 될수 없다. 어머니는 그가 쟌을 놓아준 후부터 헨리흐를 그저

하느님 모시듯 하고있다. 그러면 프란수아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 누가 눈치를 챈다면 그는 부끄러워 죽을것이다. 안드레아저씨가 없는게 유감이다.

최후의 구원을 바라면서 모니까는 쟌 다르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오를레앙의 처녀도 말이 없었다. 쟌 다르크는 모니까를 준엄하게 규탄하는 눈으로 보고있었다. 모니까는 창문턱에 머리를 고이고 하염없는 울음을 터치였다.

온 세상의 처녀들이 다 그러하듯이 모니까도 사랑이란 거대한 행복이라는것,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 슬픔으로도 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크나큰 슬픔이라는것을…

류쯔는 기쁨을 숨기지 않고 골드링을 맞이하였다.

《정말 잘 돌아왔소. 헨리흐, 여간 보고싶지 않았소.》

《나 역시 그랬소. 당신과 만나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길 할수 있소. …》

《우린 무슨 애인들이 만난것 같구만. 아까부터 소장이 기다리고있소. 당신이 왔는가구 벌써 몇번이나 물었소.》

에베르쓰는 헨리흐를 보자 정말 기뻐하였다.

《베르트골드소장은 어떻게 지내던가?》

《훌륭히 지내십니다. 소장님께 충심으로부터 문안을 드리고 건강과 사업의 성과를 바라마지 않는다는것을 전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하네. 베를린에서나 뮨헨에서 무슨 새소식은 없던가?》

헨리흐가 들은것과 보고온 이야기를 대강 듣고난 소장은 인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렸소. 한가지 미묘한 임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일인즉 사람들의 동정을 빨리 쟁취할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만이 해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저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과대히 평가하시는것 같습니다, 소장님.》

《천만에! 당신도 아다싶이 우리 사단은 지금까지 후방부대로 인정되여왔소. 그래서 전선부대들이 이미 무장하고있는 신형자동무기가 우리에게는 차례지지 않았소.》

헨리흐는 주의해서 들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변동되였소. 영국이 제2전선준비를 서두르고있다는 정보가 있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대, 말하자면 후방사단들을 강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소. 우리 부대를 재무장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왔소. 우리는 그 무기를 생산하고있는 본빌의 공급지점에서 무기를 받으라는 지도서를 받았소. 거기서 우선적으로 전선에 보내고 나머지가 있을 때나 우리에게 주리라는것이 명백하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될수록 신형무기를 빨리 접수해서 우리모두가 새 무기에 속히 정통하도록 하자는 생각이요. 내 말을 알만 하오?》

《잘 알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우리 사단으로 무기를 빨리 발송하도록 하는것이요.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오. 해당한 문건들과 돈이, 이런 출장엔 돈이 많이 드는 법이요. 이미 준비되였소. 래일 당장 떠나주었으면 좋겠소. 알만 하오?》

《알았습니다, 소장님. 무기가 발송준비되였을 때 누가 그걸 인수해오게 됩니까?》

《당신은 즉시 그 점에 대해서 군단통신소를 통해서 알려주기만 하오. 우리 통화를 엿들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시다. 담배는 사놓았는데 상자가 백개 필요합니다 하고 알리란 말이요. 그것은 무기가 있으니 호위해올 사람이 백명 필요하다는 뜻으로 되오. 그 수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만큼 부르면 되오. 당신은 기차에 적재하는것까지 보아주고 그 군용렬차를 타고 함께 오든지 자동차로 오든지 마음대로 하오. 그리로 갈 때 자기 차로 가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련락병 이외에 호위병을 두명 더 데리고 가오.》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위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랑스 테로분자들의 주의를 더 끌게 될것입니다.》

《그 말도 그럴듯하오. 그러나 본빌에서는 조심해야 하오. 거기서는 마키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고 하니까.》 소장은 미리 주의를 주었다.

《래일 떠나랍니까?》

《피곤할텐데 오늘은 쉬고 준비를 했다가 래일 아침에 떠나시오. 당

신한테서 좋은 소식이 오리라고 믿소, 될수록 빨리.》
《백방으로 힘써보겠습니다, 소장님.》
에베르쓰의 위임은 헨리흐자신의 계획과 어찌나 꼭 부합되였던지 그는 다소 이상히 생각할 정도였다. 길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어쩐지 운이 트이는 모양이다. 뮨헨에 갔다오면서 줄곧 어떻게 하면 본빌로 들어갈수 있겠는가 하고 머리를 썩였더니 이렇게 바로 나를 본빌로 보내다니. 거기서는 어떠한 임무가 나를 기다리고있는지? 아마 매우 중요한 임무일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미리 경고했을것이다. … 혹은 내가 미리 흥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세를 더 연구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러나저러나간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한다. …)
헨리흐는 마치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아마 그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아마도 모니까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것이다. … 모니까는 자기옆에서 친구가 사업하고있었다는것을 결코 알수 없을것이다. 그가 오늘 모니까에게 암시해주려고 하는것도 모니까는 젊은 참모부장교의 부주의한 실언으로 평가할것이며 그의 입을 그렇게 손쉽게 열게 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이다. …
그런데 모니까는 왜 오지 않을가? 꾸르트가 찾아내지 못했는가? 도대체 집안에 없는것이나 아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가? 그는 자기의 출장목적을 모니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떠날수 없다. 사실 헨리흐는 그 무기를 사단에 도착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것이였다. 직접 나가 찾아볼가?
헨리흐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차비를 하였다. 그런데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니까다! 모니까만이 그렇게 세번 가만가만 두드린다. 정말 방안으로 들어온것은 모니까였다. 헨리흐는 모니까의 얼굴이 지쳐보이고 눈에 약간 붉게 피가 진것을 인차 알수 있었다. 불안과 련민의 정이 그의 가슴을 옥죄였다.
《모니까… 울지 않았소? 무슨 일이 있었소?》 헨리흐는 모니까의 손을 잡은채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근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예요. 어머니가 남새료리를 만드시는걸 돕다가 파때문에

눈이…》 하고 모니까는 그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소?! 난 그 눈이 눈물때문에 벌개졌는가 했지. 난 또 떠나야 한다오. 그리고 본빌에 상당히 오래 있을것 같소.》
《본빌에요?》
헨리흐는 자기 손안에 있는 처녀의 손이 떨리는것을 감촉하였다.
《어째 그렇게 놀라오?》
《아니예요. 난 그저… 거기 저의 사촌언니가 있답니다. …》
《사촌언니가 그렇게 무섭소? 내가 겁내야 할만큼…》
《아니예요, 사촌언니가 아니라 마키가. 언니가 이틀전에 우리 집에 왔다갔는데 거긴 몹시 뒤숭숭하다구 했어요.》
《그래서?》
《그저 미리 알려드리고싶었지요.》
《고맙소, 당신은 참으로 마음씨 고운 처녀거던. …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본빌에 가면 안되겠소? 사촌언니집에도 놀러 갈겸. 내 차에 태워다드리지요. 올 때도 말입니다. …》
《별말씀 다 하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무기를 적재하자마자…》
《무기요? 무슨 무긴가요?》 모니까는 놀랐다.
《또 실언을 했군! 이래두 참모부장교라구 하겠나. 마치 장마당의 아주머니들처럼 혀바닥을 놀리면서…》 헨리흐는 화가 나서 투덜댔다.
《그러니까 그건 비밀인가요? 겁이 나서 그러시나요, 내가…》
《아, 아니요. 난 당신을 믿소. 다만 부탁하고싶은것은 이 점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거요. 그렇지 않다가는 무기가 우리 사단으로 오지 않고 마키한테 갈수 있소. 그들은 최근에 무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였소. 더우기 이 무기가 자동무기란것을 알기만 하면… 그러나 발송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나밖에 모르니까. …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는 처녀들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더우기 당신같은 어린 처녀들에게… 그럼 본빌에 가기로 결정하지 않겠소?》
《글쎄요, 혹시…》 하며 모니까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류드비나가 퍽 기뻐하기는 하겠는데…》
《그럼 약속합시다. 내가 보는 일이 끝나갈 즈음에 당신께 전보를

치겠으니 정거장에서 만납시다.》
《내가 도이칠란드장교와 함께 있는걸 보이고싶지 않아요. 더우기 나를 아무도 모르는 본빌에서요.》
《내가 도이칠란드사람이라고 얼굴에 씌여있지는 않으니까. 당신을 마중나갈 때 꼭 사복을 입고 가겠소. 본빌에서 올 때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옵시다. … 약속했소?》
《약속대로 하지요. 그럼 전보가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편안히 떠나세요.》 모니까는 얼떨떨하게 동의를 하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쎈-레미가 아직 잠들고있을 때 헨리흐와 꾸르트는 본빌로 떠났다.
헨리흐는 시속 90키로메터로 달린다면 대낮에 거기에 도착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꾸르트는 차를 빨리 몰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자주 백을 넘어서군 하였다.
《어디서 이런 길로 차를 몰았던가?》 헨리흐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길을 달린것 같았다. 마치도 옛말에 나오는 거인의 손으로 산들을 여기저기 벌려놓은것 같은 풍경이였다. 산들이 첩첩히 솟아서 수림이 무성한 골짜기를 이루었는데 그사이로 넓지는 않으나 급한 골계수가 사품치며 흘렀다. 아래쪽은 수림이 울창하고 산우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은 모양이 비슷하고 키가 낮았다. 그런가 하면 사면이 수림으로 둘러싸인 공지가 불쑥 나타나군 한다. 서부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공지들이 있다. 그렇다, 그는 전쟁전에 서부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런 길을 달린 일이 있었다. 아!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
헨리흐는 마치 꾸르트가 그의 마음속을 엿보지나 않을가 저어하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꾸르트는 두손으로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긴장해서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선선하였으나 꾸르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있었다. 한손이라도 운전대에서 떼지 않으려고 입술까지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훔치며 코소리를 낼뿐이였다.
《이리 주게, 자넨 좀 쉬라구.》
헨리흐는 운전대에 앉았다. 그러니 마음이 더 편했다. 고불고불한 길은 정신의 긴장을 요구하였다. 다른 생각을 할래야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것이였다. 오늘 그는 그 어느때보다도 침착

하고 안정되여있어야 한다. 혹시 헨리흐는 도착하자마자 오늘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를 받을수도 있는것이였다.

길은 점점 더 운전하기 힘들어졌다.

굽인돌이가 더 많아져서 자주 속도를 바꾸어야 했으며 구배를 오르내리면서 제동기를 써야 하였다.

저녁 5시가 되여서야 본빌에 다달을수 있었다. 직일관의 말에 의하면 도이췰란드장교 전용인 려관에는 두칸짜리 빈 호실이 없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문건에 첨부된 막대한 금액의 증권이 당장에 정세를 변경시키였다. 한 5분후에 헨리흐와 꾸르트는 목욕할 준비를 하였다.

《자네가 먼저 목욕을 하고 나가서 좋은 식당이 어딘가 알아보게.》하고 헨리흐는 련락병에게 명령하였다.

골드링이 본빌에 도착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즉시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것은 옳았다. 꾸르트가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이에 헨리흐는 그곳에 어떠한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가를 벌써 알수 있었다.

문제는 알프스산록에 자리잡고있는 본빌과 그 일대가 동남프랑스에서의 빨찌산운동의 중심이 되고있었다. 게스타포는 빨찌산과 가렬한 투쟁을 오래동안 해왔으나 아무러한 성과도 없었다.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지방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단을 하군 하였으나 그것은 빨찌산의 대렬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뿐이였다.

그러나 1942년 2월초에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하조직의 가장 적극적인 성원중의 한사람이고 우수한 련락원이며 모두의 사랑을 받고있던 쾌활하고 말 잘하는 제제네가 원쑤였다는것이 알려졌다. 직접 자기가 파괴공작의 발기자로도 되였고 가장 복잡한 과업도 자진해서 수행하군 하던 제제네가 반역자로 될수 있다는것이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제네는 항쟁운동지도자 세사람이 체포된 후에 자기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에쓰에쓰부대 장교의 군복을 입고 나섰는데 그 사람인즉 게스타포의 위임을 받고 5년전에 빠리에서 로동자의 탈을 쓰고 본빌로 왔었다.

이자의 책동은 빨찌산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많은 적극적인 참가자들이 체포되였다. 그러나 조직이 완전히 괴멸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체포되지 않은 항쟁운동지도자들은 비밀련락장소들,

주소와 성명들, 많은 운동참가자들의 거주지를 급속히 변경시킬수 있었다.

빨찌산들은 문자그대로 제제네에 대한 사냥을 준비하였다. 지금 그는 자기의 진짜이름 월리 메이에르로 나서고있었다. 제제네 즉 메이에르가 적이라는것이 폭로된 후 몇주일동안에만 하여도 그는 다섯번이나 저격을 받았다. 거리에서 쏘았고 주택에서도 쏘았다.

그래서 그는 집을 세번이나 바꾸지 않을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식당에서도 저격을 당했는데 그때는 녀성접대원이 그의 가슴에 두발을 쏘았다.

중상을 입은 메이에르는 본빌로부터 어떤 야전병원으로 실리여 갔는데 몇달동안 그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 새로 부임해온 게스타포장관인 가르트네르대좌의 부관이 되여 그가 다시 본빌의 거리에 나타났을 때 그 지방의 빨찌산들은 대단히 놀랐다. 이자가 항쟁운동참가자들중 많은 사람의 얼굴을 알고있다는것을 다 알고있었다. 신문배달부나 남새장사나 우유공급원으로 가장하고 지금까지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자의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하여 숨어다녀야 하였다.

일이 더 복잡하게 조성된것은 가르트네르대좌자신의 활동때문이였다. 이자는 가장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는 장소로 파견되군 하는 경험많은 로련한 게스타포대원이였다. 가르트네르는 즉시 외출금지시간을 철회하였고 야간순찰도 그만두게 하였다. 이와 같은 완화방법으로 약간의 인기를 얻었다. 그는 많은 수인들을 감옥에서 석방하였는데 그들중에는 적지 않은 진짜형사범들도 있었다. 그들중의 대부분은 가르트네르에게 매수되고 그의 수하에 징모되였다.

며칠후 빨찌산들은 가르트네르가 베를린으로 보내는 통보를 도청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통보내용에는 가까운 시기에 항쟁운동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소멸할것을 밝혔으며 도이췰란드군대 대렬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의 흔적을 잡아냈다는것이 암시되여있었다. 대좌는 메이에르의 활동을 극구 찬양하였는데 그의 도움이 있음으로 해서 빨찌산운동의 가장 이름있는 참가자들을 은밀히 감시할수 있었다는것이였다.

가르트네르는 극히 조심성있게 행동하였다. 마키들이 게스타포건물을 폭파하려다가 실패한 후 그는 자기가 사업하는 장소를 비

밀에 붙였으며 몇명의 자동총을 멘 게스타포들과 메이에르를 동반하지 않고는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메이에르를 한걸음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가르트네르는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있는 장교식당 싸보이에서 식사를 하였다.

가르트네르와 메이에르를 될수록 속히 숙청해야 한다는것이 명백한 일이였다. 그들에 의해서 빨찌산의 전체 지도부가 폭로될수 있다고 예측할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

헨리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련락병이 돌아온것도 몰랐다.

《꾸르트, 무슨 새소식이 있나?》

《모두들 그러는데 장교들의 전문식당인 싸보이식당이 좋다고 합니다.》

《먼가?》

《큰길에 있습니다.》

10분후에 골드링은 그곳에 찾아갔다. 그 식당은 전에 프랑스사람의 소유였는데 얼마전에 식당주인이 체포되자 불구자인 친히틀러분자가 인수한것이였다.

《도이췰란드장교외에는 출입금지》 헨리흐는 보초가 서있는 출입문에 붙어있는것을 읽었다.

매대뒤에는 면도로 머리를 밀어버린 뚱뚱한 도이췰란드인이 있었는데 수염은 붉고 숱이 많았다.

《식당주인이신가요?》 골드링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상급중위님, 슈왈베라구 불러주십시오.》 주인은 군대식으로 대답하였다.

《주인님, 난 방금 도착했는데 이 거리에서는 당신네 식당이 제일이라구 이름이 났더군요. 두세주일 여기서 식사를 해줄수 있겠지요.》

《해드리구말구요! 우리 식당을 가리켜준분이 잘못 가리켜주지는 않으셨지요.》

《그럼 인사합시다. 상급중위 골드링남작이요.》

《그런 귀하신 어른을 모시게 되여 매우 행복합니다.》

《사귀게 된 기회에 좋은 포도주나 한잔 하는게 어떻소?》 골드링이 제의하였다.

《감사합니다!》 슈왈베는 식장앞으로 갔다. 그의 왼쪽다리는 의족이였다. 그는 쟁반에 포도주병을 놓아가지고 골드링이 앉아있는 식탁으로 왔다.

헨리흐는 주머니에서 고급려송연을 곽채로 꺼내 상우에 놓았다.

《아, 그거 대단한거군요!》 슈왈베는 환성을 올리며 한대를 꺼내들었다. 《요사이엔 조만해서 진짜려송연을 피우기 힘듭니다.》

헨리흐는 려송연을 피우고나서 남은것은 슈왈베에게 밀어놓았다.

《피우십시오. 난 또 구할수 있으니까. 쎈－레미의 려관집 주인이 여러해 피울것을 장만해놓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선물을 받았군! 여기 얼마나 오래 계시게 됩니까?》

《두세주일, 혹시 한달까지 있겠는지.》 헨리흐는 술잔을 들었다. 슈왈베도 그렇게 하였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헨리흐가 말했다.

《우리의 친근한 교제를 위하여!》 슈왈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말을 이었다. 《남작님, 식사하시는데 식탁을 하나 전용으로 쓰시겠습니까. 혹은 독방을 따로 잡으시겠습니까?》

《나는 개별방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소. 바쁘지 않다면 지금 방을 좀 볼수 없을가요?》

《가보시지요. 매대뒤에 있는 저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식당주인의 안내를 받아 헨리흐는 긴 복도에 나섰는데 복도 량쪽에는 방문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헨리흐는 손잡이를 잡으며 물었다.

《거긴 안됩니다. 이 방에선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가르트네르 대좌님이 부관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남작님은 몇시에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정각 1시에 하겠소. 난 식사를 느리게 하는 편이여서 큰방은 맞지 않소.》

《그러시다면 다른 방을 보시지요.》 하며 주인은 가르트네르의 방 건너편 방문을 열었다.

《아, 이 방이면 됐소.》 하고 골드링은 화려하게 차려놓은 방을 둘러보고 동의하였다.

다음날 점심식사를 주문해놓고 헨리흐는 려관으로 돌아와 사온 신

문도 읽고 앞으로의 행동계획도 생각하면서 온밤 방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골드링은 신형무기배정사업을 맡아보는 장교를 찾아갔다. 헨리흐의 말을 듣자 지도서는 보지도 않고 그 지도서대로 언제 줄수 있겠는지 대체적으로도 말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였다. 현금으로 은혜를 갚겠다는것을 암시하자 엄격하던 장교가 현저히 풀어졌다. 골드링이 이것은 선금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새 지전뭉치를 되는대로 그앞에 내놓자 장교는 인사성이 있고 친절해졌다.
《두주일이면 기한이 지내 오래지 않을가요?》 장교는 골드링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그만하면 됩니다.》
골드링은 장교와 담화를 한 후 30분이 지나서 에베르쓰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주일후에는 려송연을 살것이 예견된다고 하니 에베르쓰는 굉장히 기뻐하였다.
《표창감이요! 틀림없이 표창이 있을거요! 약속합시다!》 에베르쓰는 송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1분도 틀리지 않고 정각 1시에 골드링은 식당으로 갔다.
도이췰란드녀자가 식사접대를 하였다. 주름살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식당들에서 청춘을 망탕 보낸 후과를 가리우기 위해서인지 분과 연지를 잔뜩 바른 녀자였다.
골드링이 던진 두세마디 환심을 사는 말이 접대원녀성의 마음에 든 모양이였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지껄여댔으며 자기가 독신이라는것을 숨김없이 암시하는것이였다. 식사가 끝나고 접대원이 식기를 걷어가지고 갔을 때 헨리흐는 복도를 통한 문을 약간 열고 천천히 꼬냐크를 마시면서 방에 홀로 있었다.
2시 10분전에 두명의 게스타포가 가르트네르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후 복도로 나왔다. 반대편 방문이 약간 열려있는것을 보자 게스타포들은 손기척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건 무슨 버르쟁인가?》 헨리흐는 화를 내며 물었다.
《상급중위님, 증명서를 검열하게 됐습니다.》 그들중 소위견장을 달고있는 상급이 대답하였다.
헨리흐는 되는대로 장교증명서를 꺼내서 상우에 놓았다. 소위는 증명서의 첫페지를 주의해 읽었다.

《용서하십시오, 남작님! 임무가 그러니 할수 없습니다.》 하고 소위는 장교증을 돌려주면서 공손히 말하였다.

《좋소, 내가 두서너주일 이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주오. 이 방은 내가 쓰기로 했소.》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더 편리합니다.》

정각 2시에 부관과 건장하게 생긴 두명의 게스타포를 거느리고 들어오는 가르트네르대좌의 구부정한 모습이 나타났다.

헨리흐는 몇분간 더 앉아있다가 나왔다.

다음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였다. 2시 10분전에 게스타포들이 나타나 건물을 돌아보고 나갔다. 골드링이 앉아있는 방문을 열어보고는 소위가 그에게 인사를 하고 그냥 나갔다. 1분도 틀림없이 정각 2시에 대좌는 호위병들과 부관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접대원은 이번에도 나타나서 식탁앞에서 오래동안 돌아쳤다. 헨리흐는 아주 랭랭하게 그의 말에 대답하였다. (이 방에 와서 오래 지체하지 않도록 버릇을 궂혀주어야 한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날에도 헨리흐는 오래동안 식사를 하였다. 3시에 그가 복도에 나왔을 때 벌써 가르트네르에게 달콤한 음식을 가져가고있었다.

이렇게 닷새가 계속되였다.

엿새되는 날 헨리흐는 날밝기 전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는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고 애를 써보았으나 허사였다. 헨리흐는 꾸르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침대에서 조심조심 일어나 샤쯔 안쪽에 자그마한 주머니를 꿰매였다. 작고 새까만 브로닝권총이 헐하게 거기 들어갔다. 헨리흐는 여러번 주머니안의 권총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해보았다. 아주 편리하였다.

모니까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꾸르트편에 보낼가? 헨리흐는 몇줄 적다가 쓰던 종이를 찢어버렸다. 일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래도 모니까에게 불쾌한 일이 많이 생길것이다. 밀레르는 술취한 병사들이 모니까를 희롱할 때 그가 어떻게 모니까를 옹호해나섰는가를 잘 알고있다. 그가 그 처녀를 못살게 굴기엔 이것이면 충분할것이다.

꾸르트도 잠이 깼다.

《우리 차가 뛸수 있소?》

《뛸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후에 타고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 잘 준비해놓소.》
그는 정각 1시에 식당으로 들어갔다.
《남작님이 오신걸 보니 시계를 맞춰놓을수 있겠습니다.》 슈왈베는 식장우에 걸려있는 큰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 시계가 정확하오?》 헨리흐가 물었다.
《매일 라지오에 맞춰놓습니다.》
《난 식사시간이 됐군.》
헨리흐는 방으로 들어갔다. 접대원이 당장에 달려왔다. 접대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헨리흐가 물고기료리를 다 먹을 때까지 서있었다.
《당신들은 땅굴에서 직접 내온 포도주를 좋아하오?》
《아주 좋아하지요.》
《그렇다면 내게 한병 갖다주오. 먼지도 털지 말고 그냥 가져오오. 마개는 내가 빼겠소.》
《저도 알아요.》
마침내 그는 이 치근치근한 녀편네를 떼여버렸다. 그러나 그가 인차 돌아올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헨리흐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시한탄을 꺼내 폭발시간을 2시 35분으로 해놓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그때쯤에 늘 그러하듯 아무도 없었다. 다음순간에 그는 벌써 가르트네르의 방에 들어가있었다. 시한탄을 식탁의 아래대에 고정시키는데 몇초가 들었을뿐이였다.
숨을 헐떡거리며 접대원이 포도주를 들고 달려왔을 때 헨리흐는 침착하게 물고기료리를 마저 먹었다.
좋은 포도주를 두잔 마시자 접대원은 보통때보다도 더 경박하게 놀았다. 그 녀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헨리흐는 시외로 자동차소풍을 함께 가자는 약속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헨리흐는 점심식사를 매우 느리게 먹었다. 그가 첫번째 료리를 다 먹었을 때 시계는 2시 15분전을 가리키고있었다.
또 5분이 지났다. 가르트네르가 도착하기 전에 항상 나타나군 하는 게스타포들이 웬일인지 오지 않았다. 2시가 되여도, 2시 15분이 되여도 오지 않았다. 헨리흐는 점심식사를 끝내고 꼬냐크를 마시며 앉아있었으나 전혀 그 맛을 감각하지 못했다.
아마 가르트네르는 오늘 점심식사하러 오지 않는것 같았다. 헨리흐

는 시한탄을 치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났으나 그만두었다. 점심때여서 복도에는 손님들의 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시한탄이 폭발한다면 그후 가르트네르는 더 조심하게 될것이다.

2시 25분이다. 게스타포들이 아직 안 온다. 헨리흐는 군모를 쓰고 군복을 바로잡고 천천히 문쪽으로 향하였다. 복도에서 공동식사실로 나올 때 그는 낯익은 게스타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와 인사를 하고 복도로 사라졌다. 헨리흐는 매대로 다가가서 시계를 보았다. 2시 27분이였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도 게스타포들이 온 때부터 10분후에 가르트네르가 온다면 2분 늦어지게 될것이다. …

그는 정확하고 긴장하게 생각을 더듬었다. 가르트네르는 항상 오른쪽길로 식당에 온다. 헨리흐는 정확히 2시반이 되였을 때 그를 마주 나간다. 거리에서 권총으로 쏘자. 그다음은 될대로 되라지. 그런데 그는 식당 맞은편 뜨락을 검열해두지 않았었다. 통과할수 있는지, 막다른 골목인지?

2시 30분…

비록 사소한 동작에서라도 서두르고있다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된다. 슈왈베에게 점잖게 인사를 하고 헨리흐는 천천히 출구로 나갔다. 그는 문에서 들어오는 가르트네르며 부관과 마주쳤다. 그뒤에 두명의 게스타포가 따라오고있었다. 대좌에게 경례를 붙이고 통과시킨 다음 시계를 보았다.

2시 32분이다. 가르트네르가 방에 들어서는 시간과 맞겠는지 맞지 않겠는지, 되느냐 안되느냐였다.

좀더 물러났다가 후에 돌아서야 한다.

헨리흐는 거리를 건너갔다. 그는 길게 걸음을 떼면서 세여나갔다. 서른걸음을 세였을 때 강한 폭발소리가 들렸다.

몇초후에 헨리흐는 식당에 들어갔다. 공동식사실은 무서운 수라장으로 화했으나 상한 사람은 없었다. 매대옆의 시계가 떨어져 비여있는 식탁에 부딪쳐 깨졌을뿐이였다. 가르트네르의 방에서 먼지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것이 보였다.

손님들과 함께 헨리흐는 사건현장으로 달려갔다. 가르트네르와 그의 부관이 금후에는 빨찌산에게도 본빌주민들에게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한눈에 충분히 알수 있었다.

헨리흐가 식당에서 나와 거리의 반대쪽으로 건너섰을 때 게스타포들을 실은 자동차가 나는듯이 달려왔다.

헨리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자기 려관으로 갔다.

《자동차소풍을 떠날가요? 차는 현관에 갖다놓았습니다.》

꾸르트가 물었다.

《내가 차를 려관앞에 세우라고 명령했던가?》

《아니요. 점심식사후 인차 떠나시려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겠소. 몇분후에는 아마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산보를 떠날지도 모르오!》 헨리흐는 맥없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꾸르트가 깜짝 놀랐다.

《식당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 바로 건너편 방에서 폭발이 일어났소.》

《방금 들린 그 폭음 말입니까?…》

《그렇소, 그건 암살기도였소. 몇명의 게스타포가 죽었는데 그중에는 가르트네르대좌도… 난 내 방으로 가서 좀 자야 하겠소. 자넨 자네 방에 앉아있다가 아무도 통과시키지 마오. 누가 찾아와 기어이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 날 깨우오. 알았지?》

《알았습니다.》

헨리흐는 옷을 입은채로 쏘파에 누웠다. 과도히 신경을 긴장시켰던 뒤이라 몹시 피로가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암살사건과 관련하여 그를 의심하겠는가 혹은 하지 않겠는가? 만일 의심하고 체포한다면! 만일 그가 놓여나온다 해도 전과 같은 신임은 받지 못할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실패나 다름없는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게스타포놈들이 온다고 해도 순순히 체포될 필요는 없다. 쏘아야 한다.… 헨리흐는 벌떡 일어나 자동권총과 모젤권총을 다시한번 검열하였다. 다 제대로 되여있었다. 게스타포놈들은 그의 생명대가로 비싼 값을 치르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심문은 꼭 하자고 할것이다. 그는 엿새동안이나 폭발이 있은 건너편 방에서 식사한게 사실이다. 슈왈베는 물론 골드링자신이 식사하기 위하여 그 방을 선택했다고 말할것이다. 더 말할것없이 의심이 생길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증거는 없다. 게스타포들이 그를 단순히 증인으로서

심문하기 위하여 찾아올수도 있다. 그러니 만일 그가 당장 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될 희망이 바이 없는것도 아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나 무기를 생산하는 지하공장에 대해서 탐지해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가르트네르의 숙청보다 더 중요한 임무이다.… 아니다, 그는 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심문할 때 의심이 생길수 있다. 그는 예심원에게로 체포되여갈수 있다. 그때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없게 된다. 예심원에게 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지 말것인가? 무기가 없으면 공연한 의심을 더 살수 있다. 그러니까 모젤이나 브로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노릇이다.

헨리흐는 덧문을 내리우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다.

꾸르트가 그를 깨웠다.

《상급중위님, 누가 찾아왔어요!》 그는 남작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야?》

《게스타포 두명입니다.》 꾸르트는 조용조용 속삭였다.

《내가 옷을 입을 동안 좀 기다리라구 하게.》 헨리흐는 그의 말을 옆방에서도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꾸르트는 나갔다.

(기다리는군. 만일 체포하러 왔다면 꾸르트와 함께 들어왔을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다소 안심이 되였다. 헨리흐는 보통때보다 더 느리게 옷을 입었다.

방을 나서면서 헨리흐는 손을 들어 나치스식경례를 하였다.

게스타포들도 그렇게 하였다.

(체포된 사람에게는 답례하게 되여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피뜩 머리에 떠올랐다.

《어서 말씀하시오.》

《렘께소좌님이 싸보이식당에서 있은 폭발사건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서 즉시 출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소위가 대답하였다.

(명령했다구? 응당 부탁했다구 해야 할것이 아닌가?)

《어째서 자동총까지 메고 두명이나 왔소?》

《지금은 밤입니다. 밤에는 거리로 다니는것이 위험합니다.》 하고 하사복을 입은 또 한명의 게스타포가 설명하였다.

헨리흐는 시계를 보았다. 5시 40분이였다.

《좋소, 갑시다.》

헨리흐는 비옷을 입고 문쪽으로 갔다.

《련락병도 데려오라는 명령입니다.》 하고 소위가 말했다.

(이건 좋지 않은 징조이다.)

《무기는 가져가지 말아!》 꾸르트가 자동총을 잡으려 할 때 하사가 꾸르트에게 명령하였다.

《려관집 빈 방에 무기를 두고가면 위험하지 않을가?》 헨리흐가 물었다.

《이 려관은 경비가 잘 되여있습니다.》 하사는 당황해하는 꾸르트의 손에서 자동총을 빼앗아 의자우에 놓았다.

《갑시다.》 헨리흐가 방에서 먼저 나왔다. 그의 뒤로 꾸르트가 나오고 게스타포들은 뒤에서 나왔다.

현관앞에는 일곱좌석짜리 큰 차가 서있었다. 그옆에서 또 두명의 게스타포가 기다리고있었다. 헨리흐를 보자 그들은 즉시 앞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소위는 뒤문을 열고 들어가 중간좌석을 펴고 헨리흐와 꾸르트에게 거기 앉으라고 신호하였다. 소위와 하사는 뒤좌석에 앉았다. 그들은 자동총을 손에 잡고있었다.

(체포 비슷한데. 심문에 응하기로 한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차후 행동은 가서 결정하자. 꾸르트가 안됐는걸. 젊은애가 죄도 없이 걸려들었군.)

머리속에서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무섭지는 않았다. 그가 어제께 식당매대앞에 서서 시계를 보며 초를 계산하고있던 때처럼 마음의 준비와 긴장성을 유지하고있었다.

게스타포예심원에게 가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헨리흐에게는 별로 오래동안 간것만 같았다.

예심원실 문앞에는 자동총을 든 보초가 서있었다. 꾸르트가 헨리흐를 따라 들어가려 하니 보초가 그를 제지시켰다.

헨리흐는 혼자 들어갔다. 그는 문에서 잠간 걸음을 멈추고 설비가

좋은 널직한 사무실을 휙 둘러보았다. (여기서 빠지긴 힘들겠군.) 창문마다 쇠창살이 있고 문은 밀페하게 되여있었다.

큰 책상너머에 예심원 렘께가 나지막한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헨리흐는 문으로 들어올 때 그 이름을 보았다. 소좌는 인사도 하지 않고 말없이 자기 건너편의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헨리흐는 앉았다. 한순간 그와 렘께는 말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헨리흐는 호기심까지 가지고 보았다. 렘께의 얼굴은 잊혀지지 않을 인상을 주었다. 좁고 길다란 그의 얼굴은 뾰죽한 입에서 갑자기 끊어져버린듯 했다. 턱이 없었다. 턱대신에 목과의 경계에 벤 자리가 있을뿐이였다. 큼직한 울대뼈가 마치 입에까지 올라갔다가 갈색샤쯔의 높은 깃까지 다시 내려가는것 같았다. 소좌는 값싼 권연을 피우고있었으며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한손가락에는 두골을 새긴 은반지가 어슴푸레하게 반짝이고있고 또 한손가락에는 금으로 된 큼직한 약혼반지가 끼워있었다. (이런 괴물한테도 시집오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헨리흐는 빙긋 웃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유쾌한 기분이 되였다.

《담배를 피워도 일없겠지요?》

그는 예심원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예심원은 말없이 담배곽을 밀어놓았다.

《난 제 담배를 피웠으면 합니다.》 헨리흐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바로 그때 무섭게 소리치는 말이 들렸다.

《물러갓!》

렘께는 상옆에 서서 방 안쪽을 노려보고있었다. 헨리흐도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군견이 이발을 으르렁거리며 헨리흐를 성난 눈으로 보고있었다.

《만일 이 개가 이 방에 있으면 나는 당신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헨리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어째서요?》

《나는 어떤 개나 다 증오합니다.》

렘께는 초인종단추를 눌렀다.

《내가시오!》 그는 간단히 말했다.

자동총수가 개를 끌어내갔다. 헨리흐는 아바나산 려송연곽을 꺼냈

다. 그리고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려송연을 어디서 구합니까?》 렘께가 침착하게 물었다.
《야밤에 자는 사람을 깨우고 두명의 자동총수까지 붙여서 여기까지 데려온것이 나의 담배공급자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아니겠지요?》
소좌의 왼쪽볼이 부르르 떨렸다.
《당신은 싸보이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있소?》
《알고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내 눈으로 폭발후과를 직접 보고 즉시 나왔습니다. …》
《어째서?》
《나는 피흘린 장면을 보기가 불쾌했습니다.》
렘께의 얼굴에는 경멸적인 조소의 빛이 어리였다.
《상급중위는 항상 후방에서 싸우고있는데 피를…》
헨리흐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소좌님,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소좌님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나는 단언하는바이지만…》
(소좌와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헨리흐는 얼굴을 돌리고 어조를 바꾸어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원쑤들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우리편의…》
《당신은 이 도시로 출장을 왔소?》
《네.》
《며칠동안?》
《오늘이 여드레째입니다.》
《어느날부터 싸보이식당에서 식사를 하오?》
《둘째날부터요.》
《누가 당신께 그 식당을 권고하였소?》
《나는 좋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련락병을 보냈지요. 누군지 그에게 싸보이가 좋다고 권고하더랍니다.》
헨리흐는 그때일을 회상하였다.
《검열해보시오.》 렘께는 침착하게 한마디 하였다.
골드링은 놀란듯 그를 주시하였다.
그러나 《검열해보시오.》라는 말은 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딴사람에게 한 말인듯 하였다. 소위가 휘장뒤에서 나와 문밖으로 사

라졌다.
(불의성으로 놀래우자는게구나. 어디 두고보자. 또 어떤 수를 쓰겠는지!)
헨리흐는 이렇게 생각하며 빙긋 웃었다.
렘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몇시부터 점심식사를 합니까?》
《항상 1시에 하지요.》
《끝나는것은?》
《그야 입맛에도 달렸고 그날 료리수에도 관계되지요.》
《어저께는 몇시에 식당에서 나왔소?》
《기억나지 않는데요.》
《폭발당시에 어데 있었소?》
《출입문에서 몇걸음 나가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였지요.》
《2시 몇분에 폭발이 있었소?》
《모르겠는데요, 그때 시계를 보지 않아서. 려관에 도착한 때는 3시 5분전이였습니다.》
소좌는 표독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당신생각은 어떻소? 골드링…》
《폰 골드링입니다.》 헨리흐가 그의 말을 바로잡아주었다.
렘께는 마치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려는듯 몸을 움칠하였다. 그는 작고 표독스런 눈으로 헨리흐를 노려보았다. 헨리흐는 경멸적으로 렘께를 보고있었다.
(연극은 이만하면 되지 않을가? 첫 두세발로 소좌와 그를 도우러 달려드는 놈들을 해치워야 한다. 총알 두개는 나를 위해서 남겨야 한다. 예비가 있는게 좋다. 아니, 좀더 기다려보자.)
헨리흐는 채 피우지 않은 려송연을 재털이에 놓고 주머니에서 또 새것을 꺼냈다.
(내가 자주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것을 알게 하자.)
《상급중위는 좀 신경이 예민해진게 아니요?》 렘께의 목소리에는 이미 야유가 아니라 조소하는 빛이 느껴졌다.
《신경질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럽니다.》
헨리흐가 말했다.

《당신생각엔 이상하지 않소. 도이췰란드장교로서 비록 시간문제가 적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는것을 분명히 알면서 폭발현장에 가서 시계도 보지 않았다니 말이요.》
《나는 폭발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 내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 아니요. 우리에게 원천이야 많이 있지! 아마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많을게요.》
《당신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지요.》
《당신을 위해서라구?》
《말끝을 가지고 걸고들지 마시오.》
《증명서를 내놓소!》 렘께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쳤다.
(마지막이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칫하단 늦을수 있다.)
헨리흐는 렘께와 같이 안락의자에서 일어섰다. 려송연을 재털이에 놓고 증명서를 꺼내기 위하여 천천히 양복단추를 벗기였다.
(저자가 증명서를 볼 때 쏘자.) 이렇게 결심을 하니 헨리흐는 자기자신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라앉았다.
헨리흐는 장교증명서를 꺼내서 상우에 놓았다.
(저걸 보느라고 머리를 숙일 때…)
그러나 렘께는 증명서를 집어들고 인차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맞대고 서있었다. 분노를 숨기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휘장뒤에 있다가 나간 그 소위가 문턱에 나타났다. 렘께는 의문어린 눈길로 그를 보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소위는 조용히 보고하였다.
(또 한사람 총알받이 후보자가 나타났군. … 좀더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급히 동작하기만 하면…)
《골드링상급중위, 무슨 공로로 철십자훈장을 받았소?》
《그야 상관할게 없지요.》
(이젠 매일반이다. 저 소위가 조금만 더 가까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때…)
《소위, 이 증명서를 검열하시오.》 렘께는 성이 나서 말했다. 그리고 헨리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채 손을 서랍에 넣었다.

(짐작을 하고 권총을 꺼내는것이 아닌가?) 헨리흐는 몹시 놀랐다.
소위는 책상으로 다가와서 헨리흐의 증명서를 집어들고 한옆으로 물러섰다.
헨리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렘께는 정신을 바싹 차렸다. 골드링은 침착하게 담배곽을 꺼냈다.
《소좌님, 소좌님!》 소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다.
《왜 그래?》 하며 렘께는 한순간 돌아보았다.
(쏘자, 당장 쏘자! 그런데 소위는 왜 저러는가?)
증명서를 검열하던 소위는 골드링의 펼쳐진 장교증명서를 소좌에게 말없이 내주었다.
그곳에는 《헨리흐 폰 골드링에게, 아버지로부터》라는 글이 씌여있는데 에쓰에쓰부대 소장 베르트골드의 사진이 있었다.
《베르트골드소장님이 당신 아버지요?》
아마도 총을 쏜것보다 이 사진이 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 모양이였다.
《이 어른이 당신 아버지요?》 렘께는 어안이 벙벙해서 되풀이하였다.
《연극을 집어치우지 못하겠소!》 골드링은 발작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렘께의 담배곽이 방구석으로 날아갔다. 《당신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밤중에 나를 깨워 한시간이상이나 심문을 하는거요?》
《그러나…》
《그러나가 다 뭐요! 당장 차를 내오, 려관으로 가겠소! 래일 당장 베르트골드가 다 알게 될게요.》
(공격이다. 공격만이 요구된다. 장령의 젊은 아들답게 필사적으로 걷잡을수없이 공격하자.)
《피살된 가르트네르대좌는 베르트골드소장님의 특수임무장교였습니다.》 하고 렘께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있소!》
헨리흐는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한한 기쁨이 그의 온몸에 차고넘치는것을 느꼈다. …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야 없지. 이 등신같은자야 될대로 되라지!

《우린 사실 놀랐습니다.》 하고 소위가 끼여들었다.
《꼬냐크 한잔 주시오!》 헨리흐는 안락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그는 한순간만 더 지나면 목청껏 크게 앙천대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게스타포예심원실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의 노래를 부를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두눈을 가리였다.
《남작님, 남작님!》 그는 공손하게 조용히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헨리흐는 손을 떼였다. 그앞에는 쟁반에 꼬냐크 한병과 잔을 몇개 받쳐들고 소위가 서있었다. 병은 이미 마개를 뗀것이였다.
(괜찮은 꼬냐크를 마시구있군!) 헨리흐는 상표를 보며 생각했다.
소위가 술을 부었다. 헨리흐는 단숨에 쭉 마셨다. 그다음 려송연곽을 꺼내서 소위에게 내주었다. 그가 어찌나 서둘러서 려송연을 집었는지 웃음이 나가는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렘께도 몸을 굽혀 한대를 잡았다.
헨리흐의 라이타로 세사람이 함께 담배를 붙였다.
《이젠 좀 진정되였습니까, 폰 골드링상급중위님. …》
나를 존칭도 없이 골드링으로 마구 부르던것이 바로 얼마전이 아니였던가.
《…우리 립장을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가르트네르대좌와 같은 거물을 죽였는데 폭발전에 식당에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였단 말입니다. …》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베를린에서 오는거군!》 하며 소좌는 전화로 달려갔다.
《네, 네!》
《또 베르트골드소장한테서 왔는데! 오늘 벌써 세번째요.》 송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렘께가 속삭였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새소식이 없습니다.》
헨리흐가 송수화기를 바꿔잡자고 손을 내밀었다.
《소장님! 골드링상급중위가 전화를 바꿔달랍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렘께는 마치 자기앞에 소장자신이 앉아있기라도 한듯 공손히 헨리

흐에게 송수화기를 넘겨주었다.

《네, 접니다. … 출장왔습니다. 어째 여기 그렇게 늦게까지 있느냐구요?》 골드링은 소좌와 소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몸짓과 눈짓으로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비는것이였다.

《테로분자들이 아버님수하의 장교를 죽였는데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을수 있겠습니까. 물론 도와주어야지요. 로르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여가느냐구요? 오빠로서 그리고 신랑으로서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 로르헨에게 다 말하진 마십시오. 제가 직접 말하고싶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다시 만나뵈올 때까지 안녕하십시오. …》

헨리흐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폰 골드링남작, 오늘의 오해는 아주 없었던것으로 잊어주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에 아버님과 전화를 할 기회가 조성되였으니 웬만큼 보상이 된셈이지요!》 헨리흐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명랑하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몇분간 더 지체를 해서 폭발의 피해를 받게 되였다면 우리 립장이 어쩔번 했습니까?》 렘께는 자기의 추측에 스스로 겁을 내며 말했다.

《몸이 좀 피곤하군, 차를 불러주시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께 약속하신대로 우릴 도와주기 바랍니다.》

《힘자라는데까지 도와야지요.》 헨리흐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15분후에 그는 벌써 깊은 잠에 들었다.

모니까는 본빌로 간다

따르왈리부인이 고상한 리상을 위하여 애쓴다든가 더우기 그 리상을 위하여 어떤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일이였다. 얼마전부터 그의 생각은 죽은 남편이 물려주고 간 려관과 거기 붙어있는 식당을 더 확장은 못해도 현재수준에서 유지해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있었다. 그리고 말해야 할것은 죽은 사람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능란한 솜씨를 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려관일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것은 그의 경제적수완에도 달렸겠지만 약간의 특수한 조건도 있었기때문이다. 료양도시로 이름난 쎈-레미는 늦은 가을을 제외하고는 일년내내 길손들의 걸음이 멎을 날이 없었다. 그들은 따르왈리부인의 려관과 식당을 많이 리용하였다. 그것은 안주인이 그 집에 든 사람들에게 가정적분위기를 가지고 편안히 있을수 있게 잘 돌봐주었기때문이였다.

그후 따르왈리부인의 두 아이-아들 쟌과 딸 모니까가 휴양객들에게 시끄럽게 굴지 않고 자기들 힘에 맞게 어머니일을 잘도와주었기때문에 아마 그런 인상이 더 강해진것이였으리라. 따르왈리부인은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상을 어려서부터 키워줄 생각이였다.

쟌과 모니까는 다 컸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여가는듯싶었다.

부인은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계획을 짰다. 딸에게는 려관을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식당을 주겠다는 계획이였다.

전쟁은 그의 계획을 파탄시켰다. 려관이 황폐화되지 않은것은 사실이였다. 대부분의 호실에는 빠리나 북쪽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피난온 사람들은 더 혹심한 강점하의 질서가 실시되고있는 그곳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피난민들은 식당도 리용하였다. 그러나 전과 같은 리익은 없었다. 따르왈리부인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리 소비돈을 마련해가지고 놀러 오는 휴양객들과 피난민들은 사정이 달랐다. 그들은 가지고있는 돈으로 언제까지나 생활을 유지하겠는지도 모르며 더우기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수 있겠는지조차 모르는 형편에서 일전이라도 소중히 써야 하는것이였다. 게다가 따르왈리부인은 어린 동생을 데리고 뜨라벨시촌에서 살고있는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방조를 주어야 했다. 전쟁전에는 따르왈리부인의 손아래동생 루이자가 빠리에서 살았다. 거기서 동생의 남편인 항공기사 안드레 레나르가 일하고있었다. 그러나 안드레 레나르는 1939년에 군대에 초모되여 항공대에서 복무하다가 아마 전사한 모양이였다. 루이자는 그에게서 편지를 한장도 받지 못하였다. 얼마후 히틀러도당이 안드레 레나르의 재산을 다 몰수하였다. 루이자는 하는수없이 빠리를

떠나 쎈－레미에서 삼십키로메터쯤 되는 자그마한 촌에 살고있는 어머니한테로 이사를 하였다.

물론 다 함께 모여살았으면 좋을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동생이 식당일을 도울수도 있었다. 그러나 따르왈리부인은 선뜻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동생과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한 조심성때문이였다. 만일 게스타포들이 레나르의 안해가 언니네 식당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식당주인까지도 믿을수 없다고 생각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도이췰란드장교들이 식당에 다니는것이 금지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을 더 망치게 할수 있었다. 이러나저러나 수입의 대부분은 바로 그 단골손님들에게서 들어왔다. 그래서 동생을 데려올 생각을 싹 걷어치우고말았다. 따르왈리부인은 동생과 편지거래를 하는것도 특별히 숨기였다. 쟌이 마키에게 간 후부터 특히 그랬다.

그렇다. 그의 어린 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빨찌산으로 가야 하였다. 그가 빨찌산으로 간 그날부터 따르왈리부인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히틀러도배들이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게 다행이였다. 그들은 쟌이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는걸 보니 전사하였거나 포로로 잡힌것으로 알고있었다. 만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한번은 그가 산에서 단속당한 일까지 있었다. 그가 그 남작과 맞다들렸으니 천만다행이였다. 아마 어머니의 지성이 간절해서 남작이 그를 놓아주게 된것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남작의 괴상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혹시 남작이 쟌을 보고 모니까의 오빠라는것을 알아보았을가?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그런데 쟌은 여전히 세상모르는 우둔한 어린애와 같다. 쟌이 나이는 모니까보다 우이면서도 처신하는것은 경박한 계집애만도 못하게만 느껴졌다.

모니까에 대해서는 부인도 안심할수 있었다. 그 애는 쟌과는 다르다. 그가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증오하는 나머지 때로는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한계를 넘지는 않는다. 골드링남작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기로 동의한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남작은 다른 도이췰란드장교들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 진짜 프랑스사람처럼 례절바르고 매우 신중하다. 그가 쟌을 놓아준 그때부터 따르왈리부인은 매일같이 남작의 새로운 좋은 품성들이 눈에 뜨이는것이였다. 진정한

기사만이 그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것이다. 쟌은 그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놀라서 멍청해 서있었다고 모니까를 통해서 전해왔다. 그런데 모니까는 쟌에 대한 소식을 어디서 알았을가? 따르왈리부인은 딸이 자주 자전거를 타고다니던 일이 생각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모니까도 빨찌산과 련계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닐가?

따르왈리부인은 전에 그냥 스쳐지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분석해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모니까는 일감이 많은 대낮에 일을 집어던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구실을 내걸고 어딘지 자전거를 타고 가군 하였다.… 그다음 쟌의 문안을 전하는것도 그렇다.… 어쩐지 지내 자주 모니까는 소식을 알아온다. 또 이런 말도 이상하다. 《만일 어머니한테 누가 묻거든 프란수아하고 약혼한 사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때는 롱으로 여기고 웃어버렸다.

코가 긴 프란수아와 곱게 생긴 모니까가 약혼한 사이라니?! 지금 따르왈리부인은 웃을 경황이 아니였다.

그는 자기 딸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숨기고있다는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기 시작하였다. 하느님 맙시사! 이걸 누가 눈치챈다면 어쩌나! 사실 쟌은 산중에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모니까를 잡자면 어느때나 잡을수 있다.

그래서 따르왈리부인은 마음을 돌려서 생각하기도 하고 무서운 의혹을 물리쳐버리기도 하고 자신을 비겁쟁이라고 불러보기도 하였으나 불안한 기분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따르왈리부인은 한번도 모니까에게 자기의 의심에 대해서 비치지 않았다. 그는 딸의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격하기 쉽고 고집이 세다. 그에게 경고를 한다는것은 분노와 질책의 폭발을 의미한다.

모니까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생각만 해도 참을수 없는것이였다. 자기의 독자성을 증명하고싶어하며 무슨 일을 할지 몰랐다. 차라리 눈을 감고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숨기는 타조처럼 머리를 감추고 전쟁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기다리자. 어쨌든 끝장날 날이 오겠으니까. …

그러나 모니까가 무슨 전보를 받더니 본빌에 갔다와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따르왈리부인은 자기가 얼마나 숙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데도 못 간다!》

《난 꼭 가야 해요, 어머니!》

《딴 사람을 보내라.》 따르왈리부인은 처음으로 자기도 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소간 알고있다는 눈치를 보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런 비밀과업을 맡고 어디루 다니구 하는것은 처녀들이 할 일이 아니다.》

《꼭 처녀가 해야 해요, 어머니! 나만이 골드링에게서 알아낼수 있어요.》 모니까는 불쑥 이런 말이 나갔다.

《네가 골드링에게서 무얼 알아낸단 말이냐? 무엇을? 어서 대답하지 못할가? 네가 내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그의 장관나리한테 찾아가겠다.》

《어서 가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쟌도 마키들속에 있다는것을… 아마 그렇게 되면 그들을 몽땅 총살할거예요. 병아리새끼처럼 말예요. 그들에겐 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들이 총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으려고 하는군요. 왜 서있어요? 어서 가세요! 어머니는 정말 변절자 레베크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군요. 잊지 마세요. 그때엔 딸도 아들도 없을거예요.》

어머니는 무기에 대한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아 어찌나 얼굴이 새하얗게 되는지 모니까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어머니!》 하고 모니까는 다정히 어머니의 목을 그러안으며 말했다. 《약속할수 있어요. 절대로 위험한 일이 없어요. 맹세해요! 거저 유쾌한 려행이나 다름없는거야요. 가는 길에 어떤 사람에게 몇마디 하면 다예요.》

그러나 따르왈리부인은 그리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모니까는 환자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돌보아드리였다. 그러나 떠나야 한다는 자기 립장은 확고히 지켰다! 딸을 위험에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와 자기 인민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딸과의 이 결투에서 끝내 딸이 승리자로 되였다. 어머니는 운명에 맡길수밖에 없었다.

모니까는 도착한 다음에 헨리흐에게 전보를 쳤다. 그는 경찰들과 게스타포들이 욱실거리는 정거장에서 헨리흐와 만나고싶지 않았다. 본빌에 도착한 모니까는 직접 만날 시간과 장소를 헨리흐의 려관에 전보로 알렸다.

헨리흐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사복을 입고 나타났다. 모니까는 그가 증오스러운 도이췰란드군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울리는것같이 생각되였다. 모니까는 한순간 자기와 헨리흐사이에 있던 장벽이 없어진것 같이 느꼈다. 그의 튼튼하고 다정한 팔에 의지해서 그와 나란히 걷는것이 참으로 기분좋았다. 이야기를 하고싶은 생각도 없었다. 헨리흐도 아마 그의 기분을 리해한듯 하였다. 그 역시 말이 없었다. 모니까는 전쟁이 없었고 결코 있게 되지도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니까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와 헨리흐의 사이에는 정상적인 인간적관계가 맺아지고있었다. 그러나 거의 걸음마다 순찰병을 만났으며 그들의 무거운 군화소리가 어쩐지 지금 모니까에게는 관우에 떨어지는 궁글은 첫 흙덩이소리를 련상시키는것이였다. 아니다, 망각이란 있을수 없었다. 현실은 강점에 대해서, 그가 애인을 만나러 온것이 아니라 마키에게 보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으러 왔다는것을 상기시켰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히 무기가 필요하오.》 떠나는 전날 밤 프란수아가 그에게 하던 말이 지꿏게 귀에서 쟁쟁히 울렸다.

어찌 모니까자신이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렇다, 무기가 필요하다. 나는 무기가 꼭 빨찌산에 가도록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인해서 헨리흐에게는 불쾌한 일이 있을수 있으며 혹은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길수도 있다.) 문득 처녀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그는 자기옆에서 묵묵히 걷고있으나 모니까는 헨리흐 역시 행복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가 세갈래길의 교차점 한 구석에서 모니까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얼마나 정답게 빛났던가! 모니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을 그가 알아맞힌다면 그가 어떻게 할것인가? 흥미있는 일이다. 그는 순찰병을 불러서 모니까를 게스타포로 보내지 않겠는가? 그럴수 없다! 모니까의 마음속을 환히 알수 있다고 하여도 그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무기가 지정된 목적지에 전달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가 체포된다 하더라도 그가 모니까를 불지는 않을것이다. 모니

까는 그것을 감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니까는 속심을 털어놓을수는 없었다. 모니까는 자그마한 의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때문에 모든것을 걸고 모험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헨리흐에게 그 군용렬차를 타고오라는 명령이 내리지 않을가?

모니까는 사실 헨리흐가 그런 명령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막 떨렸다.

《춥소? 모니까!》 헨리흐가 친절히 물었다.

《네! 조금.》 비록 늦가을로서는 별로 따뜻한 날씨였으나 모니까는 기계적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두어걸음만 가면 내가 든 려관인데 가서 몸도 녹이고 휴식하지 않겠소?》

모니까는 안된다는 뜻으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원, 별말씀을 다!》

《사실 우리가 단둘이만 있게 된 일이 여러번 있었지요? 내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나를 겁낼수 있는 근거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난 지금 려관에 가있어야 하오. 아주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소. …》

《보시는 일은 다 끝났나요?》

《완전히 끝났소. 기차출발시간을 합의하기 위해서 전화로 2분만 이야기하면 되오. 그러면 난 전적으로 자유롭소. 한 2분만 더 기다려주오. …》

《그러나…》 모니까는 망설였다.

《이 려관에서 누가 당신을 볼가봐 그러오?》 헨리흐가 그 눈치를 알았다.

《그래요. 사실 여기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를 그런 처녀들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할수 있지요. … 그 려관은 장교려관이니까요.》

《이 거리는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소.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립시다.》

모니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도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불쾌한 일에서 어서 벗어나고싶어하듯이…

꾸르트가 방에 있었다.

《누가 오든지 내가 없다고 하게.》 헨리흐는 걸으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모니까를 자기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제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침묵을 지키기가 어색하였다.
처녀는 자기 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라도 있는가 하고 꼼꼼히 생각하면서 자기의 당황한 기분을 얼버무려보려고 하였다. 헨리흐도 모니까보다 못하지 않게 흥분하고있었다. 싸보이식당에서 있은 폭발사건이야기가 벌어져서 도움이 되였다. 모니까는 속눈섭을 내리깔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모니까는 헨리흐가 자기 눈에서 례사로운 호기심보다 더 큰 무엇을 느낄가봐 겁이 났다. 그러나 헨리흐가 지나는 말처럼 자칫했더면 죽을번 했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처녀는 몸이 오싹함을 느꼈다.
《어쩐지 자꾸 춥군요.》 모니까가 변명하였다.
《무얼 좀 쓸걸 드릴가요.》 헨리흐는 양복저고리를 던져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방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헨리흐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면서 아무 말도 말라고 알렸다.
《골드링상급중위가 방에 계신가?》 하는 갈린 목소리가 들렸다.
《안계십니다, 어딘지 나가셨는데요.》
《자네 어떻게 여기 있나, 꾸르트? 자네야 동부전선에 가있어야 할 사람 아닌가?》 또다시 같은 목소리로 씩씩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골드링상급중위님께서 저를 련락병으로 쓰기 위해 참모부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모양이군!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군. … 잘 들으라구,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게. 상급중위에게 전하란 말이야, 787번렬차는 래일 저녁 8시에 떠난다구. 만일 상급중위님이 그 차로 함께 가시려거든 미리 알려주면 자리를 준비하겠다구 알려야 하네, 알았나? 아침에 전화를 걸긴 하겠지만 머저리처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알았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상급중위님이 돌아오시거나 전화를 거시면 인차 전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방문이 탕 닫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렬차로 가실 작정이신가요?》 모니까는 흥분을 감추고싶었으

나 감출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그것이 알렸고 그의 눈에 반영되였으며 긴장한 그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이 귀여운 비밀공작원, 그렇게 아직 세련되지 못해 어쩌겠나!) 헨리흐는 이렇게 말이 나가는것을 겨우 참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병사를 20명이나 붙였으니까 펠드네르 혼자서 해내겠지. 여섯개 차량밖에 안되는데 사람이 지내 많을 정도야. 우린 자동차로 갑시다, 어떻소? 그렇게 약속했댔지요. 래일은 거리구경이나 한 후 점심식사나 하고 떠납시다.》

《안돼요. 전 오늘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약속한걸요. 어머닌 몸이 매우 불편하시답니다.》

《사촌언니는 어쩌겠소. 만날 시간이 없지 않겠소?》

《어머니가 보내는 꾸레미를 벌써 전했어요. 별루 이야기할것도 없어요. 사촌언니는 바로 얼마전에 저의 집에 다녀간걸요.》

《그럼 내가 펠드네르에게 자동차로 가겠다는것을 알리고 오겠으니 당신도 준비를 하시오. 당신을 어디서 만날가요?》

《꼭 두시간후에 우리가 오늘 만났던 거기서 남작님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될가요?》

《충분하오. 당신을 사촌언니네 집까지 바래다주어도 될만큼 시간이 충분하오.》

《일없어요! 그건 공연한 말씀이예요. 그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누가 알겠나요!》

헨리흐는 웃으며 모니까를 보았다. 모니까는 눈을 내리떴다.

모니까가 간 후에 헨리흐는 오늘 자동차로 떠나겠다는것을 펠드네르에게 알리고 렬차경비를 잘하라고 마지막지시를 주었다. 시간이 좀 남았기에 그는 렘께에게 들렸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친절히 맞아주었다. 그러나 싸보이사건의 조직자의 흔적을 탐지했다는 자랑은 하지 못했다.

헨리흐는 유감의 뜻을 말하고 갑자기 떠나게 되였으므로 범인수색을 도와줄수 없게 되였다고 말했다.

두시간후에 헨리흐가 약속된 지점으로 차를 몰고갔을 때는 가을비가 몹시 내리고있었다.

모니까는 아직 없었다. 헨리흐는 차를 구석에 세우면 수상하게 생각할것 같아서 그냥 더 몰아갔다.

두어구간을 돌고 다시 오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그옆에는 키가 큰 금발머리녀성이 비옷을 입고있었다. 그 녀자는 모니까와 작별인사를 하면서 자기 비옷을 억지로 모니까의 어깨에 씌워주려고 하였다. 헨리흐는 차를 세울가 하였으나 자기가 군복을 입고있는것이 생각나서 한바퀴 더 돌고 다시 약속된 장소에 왔다. 모니까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공연히 그 비옷을 받지 않았소. 그건 우리 두사람에게 소용되겠는걸.》

《어쩌면… 어쩌면…》 하고 처녀는 성이 난듯 눈을 흘기였다.

《누가 저를 엿볼 권리를 드렸나요!》

《우연히 그렇게 되였소. 그러나 그 기회를 아주 다행한 기회로 생각하오. 나는 모니까가 만난것이 아저씨가 아니고 진짜 사촌언니라는것을, 더우기 아주 고운 녀자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으니까.》

《어느새 그것까지 볼수 있었나요?》

《난 원래 눈이 좋으니까. 난 당신이 짐작도 못하는 많은것을 보고있답니다, 나의 귀여운 선생님!》

잠시후 자동차는 쎈-레미로 가는 도로를 달리고있었다. 비는 멎지 않았다. 두사람은 헨리흐의 비옷을 둘러쓰지 않을수 없었다. 꼭 밀폐되지 못한 창문으로 차디찬 비방울이 들어왔다.

헨리흐와 모니까는 오후 2시반쯤에 본빌을 떠났다.

지금 꾸르트는 날이 어둡기 전에 쎈-레미까지 돌아가려고 전력을 다해서 차를 몰았다. 밤에는 그곳으로 달리는것이 위험했다.

그러나 꾸르트의 승객들은 차가 빨리 달리는것도, 비가 오는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몸을 붙이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들에게는 이 두사람을 꿰뚫고있는 그 친근감과 온기의 감각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한게 없었다. 이대로 앞으로 영원히 달리고 또 달리고만싶었다. 자기들의 속심을 그대로 내놓고 살수 있는 곳으로, 연극이나 암시대신에 이 두사람이 다 입술까지 나왔으나 감히 입밖에 내놓기를 겁내고있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말을 털어놓고 시원히 말할수 있는 곳까지…

제2부

합정골의 비밀

류쯔가 쎈－레미에서 몇키로메터쯤 떨어진 곳에 박격포와 박격포탄을 만드는 지하공장이 있다고 말한것은 잘못이였다. 대위는 에베르쓰소장과 몇몇 참모부장교들이 알고있는대로 말했을뿐이였다. 지어 에쓰에쓰계통의 장교인 밀레르까지도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들이 다름아닌 바로 그 군수공장의 입구라고 믿고있었다. 그래서 비밀을 알고있다는 사람들도 그 누구나 자기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텅 비여있는 곳을 경비하고있으며 그 건물들은 다 위장하기 위하여 세워진것에 불과하다는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도이췰란드군지휘부는 그러한 특별히 중요한 대상물의 진정한 위치를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빈틈없이 머리를 쓰고있었다.

그렇다, 지하공장이 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 공장에서는 사실 무기를 만들고있었다. 히틀러가 강점한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이 땅밑에서 일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쎈－레미부근인것이 아니라 거기서 스물댓키로메터나 떨어진 합정골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곳에 있었던것이다.

합정골이라는 이름은 목동들이 붙인 이름이였다. 그러나 합정골이라는 이름을 붙이던 그들자신도 그 골안이 합정골이라는 그 이름에 그렇게도 부합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은 그 골안이 전혀 접근할수 없게 험해서 훌륭한 초원이 있어도 방목지로 쓸수 없기때문에 그렇게 불렀을뿐이였다. 때로는 나이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목동들이 그 골안을 둘러싸고있는 절벽끝까지 집짐승들을 몰고가는 일이 있었으나 그 골안으로 내려갈만 한 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우에서 그 골안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어떤 거인이 굉장히 큰 콤파스로 원을 그린 다음 그 주위에 절벽을 쌓아올려서 그 누구도 그 방대한 바닥에 깔려있는 호화로운 푸른 융단같은 풀밭에 얼씬도 할수 없게 만들어놓은듯 한 인상을 받게 되는것이였다. 려행가들은 이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면서 경치가 좋다고 감상은 하였지만 감히 그밑으로 내려갈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람에 풍화되고 비물에 씻기운 바위우에는 미끄러져내려갈 때 잡을수 있는 잡관목 한대도 자라고있지 않았기때문이였다.

1941년말까지 함정골은 이와 같이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대로 있었다.

그 당시는 쏘베트로씨야를 굴복시키려던 전격전리론이 이미 인기를 잃은 때였다. 비록 히틀러군대의 최고지휘자들은 아직도 이 리론을 버리지 않고있었지만 모스크바부근에서의 패전이후에는 전쟁이 장기적성격을 띠게 될것이며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물론 이 준비에서 군대의 장비 특히는 군수공장들에서 준비하고있는 특수무기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것이며 히틀러도당이 타산한대로 적군의 후방을 와해시켜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쏘베트군대와 련합군의 공습이 점점 더 강화되였다. 중요한 군수공장이 폭격에 맞지 않게 은페시켜야 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모스크바부근에서 참패한 후 동남프랑스와 북부이딸리아에 군복입은 전문가들의 그루빠들이 나타나서 군수공장건설에 적당한 장소를 탐색하였다.

그러한 한패의 전문가들이 함정골에 맞다들렸다.

1942년 1월부터 쎈－레미에서는 자동차소리가 멎지 않았다. 자동차들은 빈틈없이 위장을 한 긴 대렬을 지어 쎈－레미를 지나 질주하였으며 류쯔가 지하공장이라고 생각하던 건물옆에서 잠시 지체하였다가 다시 어디론지 새로 닦은 신작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는것이였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몰랐다. 군대차까지도 그 길로 가는것이 금지되고있었다. 마키들도 그 길의 비밀을 탐지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그 길부근에는 견고한 화점이 배치되여있었기때문에 접근할수가 없었다.

3월말경에는 함정골의 서쪽과 동쪽으로 굉장히 큰 차굴이 관통되였으며 여름에는 그곳 땅속 깊은데서 미래의 공장의 첫 직장들이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제는 이 골짜기가 자기 이름에 부합되게 되였다. 누구나 주저없이 함정골이라고 부를수 있게 되였다.

뽈리 쉐니예(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이름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가명이였다.)는 함정골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쎈－레미부근의 자그마한 마을태생인 자기 부인에게서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을뿐이였다. 더우기 그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된것은 바로 그날 안해인 루이자와 말다툼을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모든것을 요란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남부지방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놀려주었는데 젊은 안해는 그것을 노엽게 생각한것이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는 말다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물론 그후 그 약속이 위반된것은 사실이였으나 그들이 처음으로 말다툼한 동기로 되였던 바로 그 함정골이 그들의 생활에서 그렇듯 운명적인 역할을 놀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포로 2948번은 요란하게 신음소리를 내지 않기 위하여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 오랜 회상은 마치도 머나먼 신기루처럼 어둠을 비쳤다가 녹아버리기 시작하였다. 뽈리는 그 회상을 더듬어보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 모든것이 과연 사실이였단 말인가?

뽈리 쉐니예는 처음으로 이 땅굴에 붙잡혀들어온 그 순간부터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후 날이 갈수록 그에게 생긴 일들은 꿈속에 있은 일만 같았다.

평화로운 골짜기밑에 몇천명의 로동자가 일하고있는 지하공장이 있고 그 로동자들은 현재 태양광선을 보지 못할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해빛을 보지 못한다는것을 어찌 믿을수 있겠는가?! 오늘 있은 그 늙은 장령과의 담화를 례로 들어보자!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할수 있겠는가?

한순간 뽈리 쉐니예는 눈을 감았다 떴다. 아니, 그는 살아있으며 자고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장령이 말한것도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의 말을 다 상기해보자!

…그는 한 방으로 끌려들어갔다. 그 사무실 역시 그곳 땅밑에 있는 방이여서 창문이 없었다. 병사가 그를 데려다놓고 나가버렸다. 크고 널직한 방이였다. 책상이 있고 그옆에 사무용탁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면들이 쌓여있었다. 책상우에는 려송연갑이 있었다. 아, 책상으로 달려가 려송연을 한대 피웠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그는 이 지옥으로 들어오게 된 그때부터 한번도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온지 얼마나 되는지? 한달인가, 두달인가? 뽈리는 그것을 알수 없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자와 주일의 셈을 잊어버린것이였다. 거기서는 보통 전교대 또는 전전교대에 있은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였지 날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뽈리는 그 담배를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그의 시선은 두개의 예리한 구멍과 맞다들렸다. 두개의 눈, 눈섭도 없는 동그란 눈이 깜박거리지도 않고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그 주름살투성이인 마른잎같은 늙은 얼굴에서 눈만은 살아있는것 같았다.

《어째서 방 한가운데 서있습니까?》 장령의 견장을 단 늙은이가 벽틈으로 불쑥 나오면서 이렇게 물었다.

《나는 책상앞으로 가기가 무섭습니다. 책상우엔 도면들이 있는데 비밀문건이 틀림없으니까…》

웃음소리 비슷한 공허한 목소리가 어딘지 옆에서 울렸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수 없어서 뽈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안에 더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장령이 웃는 소리였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쩐지 이상했다. 피기를 잃은 그의 늙은 입술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얼굴의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눈표정도 변함없었다. 다만 굉장히 큰, 병적으로 뚱뚱한 배만이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양복단추가 당장에 떨어져나갈것 같았고 붉은 피줄이 얼룩얼룩 보이는 넓은 코구멍이 약간 움직였을뿐이였다.

《당신이 우리 공장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당신에겐 리로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기 동무들에게 알려준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뽈리는 말이 없었다. 그에게서 대답을 기다리는것도 아니였다.

《당신은 우리 공장에 대해서 모든것을 다 알수 있습니다. 몽땅 말

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장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할수 있습니다. 말해드립시다! 프랑스의 서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함정골이라는데 있습니다. …》

뽈리는 소리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있는지 알고싶지 않습니까?》 장령은 웃느라고 숨이 차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답해드릴수 있습니다. 자동폭격에 쓸 광학기구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마 물을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가고…》

장령의 눈은 독살스럽게 번뜩이였다. 얼굴의 주름살들이 떨리며 움직거리기 시작하였다.

《장령님, 나는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나를 이곳에 잡아두는가 하는것입니다. 나는 포로도 아니고 죄수도 아닙니다. 나는 비행기공장과 계약을 맺고있습니다. 내가 고용되여 일하던 프랑스 비행기공장과 말입니다. 밤에 어떤 낯모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공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무슨 긴급히 제기된 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즉시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시외에 나가자 그들은 나를 강제로 밀페된 자동차에 밀어넣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러한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바입니다. 장령님, 그것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입니다.》

《그만두시오!》 장령은 문득 웃음을 그치더니 책상을 탕 치고 말했다. 《인간의 권리… 그런 말은 두었다가 집회때나 쓰시오.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따위 선전은 필요없소.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하게 공인된 권리는 힘의 권리요. 그런데 그 힘이 (당신도 이미 확인한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소. 당신은 재능있는 항공기설계가요.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하오. 우리의 권리와 당신의 의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것이요, 알겠소?》

《모르겠는데요. 당신네 도덕상 규범에는 한가지 본질적결함이, 말하자면 오산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육체적폭압을 가할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한대로 나의 재능에 대해서 강요한다면…》

《아,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극단한 방법을 쓰게 된것은 오산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타산에서 출발한것이요. 인간을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 두고 그에게서 구원에 대한 극히 사소한 희망도 없애버린단 말이요. 아마 당신은 우리 질서에 대해서 이미 알았을것이고 화장터도 보았을테지요. 그런 조건에서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그에게 준다는것입니다.》

장령은 잔인한 만족을 느끼며 마지막말을 길게 뽑았다. 그 말이 상대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를 그 얼굴에서 찾아보려는듯… 그러나 뾜리는 자기의 절망이나 분노가 조금이라도 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게 어떤 기회란 말입니까?》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의 침착성에 대해서 그자신도 놀라리만큼 그렇게도 고르로운 목소리였다.

《하—하—하! 그래 당신은 내가 자기의 주패장을 단번에 다 펼쳐보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걸 펼쳐보이지 않아 이제 무엇하겠소. 사실 당신은 이미 우리 공장에 대해서 모든것을 다 보았소. 앞으로도 또 보게 될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것은 저승에 가서 하느님에게나 이야기할지 그밖에 당신이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당신은 이미 뾜리 쉐니예가 아니라 2948번이요. 여기서는 죽은 사람도 땅우로 나갈수는 없소.》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그 유일한 기회는 실제에 있어서는 령과 같군요?》

《당신과 또한 당신과 같은 몇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소. 물론 당신이 론리적으로 사고할수 있다면 말이요.… 자, 어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오. 좋은 담배는 론리적사고를 촉진시키는것이니까.》

장령은 담배갑을 뾜리가까이로 밀어놓고 라이타도 갖다주었다. 담배를 붙여문 뾜리 쉐니예는 게걸스럽게 한모금 깊이 들여마시였다. 그러자 별안간 주위가 빙빙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오래동안 피우지 않았소?》하는 갈린 목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일없소! 곧 일없을거요!》 장령은 마치도 쉐니예가 우연히 만나 보통이야기를 나누게 된 옛친구이기나 한듯 한 어조로 말했다.

뽈리는 다시한번 담배를 빨았다. 머리가 밝아졌다. (흥분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이 늙은 악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두어야 한다. … 내가 무슨 일에 필요한 모양이니 그것을 리용해야 한다. 중요한것은 시간을 얻는것이며 빠져나갈 길을 찾고 또 찾는것이다!) 뽈리 쉐니예는 마음속으로 되뇌였다.

《당신에게 담배를 줄수도 있을겝니다!》 장령은 지나는 말처럼 이런 말을 던졌다.

《나를 불러낸것은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나요?》 뽈리는 야유조로 물었다.

《얼마간 그 목적도 있소. 우리는 다소간 당신네 생활준칙을 완화시켜줄수 있소, 만일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란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것이요. 즉 도이췰란드의 승리—이것은 내가 그 승리를 앞당기는데 기여했다는 조건하에서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왜냐하면 패망하는 경우에는 이 공장은 하늘로 날아올라갈것이며 나 역시 공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것이다라고 말이요.》

《그런 심리려행은 그만두는게 좋지 않을가요. 장령어른, 솔직히 말씀해주시오. 나에게 요구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좋소,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보건대 당신은 일할만 한 사람같소. 다름이 아니라 우리 폭격기들에 있는 묘준장치가 만족스럽지 못하오. 우리는 얼마간의 일등급기사들을 여기 모았소. 우리는 그들의 민족별이나 정견 등과 같이 땅우에서 그렇게 중요시되던 온갖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소. 당신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한가지뿐이요. 즉 그 묘준장치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과정에 제기되는 약간의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수 있게 도와달라는것이요. 모든 필요한 도면들과 기술계산들을 다 책임기사가 줄것이요. 도서관도 조수도 얼마든지 쓸수 있고 직장안은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수 있소. 한달후에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제안을 제출해야 하오. 우리가 검열해보고 당신이 옳은 길에 서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약속은 효력을 발생할것이며 우리는 이 공장을 공개하게 될 때 즉 우리가 승리한 후에 당신의 생명은 보존되며 지상으

로 나가는 출로를 열어주겠소. 내가 이미 말한 그 유일한 기회는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요. …》

…뾜리 쉐니예는 옆의 사람을 깨우지 않기 위하여 좁은 나무침상우에서 조심조심 몸을 돌렸다. 그러나 스따흐 레쉰쓰끼는 자고있지 않았다.

《그래 어떻게 결심했소?》 그는 자기 입술을 뾜리의 귀에 바싹 대고 속삭이며 물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도면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놈의 책임기사상판대기에 쥐여뿌리고말았네.》

《어리석은짓이요! 자넨 자네에게 주는 종이를 꼭 받아야 하오. 기술적계산들을 몽땅 암기해야 하오, 그 장치와 관련된 모든것을 모조리.》

《그 장령놈이 말한것처럼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 일러바치기 위해서 말인가!》

《우리가 자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에 바깥세상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현되지 못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달래고있는것일세. 장령과 담화한 후에 나는 결정적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되였네. 만일 도주할수 있는 기회가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그자가 비밀도면을 나에게 맡기지도 않을것일세.》

《그러나 부속들을 포장해가지고 발송하는건 사실이니까. 그것을 여기 땅속에 남겨둘수는 없는 일이요. 분명 궤짝들을 철도를 통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것이 사실이요. 그러니 자네가 받은 한달이라는 시간을 생명의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리용하잔 말이요. …

포장작업에는 우리 사람 둘이 일하고있소. 안드레 슈젠하고 와쯜라브 와쉐크 말일세. 오늘 그들과 의논해보겠네.》

《그러다가 지하조직을 망쳐먹을수 있소.》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조직을 내온것이요. 투쟁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요. 우리의 임무는 그 위험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는것이요. 그러나 그건 위원회에서 할일이니까 자넨 걱정말게.》

《그러나 어째서 많은 사람들중에서 바로 내가 그 구출의 기회를 받

아야 한단 말인가? 자네나 안드레가 나간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수 있겠는데. 당신들에게는 련계도 많고 지하공작의 경력도 있지만 나야 항쟁운동의 평회원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번 경우에는 뽈리 쉐니예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소. 자네는 기사이고 우리의 중요임무는 신형무기의 비밀을 해당한 곳에 전달하는것이요. 그래서 위원회의 명의로 나는 자네에게 명령하는거요. 자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장령의 말을 감지덕지하게 접수하는척 해야 하오. …》

《자네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명령한다면…》

《잠간 기다리게! 우선 자네에게 그러한 위협을 맞받아나갈수 있는 용기가 충분히 있는가 하는것을 검열해보오. 잘 생각해보오. 그 부속궤짝이 어디 가서 떨어지겠는지 우리는 모르며 도저히 알수도 없는 일이요. 차판에 싣기 전에 또 한번 검열을 하오. 자네의 림시 은폐소가 (우린 그렇게 기대하고있지만) 자네의 무덤으로도 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우리는 그 궤짝들이 어떻게 수송되는지, 자네가 그 궤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는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요. 자네는 그래도 해볼 각오가 되여있소?》

《나는 지하조직의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할 결심이 되여있소.》

《그럼 래일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시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동무는 조금도 관계하지 마시오. 동무의 임무는 지상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용될수 있는 모든것을 다 기억하는것이요. … 이젠 자오!… 우리들에겐 명철한 머리가 필요하오.》

스따흐는 나무침대 한쪽으로 물러나서 곧 잠들었다.

뽈리 쉐니예는 오래동안 뜬눈으로 누워있었다. 세멘트천정이 낮게 드리워져있었다. 뽈리에게는 그것이 마치도 관뚜껑이 정말 드리워져있는듯 한 느낌이였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 궤짝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해빛을 보고 함정골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긴단 말인가? 그 가능성은 참으로 미미한것이다. 백중의 하나의 기회라 할가. 혹은 그보다도 그 가능성이 더 적을수 있는것이다!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기 전에 질식해버리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어디 있는가! 사실 그가 들어가기로 된 그 궤짝은 쌓아놓은 짐 맨밑에 들어갈수도 있는것

이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뽈리는 지금 당장 숨이라도 막히는듯 샤쯔의 목깃을 풀어헤쳤다. 설마 그는 겁을 낸단 말인가? 물론 겁도 날것이다. 겁이 난다는것은 비겁분자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뽈리는 자기를 산채로 캄캄한 관속에 집어넣을것을 누구에게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동의한것이였다. 그러나 그가 과연 여기를 빠져나갈수 있겠는지!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수 있겠는지.

비스듬히 몸을 일으킨 뽈리는 팔꿈치에 의지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2층으로 된 침상사이의 통로 맨끝 어디엔지 자그마한 전등이 어둑시근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불빛은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침상우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보이였다. 포로―1101번! 지난 저녁부터 그는 열이 나기 시작하여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할것이니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한길밖에 없었다.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것이 아니다. 그는 원쑤의 손에서 그 무서운 무기를 빼앗아내야 한다. 만일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뽈리는 반드시 그것을 리용해야 한다.

잠이 들라 할 때 또다시 루이자의 얼굴이 피뜩 그의 눈앞에 보이는것이였다. 루이자는 아마 빠리를 떠나서 지금 그가 있는 곳에서 몇키로메터밖에 되지 않는 친정집에 가서 살고있을것이였다. 만일 루이자가 한없이 가까우면서 끝없이 먼곳에 그가 있다는것을 안다면! 그들이 서로 갈라진지 머지않아 3년이 된다. 빠리가 강점되기 전에 공산당원인 안드레 레나르는 변성명을 해가지고 히틀러도당에게 몰수당한 비행기공장으로 들어가라는 임무를 받았다. 뽈리 쉐니예로 된 안드레 레나르는 자기 안해에게 편지도 보낼수 없었다. 그후 그는 이곳으로 잡혀온것이였다.

에베르쓰소장의 어려운 시기

에베르쓰소장은 볼가강변에서의 격전에 대한 소식이 도이췰란드군사령부 보도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안정을 잃고 초조히 지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깔끔히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침 열시면 참모부의 자기 사무실에 나타나고 오후 한시에는 변함없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장교식당에 나타나군 하였다.

그는 때로 어떤 장교에게 롱도 걸고 하였으나 바로 이와 같이 변함없는 제정된 질서의 막뒤에는 이미 불안에 싸이고 초조해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있었다. 누구보다도 소장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 류쯔만은 아마도 이 변화를 눈치챌수 있었을것이다. 지금 에베르쓰는 쓰딸린그라드전선지도를 들여다보며 거기에 약간씩 생기는 변화를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에베르쓰소장은 히틀러사령부에서 미움을 받고있었다. 그 원인은 일찌기 1930년대에 한 잡지에 실린 그의 극히 일반적인 론문이였다. 에베르쓰는 카이제르시기의 전술과 외교를 분석하면서 도이췰란드가 두개 전선(즉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싸울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카이제르도이췰란드를 파멸에로 이끌었다는듯이 증명하였다. 그는 항상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을 겁냈던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상기시켰으며 로씨야의 절충정책을 인용하였다.

이 론문은 극히 좋지 않은 시기에 나온것이였다. 그때 히틀러참모부의 극비부서들에서는 새 전쟁계획을 미친듯이 작성하고있었다. 립벤드로프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위협도 하고 미끼도 던져주면서 중유럽렬강의 동맹을 공고히 하느라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별로 이름도 없는 장령이 두개 전선에서의 전쟁을 경고한것이였다.

만일 에베르쓰의 친구들이 걱정해주지 않았던들 이 론문은 그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수도 있었다. 상부의 의사와 어긋나는 그 론문의 필자가 참모부내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황급히 그를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배치된 련대의 련대장으로 임명한것이였다. 그후 소장은 더는 출판물에 나타나지 않았다. 로씨야와의 전쟁이 시작되였을 때 그는 동부전선 사령관으로 임명된 브라우히츠소장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리드리히2세의 유명한 말을 인용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 로씨야병사는 《죽이는것으로는 부족하며 그가 넘어지도록 밀치기까지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에베르쓰소장이 후방부대에 배치되는데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후 그는 사단장으로 임명받고 프랑스남부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표창에서도

빠지고 무시되는 존재로 되였다.

에베르쓰가 로씨야에 대한 동정을 가졌다고 비난한다면 옳지 않을것이다. 그는 로씨야사람을 증오하였으며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증오심은 리성을 잃게 할만큼 그렇게 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장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계속 로씨야와 전쟁을 하면 도이췰란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주장하였다. 에베르쓰는 로씨야의 군사적잠재력에 대한 도이췰란드총참모부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있었으며 로씨야의 공업과 주민에 대한 통보자료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장기전의 경우에 도이췰란드군대가 쏘베트군대와 결투를 한다면 적측에게 수량상 우세가 있는만큼 도이췰란드의 패망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진정으로 믿었다.

최근에 와서 에베르쓰는 가까운 친구들사이에서만 자기의 의견을 비치였다. 그러나 그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그는 쓰딸린그라드격전의 개시가 히틀러사령부의 가장 큰 과오로 인정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로씨야는 이 굉장한 격투에서 히틀러군대의 정예부대를 감소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것이였다. 만일 로씨야가 쓰딸린그라드를 양보하는 경우에도 도이췰란드사단들은 이러나저러나 약화될것이며 모스크바까지 돌파해 들어갈수는 없을것이다. 에베르쓰는 빠울류쓰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했다. 그는 쓰딸린그라드전선의 어느 구역에서나 히틀러군대가 비록 조금이라도 전진했다는 보도를 듣기만 하면 지도에 표식을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쟁의 운명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가는것이였다.

보도에서 처음으로 로씨야군대의 공격이란 말이 나왔을 때 에베르쓰는 병이 날번 하였다. 그 말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말이 없었고 보도에 불안을 느끼게 하는 말도 없은것은 사실이였으나 소장은 전선의 형편을 잘 아는 군인들이 다 그렇듯이 보도뒤에 깔려있는 사실을 읽을수 있었다.

1942년 11월 24일 에베르쓰는 온밤 잠들지 못했다. 간이 나빠진것도 아니고 불면증에 걸릴만 한 다른 원인이 있은것도 아니였으나…하여튼 잠을 자지 못했다.

(늙었구나!) 에베르쓰는 쓸쓸하게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자 라지오의 스위치를 돌렸다. 아침보도시간이였다.

소장의 귀전을 치는 첫마디 말에 그는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쏘베트군대가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제6집단군과 제4땅크집단군을 포위하였다. … 에베르쓰는 분주히 옷을 입었다. 그러나 옷을 입다말고 또다시 침대에 맥없이 앉아버렸다. 그는 대체 어디로 도망치려 하는가? 그는 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도 치명적으로 겁내오던 그 결말의 시초였다. 그는 지금 가장 권위있는 군사위원회에서 동부전선에 조성된 정세와 전쟁의 금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아! 그는 히틀러의 전략과 전술의 파멸을 론증했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침묵을 지킬뿐이다. 지금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드러낼수 있는것이라면 어떠한 부주의한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성과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는 아돌프 히틀러를 없애치워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 겁날뿐아니라 생각하는것조차 무서웠다. 그렇다, 그는 총통을 숙청해버려야 한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점차적으로 어떠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개별조약을 체결하여 서방에서 묶이운 팔을 풀어야 하며 모든 힘을 동쪽으로 돌려야 한다. 쏘련과의 정화는 생각할수도 없다. 그러니 조성된 정세에서의 출로는 서방에서 찾아야 한다. 당분간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즉시 행동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엇부터 시작할것인가? 비록 도이췰란드를 구원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누가 감히 국가정변과 같은 거사를 일으킨단 말인가?

에베르쓰는 자기 친구들이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천천히 렬거해보았다. 그들은 최고군부안에도 있었다. 아마도 지금은 더 큰 인물들이 되였을것이다. 한번 만나서 의논해보아야 한다. 즉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수 있다. 에베르쓰는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었다. 집안에서는 아직 모두 자고있었다. 날이 밝아왔다. 별장주위의 아스팔트길에서 울리는 순찰병의 무거운 걸음소리밖에는 아무것도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것은 없었다. 그 걸음걸

이는 정확하고 단조로운것이였다. 자기자신에 대해서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걸을수 있는것이다. 그러자 에베르쓰는 문득 징을 박은 무거운 장화를 신은 병사들이 로씨야군대에게 쫓기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초원으로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생각되였다. 에베르쓰는 수천수만의 징을 박은 무거운 장화를 신은 병사들의 다리를 상상하여보았다. 그 다리들은 눈속에 빠지기도 하고 무겁게 끌기도 하면서 다시 있는 힘껏 달려나간다. …

에베르쓰는 창밖의 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덧문을 내리였다. 그러나 그 걸음소리는 마치 률동적인 타격인듯이 그의 긴장된 신경을 때리는것이였다.

아니다. 그에게는 헛되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없다! 활동해야 한다. 어떻게나 행동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 무엇도 그로 하여금 히틀러가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것을 뻔히 알면서 말없이 맹목적으로 최고사령부에 복종하게 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침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조심조심 찾아야 한다.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하며 깊이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는것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시초에 일을 망칠수 있다.

에베르쓰는 이런저런 계획을 궁리하면서 오래동안 더 앉아있었다. 가벼운 문기척소리가 그를 깊은 생각에서 끌어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식사를 가져오랍니까?》 접대원이 물었다.

《그렇게 하오.》 에베르쓰는 간단히 대답하고 서류철을 열고 군단장에게 보고를 쓰기 시작하였다.

에베르쓰는 개인문제가 제기되였기때문에 두주일간 베를린에 다녀오게 해줄것을 제의하였다.

헨리흐는 에베르쓰가 도착하기 전에 류쯔와 이야기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보통때와 마찬가지로 열시를 몇분 앞두고 참모부에 도착하였다. 그때쯤에는 소장의 부관이 이미 참모부의 모든 새소식을 알고있었으며 그 소식들을 즐겨 헨리흐에게 이야기하군 하였다. 류쯔는 헨리흐를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류쯔가 통 입을 열지

않았다.
《대위, 기분이 우울한것 같군요?》 이야기를 해보자고 몇번 시도하였다가 반응이 없으므로 헨리흐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 당신의 기분은 어떤 사건이 있던지 영향이 없단 말이요?》 하면서 류쯔는 쓰딸린그라드전선의 최근보도를 헨리흐에게 내밀었다.
보도의 첫 몇줄을 읽고 헨리흐는 조용히 속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상대자에게 자신의 얼굴표정을 숨기기 위하여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그래, 아침보도도 듣지 않았소?》
《난 잠이 들면 끌어가도 모르게 잔다오. 그래서 아침엔 라지오를 틀지 않는 일이 많지.》
《이젠 아침에도 저녁에도 보도를 들어야 하겠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보도를 가지고 제각기 자기 생각에 잠기였다.
《어떻게 생각하오, 류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헨리흐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였다.
《나야 큰 전략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기는 하네만 일정한 결론을 내릴수는 있다고 보오. 락관할수 없는 결론이요. 어떤 선전을 들이댄다해도 일이 잘되여간다고 나를 설득시킬수는 없을거요. 생각나오? 작년에 우리 신문들이 모스크바부근에서의 퇴각을 어떻게 설명하던가를? 그때 그들은 우리 군대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동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걸 믿었소. 나는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정치에는 화가 치밀어 못 견디겠소. 그래 지금 우리 신문들은 빠울류쓰군대의 포위를 어떻게 설명하고있는가? 우리가 쏘베트군대의 포위망속으로 들어갈것을 결심한것은 그들의 등을 리용하여 볼가강류역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니 이게 말이 되오?》
류쯔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누군지 문을 벌컥 열었다. 밀레르가 문턱에 나타난것이였다.
《소장이 방에 계신가?》 그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물었다.
《이제 들어서실겁니다.》
소좌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비면서 계속 문쪽에 눈길을 돌리며 방안을 거닐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안에 싸여있었기때문에 류쯔도 헨리흐도 감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을수가 없었다.

에베르쓰가 도착하자마자 밀레르는 그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몇분도 지나지 않아서 소장이 두 장교를 불렀다.

《소좌가 극히 불쾌한 소식을 전해주었소. 지난밤에 샴베리와 쎈—레미사이에서 마키들이 우리 사단으로 무기를 싣고오는 기차를 전복시켰소. 펠드네르중위는 중상을 입었고 호위병들중에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였소.》

《무기는 어떻게 됐나요?》 헨리흐와 류쯔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마키들이 얼마간의 무기를 가져가는데 성공했을뿐이요. 다행히도 새 경비병들이 지원해왔기에…》

변신장교가 나타나서 소장은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또 무언가?》 그는 변신된 보고문을 받아들면서 초조히 물었다. 다 읽고난 소장은 화가 난듯 종이를 내동댕이쳤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소장님, 무슨 일입니까?》 밀레르는 에베르쓰의 허락없이 내동댕이 친 보고문을 집어들수 없었다.

《마키가 지난밤에 차굴입구를 경비하고있는 우리 17호차단소를 습격했다오. 사상자가 났다오. …》

《불길한 일이 하루사이에 너무나 많이 생기는군!》 밀레르가 신음소리를 냈다.

《당신생각엔 이것이 우연한 일치같소? 》 하고 말하는 소장의 목소리에는 야유하는 기분이 어리여있었다. 《내가 말한대로 제기된 사건들을 따져보시오! 동부전선에서 쏘베트군대가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후방에 있으면서도 그 쓴맛을 즉시에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것을 모르겠소? 나는 군용렬차와 차단지점에 대한 습격이 우리 보도를 통해서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의 포위를 알게 된때문에 감행되였다는것을 전적으로 확신하오.》

《사실 그런것 같습니다.》 밀레르가 동의하였다.

《밀레르소좌, 내 방에 좀 있어주시오. 함께 대책을 토의했으면 좋겠소. 류쯔, 즉시 참모장을 부르시오! 그리고 골드링상급중위에겐 긴급한 일이 있소. 우리 17호차단소가 있는 뽄쩨이에 갔다와야 하겠소. 마키의 습격정형을 상세히 알아보고 파울소위의 사업을 검열한 다음 오늘 정각 19시에 나에게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소장님!》 헨리흐는 급히 소장방을 나왔다. 그러나 류쯔의 방에서 잠시 지체하였다.

《류쯔, 차를 하나 내주게. 내 련락병은 본빌에 갔다온 후 자동차를 수리소에 넣었단 말이요. 손질할게 있는 모양이요. 참모부차를 좀 쓸수 없을가?》

《지금 소장의 기분이 어떤지 자네도 알지 않나. 언제 어디로 가자고 할지 모른단 말야.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고가라구.》

《그건 더 좋군! 꾸르트가 집에 있게 되면 저녁때까지 자동차수리를 끝낼수 있겠으니까.》

《모르겠는걸, 정말 그게 더 좋겠는지! 둘이 가는 편이 그래도 안전하겠는데! 마키가 대가리를 쳐든게 사실이야.》

그러나 헨리흐는 이미 문밖에 나가있었으므로 이 경고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혼자서 시내를 벗어나갈수 있는것이 기뻐서 서두는것이였다. 마침내 그는 홀로 자기 생각에 잠길수 있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침착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이다. 하루아침에 기쁜 소식이 얼마나 한꺼번에 쏟아져온것인가! 정말 날씨도 굉장히 좋았다! 오토바이는 아스팔트신작로를 쾌속으로 달렸다. 얼마전에 내린 비에 깨끗이 씻기운 아스팔트길은 번쩍번쩍 윤이 났으며 향기그윽한 맑은 대기는 기쁨이 차고넘친 헨리흐의 가슴에 깊이 흘러들었다. 이렇게 정지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렸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달려가되 남쪽으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의 운명이 결정되고있는 동쪽으로, 바로 이 순간에 그도 포함해서 수백만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기쁜 예감으로 하여 가슴을 조이고있는 동쪽으로 달렸으면 얼마나 좋으랴! 어디에 있든지 조국과의 련계를 느낄 때, 전인류의 시선이 조국에로 쏠린것을 알 때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쏘베트군대가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후방에서도 그것을 즉시 자기 몸으로 느끼게 되오.》 아마 소장이 이렇게 말한듯 하다. 그래도 마키가 기차를 전복시킬수 있었다니 다행이다. 무기를 일부밖에 가지고가지 못한건 사실이지만… 몽땅 가져가지 못한게 유감이다.

그런데 차단소를 왜 습격했는지 흥미있는 일이다. 소장은 무슨 차굴에 대해서 말했는데 차굴이란 어느것이나 어디론가 뚫려있는 법이다. … 그런데 보통 차굴은 이것처럼 그렇게 엄격히 경비하지 않

는다. … 그렇다면… 바로 이 차단소를 설치한데는 특별한 뜻이 있는것이 아닐가! 혹시 최근에 그가 항상 생각하고있는 군수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일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다,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다간 허튼 길로 따라가다 시간만 잃을수 있다. 지금 완전히 명백한것은 한가지밖에 없다. 류쯔가 그에게 말한 그 공장은 절대로 헨리흐가 찾고있는 공장이 아니라는것이다. 자칫했더면 또 하나의 허튼 길로 들어설번 하였다!

류쯔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랬던것처럼 길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옆에서 늘쌍 멎어서군 하던 자동차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헨리흐는 자동차들이 그곳에서 결코 오래동안 서있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한번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고 항상 남쪽으로만 어디론지 간다는것을 알았다. 일련의 사실들을 대조해놓고보면 지하공장이 이곳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딘지 다른 장소에 있다는것을 짐작하게 된다. 참모부사람들은 누구나 사격장에서 시험하군 하는 박격포와 그 포탄이 지하공장에서 만든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북쪽으로부터 오는 기차에서 그것을 부리운단 말인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다는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였다. 그러나 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의 실패로 독이 오를대로오른 원쑤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평화적주민들에게 무슨 악독한 폭행을 가할지 모르는것이다.

한시간후에 헨리흐는 뽄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두키로메터쯤 떨어진 곳에 배치된 차단소에 도착하였다. 마을로부터 차단소까지는 굉장히 큰 콩크리트판석을 깐 도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리용하는 일이 매우 적은 모양으로 판석 사이사이에는 이미 시들어버린 풀이 자라고있었다. 두곳의 물웅뎅이에도 역시 풀이 자라고있었다. 차단소 바로 옆으로 도로가 지나갔는데 도로는 깊은 벼랑에 건네놓은 다리를 통과하게 되여있었다. 길다란 돌집이 병사들의 병영으로 사용되고있었다. 거기서 초소장인 파울소위가 살고있었는데 그는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동작이 굼뜨고 나이가 든 사람이였다.

통성을 하고난 헨리흐는 초소장에게 오늘 있은 마키의 습격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할것을 명령하였다.

파울은 마치 화약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참모부장교에게 전투에 참

가한것을 자랑하듯 종잡기 어렵게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헨리흐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현장에서 전투경로를 설명하시오.》

《우리는 차굴을 경비하고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파울은 나무가 자란 산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가리켰다. 《우리는 차굴과 함께 다리도 경비합니다. 차굴과 병영을 중심으로 작은 화점들이 배치되여있습니다. 그러한 화점이 다리의 량쪽에도 있습니다. 빨찌산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며 파울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마을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방어를 하였습니다. 마키는 새벽 3시에 공격해왔습니다. 병사들이 화점들로 달려가는 동안 그놈들이 기관총과 자동총으로 사격했습니다. 전투는 반시간동안 아니, 반시간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측 손실은 전사자 세명과 부상병 일곱명인데 그중 두명은 중상입니다. 그밖에 또 에쓰에쓰병사 두명이 전사했습니다.》

《어째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소?》

《에쓰에쓰부대가 차굴의 출구를 경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굴의 출구는 특별히 엄격하게 경비하고있구나.) 헨리흐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파울의 안내를 받으면서 헨리흐는 다리로 들어섰다.

《보초에게 비상소집구령을 주시오.》

파울은 권총을 꺼내서 공중에 대고 세번 쏘았다.

《파울소위, 지금 마키가 마을로부터 습격해왔소. 당신의 결심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행동하시오!》 헨리흐는 병영에서 달려나오는 병사들을 가리키면서 화가 나서 소위의 말을 중단시켰다. 병사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다리근방에 있는 뚝우에 몰켜있었다.

《파울소위, 만일 내가 도발자이고 두자루의 자동총만 있었다면 당신도 포함해서 당신네 병사들을 모조리 소멸하고 극히 침착하게 다리를 폭파시켰을것이요.》

파울은 당황한듯 헨리흐를 보더니 북쪽방향으로 방어위치를 차지할것을 명령하였다. 병사들은 황급히 엎드렸다. 헨리흐는 그중 한 병사에게로 다가갔다.

《전방에 보이는것이 무엇이요?》 하고 그가 물었다.
《보이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급중위님.》 그 병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이런 방어체계에서는 당신네 병사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것은 저기저 등성이뿐입니다. 만일 빨찌산이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사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계에 들어서고말것입니다.》
파울은 연방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묵묵히 서있었다. 헨리흐 역시 말없이 돌아서서 사무실로 겸해 쓰고있는 파울의 방으로 향했다.
《초소일지를 주시오!》 골드링은 이렇게 명령하고 검열에서 받은 인상을 적어넣기 위하여 만년필을 꺼냈다.
파울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병사들에게 언제 훈련을 준 일이 있습니까?》 헨리흐는 부드럽게 물었다.
《글쎄 상급중위님, 난 여기 온지 한주일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련대참모부에서 일했지요. 제 잘못은 여기 도착한 후에 초소방어훈련을 채 하지 못한것입니다. 여기 있는 병사들의 대부분은 동부전선에서 부상당했다가 배치된 신병들입니다.》 하고 파울은 말하였다.
《어째 이리 조동되였소?》
《내 동생이 몇주일전에 동부전선에서 두다리를 잃고 돌아왔지요.… 아마 그 애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지껄인 모양입니다. 그 애는 수용소로 갔지요.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 이제 당신의 검열결과를 읽는다면 나는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할겝니다. 동부전선으로 가야 하겠지요. …》
파울은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앉았다.
헨리흐는 일지에 몇줄 급히 써내려갔다.
《사단장 에베르쓰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1942년 11월 24일 제17호초소를 검열하였음. 대상물에 대한 경비는 량호함. 전투비상소집을 실시함. 병사들의 전투준비와 화력배치에서 나타난 결함이 없음. 검열자 폰 골드링상급중위》
《읽어보시오!》 헨리흐는 일지를 파울에게 밀어놓았다.
소위는 씌여있는것을 읽었다.
《중위님! 이거 어떻게 감사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충고하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초소에 온지 얼마 안된다기에 여기다 적지는 않지만 나타난 결함을 시정하라는것이요. …이젠 떠나도 되겠지?》

《무례하다고 욕은 하지 마십시오. 함께 점심식사를 들어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헨리흐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특히 소주를 든 후에 파울은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남작께선 상상도 못할겝니다. 여기가 얼마나 적적한지! 어디 갈데도 없지, 말동무 하나 없지. … 게다가 비는 계속 오지! … 한가지 위안은 그저 술이지요.》

《이웃에 에쓰에쓰부대 장교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과는 전화상의 련계가 있을뿐입니다. 우리는 차굴 저쪽으로 다니는것이 금지되여있지요. 그자들은 전화를 통해서조차 사업을 떠난 말은 한마디도 안하니까요. 망할놈의것들이지요! 그게 질서를 세운다는것이겠지요. 경비할거라두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차굴로는 한주일이 지나도 자동차 한대 통과하지 않으니까요. …》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래왕이 없소?》

《나의 선임자의 말에 의하면 항상 그렇답니다. 이 차굴은 합정골로 들어가는 예비입구라나 봅디다. 진짜 입구는 여기서 십키로메터쯤 떨어진 곳에 있답디다. 그 골짜기이름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함―정―골! 이 이름만 들어도 미칠 지경이지요. 글쎄 무엇을 경비하는지도 모르구 앉아있는판이지요!》

《그대신 그런 중요대상물을 경비하고있다는 긍지를 가져야지.》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비하는가 하는건 귀신이나 알지요. 우리야 경비하라구 명령하면 경비하구 폭파하라구 명령하면 폭파할뿐이지요. 우리가 할일이란 보잘것 없지요. 복종하면 다니까…》

파울소위는 빨리 취했으며 점점 말이 많아졌다. 그러나 헨리흐는 그 이상 흥미있는 말을 더 들을게 없었다.

《자, 난 떠나야겠소. 뜻밖에 에베르쓰소장께서 여기 들리시는 일이 있더래도 당신때문에 내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오.》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상급중위님! 그리고 이 소박한 병사식

사를 나무라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참모부 장교식당에서야 잘 먹이겠지요!… 주무시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산지대는 일찍 어둡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마키가 나다니기 좋은 때입니다.》

《일없소. 단숨에 달려가지!》 헨리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유쾌히 대답했다. 사실 산들에는 어둠이 깃들었었다. 그러나 헨리흐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생각은 파울에게서 들은 말에 집중되고있었다. (만일 예비차굴까지도 그렇게 량쪽에서 경비하고있다면 머지않은 곳에 매우 중요한 대상물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더우기 그 대상물에 대해서 그렇게 비밀에 붙이고있는것을 보면…) 하고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길 뒤쪽에서, 다음에는 앞에서 자동총 련발사격소리가 울렸다. 헨리흐는 속도를 높였다. 오토바이는 맹렬히 전진하다가 무엇엔가 충돌하였다. 골드링은 자기가 넘어졌다는것을 감촉하였을 때 그렇게 생각되였다.

초소에서도 사격소리를 들었다. 놀란 파울소위를 선두로 해서 오토바이부대가 즉시 사건현장으로 달려왔다. 파울은 그 지역일대를 포위할것을 명령하고 자기는 상급중위에게로 달려갔다. 방금전까지 기분좋게 병사들앞에 나섰던 그가 지금은 자기 오토바이에서 몇걸음 떨어진 뚝우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쎈－레미까지 오는 도중 파울은 골드링에게 호위병을 붙여주지 않은것을 내내 후회하였다. 그리고 에베르쓰소장과 직접 맞다들지만 않았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소장은 참모부에 있었다. 그의 특수임무장교가 의식을 잃고 실려왔다는것을 알자 에베르쓰는 오늘 아침부터 쌓이고쌓였던 울화를 파울에게 폭발시켰다.

골드링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다만 바위에 머리를 부딪쳤기때문에 심한 타박상을 받은데 불과하다는것을 군의가 말했을 때에야 소장은 좀 풀어져서 엄중한 책벌을 주지 않고 초소장을 돌려보냈다.

원쑤와 친구가 뒤를 따른다

《아이구 머리야, 머리가 빠개지는것 같구나!》

헨리흐는 생시인지 꿈인지 어머니가 자기를 들여다보는것을 본듯 하

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시원한 손바닥으로 짚어주는것이였다. 그는 당장에 아픈것이 나은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였다. 또다시 관자노리가 뛰며 아파났다. … 밀레르와 슐쯔가 어디서 나타났단 말인가. 그들이 무엇인가 무거운것으로 그의 머리를 차례로 치는것이였다. 그들은 무엇때문에 그러는것인가? 아, 그렇지, 헨리흐보고 진짜이름을 대라고 하는것이다. … 난 헨리흐 폰 골드링이요. …남작이란 말이요. … 저 시계추는 어디서 똑딱거리는가? 그렇지, 쏘파우에 걸린 시계추이지! 그런데 왜 바로 귀전에 대구 똑딱거린담? 이제라도 추가 흔들거리다 바로 그의 관자노리에 떨어지면 어쩌나… 기운을 내서 그걸 손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팔을 들어올리고…

헨리흐는 어깨에 심한 동통을 느끼는 바람에 소리를 치며 잠을 깼다. 머리맡에와 침대발쪽에 앉았던 두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저게 꾸르트와 모니까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어째 여기 와있는가? 왜 이렇게 머리가 쏘는가?

《상급중위님, 의사선생님이 조용히 누워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꾸르트는 헨리흐의 베개를 바로잡아주면서 말했다. 모니까는 말이 없었다. 모니까는 대야에 물을 떠다 흰 수건을 적시여 짜가지고 헨리흐의 이마에 얹군 하였다. 헨리흐는 한순간 눈을 감고 누워서 지나온 일을 회상해보려고 하였다. 현실이 꿈에서 본것과 자주 헛갈리면서 똑똑치 않았다. 자기가 헛소리를 치지나 않았을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문득 들자 헨리흐는 정신이 바짝 돌아섰다.

《무서운 꿈이 내 목을 조이는것 같군. … 내가 혹시 잠결에 소리치지나 않습디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묻고는 공포에 떨면서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요. 그저 신음소리만 계속 했습니다. … 전 모니까아가씨와 다시 군의선생을 모시러 갈가 했지요.》

그제서야 헨리흐는 모니까도 꾸르트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 눈이 벌겋게 된것을 알았다.

《내가 숱한 수고를 끼쳤군요, 모니까아가씨 그리고 자네에게두.》 헨리흐는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안돼요, 안돼요. 그냥 누워계셔요!》 모니까는 소리치면서 찜질하던 수건을 갈아대려고 헨리흐에게로 몸을 숙였다. …

그렇게도 낯익은 귀여운 얼굴이였다! 그 얼굴은 마치 어머니, 누이, 애인의 애정으로 빛나는것 같았다. 그의 손도 역시 다정한 사랑을 담고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헨리흐의 이마를 매만지는것인가! 그 서늘한 손바닥에 볼을 대고 그냥 잠들었으면 그리고 오래오래 잤으면, 정말 그는 많은 힘이 필요하였다!

하루사이에 밀레르는 두번이나 골드링을 찾아왔다. 그러나 한번도 그와 담화할 기회는 얻지 못하였다. 에쓰에쓰장교인 밀레르는 상급중위가 습격당한 정형을 해명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취하였다. 그자신이 의식을 잃은 헨리흐가 발견된 장소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한 관목밑에서 수십개의 도이췰란드자동총탄알깍지가 발견되였다. 골드링을 사격한것은 그가 접수하기 위하여 본빌로 갔던 그 무기이였을수도 있었다. 무기를 가지고 습격을 하는 바로 거기서 기타 모든 사건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에쓰에쓰부대성원들이 한 장소에서 욱실거리고있었다. 지금까지 군용렬차습격에 대한 정확한 정형조차 확정하지 못하였다. 경비에 참가했던 병사의 증언은 매우 불완전하였으며 흔히 모순되였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군용렬차를 타고온 펠드네르중위가 모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수 있을것이였으나 그는 아직도 중한 상태에 있어서 그에게는 접근하는것도 의사가 금하는 형편이였다. 골드링과 의논을 하고 자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싶은 밀레르였다. 군용렬차에 대한 습격이 있은 후 베를린으로부터 마키와의 투쟁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차굴습격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는 빨찌산을 소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매일 보고하라는 엄명을 밀레르는 받게 되였다.

그가 도이췰란드사령부에 자기 능력을 시위하며 자기가 사단범위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능히 감당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것이였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밀레르에게는 골드링이 필요한것이였다. 골드링이 베르트골드소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세번 에쓰에쓰소좌 밀레르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그의 승급은 문제가 없는것이였다. 특히 그가 골드링에게 습격을 감행했던자를 잡기만 한다면 그때에는 베르트골드가 그를 위하여 무슨 힘을 아끼겠는가! 그러니까 즉시 남작을 습격한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 그들의 종적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다른 출로를 택해야 한다. 몇사람의 농민을 잡아다가 마키와 련계를 가졌다고 고발하고 든든히 족치면 골드링을 습격했다는 증언쯤은 문제없이 얻어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의 일이고 지금은 우선 될수 있는대로 빨리 헨리흐와 만나야 한다.

오늘 헨리흐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또 머리가 아팠으며 눈앞이 어지러웠다. 밀레르의 방문은 매우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의 담화를 계속 멀리하는것은 위험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 일이였다. 더우기 지금 모든 사태를 알아두는것이 헨리흐에게도 필요하였다. 도이췰란드군사령부의 보도를 들으면 만슈쩨인의 타격조가 결사적인 돌격을 가해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빠울류쓰군대를 둘러싼 포위환을 돌파하려고 애쓰고있다고 한다. 쏘련의 방송은 쏘베트군대가 다른 전선에서도 공격으로 이전하였다는것을 전하고있다. 사태가 가속도적으로 빨리 발전하고있는 때에 누워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밀레르는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헨리흐의 방으로 들어섰다.

《헨리흐, 나의 친근한… 내가 이렇게 부르는것을 허락해주겠지? 나는 당신을 저격한 놈을 찾아내느라고 문자그대로 기진맥진했소. 내 꼭 그놈들을 찾아내고야말겠소! 열명이건 스무명이건 체포해다가 나자신이 심문을 들이대서 찾아내고야말겠소! 나한테 걸리면 죽은 놈도 말을 하고야 배기지!》밀레르는 골드링의 손을 잡고 열렬히 흔들었다.

《그렇게 나때문에 수고를 끼칠줄은 정말 몰랐소, 밀레르!》

《밀레르라니! 그렇게 부르면 내가 성을 내겠소! 나를 한스로 불러주오. 나도 당신을 허물없이 헨리흐로 부르기로 이미 합의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

《정말 감사하오. … 한스!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거나 심문하느라고 수고하지 말아주오. 나는 나를 쏘는 놈을 보았으니까 당신과 함께 그 마키놈을 찾아낼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면 군용렬차를 전복시킨 놈들도 알수 있을게요. … 나는 그것이 나의 영예로운 임무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그 수색사업에서 내가 당신을 도울수 있게 허락한다면 난 매우 기쁘겠소.》

《나는 바로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소. 헨리흐, 동시에 나의 계획과 내가 취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당신께 알리구싶소.

첫째로 본빌로 갔던 사람과 거기서 돌아온 매개 사람을 검열하려고 하오.》

《매개 사람을 다 검열할 근거는?》

《본빌은 마키들의 활동중심지요. 무기를 실은 군용렬차에 대한 비밀이 바로 거기서부터 빠져나갔다는것이 극히 명백한 일이요. 우리 구역에서 행동하는 빨찌산들과 본빌의 마키들간에 정상적인 련계가 있을수도 있는것이요. 우리는 바로 그 련계를 까밝혀내야 하오.》

《당신 말이 옳은것 같소. 그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머리가 빠개지는것 같이 아파서.》

헨리흐는 밀레르가 눈치를 채고 돌아갈가 하였는데 그는 실히 한시간은 더 앉아있어서 헨리흐는 진저리가 날 지경이였다.

이튿날 아침에 헨리흐는 모니까와 꾸르트의 만류를 듣지 않고 참모부로 갔다. 류쯔의 사무실은 들어설 자리도 없이 사람이 꽉 차있었다. 그곳에는 참모부에서 일하는 헨리흐의 동료들뿐아니라 사단의 구분대들을 지휘하는 먼곳에서 온 장교들도 모여있었다. 헨리흐는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초면이였다.

《소장님께서 다 들어오시랍니다.》 하고 류쯔가 말했다.

장교들은 뒤이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헨리흐와 류쯔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자기 특수임무장교를 보자 에베르쓰는 참모장 큔스트, 밀레르 그리고 중좌견장을 단 에쓰에쓰장교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는것이였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에베르쓰는 말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극히 중요한 과업을 수행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제께 저녁 여섯시에 비밀공장에서 매우 위험한 범인이 탈주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는데 그자는 국적을 프랑스에 둔 뽈리 쉐니예란자입니다. 어떠한 정황하에서 탈주하였는지, 누가 그의 탈주를 도와주었는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한시간전에 쎈—미쉘리에서 온 전보에는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장제품을 싣고가는 기차의 짐차 하나에서 널판자를 톱으로 켠 구멍과 비여있는 깨진 궤짝이 발견되였다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것은 조국의 원쑤들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공장에서 한 범인이 탈주하였다는 그것입니다. 그자를 생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시체라도 찾아내는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

입니다.》

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자기가 한 말의 의의를 강조하기나 하는듯이 엄한 눈길로 참가자들을 돌아보고나서 실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단의 매개 구분대는 참모장 쿤스트대좌에게서 자기의 담당구역을 정확히 접수하고 그 구역을 하루사이에 집집과 뜨락에 이르기까지 한군데도 빼지 말고 빗질하듯 훑을것입니다. 검열에서 벗어나는 땅이 한치라도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중위 케이즈네르의 부대는 (부대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있습니다만) 이미 지난밤에 산으로 들어가는 일체 오솔길들과 횡단로들을 모조리 봉쇄하였습니다.

범인이 마키에게 가기 위하여 산으로 뛸수는 없습니다. 그자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구역내 어디선가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매개 구분대장들은 자기 부책임자에게 구분대를 맡기고 자동총수를 인솔하고 도로들과 주민지점에 대한 수색을 지휘할것입니다. 다행히도 범인을 잡은 장교는 지체없이 범인을 이곳으로 압송할것이며 그에 대한 표창으로 상금 5천마르크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될것입니다.》

소장은 에쓰에쓰중좌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금 매 사람에게 정면과 측면으로 찍은 뽈리 쉐니예의 사진을 주겠습니다.》

에쓰에쓰장교가 일어섰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당신들께 주어진 임무가 거대한 국가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바입니다. 당신들께 부여된 과업과 범인의 사진, 그의 성명과 작업장소 등 이 모든것이 다 극비에 속하는것인만큼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선발된 장교들에게만 맡기는것입니다.》

《사진들을 받고 자기 구역을 확정해보시오.》 에베르쓰는 이렇게 말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뜻으로 일어섰다.

장교들이 흩어져간 후 소장은 헨리흐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건강이 어떻소, 남작?》

《소장님, 감사합니다. 회복되는중입니다.》

《참 안됐소, 이런 때 앓고있게 됐으니.》

《자기 임무수행에 착수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을 할수 있습니까, 소장님!》
《어서 말하시오!》
《범인수색에 저도 참가할것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쓰에쓰장교가 그들의 담화를 주의깊게 엿듣고있는것을 눈치챈 헨리흐는 자기와 소장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눈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중좌님, 인사하시지요. 베르트골드소장의 아드님인 폰 골드링 상급중위입니다.》
《아, 매우 반갑습니다. 수색사업에서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쓰에쓰장교의 시선이 다정해지면서 말하였다.
《상급중위에겐 방조가 필요하겠는데 여기 있는 병사들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갈라주어놓아서…》 하고 에베르쓰는 단정해서 말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에게 한개 구역을 맡겨주시고 저의 련락병과 함께 저자신이 수색에 참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어쨌으면 좋겠는지 묻는 눈길로 에쓰에쓰장교를 바라보았다.
《내 생각엔 그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장교 한사람과 련락병이 다니는것은 주의를 덜 끌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들이 수색에 참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겠으니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남작! 5천마르크는 적지 않는 표창입니다!》
헨리흐는 참모장에게서 뾸리 쉐니예의 사진을 받고 류쯔에게 들리였다. 놀라운것은 류쯔가 극히 랭랭하게 그를 맞이한것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칼? 또 기분이 좋지 않구만.》
《누구때문엔지 모르겠나?》
《누구때문이라니?》
《불쾌하네!》
《무슨 일인가, 비밀이 아니라면 말해주게나.》
《내가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라나?》
《그런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은가!》 헨리흐는 노엽게 말했다.
《내 말 좀 듣게. 나는 도대체 사냥을 좋아하지 않네. 더우기 사람잡이는… 그래 자네는 돈이 모자라서 지하공장에서 도망친 그 뾸리 쉐

니예를 잡아 5천마르크를 더 벌것을 결심했나?》
한순간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았다. 헨리흐는 류쯔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정으로 그와 악수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집에 돌아오니 꾸르트가 참모부에서 가져온 우편물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로르헨이 매번 보내는 편지외에 또 하나의 소포가 상우에 놓여있었다. 그것은 베르찌나 그라우자멜리가 자기의 존재를 헨리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각이한 자세와 형태로 찍은 한묶음의 사진을 보내온것이였다. 대부분의 사진은 수용소에서 찍은것인데 녀성포로들을 검열할 때나 녀성포로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물론 전경에는 훈장까지 단 군복차림의 베르찌나의 전신이 멋지게 찍혀있었다. 몇장의 사진은 집에서 찍은것이였다. 그것은 보통 의복을 입고 책상옆에서, 창문옆에서, 피아노옆에서 찍은것들이였다. …베르찌나의 마지막사진은 분명히 헨리흐를 매혹시키려고 의도한것이 분명하였는데 뒤에는 침대가 있고 그앞에 베르찌나가 서있었다.
헨리흐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 선물을 방구석에 집어던지고 뽈리 쉐니예를 수색할 계획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싼―마리와 샤베리사이에서 어딘가를 달리고있을것이였다. 그사이의 거리는 3백키로메터였다. 유감스럽게도 기차가 떠난 시간은 모른다.
쉐니예가 공장에서 언제 사라졌는지 그 시간도 모른다. 그가 탈주한것을 안것은 어저께 저녁 여섯시다. 바로 그 시간에 그가 기차에서 뛰여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철도에서 60키로메터이상 떨어져 나가지는 못했을것이다. 쉐니예는 감옥의 죄수옷을 입고있다. 그러니까 도로를 피하고 좀더 안전한 길을 택해서 산과 숲속을 걸었을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무엇때문에 타고가겠는가? 자동차는 수색하는데 방해가 될뿐일것이다.
헨리흐는 밀레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스, 한 이틀동안 오토바이 두대만 빌려줄수 없겠나? 나하구 내 련락병이 타자구 그러네.》
《어서 쓰게! 헨리흐, 쉐니예를 수색할 때 당신을 저격한 마키에 대해서도 잊지 말게. 잊을가봐 다시한번 말하네. 그때 내게 약속을 한거니까.》
《그건 두말 안해도 알만 하네.》 헨리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가 에쓰에쓰근무장교에게 자기를 저

격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한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당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했을뿐이였다.

꾸르트가 오토바이를 몰아올 때까지 헨리흐는 쉐니예의 사진을 잘 연구할만 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사진은 조급하게 만든것이여서 좋지 못했다. 수백명의 죄수들을 번갈아 찍어야 하는 감옥에서 만든 사진이란 흔히 그런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도주자의 외모에 대한 개념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헨리흐는 확대경으로 뾜리 쉐니예의 얼굴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그는 때때로 눈을 감고 이러저러한 특징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는 다시 사진을 보군 하였다.

헨리흐가 그렇게까지 임무를 더 빨리, 더 잘 수행하려고 힘쓴 일은 일찌기 한번도 없었다. 파울에게 갔다온것은 합정골에 비밀대상물이 있다는것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공장의 위치를 말해주는것은 아니였다. 그가 합정골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수 있겠는가? 공장의 제품과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거기서 만든 무기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는것은 더욱 확정하기 힘들다. 이 모든 자료는 쉐니예를 통해서만 얻을수 있다. 온 산을 다 훑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나 도주자를 찾아내야 한다.

…사흘동안 헨리흐와 꾸르트는 새벽부터 밤까지 절벽을 톺아오르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내려가보기도 하고 떨기나무숲속을 샅샅이 찾아본 후 저녁때가 되여서야 맥이 빠지고 후줄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쉐니예는 마치 땅속으로 숨어들어간듯 종적을 찾을수 없었다.

수색에 동원된 수많은 부대들도 도주자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주자가 마키에게 넘어갈수는 없었다. 모든 도로와 고개길 지어 산속에 있는 오솔길에까지 에쓰에쓰병사들이 지키고 서있었다.

수색과정에 새로운 복잡한 정황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뾜리 쉐니예는 도주자의 본명이 아니며 도대체 누군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것이였다. 공장의 자료에 의하면 쉐니예는 에스빠냐국경근방에 있는 에스깔리예라는 소도시태생으로 되여있으나 그저께 거기서 온 회보에 의하면 에스깔리예에는 뾜리 쉐니예라는 사람이 산 일이 없었으

며 그의 부모가 살고있는듯이 되여있는 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였다.

도주자에 대한 수색이 실패로 돌아간것은 참모부의 심중한 걱정거리였다. 베를린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으며 오늘은 밀레르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그가 사흘동안에 도주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를 베를린으로 불러 특별담화가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에쓰에쓰근무장교는 그 부름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잘 알았다. 잘되는 경우에라야 강직시켜 동부전선으로 보낼것이다. 폭동때 세운 공로같은것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밤늦게 밀레르는 헨리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헨리흐를 만날 필요가 있었다.

《래일 아침에 만나면 안될가? 난 지금 맥이 나서 누울 생각뿐이요.》

《내 꼭 5분후에 가서 오래 있지 않겠으니까!》 밀레르는 간청하였다.

《좋소, 오시오!》

에쓰에쓰근무장교의 몰골은 불쌍할 지경이였다. 거만하고 무례하고 자고자대하던 특징들—그의 직업에서 생겨났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성격의 특성처럼 되여버린 그 특징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만것이였다.

《헨리흐, 날 좀 구해주게!》

《내가?》

《바로 당신만이 할수 있네! 난 오늘 베르트골드소장에게서 직접 경고를 받았네. 그 저주받을 쉐니예를 사흘동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나를 베를린에 불러 특별담화를 하겠다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않나?》

《짐작이 가오.》

《제발 수색기일을 한주일이래도 주도록 소장에게 편지를 해주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네. 당신도 내 신세를 입을 때가 있을게 아닌가!》

《그게 단가? 그것때문에 밤에 달려왔소?》

《헨리흐, 당신께는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일생의 문제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요.》

《래일 아침에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당신께 주겠으니까 직접 부치시오.》

밀레르는 헨리흐의 손을 오래 놓지 않았다.

밤에 비가 내렸다. 저녁때부터 세워놓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땅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에게 보낼 편지를 써주겠다고 한 약속을 잊을번 했던차이라 마침 잘되였다. 헨리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길게 쓸게 없었다. 자기도 수색에 참가하고있다는것을 간단히 알리고 어려운 정황을 고려하여 그가 정한 기일을 한주일로 연기해달라는것을 부탁한 내용이였다.

편지를 봉하고 밀레르에게 즉시 갖다주라고 꾸르트에게 맡기였다.

《돌아올 때 따르왈리부인이나 모니까아가씨한테 도중식사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게.》

《아가씨는 이틀전부터 아파서…》

《그거 안됐군. 어째 어저께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앓을 때 아가씨가 나때문에 숱한 수고를 했는데 그가 앓아누웠는데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인사가 됐나!》

《어저껜 너무 늦게야 돌아와서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15분가량 아가씨방에 들려서 사과하겠으니 그동안에 자넨 편지를 갖다주고 길떠날 차비를 하게.》

《제꺽 하겠습니다! 상급중위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다 준비해놓겠습니다.》

꾸르트는 자기가 타산했던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게 될줄은 생각 못했다. 그것도 그다지 기분좋지 못한 일로 지체하게 된것이였다.

편지를 받은 밀레르는 꾸르트를 놓아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였다.

《당신 성이 슈미트지? 꾸르트 슈미트지? 옳소?》 밀레르는 편지를 읽고 봉한 후 부관에게 즉시 발송하라고 주고나서 꾸르트에게 묻는것이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전 중대장이 지금 병원에 중상을 입고 누워있는걸 아나?》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골드링상급중위님이 말해주셨습니다.》

《펠드네르중위를 마지막으로 본것이 언제요?》
《본빌에서 떠나는 날 골드링상급중위의 호실에서 만났습니다.》
《펠드네르중위가 당신과 이야길 했소?》
《네! 기차번호와 출발시간을 골드링상급중위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번호는 몇번이고 시간은 언제라고 하던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걸 골드링상급중위에게 알릴 때 그 방에 딴 사람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꾸르트는 그때 방안에 모니까가 있은것이 생각나기는 하였으나 없었다고 단정해 말했다.
《가도 좋소. 내가 직접 상급중위와 이야기하지. 나하고 담화한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되네, 알았나?》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꾸르트는 달려왔다. 늦었다는 생각뿐만아니라 불안한 기분이 그를 급히 뛰게 한것이였다. 어찌하여 밀레르는 펠드네르에 대해서 나에게 묻기 시작하였을가? 어찌하여 려관방안에 딴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를 알려고 하는것일가? 그가 모니까를 의심하는게 아닌가? 모니까아가씨와 그 기차를? 황당한 일도 다 있군! 꾸르트는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어서빨리 상급중위에게 이야기해야 하겠다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방안에 상급중위가 없는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였다. 삼십분, 한시간을 더 기다려도 상급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헨리흐의 방문은 뜻밖에 오래 시간을 끌었다.
모니까는 감기가 들었기때문에 따르왈리부인은 딸이 일어나는것을 엄금하고있었다. 문밖에서 나는 헨리흐의 목소리를 듣자 처녀는 너무 흥분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게 허락할가? 어째 들어오면 안된단 말인가? 내가 침대에 누워있기때문에? 그러나 나는 앓고있지 않는가! 헨리흐가 방문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사실 모니까는 오토바이사고가 있었을 때 헨리흐의 머리말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던가.
헨리흐는 처녀가 흥분하는것도 당황해하는것도 못 본척 하였다.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소탈하게 모니까를 대하였다. 그래서 모니까

는 당장에 모든 의혹을 다 잊고말았다. 모니까는 헨리흐가 여기 있다는것이, 그들의 담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것이 그리고 헨리흐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는것이 몹시도 행복하였다.

모니까를 보고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곱실곱실한 머리는 고리를 지어 머리우를 둘러감고있었다. 흰 베개잇을 배경으로 하니 그것은 아름다운 녀성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귀중한 검은 장식물과도 같았다.

《모니까! 오늘은 특별히 곱구만!》

《벌써 그 말씀을 두번째나 하시네!》

《세번이래도 하겠소!》

《어머니, 어머니 딸을 놀려준답니다!》 하고 모니까는 어머니가 일하고있는 옆방에다 소리쳤다.

《너를? 원, 그럴수가 있나!》 따르왈리부인은 포도를 담은 접시를 들고 문어구에 나타났다.

《난 아가씨가 오늘 특별히 곱다고 했을뿐입니다.》

《아, 그 애에겐 흰옷이 어울린답니다! 성인례를 지낼 때 보셨드면 좋았을걸! 잠간만 기다리시우. 그 애 사진을 보여드리지요.》

《남작님, 이겁니다.》따르왈리부인은 큼직한 가족사진첩을 가지고 와서 성인례날에 찍은 모니까의 사진이 붙어있는 페지를 펼쳐 헨리흐에게 보이며 말했다.

헨리흐는 그것을 보자 너무 놀라서 소리칠번 하였다. 따르왈리부인은 만족한 미소를 띠였다. 그는 자기 딸의 사진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리라는것을 확신하였으며 자랑스럽게 모니까와 헨리흐를 번갈아 보는것이였다. 그런데 헨리흐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본것은 그를 완전히 격동시킨것이였다. 훈련을 잘 받아 어떠한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였으나 흥분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흰옷을 입은 처녀가 정말로 매혹적인것은 사실이였으나 어린 모니까의 아름다움이 그를 아연케 한것은 아니였다. 헨리흐를 놀래운것은 다른것이였다. 누가 생각인들 할수 있었겠는가. 모니까옆에 서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뽈리 쉐니예일줄이야! 절대로 잘못 볼수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사진을 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소? 모니까, 나

는 당신을 벌금에 처하겠소. 벌금을 당장에 물어야 하겠소.》

《그야 벌금이 어떤것인가에 달렸지요!》

《벌금은 아주 어려운것이요!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몽땅 나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걸상에 앉으세요, 나도 볼수 있게.》 모니까는 웃으며 동의하였다.

헨리흐는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하였다. 모니까는 매개 사진에 대해서 롱조로 혹은 신중하게 설명해나갔다.

따르왈리부인도 이 놀음에 흥미를 느끼고 침대가까이로 의자를 끌어갔다. 프랑스군대의 병사복을 입고있는 한 젊은이의 사진을 보자 헨리흐는 깜짝 놀랐다. 그는 사격장에서 놓아준 두명의 마키중의 한사람이였다.

《우리 아들 쟌인데 행방불명이예요.》 하고 따르왈리부인은 설명하고 빙긋이 웃었다. 헨리흐는 그의 눈을 보았다. 부인은 모든것을 알고있는게 분명하였다. 헨리흐에 대한 그의 호의가 어찌 우연한것이였겠는가!

마지막장을 넘길 때 헨리흐는 뽈리 쉐니예의 독사진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사진첩에는 비여있는 자리가 있었다. 아마도 검열해보고 일부 사진은 뗴여낸게 분명하였다.

성인례날 찍은 사진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이젠 당신네 친척들과 친우들을 다 알았으니까 그날 당신과 함께 찍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맞춰볼가?》

《주의하세요, 나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도 벌금을 걸겠어요. 맞춰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야 할머니지! 그리고 이건 따르왈리부인이시고 부인옆에 있는 젊은이가 아드님인 쟌이고… 가만있자… 그렇지, 곱게 생긴 젊은 부인이 어머님의 동생 루이자이지요. 그런데 모니까아가씨옆에 서있는 이 남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걸. 이상한데! 흔히 보던 얼굴인데… 정력적이고 의지적인 얼굴인데… 내기를 해도 좋소. 이 사진첩에 그의 사진이 없었소!》

《그야 놀랄게 없지요, 모니까가 다 뗴여버린걸요!》 하고 따르왈리부인이 노여운듯 한마디 했다.

《어머니!》

《얘, 듣기 싫다! 난 남작님한테 숨길게 아무것도 없다! 난 례절바른 골드링씨를 믿고 말합니다. 이이는 나의 동생 루이자의 남편인데 안드레 레나르라 부르지요.》

《그는 전사했답니다.》 모니까가 급히 덧붙여 말했다.

《전사한게 아니라 행방불명이 됐단 말입니다, 글쎄…》

《우리 친척들이 다 어떻게 되였는지 그건 헨리흐씨에겐 흥미없는 일이예요.》 처녀는 어머니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썼다.

《반대로 나에겐 그런 이야기가 매우 흥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종적을 모르신단 말씀이지요?!》

《네, 최근에!》 따르왈리부인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모니까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따르왈리부인은 어떤 일이 있든 끝까지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한 고집이 센 사람답게 말을 이었다.

《나도 물론 조심하느라고 루이자를 이리 오게 하지도 못하고 편지조차 서로 하지 않쉐다. 나도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이 있는데 하루쯤 갔다올수도 있지만 못하지요. 그건 별로 주의를 끌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루 얼마 멀지 않은 라—뜨라벨사촌에 살고있지요! 그런데 모니까는 자기가 한번도 가보지 않고 내가 가겠다면 못 가게 붙잡는단 말입니다. 불쌍한 안드레의 사진까지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런 예방대책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헨리흐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세요, 어머니!》

《제 생각에도 부인님이 동생을 만나는걸 뒤로 미루고 그 마을에 다니는것도 삼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아차, 잊었군. 마을이름이 무어더라.》

《라—뜨라벨사예요.》 따르왈리부인이 일깨워주었다.

《사실 부인께서야 안드레 레나르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그를 찾고있을수도 있고 그의 친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수도 있으니까요. 당신들은 이러나저러나간에 그에게 도움을 줄수는 없는 일입니다.》

《충고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포도나 좀 드시우. 얼마나 포도송이

가 탐스럽습니까!》

《미안합니다만 내가 지내 오래 있은것 같습니다. 당장 먼길을 떠나야 하겠는데…》

헨리흐는 어머니와 딸과 작별인사를 하고 나왔다.

《안드레 레나르, 라-뜨라벨사촌.》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몇번인가 마음속으로 되뇌였다.

산간호수가에서의 상봉

《폰 골드링상급중위님, 말씀드릴만 합니까?》꾸르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규정의 요구대로 그앞에 섰다.

《웬일이요? 꾸르트 슈미트, 어째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하오? 딴 사람은 아무도 없는것 같은데.》

흥분된 꾸르트는 밀레르와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하였다.

《자네가 펠드네르와 이야기할 때 내 방에 모니까아가씨가 있었다는걸 어째 말하지 않았소?》

《제 소견엔…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같이 생각되였습니다!》

《잘했소! 게스타포가 그에게 심문을 들이댈수 있소. 사실 모니까아가씨야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빠울류쓰가 포위당한 책임이 자네에게 없듯이 기차습격과 무슨 관계가 있겠소? 어머니한테 편지쓸 때 촉기빠른 아들이라고 써보내오.》

《상급중위님께서 저를 만족하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어머님은 매우 기뻐하고있습니다. 어머님은 상급중위님을 몹시 존경하고있으며 편지에마다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있습니다. 그저 제가 근심만 끼치고있지요. …》

《자넨 처녀앞에서도 그렇게 수집어하나? 아직 정해둔 처녀가 없나? 난 전쟁이 끝나면 자네 결혼식에 가볼가 하는데. 나를 초대하겠지? 그건 그렇고 지금은 내 말을 명심해듣구 차를 준비하라구…》

《알았습니다!》

《자동차에 누가 앉았는지 보이지 않게 막을 내리우라구. 자네거 하

구 내 자동총을 휴대하게. 도중식사는 내가 말한대로 하루분이 아니라 이틀분을 준비하오. 탄알은 될수록 많이 가지고갈것! 매우 어려운 작전을 하기 위해 떠난다는것을 념두에 두오. 전투를 할수도 있소.》

《수류탄을 두어개 가지고갈가요?》

《그것도 괜찮소! 준비하오!》

솔직히 말하면 헨리흐에게는 일정한 계획이 없었다. 현지의 정황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될것인데 정황이 그의 예견대로 되겠는지, 뽈리 쉐니예와 안드레 레나르가 한사람인것은 극히 명백하다. 탈주자가 반드시 라－뜨라벨사에 있다는 확고한 신심은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때 그에게는 그외에 갈데라고는 없는것이다. 그는 이 지대를 잘 알고있기때문에 믿음직한 장소로 넘어갈 때까지 여기서 은페하기를 겁낼 리유가 없다.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위험성이 더 클수는 없는것이다. 사람들은 루이자가 레나르의 부인이라고는 알고있으나 루이자를 뽈리 쉐니예란 이름과 련결시켜볼 생각은 아무도 못할것이다.

헨리흐는 지도를 펼치였다. 라－뜨라벨사촌은 쎈－레미에서 서쪽으로 서른댓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자그마한 촌이였다. 그러므로 별로 서둘지 않고도 다섯시에는 그곳에 갈수 있었다. 마을은 대도로에서 떨어진 곳이므로 군사대상물이 없고 따라서 도이췰란드수비대도 없었다.

《떠나지, 꾸르트.》 헨리흐는 련락병옆에 올라앉으며 유쾌히 말했다.

꾸르트는 발동을 걸었다. 속도계의 바늘은 우로 올라갔다. 그러나 얼마간 지난 후부터는 속도를 늦추지 않을수 없었다. 도로는 산으로 오르고 굴곡이 매우 심한데다가 도로수리도 한지 오랜 길이였다. 자갈돌 사이사이에서 바퀴자리에 고인 비물이 번쩍거렸으며 계속 흙탕물을 튕기며 달려야 하였다. 꾸르트는 몇번인가 차를 세우고 나가 정면 유리를 걸레로 닦아내야 하였다.

세시반쯤 되여서야 그들은 라－뜨라벨사에 다달았다. 흐린 가을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간마을의 특이한 자연경치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왔다. 길죽하게 생긴 호수의 동쪽기슭에 반원형으로 보기 좋게 지은 자그마한 집들이 둘러앉아있었다. 그 마을의 유일한 거리도 역시 반원형으로 뻗어나가고있었다. 량쪽에 넓은잎나무들이 무성하게 자

란 그 거리는 마치도 푸른 차굴과 같았고 호수가를 따라 호수우에 높이 솟은 절벽을 향해 나가고있었다. 그 절벽우에는 또 하나의 더 높은 바위산이 보였다. 반대편기슭에는 바위들이 들쑹날쑹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것이 마치 그뒤에 솟아있는 높은 산이 공격해내려오다가 도중에 있는것들을 몽땅 마사놓은것 같았다.

헨리흐는 촌장에게로 차를 몰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그는 비로소 따르왈리부인의 어머니 성을 모른다는것이 생각났다. 우선 그것부터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그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이미 물러설수는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헨리흐는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있는 로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시오, 장교어른!》 로인은 우울하게 대답하면서 헨리흐를 곁눈질해보았다.

《라－뜨라벨사의 촌장어른이신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소.》

《앞으로 도이췰란드위수사령부가 들만 한 집을 구해야 하겠는데요.》

로인은 한숨을 쉬였다.

《전에 공산당원들이 살던 집과 지금 그 가족들이 살고있는 집을 대줄수 없습니까?》

《누가 어떤 당에 들었는지 난 모릅네다. 내겐 그런 등록이 없으니까요.》

《프랑스민족사회당조직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게 하나 생겨서 마을에서 돌아치고있지요. 당신이 온것을 보고 저기 달려오고있습니다.》

정말로 한사람이 비옷단추를 채우면서 거리로 달려왔다.

《저 사람은 이 고장 사람인가요?》 하고 헨리흐가 물었다.

《그렇소, 이 고장 사람이요. 저 사람 애비는 단정한 사람이였는데…》 촌장은 헨리흐를 힐끔 보고 쓸데없는 말을 한것을 깨닫고 말을 이었다. 《그의 부친은 지난 주일에 사망했지요. 그래 저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으러 왔습니다.》

문어구에서 나치스의 인사말이 들렸다. 헨리흐는 답례하였다.

라－뜨라벨사에 있는 유일한 프랑스민족사회당 위원장은 나이 서른

쯤 되는 햇내기였다. 자기를 소개한 다음 바젤씨는 히틀러와 같은 머리모양을 하고있다는것을 누구나 보아달라는듯 모자를 뒤통수로 밀어올리고있었다. 우습게 구부러진 긴 코밑에 짧게 깎은 코수염은 물음표밑에 툭하게 찍어놓은 점과 같았다.

《당신과 이야기할게 있는데…》 하고 헨리흐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마디 하였다.

《저, 그 말을 하란 말씀이지요? 내가 바로 맞췄지요?》

《난 가보겠소. 무슨 말이나 마음대로 하소.》 로인은 한마디 퉁 내쏘고는 외투를 대강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촌장은 아주 믿지 못할 사람이지요. 그러나 내 그자를 혼내주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제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그건 내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요.》 하고 헨리흐는 바젤의 말을 가로채며 말을 이었다. 《나는 도이췰란드위수사령부가 있을 방을 급히 구해야 하겠소.》

《라－뜨라벨사에 도이췰란드위수사령부가 옵니까? 이거 참 기쁜 소식이군요!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는 정직한 프랑스사람은 마음놓고 살수 없어서 고향인 이곳을 떠나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제집을 버리고 뽄쩨이로 이사를 가지 않을수 없었지요.》 하며 바젤은 기뻐하였다.

《여기 온지 오래 됐소?》

《한주일쯤 됩니다.》

《내가 들으니 거기서 마키가 도이췰란드장교를 저격했다는데 정말이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곳을 떠난 바로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키놈들이란 진짜강도들이지요. 여기는 그놈들이 없는가 하십니까? 저의 집엔 유리창이 하나도 성한게 없다니까요. …》

《나는 사령부가 쓸 집이 요구되오.》 하고 헨리흐는 다시 상기시켰다.

《저의 집을 쓰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혼자 살고있으니까 조금도 걱정마시고…》

《우린 정직한 프랑스사람은 건드리지 않소. 아마 여기에도 의심스러운 사람들, 말하자면 공산당원가족같은게 있지 않소?》

바젤은 담배불에 노랗게 된 손가락끝을 깨물며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그때 그의 코는 더욱더 물음표를 련상시키는것이였다.

《있습니다! 골라잡으십시오!》바젤은 마침내 기쁜듯이 웨치더니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 펼쳐가지고 상쪽으로 다가앉았다.

《열한집입니다.》

《이 명단은 누구의 지시가 없이 그냥 만든것이요?》 헨리흐는 지나는 말처럼 물었다.

《나는 당신네 한 기관의 위임을 수행하고있지요. 사실은 제가 뽄쩨이주민들을 감시할 임무를 받고있습니다만 여기 온 이상은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요?》

《올리브 아르누, 리유없이 마을을 나가 행방불명이 된잡니다.》

《다음!》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이 셋인데 그 성은…》

《다음!》

《그렇지, 여기 딱 맞는게 있군! 늙은 고따르드의 아들은 리옹의 철도로동자파업에 참가한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전쟁전일이지만 나는 그자가 공산당원이라고 점찍고있습니다.》

《또 누가 있소?》

《세 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는데 그 부모들은 본빌로 돈벌이를 떠났다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요?》

《우리 집 유리창을 깼다고 의심되는 집이 두 집이 있고…》

《일을 시시하겐 하고있소! 의심합니다라느니… 리유없이 마을을 떠났다느니… 내게는 사실이 필요하오, 구체적사실 말이요. 당신네 집 유리창을 마슨 사람에 대한 억측은 필요없소.》

《장교어른, 난 여기 온지 한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자신의 창발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란걸 고려해주십시오. …》 수첩에 써놓은 글줄을 짚어가던 손톱이 시꺼멓게 멍이 든 바젤의 손가락이 떨렸다.

《아주 의심스러운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트란 부인이지요》

《그 사람도 당신네 집 유리창을 깼소?》 헨리흐는 비웃으며 물었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그 녀자는 겨우 움직이는 형편인걸요. 그런데 그의 집에 딸이 와서 살고있지요. 빠리녀자입니다.》

바젤은 헨리흐의 비꼬는 말뜻을 리해 못하고 말했다.

《아, 빠리녀자라! 그러니까 당신에겐 의심스러워보이겠군!》

헨리흐는 계속 미소를 띠우고 말하였으나 그의 가슴속은 흥분으로 해서 방망이질을 하였다. 이 등신이 마침내 주의해들을만 한 말을 꺼낸것이였다.

《의심스러운것은 그 녀자의 행동입니다. 남편이 전사했다고 말은 하면서 상복을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트란 부인은 원래 옛날풍습을 존중하며 종교를 매우 독실히 믿는 할머닌데 역시 상복을 안 입는단 말입니다. 마트란 부인의 사위—즉 루이자의 남편은 그들이 빠리에서 살 때부터 여러가지 풍문이 돌았는데 그가 공산당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나는 그 집안을 특별히 점찍어놓고있지요.》

《공산당원? 그건 좀 구체적이군. 그들의 집이 크오?》

《여기 집들은 다 같습니다. 방 두칸에 부엌 한칸이지요. 그러나 좀 멀리 있지요. 마을끝 절벽앞에 있습니다.》

《감시초소로는 적당한 곳이군. 자동차를 타시오. 마트란 부인집을 가리켜주오.》

어머니와 딸이 살고있는 집까지는 한키로반쯤 달려야 하였다. 마침내 자그마한 단층집앞에 차가 멎었다. 한쪽벽은 절벽에 바싹 붙어있었다.

《바젤, 당신은 차에 그냥 앉아있소. 꾸르트는 잠간 나오시오.》

헨리흐가 그 집 창문을 보니 할머니의 놀란 얼굴이 피뜩 보였다. 헨리흐는 조용히 말했다.

《꾸르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가 감시하오.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거든 공중에 대고 총을 쏘라구. 절대로 사람을 쏘아서는 안돼. 알겠나?》

《알았습니다!》

헨리흐는 비옷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손잡이를 잡은 다음 문으로 향했다.

서른댓살 되여보이는 녀자가 문을 열었다. 헨리흐는 당장에 그가 따르왈리부인의 동생임을 알아보았다. 헨리흐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녀자는 말없이 도이췰란드장교가 들어갈수 있게 길을 비켜섰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또 두개 있었다. 헨리흐는 가까이에 있는 문을 발로 밀었다. 작은 부엌칸에는 아무도 없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식탁우에는 씻어놓은 식기가 있었다.

(국그릇 세개와 작은 접시 세개군!) 헨리흐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두번째 문을 밀어 열었다. 그가 들어선 방은 넓고 거리쪽으로 창문이 세개 있었다. 창문 반대쪽벽앞에 놓인 안락의자에 할머니가 앉아있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느라고 양말과 뜨개바늘을 들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렸으며 뜨개바늘이 서로 걸려서 자꾸 떼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헨리흐는 방을 지나가 그보다 작은 둘째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에는 침대 두개가 놓여있었다.

《여기서 또 누가 살고있소?》 하고 헨리흐는 젊은 녀자에게 물었다.

《우리 두식구가 삽니다.》

《누가 낮에 침대에서 잤소?》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때때로 침대에서 쉬군 하지요.》

헨리흐는 할머니를 피뜩 보고 인차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한순간 눈을 들어 헨리흐를 보았는데 마치 그 눈은 불타는듯 하였다. 그 시선에는 그렇게도 자기 힘을 알고 끝까지 싸울것을 결심한 사람의 웅심깊은 경멸의 불꽃이 숨어있었다.

《나는 사령부가 있을 집을 구하고있습니다.》

할머니는 두손을 무릎에 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의자등받이에 기대앉았다. 이제는 그의 손가락도 떨리지 않았다. 바로 할머니가 얼어붙은듯이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거대한 긴장성을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렇게 늙고 연약한 녀성이 자기의 흥분을 감추자니 얼마나 어려울것인가. 헨리흐는 몸을 굽혀 그 주름살잡힌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싶었다. 그러나 그가 안드레 레나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며 그 사람을 찾아보내지도 못한 지금 그에게는 아직 마트란 부인을 안심시킬수 있는 다정한 눈짓조차 보일 권리가 없는것이였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할수 없어 그러시나요?》

젊은 녀성은 간신히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분이 울렸다.

《이 집 뒤에 있는 절벽이 감시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방 두칸과 부엌칸을 내놓고 다른 방은 없습니까?》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헨리흐는 주의깊은 눈길로 방을 둘러보았다. 어찌하여 할머니의 안락의자가 저렇게 불편한 자리에 놓여있을가? 창문옆이나 또는 늙은이들이 앉기를 즐기는 아늑한 구석에 놓인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를 가리우기 위한듯 의도적으로 벽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집들이 보통 조그마한 산간마을에서는 한메터도 허수히 하지 않고 거처하는 방으로 리용해야 하는것이다. 벽에는 비밀벽장이 만들어져있었는데 그 비밀은 첫눈에 쉽게 짐작할수 있는것이였다. 값싼 도배지가 문가장자리를 따라 빨리 퇴색해버리는것이다. 이 방의 도배지는 그림과 색갈이 고르로왔다. 그러나 웃쪽과 안락의자뒤는 달랐다. 한번 열어보라고 해볼가?
헨리흐는 급히 앞으로 걸어나가 안락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거기 앉아있던 할머니와 함께 번쩍 들어 한옆으로 옮겨놓았다. 녀자들은 정신을 차릴새도 없었다. 헨리흐자신도 어떻게 권총을 빼들고 왼손으로 벽에 약간 알리는 단추를 눌렀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는 리성으로가 아니라 촉감으로 행동한것이였다.
문이 열렸다. 벽장안에는 한 사나이가 뒤벽에 꼭 붙어 서있었다. …
녀자들은 앗 소리를 쳤다. 젊은 녀자는 절망적으로, 늙은이는 무섭게…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걸어나오더니 자기 몸으로 벽장을 막아나섰다.
《나오시오!》 헨리흐는 늙은이에겐 주의도 돌리지 않고 권총을 약간 높이 올리며 침착하게 말했다.
사나이는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때 젊은 녀자가 달려나갔다. 그는 남편에게로 달려가 그를 두팔로 받들어 방금전에 어머니가 앉았던 안락의자에 조심조심 앉혔다. 그 사나이는 왼쪽다리를 쓰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요?》
《안드레 레나르, 빠리에서 온 기사입니다.》
《어째 숨어있소?》
《통행증이 없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걸음소리가 들렸다.

헨리흐는 거의 떠밀다싶이 해서 레나르를 벽장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안락의자를 벽장앞으로 끌어다놓고 거기 앉아 다리를 뻗고 채찍을 휘두르고있었다.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바젤이 들어왔다.

《장교나리, 전 가도 되겠지요?》 그는 문어구에서 물었다.

《내 련락병을 오라고 하시오!》

바젤은 곧 꾸르트와 함께 들어왔다.

《꾸르트.》 하며 헨리흐는 한마디한마디를 끊어가며 말했다.

《이 사람은 뽄쩨이에서 왔는데 우리는 초면이 아닌것 같소. 내 말을 알겠지? 이 사람을 체포해서 자동차로 데려가시오. 잊지 마오. 목숨걸고 책임져야 하오.》

《장교나리, 좀 무슨 오해가 생긴게 아닌가요!》급변한 사태에 아연실색한 바젤은 우는소리를 하였다. 《저는…저는…》

그러나 꾸르트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밀고자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방을 거쳐 현관으로 끌고나갔다.

《문을 잠그시오!》헨리흐는 루이자에게 명령하였다.

루이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기계적으로 열쇠를 채웠다. 그때 헨리흐는 다시 벽장문을 열었다.

《레나르씨!》하고 헨리흐는 위엄있게 말했다. 《나나 당신에게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선 안됩니다. 부인들은 여기서 기다리게 하고 잠시 저 방으로 갑시다. 부인들을 안심시키고 이 방으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이르시오.》

안드레 레나르는 안해와 장모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 한쪽다리를 끌면서 묵묵히 옆방으로 들어갔다.

《장교어른,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헨리흐는 묵묵히 주머니에서 뽈리 쉐니예의 사진을 꺼냈다.

《알만 합니까?》

극도로 쇠약한 안드레 레나르의 얼굴에서는 근육 하나도 떨리지 않았다. 다만 열렬하게 불타던 눈만이 갑자기 절망적인 피로를 느낀 사람의 눈처럼 흐려졌다.

《당신은 나를 체포하러 왔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런 연극을 합니까? 혹시 당신은 아직도 당신앞에 서있는 내가 뽈리 쉐니예라는것을 아직 결정적으로 확신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죄수번호를…》

안드레 레나르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왼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도전적으로 헨리흐를 보았다. 왼팔 안쪽에 2948이라고 락인찍은 수자가 보였다.

《나는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목숨을 걸고 연극을 하고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그 사진을 내게 준것은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겸해서 한가지 경고해드리고싶은것은 이런 사진이 뽈리 쉐니예수색에 동원된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다 있다는것입니다. 물론 나는 체포할 권리가 있지만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평등한 립장에서 담화하러 찾아왔다는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으시오!》 하며 헨리흐는 상대자앞에 권총을 내놓았다.

《겁내지 말고 잡으십시오. 탄알을 재웠는가 검열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을 방어할수 있게 무장이 된셈입니다. 나는 당신이 땅밑에서 고통을 받는것보다 자유의 몸으로 당장 죽는것을 택하리라는것을 믿습니다.》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는게 낫습니다!》

《돌로레스 이바루리가 그렇게 말했지요!》

안드레 레나르의 입술에 처음으로 미소가 잠간 어리였다. 그는 마치 상대자와 악수나 하려는듯 동작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만두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피뜩 어리였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째서 그 군복을 입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비밀공장에 대해서 알자는것입니다!》

《그 자료가 우리 인민을 해하는데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것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담보는 건전한 리해력에 있습니다! 나나 당신보다 더 잘 알고있는 도이췰란드지휘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 질문이 너무나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는 내가 대답하고싶어도 할수 없을수도 있지 않을가요?》
《당신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하고 안드레 레나르는 마치 소리내서 생각을 하듯이 사색에 잠겨 말했다. 《이 자료가 사실 도이췰란드사령부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원쑤에게 필요한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필요한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른다하더라도 하여튼 친구에게 필요하지요.
내가 모든것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 모든것은 도이췰란드사람을 반대하여 사용될것이며 거기서 고생하고있는 그 불행한 사람들이 구원될수도 있는것입니다.…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나를 잡아갈것이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가 알고있는것을 알아내지 못할것입니다.》
《당신은 론리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늦장을 부립니다. 잊지 마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며 나도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로 옹근 한개 부대가 올수 있습니다. 모든 구역이 개별적부대들간에 분공되여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과 평화롭게 담화하고있는것을 보기만 한다면…》
《잠간 기다리십시오. 당신에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지요. 나의 탈주를 누가 조직했는가를 알아내자는것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당신께 묻지 않겠습니다!》
《음… 이 이상 나에게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것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방의 문이 열리고 문턱에 레나르와 도이췰란드장교가 나타났을 때 두 녀자는 동시에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눈으로 묻는것이였다. 어떻게 되였는가?
안드레 레나르는 즐겁게 빙긋이 웃었다. 도이췰란드장교도 빙긋이 웃었다. 그제야 비로소 긴장했던 기분이 확 풀어졌다. 루이자

는 남편의 목을 그러안고 울음을 터치였다. 기진맥진한 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도 팔도 다 떨렸다.

《부인들께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일은 아니였다는것을 저의 유일한 변명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결과는 원만히 된것 같습니다.》

헨리흐가 흥분해서 말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무례하게 행동한것을 용서하세요. 그만큼 기쁨이란 더 말할수 없습니다. 저는 장교님을 원쑤로 맞이했는데 이제는 친구로서 함께 잠시 앉아주십시오.》

《그 청을 들어드리고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예견했던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럽니다. 더우기 그 바젤이란 비렬한 놈이 자동차에 있다는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놈을 쎈－레미까지 데리고가서 안드레씨가 아주 안전한 장소에 몸을 피할 때까지 거기 붙잡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루이자가 이미 련락을 취했으니까 오늘 밤이나 정 늦어서 래일에는 나를 데리러 친구들이 올겝니다.》

《아까 드린 권총은 그냥 쓰십시오. 그건 예비로 가지고다니던것입니다. 당신에게 소용될것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돈을 드리지요.》

《일없습니다. …》

《그것도 역시 필요될겝니다. 그것도 특수한 무기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우리의 상봉에 대해서, 우리의 담화내용에 대해서 비록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알아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나의 처와 장모에 대해서도 보증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와 함께 포도주 한잔 안 드시고 가신단 말입니까? 시간이 촉박한것은 나도 짐작합니다만 한모금 드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아야 합니다. 저의 련락병은 범인을 감시해야 하니까요. 더구나 밤이 돼서 술을 들면…》

《그럼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늙은 부인은 그 나이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운 빠른 걸음으로 농짝으로 달려가더니 무슨 상자를 꺼내왔다. 그안에는 아마도 기념품들을 넣어두는 모양이였다. 정성들여 묶어놓은 누렇게 퇴색한 편지들이며 아마도 결혼식때 쓰던 장갑 등속이 들어있었다.

그 상자 맨밑에서 마트란부인은 잘 길들인 오랜 물부리를 꺼냈다. 부인은 그것을 손에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더니 그것을 헨리흐에게 공손히 내놓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있는 물품중 가장 귀한것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이 물부리는 나의 아버지의 유물입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용감한분이였으며 꼼무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바리케트에서 용감하게 투쟁하시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념품으로만이 아니라 신성한 유물로 보존하겠습니다. 마트란부인님께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례절을 차리지 않고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입맞추듯 그렇게 부인께 입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헨리흐는 진중하게 말했다.

헨리흐는 주름살이 조글조글한 할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언제 자기 부친의 얼굴에 이렇게 할수 있겠는지!

《당신이 그 언제인가 이 늙은 프랑스의 녀인에 대해서 자기 어머님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아들처럼 축복하더라고 꼭 전해주시우.》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을 돌려주신데 대해서도.》하고 루이자는 조용히 덧붙여 말했다.

헨리흐는 현관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작별합시다. 안드레!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겝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저 친구로 알아주시오.》

《그러면 안녕히, 친구!》

안드레와 헨리흐는 포옹하고 입맞추었다.

헨리흐는 쎈－레미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차를 몰았다. 지하공장에 관한 그런 중요한 정보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때에 1분1초

도 헛되이 보낼수 없었다.

《그래, 오늘 성과가 있었소?》 헨리흐가 려관에서 밀레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유감스럽게도 기뻐할건 없소. 그저 성과라면 나를 저격한 마키놈을 붙잡은것밖에 없소.》

《그놈이 어디 있소?》

《꾸르트가 당신께 데려갔소. 틀림없다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며칠동안 가두어두었다가 공포를 느끼게 한 다음에 심문을 해보오.》

《나한테 걸리면 자백할게요!》 밀레르는 자신있게 송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 며칠후 폭격기자동조준장치에 쓸 광학기구의 비밀에 대해서 함정골에서 수천키로메터 떨어진 곳에서 연구하고있었다.

밀레르는 상금을 받았다

에베르쓰소장은 뽈리 쉐니예의 수색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다만 필요한 수의 병사들과 장교들을 밀레르수하에 내줄 의무가 있을뿐이였다. 수색을 진행하는 부대들은 작전과정에 대해서 사단 참모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거기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수색은 하루, 이틀 끌기 시작하더니 나흘이 지났는데도 뽈리 쉐니예의 흔적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베르쓰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것은 물론 그가 눈곱만치라도 탈주자를 동정해서 그런것은 아니였다.

소장은 쉐니예가 만일 지하공장의 비밀을 밝혀내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조국에 얼마나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것인가를 알고있었다. 탈주자가 에베르쓰의 손에 걸리기만 한다면 그는 주저함이 없이 그를 총살했을것이다. 그러나 에쓰에쓰대원들과 밀레르의 실패는 어느 정도 모욕감을 보상받은 기분이였다. 소장은 자기를 불신임한다는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모욕감을 느끼였다. 그렇다, 바로 뽈리 쉐니예의 탈주가 그의 눈을 틔워주었다. 그 지하공장의 진정한 위치를 그에게는 아직도 비밀에 붙이고있는것이였다. 수색작업을 위하여 자

기에게 방조를 달라고 오는 지금까지도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고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멸시였으며 모욕이라기보다 부당한 일이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도이췰란드군대의 대집단이 포위된것을 알게 된 잊지 못할 그날 밤 제출했던 휴가신청에 대한 회답이 도착하였다. 그 회답에는 《프랑스에 배치된 사단들에 추가적인 곤난이 생긴 정세하에서》 휴가신청뿐아니라 그런 보고를 내는것 자체가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있었다.

그것은 질책으로 들렸다. 그래서 에베르쓰는 그 암시를 리해하지 못한척 하면서 불쾌한 지적을 참아 넘기였다.

동부전선에서 온 소식은 점점 위안이 되지 않는것이였으며 그 사태는 겝벨스의 선전의 설득력을 점차 감소시켰다. 포위당한 군대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달려갔던 만슈쩨인의 타격조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많은 필자들이 글을 썼지만 지금에는 그들이 수치스럽게도 그 타격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포위당한 군대들의 용감성과 견인성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것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할수 있겠지만 에베르쓰소장을 속일수는 없었다.

조국을 구원할 방도를 찾고 행동해야 할 이때에 그는 멀리 떨어진 프랑스의 소도시에 안온하게 앉아 동부전선형편에 대한 모순에 찬 보도를 듣고 만족해야 하는것이였다. 모스크바방송은 북깝까즈와 레닌그라드지역에서의 성과적인 공격에 대해서 보도하고있는데 히틀러사령부의 보도는 전선의 정돈에 대해서 애매하게 몇마디 할뿐이였다.

소장의 모든 생각은 도이췰란드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부에 가있는데 그는 하는수없이 후방에 앉아 《작은 전쟁》을 할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이란 흔히 적측의 손실은 알수 없지만 자기편의 손실은 매일 정확히 계산되는 그런 전쟁이였다. 그런데 그 손실이 나날이 커가는것이였다. 처음에 뽈리 쉐니예의 수색이 시작되던 때에는 사단배치구역안은 평온하였다. 총소리 하나 없고 도이췰란드병사에 대한 마키의 침습도 한건 없었다. 그 평온상태는 영원할것처럼 생각되였다. 마키가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있는 에쓰에쓰부대들의 엄호를 돌파할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숨돌릴 시간은 길지 않았다. 수색

을 시작한 후 사흘되는 날 밤에는 벌써 마키가 16명의 병사와 4명의 장교를 쏘아눕혔다. 또 하루 지나자 지하공장으로 가는 자동차대렬을 습격하였다. 그때부터 마키는 점점 활동을 적극화하였으며 소장은 매일같이 사단배치구역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군단사령관의 주의를 끌지 않을수 없었다. 소장은 변명을 해야 하였다. 그는 한 보고서에서 마키의 활동이 적극화된것을 에베르쓰의 능력이 없기때문이 아니라 동부전선에서의 사건들과 관련되는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쓴 일이 있었다. 사실 그날 소장은 그렇게 쓴것이 쓸데 없는 일이였다고 즉시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으나 온밤 자신에 대한 불만감이 없어지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그 기분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런 때에 군단참모부로부터 상급지휘부의 대표가 내려갈수 있다는 통지가 내려왔다.

다른 때라면 에베르쓰는 상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주었을것이며 그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도 통지하고 손님을 영접할 모든 대책을 취하게 하였을것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만 불만스럽게 상을 찌프리고나서 통지서를 책상서랍에 넣어버리고 참모장이나 자기 부관에게까지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쎈—레미에 도착한것은 단순한 사령부의 대표인것이 아니라 제누쓰자신이였다. 에베르쓰는 그러한 반가운 상봉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제누쓰는 그의 스승이였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그와 견해가 거의 같았다. 그가 조심성이 없는 그의 제자처럼 출판물에 집필을 하지는 않지만 쏘련과의 전쟁전야에 에베르쓰와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할 때 소장과 견해가 같다는것, 특히 두개 전선에서 전쟁하는 조건에서 로씨야를 전격적으로 패망시킬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것을 그에게 암시한 일이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 사무실문턱에 낯익은 그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는 몹시 기뻐하였다. 간단한 공식적인 인사가 끝난후 제누쓰가 극히 우정어린 말투로— 《하루 이틀 휴식하려고 자네한테 왔네. 그러니까 시찰이요, 검열이요 하는것을 조직해서 날 괴롭히지 말라구.》라고 말했을 때 소장의 기쁨은 더 커졌다.

《그럼 휴식을 하실만 한 조건을 기쁜 마음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저의 귀하신 손님이며 스승이신 당신께서 저의 별장에 류숙하실것을 동의하신다면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에베르쓰는 가슴에 손을 대고

절을 하였다.

《그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소. 그러나 혼자 있고싶지 않소. 우리 둘이 있을만 하겠지?》

《만일 2층을 쓰시겠으면 방이 다섯이니까…》

《난 방 둘이면 족하오. 그러나 자네가 옆에 있어야 하오. 나이를 먹으니 각별히 고독감을 느끼거던. 그렇다고 부관하고 있기는 역증이나고…》

제누쓰는 비록 겉보기에는 든든하고 건강해보였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많고 구슬퍼하는 늙은이의 기분이 울리였다. 에베르쓰는 차를 부르려 하였다.

《그만두오. 자네 별장이 멀지 않다는데 걸어가는게 좋겠소. 나는 자동차니, 비행기니 도대체 기계화된 이동방법에 싫증이 났소. 전쟁만 아니라면 일도 없는 어떤 촌구석에 박혀있으면 좋겠소.》

《그러나 지금 눈이 오는데요!》하고 에베르쓰가 말했다.

제누쓰는 넓은 창문을 내다보았다.

《난 이 늙은 뼈를 덥혀보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기엔 한번도 눈이 오는 일이 없는가 했지. 자네 별장이 덥기나 하오?》

《벽난로를 때게 하겠습니다.》

제누쓰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었다. 책도 읽지 않고 화보나 들추군 하였다. 저녁식사때도 손님은 꼬냐크 몇잔 마신외에 아무 술도 마시지 않았다. 료리도 각종이 나왔으나 물고기접시에만 손을 댔다. 이야기도 역시 활기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에베르쓰가 가장 관심있는 문제로 화제를 돌리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소장은 환멸을 느끼였다. 그는 몹시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었으나 제누쓰는 어째 그런지 그것을 회피하는것이였다. 혹시 그는 아직 로독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는것일가? 혹은 새 료리를 가져오거나 접시를 교체하느라고 식당으로 드나드는 접대원이 방해되여 그러는것일가?

에베르쓰는 안락의자를 벽난로가까이에 옮겨놓으라고 이르고 아름다운 접대원을 보냈다. 이제는 손님과 주인만이 남았으며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반대로 벽난로도 방안에 깃든 황혼도, 좋은 려송연도 다 다정한 기분을 돋구었다. 그러니까 제누쓰는 정말 이야기

를 시작하였다.

《게르만, 자넨 동부전선에서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에베르쓰는 솔직한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사람과 자기의 생각을 조용히 이야기할수 있는 대상을 너무나 오래동안 목마르게 기다렸던것이였다.

제누쓰는 그의 말을 꺾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이따금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고있었다.

에베르쓰는 다만 한가지 생각만은 감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이췰란드를 구원할 길은 총통을 없애치우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것을 입밖에 낼수가 없었다.

《자네는 단 하나의 유일한 출로는 서부전선과 아프리카에서 적들과 즉시 정전하는것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그렇게 하자고 안할걸.》

《그건 아직 모릅니다.》

《자네는 한때 헤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었다고 생각하나?》

에베르쓰는 혀끝까지 말이 뱅뱅 돌았으나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문득 또다시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한것이나 아닌가? 사실 제누쓰는 아직 사태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하지 않았다. 제누쓰는 그가 주저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상등병(히틀러를 가리킴.)이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의 체면을 더럽혔기때문에 어떠한 신중한 담판도 하려고 하지 않소. …》

침묵이 닥쳐왔다. 매우 짧은 침묵이였다. 이번에 그 침묵을 깬것은 제누쓰였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오. 나는 물론 자네한테 한가해서 놀러온것은 아닐세. …》 에베르쓰소장의 별장 벽난로앞에서 집주인과 히틀러군대의 가장 년로한 장령들중의 한사람인 제누쓰와 진행된 담화를 한구절만이라도 들을수 있었다면 밀레르는 굉장히 놀랐을것이다.

그러나 에쓰에쓰근무장교는 이때에 쎈-레미에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도이췰란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었다. 몹시 이상한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있는 산간의 강밑에서 그 구원의 길을 찾고있었다.

밀레르가 죄수복을 입은 어떤 낯모를 사람을 쏘았다는 소식은 뽈리쉐니예수색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에쓰에쓰근무장교의 총알이 그 위험한 범죄자를 바로 명중시킨것 같았다. 밀레르자신이 한 말에 의하면 실태는 이러하였다. 그는 어제 저녁때 한 산간마을에서 돌아오다가 도로를 벗어나서 한옆으로 들어갔는데 바위뒤의 떨기나무숲속에서 한사람을 발견하였다. 범인을 만났다는것을 아직 믿을수 없었던 그는 계속 권총을 손에 들고있었다. 그때 바위뒤에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강으로 달려갔다. 밀레르는 미지의 사람을 생포할수가 없었다. 바위가 바로 강기슭에 있었다. 그래서 도주자는 물속으로 뛰여들수 있었다. 이제는 쏘는 길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어스름한 저녁때여서 묘준을 할수가 없었다. 밀레르는 그 범인을 죽였는지 혹은 부상시켰는지 그를 맞히기 위해 자동권총의 탄창을 몽땅 풀어야 하였다. 하여튼 그 범인은 물속으로 곤두박질하더니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즉시 사건현장으로 병사들을 불렀다. 그들은 한메터한메터 작살로 강바닥을 뒤졌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물결이 빨라서 시체가 피살된 자리에서 먼곳으로 흘러내린 모양이였다. 아침이 되자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또다시 수색이 시작되였다. 몇개의 특수수색대를 무어 강의 흐름을 따라 동시에 여러곳에서 수색을 진행하였다. 밀레르는 직접 자신이 모든 수색조들의 사업을 지휘하였으며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서 자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물살빠른 강물은 마치 그들을 조소하듯이 코앞에서 범인을 빼앗아가버린것이였다.

시체의 수색이 엿새째 계속되던 때 장교들은 밀레르가 뽈리쉐니예사건을 물속에 감추어버렸다는 추측을 자주 나누게 되였다.

그러니 이레째 되는 날 시체가 발견되였다는것이 알려졌을 때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즉시에 에베르쓰소장에게 와서 회의때 연설하던 그 에쓰에쓰장교가 사복을 입은 어떤 사람과 같이 쎈—레미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당장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 떠났다.

예비검열에서는 그것이 뽈리 쉐니예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물결이 급해서 시체 특히 얼굴이 돌바닥에 부딪쳐 몰라보게 되였고 물속에 오래 잠겨있었기때문에 몹시 부은 얼굴은 어찌나 기형적으로 변했던지 뽈리 쉐니예의 사진과 대조할 필요도 없었다.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중좌가 가지고온 지문도 소용없이 되였다. 지문 역시 도저히 익사자의 손가락과 대조해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밀레르가 지하공장에서 탈출한자를 쏜것이 사실이라는 한가지 론박할수 없는 증거가 있었으니—그것은 시체의 팔에서 똑똑히 보이는 2948이라는 번호였다. 또한 공장에 감금되여있는 사람들이 입고있는것과 같은 죄수복이 비록 죽은 시체이기는 하지만 범인을 잡았다는것을 확인해줄뿐이였다. 익사자가 입고있는 옷은 헌옷이였는데 공장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뽈리 쉐니예가 도면연구를 시작할 때 의복을 몽땅 새것으로 바꾸어입었다는 사정으로 해서 사복입은 사람은 다소 의문이 생기는바도 있었다. 그러나 밀레르가 탈주자는 여러날동안 산으로, 골짜기로 헤매여다녔다는것을 상기시키였기때문에 사복입은 사람도 동의하였다. 그러한 정황에서는 의복이 헐어질수 있을뿐아니라 산산쪼각이 날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래서 피살자의 신분을 최종적으로 인증하고 공식문건을 작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되였다. 그 성원으로 들어간것은 이미 언급된 에쓰에쓰장교와 사복입은 사람 이외에 밀레르와 사단참모부대표로 헨리흐 폰 골드링이였다.

헨리흐는 침울한 기분으로 위원회의 집합장소로 떠났다. 시체의 수색이 계속되는 이 며칠동안 그는 밀레르에 못지 않게 초조한 나날을 보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뽈리 쉐니예 즉 안드레 레나르라면 어쩌겠는가? 설마 마키가 그를 산으로 빼돌리지 못했단 말인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다! 특히 탈주자가 죄수복을 입고있다는것이 이상하다. 그것은 전혀 리해되지 않는 일이다. 헨리흐가 라—뜨라벨사에서 레나르를 만났을 때에는 안드레가 내복과 잠옷바지를 입고있었다. 혹시 헨리흐가 잘못 본것이나 아니였을가? 줄무늬가 간 바지는 죄수복의 일부로 될수도 있다. 혹시 마키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기때문에 안드레가 급히 빠져나가느라고 옷을 갈아입을새가 없었단 말

인가? 안드레 레나르가 안전한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하여 다시한번 라—뜨라벨사에 가보아야 하였을것이다. 그는 조심하느라고 다시 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인것 같다.

그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슬기롭고 용감한 안드레 레나르가 그것때문에 잘못된것이나 아닐가.

멀리서부터 헨리흐에게는 강기슭에 사람들이 모여서있는것이 보였다. 아마도 위원회성원들이 모여있는 모양이였다. 빨리 가야 하겠는데 다리는 납덩이를 달아놓은듯 무겁고 심장은 무섭게 뛰였다. 아니다, 그는 보통때 같은 태연한 얼굴표정으로 천천히 갈것이다. 그런데 폰 골드링남작은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그가 바로 베르트골드의 아들이라는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성원들은 정말 그를 정중히 맞이하였다. 보통중위라면 도저히 그렇게 존경을 받을수 없었다. 헨리흐가 도착하자 즉시 시체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였다. 헨리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익사자를 들여다보았다. 키는 안드레 키만 하였다. 얼굴은 너무나 상해서 알아볼수 없었다.… 팔에 씌여진 수자는 안드레의 팔에 있던것처럼 2948이였다! 가만있자. 그 수자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겠지! 안드레의 팔에는 그 수자가 팔목쪽으로 치우쳐 찍혀있었고 수자의 모양이 이와는 달랐다. 《2》자는 자그마한 올가미처럼 보였다.

헨리흐는 더 바싹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의 시선은 시체옆으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놓여있는 익사자의 오른쪽팔에 멎었다. 피멍이 들어 손톱안이 거매진 손가락! 라—뜨라벨사의 그 밀고자가 협의자의 명단을 짚으며 말하던 손가락의 손톱이 바로 그랬다. 헨리흐는 그놈을 밀레르에게 넘겨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밀레르는 바젤의 심문결과를 내게 알리지 않았구나!)

헨리흐는 밀레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별로 근심어린것이였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자. 공연히 다른 위원회성원들도 밀레르가 걱정하는것을 눈치챌수 있다!) 이런 생각이 헨리흐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띠우고 그날의 주인공에게로 다가갔다.

《소좌님, 쉐니예수색이 성과적으로 끝난것을 진정으로 축하합

니다!》
밀레르의 눈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사라지고 입술에는 즐거운 미소가 어리였다.
바로 그날 장교식당에서는 점심식사전에 그 에쓰에쓰중좌가 비록 생포하지는 못했으나 탈주자를 잡은 밀레르에게 상금 5천마르크를 수여하였다. 위원회의 공식조서는 이미 베를린 총참모부로 발송되였다.
《한스, 한턱 내지 않겠나?》 헨리흐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장교식당을 함께 나오면서 밀레르에게 약간 야유하는 어조로 말했다.
《내구말구! 아마 내가 빚진게 많을거야. 몇번인가 잔돈을 꾸어쓴게 있었는데 다 갚았는지 모르겠어. 남은게 있으면 어서 일깨워주게!》
밀레르는 5천마르크를 받은 후이라 기분이 좋았다. 전에는 한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꾸어쓴 돈까지 다 물어줄 생각이였다.
《난 그런 세세한 계산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네. 우리사이에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네. 마지막빚을 제외하고는…》
《그게 얼마던가?》 밀레르는 침착하게 물었다.
《내가 입을 다문것 말일세.》
밀레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이 당장 새하얗게 되였다.
《걷자구, 걸어가세. 한스! 우리야 친구간인데 친구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되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뽈리 쉐니예대신으로 바젤을 밀어넣은 당신의 기지와 재간에 그저 감탄할뿐일세!》
헨리흐가 끼고있는 밀레르의 팔꿈치가 떨리였다.
《고백하네만 내겐 그런 재치있는 솜씨가 모자란단 말야!… 한스, 조금도 걱정말라구! 그 흔적이 없는 쉐니예를 수색하느라고 산으로 돌아다니는것이 나도 이젠 역증이 났네. 그 불쾌한 일을 면하게 해준것만 해도 난 대만족이야.》
《여보게 헨리흐,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말해줄수 없겠나?》
《그건 비밀이야, 한스!》
밀레르는 마치 생각을 더듬는듯 말이 없었다.
《나도 다 털어놓고 말해야겠네. 헨리흐, 당신한테 관련된 한가지

비밀이 있는데 말할가?》
《어서 말해주게나!》
《당신과 직접 관계된건 아니고 당신이 마음에 있어하는 모니까아가씨 문제야. 우리가 확증한데 의하면 무기를 실은 군용렬차습격이 있은 전날 모니까는 본빌로 갔거던. 거기 몇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단 말일세. 우리가 조사한데 의하면 기차로 오지는 않았네. 그뿐아니라 당신 련락병 꾸르트 슈미트가 렬차번호와 본빌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알고있었네. 이 두가지 사실을 놓고볼 때 당신은 의심되는바가 없나?》
헨리흐는 잠시 생각한 후 유쾌히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한스! 당신네 에쓰에쓰부대가 앞으로도 그렇게만 사업한다면 내가 아무리 베르트골드에게 당신을 옹호해나서도 상부의 호의를 받을수 없을걸세.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해준 그 비밀에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해주기 바라네. 본빌로 떠나기 이틀전에 모니까아가씨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무기명전보를 받았단 말이요. 에쓰에쓰부대에서 그 전보의 발신자를 알아내기 힘들다면 내가 정확히 말할수 있소. 헨리흐 폰 골드링이였소! 바로 그 골드링이 아가씨가 본빌에 도착한 후 두시간 지나서 자기 자동차를 타고 쎈－레미방향으로 떠났는데 그 뒤좌석에는 손님 한사람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녀자손님 한사람이 타고있었네. 그 녀자손님이 다름아닌 모니까아가씨였네. …그 비밀의 더 상세한 내막이야기야 알 필요가 없겠지. …》
헨리흐는 그 순간 너무도 아연해서 노여워하는듯 한 밀레르의 얼굴을 보면서 껄껄 웃었다.
《하여튼 매우 감사하오, 그 말을 해주어서. 만일 나때문에 모니까아가씨에게 불쾌한 일이라도 생기면 내 립장이 딱하단 말이야. 정말 감사하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주니 기쁘오. 여보, 헨리흐! 에쓰에쓰로 넘어오지 않겠나! 당신만 한 능력이 있고 련계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출세할수 있네!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일을 더 잘할수 있을것같소. 동의만 한다면 나도 좀 힘을 쓸수 있소!》
《나두 이미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에 필요되는 인내성이 내게는 부족하단 말일세. 특히 나에겐 성격상 적지 않은 결함

이 있는데 물론 아직 젊은탓이라고 하지만 결함은 결함이란 말이요. 당신에게니까 한가지 비밀이지만 말하겠네. 난 고운 녀자에겐 쪽을 못 쓴단 말일세.》

그제야 밀레르는 웃었다.

《직업을 바꾸면 당신께 방해가 될가 해서 그러나! 헨리흐, 오히려 그 반대야! 어떤 녀자이건 당신마음에 들기만 하면 아무 수고도 없이 당신거로 된단 말이요. 꽁무니를 따라다니느라고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어. …》

《생각해보겠네, 한스. 솔직히 말해서 그 비밀보다 당신의 그 권고가 훨씬 더 고맙네.》

《아, 나에겐 또 한가지가 있는데 아마 당신도 놀랄거야. 내 방으로 가자구. 그럼 자넨 내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란걸 믿게 될걸세.》

그들은 묵묵히 골목길로 들어섰다. 거기엔 나무가 우거진 정원속에 독립가옥 한채가 있었는데 에쓰에쓰부대가 거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자기 방에 들어서자 밀레르는 금고를 열었다. 금고선반에서 서류묶음을 꺼내더니 그속에서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찾아내서 헨리흐에게 내밀었다. 헨리흐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받아들고 우편국일부인에 눈길을 돌렸다.

《몬떼플레르? 당신께 몬떼플레르에서 편지가 왔단 말인가? 그렇지, 한스?》

《그 도시에 당신의 친구가 있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소.》

《읽어도 좋소? 물론 그리 긴 편지가 아니라면.》

《반장밖에 안되오.》

헨리흐는 의아한 기분으로 봉투에서 네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을 펼치면서 우선 이름을 보았다. 그러나 편지는 무기명편지였다. 미지의 발신인은 골드링이 도이췰란드군대편으로 넘어오던 정형을 다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가 《철권》작전계획과 혹시는 《푸른산보》작전까지도 로씨야사령부에 전한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말하고있었다. 편지의 필자는 골드링의 신분을 다시한번 검열할것을 제의하는것이였다.

헨리흐는 발신날자를 보았다. 편지는 그가 리옹으로 떠나기 며칠전

에 쓴것이였다. 그러니까 그가 샴베리려관에서 당한 검열이 이 편지와 관련된것이 분명하였다.

헨리흐는 그 편지에 관심을 가지는듯 한 눈치를 밀레르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편지를 다시 읽지 않았다. 그의 훈련된 눈은 이미 필적의 특징을 포착하고있었다. 어쩐지 매우 눈에 익은 필체였다!

헨리흐는 밀고자료를 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수 있었다.

《감사하오, 한스! 하여튼 흥미있소. 아마 이 편지의 필자는 매우 어린 사람갈군. 이걸 베르트골드가 보았다면 좋지 않을번 했소. 당신한테니까 말이지만 그는 유모아의 기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오. 그는 이 편지를 직접 자기를 반대하는 자료로 생각할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그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거요.》밀레르는 당황한듯 눈을 껌벅거렸다.

《그럼 야단인데! 사실 난 이 우스운 무기명편지를 웃음거리로 보고 당신한테 한번 보여주자고 보관하고있을뿐인데! 그래 지금 당신과 함께 웃어버리자는걸세. …》

소좌는 어찌나 빨리 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서 무기명편지를 불태워버렸는지 헨리흐가 막을새도 없었다.

《공연히 그랬소, 한스! 이렇든저렇든 문건인데!…》

《아무데도 등록되지 않은걸세. 우리는 망원에게서 받은 자료만 등록하지.》

《그래도 안됐소! 그 필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는데 우린 그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였으니! 이젠 손님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지 않겠나? 사실 당신은 몇밤을 잠도 못 자고 그 일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그런 말 말게, 헨리흐! 난 당신과 함께 있는게 항상 기쁘네. 나는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고있는가 하는 증거를 보일수 있었으니 매우 만족히 생각하네.》

《나 역시 그렇소!》

집에 돌아오자 헨리흐는 슐쯔소좌가 선물로 준 사진—지도를 배경으로 찍은 다니엘소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을 급히 꺼냈다.

그러나 헨리흐는 사진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우에 써놓은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무기명편지의 필자의 필적과 소좌의

필적을 대비해보았다.

그렇다, 잘못 볼수 없었다. —그 밀고는 헨리흐가 생각했던대로 바로 슐쯔소좌가 쓴것이였다!

헨리흐는 선고를 집행한다

《귀여운 처녀야, 정말 처신할줄 모르누만! 자기 신랑감이 술을 마시자구 찾아왔다는걸 잊지 말란 말이야. 이미 결혼한지 10년이나 되는듯 한 눈으로 날 보니 난 이 술병을 그 머리우에 내동댕이치겠소.》

《프란수아, 어떻게 그렇게 보통때처럼 롱을 해요! 말씀하세요. 류드비나가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때 오나요?》

모니까는 본빌에서 자기 사촌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흥분을 숨길수가 없었다.

《생글생글 웃으라구… 술도 좀 마셔보라구…벌써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하기 시작했소. 식당으로 들어온것이 잘못이였어. 아니, 더 좋을수도 있지! 지금은 정말 머리속에 사랑만 가득찬 처녀같구만. … 어째서 류드비나가 바로 이런 때 오는지 그게 놀랍단 말이지. 그건 왜냐하면 강점자와의 진짜 전투비슷한것이 마침내 시작된 모양이요! 그러니까 본빌과의 련계를 정상화해야 하오.》

《통행증이 있나요?》

《나도 모르지. 류드비나 제ㄲㄲ 도착. 그를 마중할것—내가 아는건 이것이 전부요.》

《몇시 차인가요?》

《오늘 16시 20분차요.》

《좋아요, 내가 마중나가겠어요.》

《나하구 둘이 갑시다. 그러나 따로따로 갑시다. 나는 역홈에 나가서 오른쪽에서 보겠으니까 모니까는 왼쪽에 서있소. 류드비나를 먼저 본 사람이 그와 알은체는 하지 말고 인차 그옆에 따라서기로 합시다. 둘째사람은 2～3분 기다리다가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가를 감시하면서 뒤로 따라갑시다. 정거장뒤로 가면 류드비나를 마중한 사람이 그에게 랭차매점옆에 멈춰서라고 신호를 합시다. 아무에게도 의혹

이 가지 않도록 두사람의 려객이 나타나 물을 마시느라 서있는것처럼 합시다. 감시하던 사람은 옆으로 지나가게 합시다. 뒤따르는자가 없다는것이 확인되였을 때에는 한데 휩쓸립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눈에 뜨이면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알았지요?》

《매점에서 류드비나와 물을 마신 사람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험성이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가면 되오. 그 이상 류드비나에 대해서 걱정할게 없소, 그 근방에 우리 사람들을 붙이겠으니까. 내가 적당한 지시를 주겠소.》

《기차가 도착하기 십분전에 정거장으로 나가겠어요.》

《이르오. 16시 19분에 도착하시오. 역홈에서 동무를 보게 할 필요가 없소. 화보를 사려고 정거장에 나온것처럼 하시오. …이젠 악수를 합시다, 진짜 애인들이 하듯이. 그리군 난 달려가겠소. …》

프란수아는 처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손을 오래동안 잡고있었다. 그리고 모자를 흔들며 문밖으로 사라졌다. 모니까 역시 손을 흔들며 비록 지금 웃을 경황은 없었으나 미소를 띠였다.

처녀는 본빌에서 헨리흐에게 사촌언니라고 했던 류드비나 제끄끄가 도착하는것이 몹시 걱정되였다. 그렇게 뜻밖에 오게 된 리유가 무엇일가? 더우기 게스타포가 본빌로 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통행증을 발급하고있는 지금에? 류드비나도 다른 모든 려객들과 같이 게스타포들이 증명서를 검열하는 동안 역전광장에서 아마 몇시간동안 서있어야 할것이다 . 그 검열이 어떻게 끝날는지 누가 알랴? 그를 이리 보낸 사람은 임무의 중요성만 보고 그렇게 모험적인 길을 떠나보냈을것이다. 더우기 모니까가 류드비나에게 편지를 보낸 후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그 편지는 남이 보기에는 집안일에 붙잡혀있는 두 부인이 주고받는 보통편지같이 보였을것이다. 모니까는 그때 편지에 썼다. 쎈—레미에는 눈이 전에없이 많이 내린다, 그리고 찬바람이 몹시 불어서 식량 구하기도 어렵고 물건값이 또다시 올랐다. 이 편지내용은 이런것이였다. 쎈—레미에서는 전에없이 체포해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빨찌산활동이 적극화되였다, 지금 쎈—레미로 오는것은 위험하다. …

그러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드비나가 이리 파견된것이였

다! 그가 매우 중요한 일때문에 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지금은 사태가 어찌나 급변하는지 매일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군 한다. 로씨야군대가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도이췰란드군대를 포위한 그때부터 모니까와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라지오를 들었다. 아침에는 도이췰란드사령부의 보도를 듣고 밤이면 파장이 잘 잡히기만 하면 런던방송국의 프랑스어방송을 들었다.
지금까지 모니까와 따르왈리부인은 쏘련을 알수 없는 나라일뿐아니라 전혀 리해할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였다. 녀자들은 말하기를 《거기서는 모든것이 우리 나라와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으며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 이 수수께끼같은 로씨야가 알려지지 않은 먼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된것이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니까의 가슴속에 프랑스와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되게 되였다. 모니까는 로씨야사람들에게 빚을 진것처럼 느끼였다. 그리고 그 빚을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보물—난공불락의 정신력에 대한 사랑, 경탄, 존경으로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 위대한 군대에 자기도 합세하고싶은 진정으로부터의 희망으로 보상하였다.
로씨야의 광활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소식을 처녀는 주의를 집중해서 한줄한줄 읽어나갔다. 모니까는 프란수아에게 배워서 신문기사의 뒤생활을 읽는 법을 이미 알고있었다. 이러저러한 주민지점을 방어한 도이췰란드부대의 특별한 영웅주의에 대해서 쓰고있다면 그것은 로씨야군대가 그 도시를 해방하였거나 적어도 포위한것이고 미리 준비된 진지로 계획적인 후퇴를 했다고 보도하였을 때는 히틀러군대가 모든것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모니까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로씨야를 알기 위하여 이곳 쎈—레미에서 구할수 있은 유일한 책이 놓여있는 서가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군 하였다.
그것은 똘스또이에 대해서 쓴 로만의 책이였다. …안드레아저씨가 이 책을 언젠가 그의 집에 잊어버리고 두고갔을 때 그 책은 그 누구도 읽지 않은채 따르왈리부인의 불필요한 물건들, 깨진 액틀, 옛날 모자들, 떨어진 문손잡이, 어렸을 때 입던 모니까나 쟌의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큰 광주리속에 끼여 다락방에 들어가있었다. 그 잡동사니속에

서 무엇인가 찾아내다가 모니까는 그 책을 우연히 만나게 되였으며 이 귀한 보물을 자기 방으로 가져다 한 인간의 정신을 통하여 전체 인민의 정신을 알아내자고 온밤 열심히 읽었다. 처녀에게 있어서 로만이 쓴 내용을 리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모니까는 사실 똘스또이의 책을 한줄도 읽어본 일이 없었으며 다만 로만의 사상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천재적인 예술가로서 일생을 진리탐구를 위한 힘겨운 투쟁에 바친 한 인간의 위대성앞에 머리를 숙였다. … 그런데 그 똘스또이는 어찌하여 악에 대한 무저항에 대해서 쓸수 있었겠는가?

모니까는 악에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짓누르려 할것이다. 왜냐하면 악의 편에는 대포도 폭탄도 자동총도 수용소도 폭압도 교활성도 인간에 대한 잔인한 행동도 다 갖추어져있다. … 그러니까 그 위인도 과오를 범했구나! 그러니 알프스산록에 자리잡은 소도시에 살고있던 어린 처녀인 그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신비하게 생각하고있던 로씨야사람에 대해서 읽을 때 그의 가슴은 웬일인지 뛰는것이였다. 사실 그 나라의 인민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것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인민은 자기 억압자를 반대하여 그를 격퇴하였으며 지금은 손에 무기를 잡고 자기 생명, 자기의 정의를 방위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모니까는 이따금 책을 펼치고 똘스또이의 초상화를 한참동안 들여다보군 하였다. 모니까에게 향해진 그 이상한 시선은 그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 준엄하고 예리하고 명철하며 요구성이 강한 시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안한 기분을 낳게 하는것일가? 그 시선은 아마도 생존시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작용하였을것이다. 그 시선은 정의를, 진리를 요구하였으며 만일 그가 진리로 가는 길을 잘못 택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탐구하고 끝장을 낼것을 호소하였다! 아마도 정의에 대한 그 갈망—이것이 로씨야사람들에게 특이한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투쟁에서 그렇게 불굴의 기상을 보여준것이 아닐가?

모니까의 가슴속에는 그러한 갈망이 없단 말인가. 그 갈망이 이렇게 이미 오래동안 그를 모대기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모니까에게 있어서 전에는 모든것이 얼마나 명백하며 단순하였던

가. 행복하게도 그는 프랑스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여났다. 그는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였으며 자기 인민, 자기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였다.

…처녀에게 있어서는 인민이라든지 프랑스라는 개념은 한품에 안기에는 너무도 아름찬 개념이였다. 그런데 자기가 로씨야에 대해서보다 프랑스에 대해서 별로 더 아는것이 많지 못하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프랑스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그랬다.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라발리, 위쉬의 정부가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배반하고 원쑤앞에 굴복한 가증스러운 레베끄가 있으며 또 프란수아, 안드레아저씨, 쟌과 같이 히틀러와 그 도당에게 정복되지 않고 원쑤와 싸우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간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사람들중에도 두개의 진영이 있고 두개의 프랑스가 있는것이 아닌가? 혹시 두개가 아니라 그 수가 더 많을수도 있는것이 아닐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조국의 혜택을 더 적게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시를 떠나 마키를 찾아 갔을가? 거기서 모든 재부를 창조하던 사람들—포도원을 가꾸고 산에서 가축을 먹이고 공장에서 일하고 높은 산경사지에 도로를 닦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마키를 찾아갔다. 그들의 로력으로 배를 불리던자들, 쥐새끼처럼 굴속에 숨어있다가 부근에 아무도 없을 때면 이따금 기여나와 자기의 애국주의에 대해서, 조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뇌까리는자들… 가령 히틀러도당이 쫓겨갔다고 하자. …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목동은 자기 가축에게로, 석공은 자기 채석장으로, 포도재배자는 포도원으로 돌아갈것이며 로동자들은 또다시 기대앞에 허리를 굽히고 일할것이다. 그러나 그 쥐새끼들은 굴에서 기여나와 인민의 몸을 갉아먹을것이며 새 상점과 공장을 개설하고 최신류행의 멋쟁이자동차를 사들일것이 아닌가! 그들의 도시에는 또다시 배가 나오고 까다로운 료양객들이 나타날것이다. 그래서 모니까의 아름다운 프랑스는 모든것이 예전대로 될것이다. 아름다운 나라…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믿는가?

모니까! 어린시절 티없이 맑은 꿈이 흩어져버렸을 때 그대는 얼마나 괴로왔던가. 그러나 그러한 모대김속에서 그대의 새로운 정신이 태여났으니 사실 그대는 그 누구와도 의논할수조차 없었다. 프란수아와 의논하겠는가? 그러나 항상 바쁜 그에게 세상물정을 모르는 처녀의 머

리에서 떠오른 생각을 바로잡아줄 시간이 있겠는가? 보통때와 같이 롱을 하고말것이다. …

모니까는 그래도 프란수아를 찾아갔다. 그런데 모니까가 놀란것은 그가 이번에는 전혀 롱을 하려고 하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정세는 발전되였으며 모니까에게는 오랜 불안한 밤이 끝나고 해빛찬란한 새날을 알리는 붉은 노을이 먼 지평선우에 불타오르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혹시 류드비나가 이번에 중요한 소식을 가져올수도 있지 않을가? 사실 류드비나를 파견한것은 전체 마키를 지도하는분이다. 물론 프란수아는 모니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모니까도 어린애는 아니였다. 스스로 짐작할수 있었다. 사촌언니에게 본빌을 떠나는 렬차번호와 시간을 알리기만 하면 군용렬차가 전복되지 않았는가. 류드비나가 그 소식을 즉시 책임적인분에게 알렸을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류드비나가 그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가지고 올것이다. 아마 프란수아는 그 내용을 알고있겠지만 그는 아직도 모니까를 소녀로 치부하고있다. 모니까가 중요한 작전에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몇번이나 부탁한 일이 있었으나 그는 웃기만 하고 지금하는 일만 해도 기대했던것보다 더 큰일을 하고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프란수아는 헨리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이미 모니까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한번은 도이췰란드사람들중에도 많은 반파쑈운동자들이 있다는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헨리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류드비나가 어떤 임무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지금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벌써 기적소리가 들린다. 기차가 들어서는 그 순간에 정거장에 당도하기 위하여 빨리 걸어야 한다.

모니까는 왔다갔다 하고있는 게스타포들에게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중심출입구 왼쪽에 있는 신문매대로 가까이 갔다. 그는 신문을 사고 매대에 놓인 화보를 들고 마지막페지에 있는 봄계절에 류행되는 옷차림사진을 주의깊게 보고있었다.

기차가 들어와 멎었다. 모니까는 순전히 녀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부인들의 옷차림을 보느라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살펴보는듯 한 태도를 취해야 하였다.

그런데 류드비나는 몇번째 차칸에 탔을가? 아, 저기 창문으로 그의 얼굴이 피뜩 보였다.
류드비나가 저기서 나온다. 그는 류행식으로 지은 연한 색의 화려한 외투를 입고 금발에 잘 어울리는 작은 검은 모자를 쓰고있었다. 아릿다운 부인이다. 누가 생각하랴. 그가… 아니, 저게 웬일인가?
모니까는 펼쳐든 잡지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 우로 류드비나를 보았다.
그렇다… 게스타포가 한놈은 오른쪽에, 한놈은 왼쪽에, 셋째놈은 뒤에 있다.
류드비나는 체포되였구나! 저걸 프란수아가 보았을가? 보았다면 왜 달려가서 도우려 하지 않을가?
모니까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류드비나의 경계하는 준엄한 눈길에 마주쳤다.
게스타포의 호송을 받으며 류드비나는 공무출입구쪽으로 사라졌다.
체포된 류드비나가 모니까옆으로 지나갈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눈앞은 그냥 뱅뱅 도는것이였다. 처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신문매대벽에 몸을 기댔다.
《집으로 가시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오!》프란수아의 성난 속삭임이 마치 먼데서 들려오는듯 그에게 들렸다.
모니까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다.
려관앞에서 프란수아가 모니까를 따랐다.
《난 뒤문으로 들어가겠소.》 그는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문안으로 사라졌다.
모니까는 모든 일이 무서운 꿈만 같았다. 자기의 자그마한 요새인 자기 방에 들어선 모니까는 악몽같은 환상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사실이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된 프란수아가 의자에 앉아있었다.
《프란수아, 우린 류드비나를 구출할수 없나요? 우리 편이 사람이 많은데 게스타포를 습격해서 그를 빼내오자요!》 처녀는 격정을 참지 못해 말했다.
프란수아는 쓰거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이요. 몸짓도 걸음걸이나 눈길도 절대로 부주의해서는 안되오! 류드비나의 체포는 우연적인것이요. 그러나 놈들이 그의 뒤를 밝혀낼수도 있는 일이요. 그러니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추어야 하오. 자기가 가지고있는 일체 서류들과 물건들을 조사하시오. 극히 사소한것때문에 아주 심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본빌에 갔다온 기차표는 없애치웠소? 들가방안의것을 몽땅 꺼내서 다시한번 검열해보오. 나를 찾으려면 앞으로 잡화상 점원을 통해서 련락을 취하오. 만일 나도 잡혀가면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그에게서 받소. 내가 그에게 지시를 주겠소. 모니까에 대해서 고발한다면 두가지밖에 없을거요. 본빌에 갔다온것과 나를 만난 일 말이요. 그러나 나와의 상봉은 자연스러운것이요, 나는 신랑감이니까. 본빌이 문제된다면… 그것도 다 내탓으로 밀어버리오, 말하자면 내가 질투를 하기때문에 골드링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본빌로 갔다왔다고. 그 사람은 그걸 확인해줄거요. 사실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내 생각엔 그가 성실한 사람 같소. 우선 침착해야 하오! 누워 쉬시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놈들이 류드비나를 고문하겠지요?》

《그자들은 류드비나도 나도 당신도 누구나 닥치는대로 고문할수 있소. 그러나 그들이 모조리 다 죽이지는 못할것이요. 우리는 우리 행동의 목적을 알고있으니까, 그렇지 않소? 내가 이런 말을 한것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한거요. 난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소. 난 모니까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겠소!》

모니까는 프란수아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 역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모든 은혜를 갚는거예요. 전…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동무가 나를 믿으셔도 된다는 그것이예요!》

《알겠소. …》 프란수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모니까가 혼자 남게 되자 그의 용기는 간데온데 없어졌다.

눈앞에는 류드비나의 얼굴이, 가증스러운 게스타포놈들옆에 연한빛 류행식외투를 입고 서있는 그의 단정한 모습이 떠올랐다. 류드비나를 구원할수 없단 말인가? 그가 교형리들의 손에 죽어야 한단 말인가? 모니까는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꼈다. 아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순 없다. 행동해야 한다. 우선 편지를 다 없애치워야 한다. 사진도 다시한번 보고 들가방에 있는것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본빌에 갔을 때 뼈로 만든 머리빈침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상점의 광고가 찍힌 포장지에 싼대로 있었다.

프란수아 말대로 사소한 일때문에 큰일을 칠수 있다.

본빌에 갔다온 기차표는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숨겨야 한단 말인가? 혹시 기차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어디서 묵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헨리흐의 호실에 있었다고 하자. 사실 그때 려관의 문지기가 그를 찬찬히 보았으니까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댈수 있을것이다. 헨리흐가 사촌언니와 모니까가 만난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주도록 미리 말해두어야 하겠다. 이렇다저렇다하고 다 이야기할것도 없이 사촌언니가 모니까에게 오다가 체포되였는데 무슨 오해때문인것 같다고 말해버리면 될것이다. … 류드비나가 어떻게 되였는지 밀레르에게 물어봐달라고 헨리흐에게 부탁해볼가? 친척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것이야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

모니까는 그길로 현관으로 달려가 헨리흐의 호실이 있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문을 두드렸다.

《모니까, 웬일이요?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손도 얼음장같구.》

그렇게 변한 모니까를 보자 헨리흐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니까는 대답도 못하고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뜨거운 헨리흐의 손이 차디찬 모니까의 손가락을 꽉 쥐여주었다.

그 든든한 손은 몹시도 믿음직하게 생각되였다. 그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 진실을 다 말한다면 그는 류드비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줄것이다!

《헨리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것은 당신께 말씀드릴만 한것이 아닐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어요. 본빌에서 보신 일이 있는 저의 사촌언니가 체포되였답니다. 여기 정거장에서요. 저를 찾아오는 길이였어요. 저도 언제 체포될지 모르겠어요. 어째서냐구 묻지 말아주세요! 이건 저의 비밀이지만 선생님을 믿고 말씀드리는것이예요. 그러나 그이상 아무것도 말씀드릴수 없어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절 도와주실수 없을가요?》

헨리흐는 처녀의 손가락을 어찌나 세게 쥐였던지 자칫하면 소리를 칠번 하였다.

《모니까, 내가 할수 있는껏 다해보겠소. 그리고 난 아무것도 묻지 않겠소. 그러나 이번 일에서 방향을 옳게 잡을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겠소. 당신을 게스타포에서 의심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겠소?》

《만일 그들이 제가 본빌에 갔다온것을 안다면 사촌언니와 만난것이 문제로 될거예요.》

《그들은 갔다온것을 알고있소. 그러나 내가 모니까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온것이라고 밀레르에게 말했더니 아마 그렇게 믿고있는것 같소. 그 점에서는 나에게 물어보라고 하오. 그러나 밀레르가 당신이 본빌에 갔다온것을 무기를 수송하던 군용렬차에 대한 마키의 습격과 결부시켰다면 나는…》

모니까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 말씀을 리해할수 있어요. 감사해요, 헨리흐! 그런 경우엔 제가 선생님의 방에 있었다고 말하면 되겠지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꾸르트가 펠드네르와 담화한것을 나에게 전할 때에는 내 방에 없은것으로 해야 합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그 사촌언니문제는… 그가 모니까를 끌어넣을수 있습니까?》

《그이가 저에게로 오기 위해 떠났거던요. …》

《알겠소. … 사촌언니의 이름이 무어요?》

《그가 어떤 이름으로 이곳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그를 부르기를…》하고 모니까는 잠시 주저하였다가 말을 이었다.

《전 선생님을 믿어요. 헨리흐, 그의 본명은 류드비나 제끄끄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다른 이름을 가졌다면 이 이름을 잊어주셔야 해요.》

《려관주인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려관주인의 친척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구실을 붙일수 있을가?》

《안돼요. 류드비나는 우리 친척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군. 그러나 하여튼 알아보도록 힘쓰겠소, 성공하겠는지, 못하겠는지 자신은 없는데.》

《그이가 죽으면 어쩌나요. 구출할 희망이 설마 전혀 없을가요? 문제가 저 한사람에게만 관계되는것이라면 제가 직접 게스타포에 찾아

가서 폐를 써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오, 모니까! 이렇게 약속합시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기다리시오. 절대로 아무데도 나가지 마시오. 식당에도 나가지 마시오. 류드비나 제끄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문제가 제기되였는지 내가 알아봅시다. 알아내는 차제로 즉시 알려주겠소. 그러나 인내성이 있어야 하오. 밀레르와 비밀리에 만나야 하기때문에 저녁때가 되여야 그렇게 할수 있거던, 알았지요?》

모니까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자그마하고 약간 거치른 손을 말없이 내밀었다. 헨리흐는 몸을 숙여 그 손에 불을 댔다.

《이 작은 손이 근심에 싸여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할수 있는 아니, 불가능한 일까지라도 해보겠소.》

모니까가 나간 후 헨리흐는 꾸르트를 불러 꼬냐크 여섯병, 레몬사탕을 따르왈리부인에게 부탁해서 차에 실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상급중위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내 혼자 가겠소. 지금은 좀 자야겠소. 어쩐지 몸이 좀 불편하구먼.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여덟시까지 날 깨우지 마오. 내가 떠난 후에는 숙소로 가서 휴식하오, 난 늦게야 돌아오겠으니까.》

《알았습니다!》

헨리흐는 저녁때 머리가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들수 없었다.

모니까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잠을 쫓아버린것이였다.

(이 문제에 참견할 권리가 내게 있는가?)

그는 몇번이고 다시 자문하였다.

본빌에서의 폭발사건이 있은 후 골드링은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있었다.

그는 지금 그 명령을 위반하려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찌 이 문제를 명령만 가지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사실 그자신도 자기의 정체가 더 오래동안 폭로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어느 사람보다도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사실 사람들은 폰 골드링남작을 전적으로 믿고있기때문이였다.

그가 모험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극단한 경우에나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의 머리우에 위험이 닥쳐왔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만일 류드비나가 견디여내지 못하고 모니까에게 가는 길이였다는것을 자백한다면… 밀레르가 이미 협의를 가지기 시작한 바로 그 모니까에게로…

헨리흐는 모니까가 게스타포의 손아귀에 걸려들수 있다는것을 생각만 하여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안된다! 그것을 허용할수는 없다! 더우기 그 올가미를 조인것은 자기가 아닌가? 무기를 실어오는 군용렬차에 대해서 모니까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본빌로 가지 않았을것이며 류드비나 제끄끄를 만나지도 않았을것이며 지금 아무 일도 없을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 무기가 지정된 장소로 가는것을 원치 않았기때문에 모니까를 통해서 마키에게 미리 알릴수 있은것이였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였은즉…

헨리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 그는 어째서 그걸 당장에 생각하지 못했을가! 모니까가 군용렬차에 대해서 알수 있은 유일한 원천은 바로 그, 헨리흐 폰 골드링인것이다! 모니까가 체포된 후 즉시 그가 공식적인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는 신임을 잃게 될것이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더 돌리기 시작할것이다. 그러면 정탐일군으로서의 그의 사업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헨리흐는 일생에 처음으로 그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쳐오고있다는것을 느끼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는 응당 간섭해야 하며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나서서 류드비나 제끄끄를 구출해야 한다! 꾸르트가 정각 여덟시에 문을 두드렸을 때 헨리흐는 마치 연회에나 가는 사람처럼 옷차림을 다하고있었다.

끄냐크술병들이 이미 자동차에 가있는가를 확인한 후 헨리흐는 운전대에 앉아 몇분후에는 밀레르의 거처로 갔다. 보초는 통행증을 보자고도 하지 않고 차를 통과시켰다. 그들은 골드링상급중위가 자기네 사람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밀레르는 사무실에 혼자 있지 않았다. 중위군복을 입은 젊고 잘생긴 장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인사하오 헨리흐, 내 부책임자 자우겔중위요. 휴가를 갔다 돌아왔소. 내가 말한 일이 있지.》

《있구말구. 칭찬두 많이 하였지. 지금까지 당신과 만날 기회를 못

가진것이 매우 유감스럽소, 자우겔중위!》

중위의 두볼은 처녀들의 볼처럼 발그레하였다. 곱슬곱슬한 금발이며 푸른빛 큰 눈이며 애티나는 볼록한 입술이 처녀와 비슷하였다. 중위의 턱만은 뾰죽하고 지내 길다란것이 얼굴의 전반적균형을 깨뜨렸기때문에 곱게 생기기는 하였으나 불쾌한 인상을 주는것이였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손님이 우리한테 날아들었나? 정말 여기 찾아올 행복한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소?》 하며 밀레르는 두손으로 헨리흐의 손을 잡으며 수선을 떨었다.

《난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거나 적어도 하루건너씩은 만나는게 습관이 됐는데 장교식당에서 점심때 당신을 만나지 못한지 사흘째나 되오. 그러니까 내가 온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소홀히 했다는것을 설명해주는거란 말이요!》

《남작, 그래서 화가 났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다 알고있지 않소? 그런데 지금 일이 어찌 밀리는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을 정도니 왔다갔다 할새도 없소.》

《그건 내가 지금 찾아온것이 방해된다는 암시요?》 헨리흐의 얼굴에는 분명 실망의 빛이 어리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난 모처럼 만나 이야기나 하자구 꼬냐크까지 몇병 가지구 왔는데.》

《여보 남작! 그래그래 내가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구? 우리야 친구간인데 무슨 례절이 필요하겠나. 자우겔, 문을 잠궈주오. 그리고 나를 찾지 못하게 지시를 주오. 그래, 그 도깨비술병들이 어디 있나?》

《차에 있네. …이리 가지고오라구 하라구. 거기 있는 레몬하구 사탕을 싼 꾸레미두 가지고오라구 하오. …》

《대단한 예견성이군! 이제 부관에게 말하지… 그런데 좀 여기서 하긴 무엇하군. 자우겔, 근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을 위한 일이니 다 내 방으로 가져가세. 내가 준비를 다하는 동안 헨리흐는 잠간 여기에 있소!》

밀레르는 그가 게스타포에 머무를 때 침실로도 식당으로도 쓰는 옆방의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큰 쏘파가 있고 식탁과 찬장이 있었다.

《련락병이 시중들지 않는게 좋지. 그래야 더 은근하지.》 하고 밀레르는 술잔과 접시를 차려놓으면서 말했다.

《그게 좋소. 남이 없는게 좋아. 난 오늘 별루 술이 당길것 같은데 이런땐 무서울게 없다니.》

《더 말할게 있나, 즐거운 일이란 없단 말이요…》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혔으니 무슨 심심풀이할게 있나, 위안거리가 있나. …》

밀레르는 두가지 뜻으로 빙긋이 웃었다.

《모니까아가씨가 있지 않나? 벌써 싫증났나?》

《어디 싫증날새나 있나! 지내 정직해서 틀렸거던. 우리 관계를 지나치게 보자구하니 탈이란 말이요. 그 아가씨와는 탄식도 하구 한숨도 쉬는 전주곡이 없으면 안된단 말이요. 난 로골적으로 녀자꽁무니를 따라다니고싶지는 않소! 당신도 아마 알겠지만 나에게는 약혼녀가 있는데 얼마후에 반지를 교환하게 되여있단 말이요.》

자우겔이 들어와서 술병을 상우에 놓았다. 밀레르는 만족한듯 입맛을 다시였다.

《그렇다면 첫잔을 당신의 약혼녀를 위해서 듭시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 미래의 남작부인이?》

《로르헨 베르트골드야!》

《베르트골드소장 딸입니까?》 하고 자우겔이 반문하더니 말을 이었다. 《훌륭한 배필이군!》

중위의 푸른 눈은 자기자신이 베르트골드의 딸과 결혼을 하기나 하는듯 빛났다.

밀레르는 점잖게 헨리흐를 축하하였다.

《미래의 남작부인 로르헨을 위하여!》

밀레르는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남작, 이젠 하는수없이 우리 직장으로 넘어와야 할걸세. 당신이야 소장과 2중으로 맺어져있으니 당신을 위해서라면 소장이 무엇을 아끼겠나. 이 말은 오랜 첩보일군이고 출세하는 법도 약간 알고있는 당신의 친구가 하는 말일세!》

《밀레르님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셋이 모이면 얼마나 일하기 좋겠는가 상상해보십시오!》 하고 자우겔도 지지하였다.

《한스와 이미 그 말이 있었소. … 한잔씩 더 부읍시다. … 잔이 비여있으면 좋지 않소. …한스가 이미 그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난 자

신이 없다고 했소. 난 재간이 부족한게 걱정이 되오. 게스타포의 사업은 특별한 재간이 필요하단 말이요. 타고난 재간이라 할수 있는것이 말이요.》

《당신 말도 옳소.》 하며 밀레르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계속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엔 우리 부문의 사업에는 당신보다 더 훌륭한 후보자를 구하기는 어려울거요. 더우기 당신의 양아버지인 미래의 장인이 당신께 많은 방조를 줄수 있을것이니까. 례컨대 류쯔 같은 사람은 우리 부문에서 일하기 힘들거요. 그 사람은 지내 마음이 약해…》

《밀레르님이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작님! 저를 례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게스타포에서 일한지 3년밖에 안되는데 만일 내가 지금 일자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는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벌써 얼근히 취한 자우겔이 속심을 털어놓았다.

꼬냐크는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우겔의 두볼의 홍조는 더욱더 진해졌으며 그의 푸른 눈도 흐리멍텅해졌다. 밀레르는 아직 취하지는 않았으나 목깃을 헤쳐놓았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자꾸 훔치군 하였다.

《자우겔은 타고난 예심원이요.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심문을 해서래두 꼭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오. 이렇게 표현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심문의 시인이요.》 하고 밀레르가 다짐하였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령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령감이란것은 매일 찾아오는것이 아니라면서.》 헨리흐가 한마디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 사업, 우리 취미의 진미를 모르시는겁니다. 바로 그 사업도 령감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이 꼬냐크와 같이 나를 취하게 합니다. 아니, 거짓말이지요! 보통 취하는것과 인간에 대한 자기의 완전한 권세를 감촉하는데서 오는 그 섬세한 쾌감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순박하고 너그러운척 하고 피심자에게 인자한 사람같은 인상을 주었다가 바로 그의 코앞에서 탕하고 한번 을렀다멘단 말입니다! 급격히 전술을 바꾸어서 피심자를 아연케 만들며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빌며 소리치며 손에 입을 맞추군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 그러한 순간에는 정말 자기를 초인간으로 느끼게 되지요.》

《금발머리협잡군!》 하며 밀레르가 취해서 소리치며 웃었다.

《오, 내 하느님처럼 모시는 니체! 그는 우리들, 도이췰란드사람을 유치한 리상주의로부터 구출하였습니다. 초인간을 위하여서라면 수백,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도 싸지요! 남작님, 어째 그렇게 날 보십니까? 하—하—하—! 당신은 보통사람과 초인간을 구분하는 계선을 넘는것을 겁내십니까!… 심문을 한두번만 해보면 당신이 보잘것 없는 노예로가 아니라 진정한 귀족정신을 가지고 태여난이상 그것을 힘들지 않게 확신하게 될것입니다!》

자우겔은 점점 더 취했다. 그의 금빛도는 머리는 흩어졌으며 눈에도 피기가 오르고 매끈한 손의 긴 손가락들은 경련적으로 주먹을 쥐였다가는 다시 천천히 풀리군 하였다.

헨리흐는 그 귀족정신의 머리를 술병으로 치고싶은것을 겨우 참았다.

《그래 내 권고를 접수하겠소, 헨리흐?》하고 자우겔이 취중에 수다를 떠는데 싫증이 난 밀레르가 물었다.

《아버지와 의논해봐야겠소. 만일 그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우리 셋이서 나를 에쓰에쓰로 보내주도록 에베르쓰소장을 설복시킬수 있을것 같소.》

《베르트골드님이 동의할뿐만아니라 축복까지 해주리란것은 틀림없소! 자, 그의 동의를 위하여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서 빨리 여기 쎈—레미에서 남작부인 로르헨 골드링을 뵙게 될 날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하면서 밀레르는 잔을 들었다.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지 못할것 같아서 근심이요! 우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잔치를 하기로 결정했소. 그러나 약혼식은 나의 약혼녀의 생일날인 2월초에 하게 될거요.》

《그래, 당신은 계속 안또니와 같이 처신하겠다는것을 나에게 설복시키려는거요?》 밀레르는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제발 그렇게 날 생각하지 말아주오! 고운 녀자를 막아내기 위해서 사실 거룩하게 놀아야겠소. 그러나 약혼을 했다는 조건이 조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단 말이요. 자네한테니까 말하지만 장난질하는것도 숨겨야 한단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숨길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쎈—레미에서는 하는수없이 그런 생활규범을 지켜야 한다니까…》

자우겔은 자기 상관에게 몸을 숙여 그의 귀에다 대고 무어라고 소근거렸다.

밀레르는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안또니씨, 좀 심심풀이를 해보지 않겠소?》하고 그가 문득 물었다.
《글쎄, 경우에 따라…》
《여보 자우겔, 그 본빌에서 온 프랑스녀자 심문이 끝났소?》
《둘째 단계입니다.》 자우겔은 딸꾹질을 하면서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모르겠는데.》
헨리흐가 따져물었다.
《자우겔은 심문방법을 연구했다오. 그 방법에는 세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이미 아까 말한 내부공작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외부적단계이고 셋째 단계는 그 두가지를 종합한 단계라오.》하고 밀레르가 웃으며 설명했다.
《그래 그 방법을 쓴 결과 어떻소, 자우겔씨? 그 녀자가 자백을 했소?》
이렇게 묻는 헨리흐는 자기 목소리가 떨린것을 감촉하고 기침을 해서 얼버무렸다.
자우겔은 불만한듯 상을 찌프렸다.
《아직은 안했지만 그까짓건 걱정할게 없소. 이제 둘째 단계로 들어갔을뿐이니까. 오늘… 그걸… 그걸 무어라 하더라? 옳지! 그가 오늘은 꽃을 보았을뿐이지만 래일은 열매맛도 보여야지! 그 맛을 보기만 하면 당장에 왜 왔으며 누구에게 왔는가를 토해놓을테니까.》
《그러나 그 녀자에게 죄가 없을수도 있지 않소?》
《여보, 헨리흐!》하고 밀레르가 끼여들었다.
《당신은 미래의 우리 동료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오. 게스타포에 일단 왔던 사람은 저세상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가야 하오. 그런데 수용소가 가까이에 없으니까 남은것은 저승으로 가는 한길밖에 없소. 내가 자우겔이라면 그 녀자 문제를 질질 끌지 않겠소. 나는 한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있는데 프랑스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쑤도 적어진다는 그것이요. 그 녀잔 사실 애무하지 않고 내버리기는 아까워— 아주 곱거던.》
《고운 녀자라면서 내게 한번 보여주지도 않소?》
《자우겔, 남작말이 옳아. 명령을 하라구!》
자우겔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가더니 사무실문을 열고 직일관에게

소리쳤다.

《류드비나 제꼬끄를 데려오시오!》

헨리흐는 흥분이 극도에 달했음을 느끼였다. 두뇌는 열광적으로 움직였다. (내가 그 녀자에게 반한척 하자. 그 녀자와 둘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다음에는 정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 그러나 어떻게? 여기서 탈주를 시도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저 두놈에게 심심풀이를 하기 위하여 저 녀자를 데리고 자동차놀이를 떠나자고 할가? 아마 그것이 유일한 출로인듯 하다. 그러나 저자들을 더 흠뻑 취하게 해서 세상모르게 만들어놓아야 한다! 자우겔은 비슷이 그렇게 되여가는데 밀레르는 아직…)

헨리흐는 비틀거리는척 하면서 팔꿈치로 자기 술잔을 상에서 떨구어 깨뜨려버리고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고뿌를 요구했다. 풋내기 대학생들이나 꼬냐크를 술잔으로 마시지 우리에겐 격에 맞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다.

밀레르 역시 자신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더니 큰 술잔 세개를 가져다놓고 찰찰 넘게 술을 부었다.

자우겔은 자기 몫을 단숨에 다 들이켰다. 밀레르는 취해서 걸걸대며 자기도 단숨에 큰잔을 내보려고 했으나 기침이 나서 숨이 막힐번하였다.

《제길할, 눈앞에서 온통 모든게 떠도는것 같구나.》 그는 머리를 두손으로 싸쥐며 신음하였다.

《나두 눈앞에서 무슨 동그라미가 얼른거리는데.》 하며 헨리흐는 취한체 하면서 웃었다. 그는 자기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럴듯하게 없애치웠다.

발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자동총수가 젊은 녀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 녀자는 찢어진 내의바람이였으며 추워서 떨고있었다.

왼쪽어깨로부터 가슴으로 피가 배인 줄이 보였다.

자우겔을 보자 그 녀자는 문쪽으로 뒤걸음질치더니 전신이 당장 긴장해지는것이였다. 그러나 돌같이 되여버린 얼굴에서는 근육 하나 떨리지 않았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있는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으며 그 녀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사선을 넘어서고있는듯 하였다.

그 녀자의 큼직한 갈색눈에는 침착성이 어리여있었다.

자우겔은 일어서려고 하다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그의 흐리멍텅해진 눈은 한순간 류드비나 제꼬끄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부— 부인, 앉으시오! 내가 당신 오라고 한것은 심문하려는게 아니라 저… 추도식에 오라고 했소. 자신의 추도식에 부인을 초청한것이 매우 친절하며 응당하지요.》
녀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우겔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방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은듯 했다.
《아, 당신 싫단 말이요!》 중위는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였으며 한걸음 앞으로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찬장모서리에 팔꿈치를 몹시 부딪쳤다.
《어구구…》그는 모진 신음소리를 내더니 불깃하던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면서 거의 의식을 잃은것 같았다.
밀레르는 자우겔에게로 달려가 두손으로 그의 어깨를 둘러잡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저 녀자때문에 애먹을게 없다구! 절벽으로 데리고가라구!》 그리고 밀레르는 손가락을 튕기며 총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렇지, 그렇지. 절벽으로, 절벽으로!》
자우겔은 두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웨쳤다.
밀레르는 비틀거리면서 사무실로 가더니 잠시후 무슨 책을 들고 돌아왔다.
《자, 등록부야. 수표하라구!》
자우겔은 재빠르게 만년필을 쥐더니 책에다 써나갔다. 헨리흐는 류드비나 제꼬끄라는 성명이 있는 란에 《사형을 집행하였음. 자우겔.》이라는 글이 씌여진것을 보았다.
《한스!》하고 헨리흐는 밀레르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다. 《잠간만!》
밀레르는 헨리흐와 함께 약간 상에서 물러섰다.
《당신한테 청할게 하나 있소. 한스, 그 집행을 내가 할수 있게 해주구려! 당신네 자우겔은 그걸 못할건 뻔하지 않소. 저 녀자가 내 마음에 들거던. …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 안또니가 유혹에 견디질 못했군. 마음대로 하오! 마음껏 심심

풀이를 하구려!》 밀레르는 너나들이로 말투가 달라지면서 말을 이었다. 《여기 있을라나, 자네 집으로 데리고 갈려나? 하여튼 한사람에게라도 눈에 띄게 해선 안되네!》

《마음 놓으라구, 난 뒤문열쇠를 가지고 다닌다네.》

《아침전으로 다 끝장을 내야 하네! 자우겔, 집행장소를 알려주라구. 저런 벌써 잠이 들었군! 그럼 내가 이야기해주지. 이 골목에서 나가 곧게 가면 강우에 서있는 바위가 정면에 보이네. 녀자를 절벽가에 세우고 쏘거나 밀치면 누가 거기서 없어졌는지 귀신도 모르네. 강물에 시체가 멀리 남쪽으로 떠내려가면서 강바닥에 부딪쳐서 형편없이 변모하니까…》

《알았네. 그럼 저 미인을 자동차에 데려가라고 명령하게. 그리고 무얼로 둘러싸주라구. 자네와 한잔 더 마실 동안 자동총수보구 좀 지키라구 하게. 자, 부으라구. 난 손이 떨리거던…아마 습관이 안돼 그런거야.》

《아, 첫번엔 언제나 그런거라네!》 밀레르는 헨리흐의 어깨를 너그러운 기분으로 툭 치면서 말했다. 《일없어, 인차 익숙해져!》

밤 세시였다. 려관에서는 이미 다 자고있었다.

헨리흐는 남모르게 류드비나 제끄끄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녀자는 도중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층층대를 오를 때도 몽유병자처럼 발밑을 보지도 않고 란간을 잡지도 않고 걸었다.

방안에 들어서자 그 녀자는 마치 잠이 깬듯 하였다. 헨리흐는 그날밤 처음으로 그 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러운 놈!교형리보다 더 가증스러운 놈!》하고 류드비나는 웨쳤다.

증오와 격분을 이기지 못해 그는 비틀거렸다. 그러나 헨리흐가 부축해 앉게 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뜻하지 않는 강한 힘으로 그를 물리쳤다.

《접근하지 말아, 난 죽음으로 항거할것이다!》

《좋소, 난 가까이 가지 않겠소. 그러나 하여튼 앉으시오. 내 당장 모니까아가씨를 불러오겠소. 그가…》

《난 모니까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다 설명해줄것이요.》

《다시 말하겠다. 난 모니까아가씨가 누군지 모른다!》
《그럼 내가 일깨워드리겠소. 본빌에서 당신께 군용렬차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었고 오늘 정거장에서 당신을 맞이한 그 처녀 말이요.》
《여기엔 한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은 없으며 나를 맞이한 사람도 없다.》
《좋소, 그럼 이제 검열해봅시다.》
헨리흐는 전화가까이 가서 번호판을 돌렸다. 아마도 전화를 기다리고있은 모양으로 인차 송수화기를 들었다.
《모니까, 즉시 내 방으로 와주오.》
침착하게 말하는 이 말을 들은 류드비나는 두눈앞에 당장에 안개가 가리워지고 심연속으로 빠져들어가는것 같았다.

장례식같은 약혼식

《1월 25일부터 열흘간 휴가를 얻었음. 2월 4일에 뮨헨에 도착할것. 아버지.》
이것은 초대라기보다는 차라리 명령을 련상시킨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의 전보를 참모부에서 받고 그 자리에서 소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에베르쓰는 전보를 읽으려 하지도 않았다.
《알고있소! 그저께 베르트골드의 전화를 받았소. 그래서 당신께 휴가를 주기로 약속했소. 그러나 휴가를 닷새이상 주기는 곤난하오. 우리가 처해있는 정세를 아버님께 잘 설명해드려서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주오. 아마 여기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못지 않게 알고계시겠지만. 다른 때라면 나는 한달이래도 휴가를 줄 용의가 있소. 그러나 지금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서 또다시 뮨헨으로 떠나게 되였다.
이번 려행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은 밀레르뿐이였다.
헨리흐는 류쯔에게도 베르트골드의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있었다.

사실 대위는 때로 대다수의 장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견해와 의견이 달랐다.

《그럼 잘 갔다오게, 헨리흐. 자네 아버님께 가면 우리 신문이나 라지오에서 나오지 않는것도 알수 있을걸세. 모든걸 씨원히 알았으면 좋겠거던. 두더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땅굴만 파는데는 싫증이 났소.》

출발을 앞둔 며칠동안 바삐 지냈다.

새로 건설된 영구화점도 접수하고 샤베리에 봉서를 전달하는 등 약간의 사소한 시끄러운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뽄쩨이에 갔다와야 하였다.

헨리흐는 일이 바빠서 모니까와 한번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모니까는 류드비나 제끄끄 일이 다 원만히 되였고 지금은 안전한 곳에 가있다는것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온것이였다. 모니까는 류드비나때문에와 헨리흐 일로 너무 걱정하다가 원만히 풀리게 되여 이제는 행복에 젖어있는듯 했기때문에 헨리흐는 뮨헨에 갔다오겠다는 말을 차마 그에게 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이상 숨길수 없어서 떠나는 전날 저녁에는 작별하게 될것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려관식당에 들렸다.

따르왈리부인은 그를 만나자 책망부터 하였다.

《골드링어른, 벌써 사흘째나 우리 식당 문턱도 넘지 않으시니 섭섭하오! 우리가 너무 걱정만 끼치고있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지만…》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부인! 오히려 난 부인께 공연한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지요. 지금은 식료품문제가 전보다 몹시 긴장하지요. 필요한것을 제한없이 우선적으로 받고있는 장교식당주인도 불평이 대단한걸요.》

《그래도 내가 식당문을 닫지 않은 이상 그럴수 있소? 아무리 식료품이 긴장하다 해도 중위님을 위해서야 그래도 차려놓을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내가 부인님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인님과 모니까아가씨와 또 며칠동안 작별하게 되여 여간 섭섭하지 않군요.》

《그래 또 떠나십니까? 언제 어디로 가시나요?》 모니까는 흥분을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얼굴은 당장에 수심에 잠겼다.

《래일 아침에 뮨헨으로 떠나오!》
《또 뮨헨으로!》
《이번엔 닷새밖에 안되오. 다행히도 소장이 그 이상은 나를 놓아줄수 없다 하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들리셨군요.》 하며 모니까는 노여워하였다.
《난 오늘 저녁에 놀러와도 좋은가 허락을 받자고 들렸다오, 이젠 만난지도 하도 오랜것 같아서.》
그러나 그날 저녁 헨리흐는 모니까와 만날수 없었다. 뜻밖에 류쯔가 찾아온것이였다.
《헨리흐, 자넨 어째서 전통을 위반하나? 떠나는 전날 저녁에야 친구와 지내기로 되여있지 않는가?》
《물론 송별야회를 조직해도 무방하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가 시기인만큼 적당치 않을것 같아서 말이야, 칼! 전선의 사정이 그닥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소.》
《로골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형편없지. …》
《난 벌써 한달이나 멍청해서 다니고있다네. 나는 마치 계속 기만당하던 머저리가 문득 모든것을 알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드오. 그러니 내가 믿었던것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에게 믿을것을 강요했던 모든것이 환영이였으며 꼭두각시놀음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된 때와 같아.》
《쓰딸린그라드의 사변이 자네에게 그렇게까지 작용했단 말이요?》
《그것은 다만 나의 의혹의 과정을 촉진시켰을뿐이요. 전세계를 정복하리라던 도이췰란드, 유럽을 굴복시키리라던 도이췰란드가 30만의 자기 정예부대를 구원할수 없었단 말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나? 파산일세! 우리 사령부는 마치 불붙는 아궁에 장작을 밀어넣듯 포위된 군대에 지원을 보내고있소. 우린 쓰딸린그라드부근에 새 사단들과 군단들을 보내고있소. 그러나 그들은 불속에서처럼 정말로 다 타버린단 말이요. 잘되는 경우에라야 불구자, 타박상환자, 정신병자를 태운 긴 군용렬차가 거기서 돌아올뿐이요! 아, 골치아픈 일이요!》

골드링과 류쯔는 전선형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자기의 친구가 그렇게까지 사기가 떨어진것을 보지는 못했다.

《여보 칼! 오늘은 내 방에서 자고 가오. 저녁도 함께 먹고 이야기나 합시다. … 내 아직 모니까아가씨와 작별인사도 못했는데 그도 청합시다. …》

《내가 여기 있으면 방해되지 않겠나! 사실 나는 생각이 복잡해서 혼자 있기가 무섭네!》

《자네가 동의한다면 모니까에게 전화를 걸어서 먹을것이래도 가져오게 하세.》

헨리흐가 이렇게 말하고 송수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뜻밖의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밀레르와 자우겔이였다.

《마침 잘 만났군! 친구들한테 인사도 없이 뮨헨으로 뜰 작정인가?》 하고 밀레르는 문턱에 서서 웨쳤다.

《보는바와 같이 마침 당신들한테 전화를 거는중이라니…》 하고 헨리흐는 거짓말을 하였다.

《내 그러지 않던가, 자우겔. 이렇게 불쑥 들어서도 일없다구! 류쯔씨도 마침 와있군요! 참 잘되였군! 넷이서 놀면 더 즐거울게니까. 아가씨도 부르는게 어떨가? 녀자가 끼워야…》

헨리흐는 류쯔에게 급히 눈길을 돌렸다. 류쯔는 그 뜻을 인차 알아차렸다.

《상급중위의 부탁을 받고 그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아가씨를 초청하러 갔댔네.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해 누워있더군. 오늘 저녁엔 순전히 남자들끼리만 놀아야 할것 같네.》

헨리흐는 하는수없이 불청객들과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을수 없었다.

헨리흐가 아무리 밀레르나 자우겔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저녁식사를 밤늦게까지 끌었다. 모니까와 만날것은 생각도 할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잠간 모니까에게 들리기는 하였으나 작별은 공식적인것으로 되고말았다.

모니까는 헨리흐에게 우연히 손님들이 왔다는것을 믿지 않았다.

헨리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자기 약혼녀한테로 떠났다. 출발하기

전에도 그랬고 기차를 탄 후에도 첫시각에는 로르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뮨헨으로 떠나는 목적까지도 잊어버리려 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피할수도 있었다. 모니까의 약간 노기를 띠인 슬픈 얼굴이 그의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사실 모니까는 그에 대해서 노엽게 생각할만 하였다. 그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가지 않았다거나 해서 그런것은 아니였다. 헨리흐는 그가 로르헨에게 가서 놀아야 할 연극을 모니까에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마치 남모르게 슬며시 떠난것이 괴로왔다. 그러나 자기와 베르트골드의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겠는가? 원인을 모르는 모니까는 그의 행동을 정당하게 볼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는 입밖에 낼수도 없는것이였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것은 그의 앞에 모니까가 나타났기때문이며 그가 모니까와 그에게 닥쳐온 위협성을 제때에 알아내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이젠 늦었다, 이젠 늦었다.… 이젠 늦었어!》 기차바퀴소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도 류쯔나 다름없이 혼자 있기가 무서웠다.

헨리흐는 의지의 힘으로 생각을 돌렸다.

차라리 로르헨이 괴롭히고있는 불쌍한 처녀들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것은 적어도 격분을 불러일으킬것이며 격분은 항상 증오심을 움직여놓을것이다. 그는 자기 약혼녀며 남작의 칭호를 악마에게라도 보내버릴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랴. 그러나 그는 애인의 배역을 놀아야하며 로르헨을 돌보는척 해야 하며 베르트골드의 긴 사설을 인내성있게 들어야 하며 엘자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르헨의 손가락에 약혼반지를 끼워주어야 한다. 녀성포로들에게 채찍을 들던 그 손에…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느니 누워서 잠이나 청해보자, 침대칸 호실에 아무도 들여놓지 않도록 차장에게 돈이나 집어주고 아침까지 잊어버리자.

헨리흐는 이튿날 새벽에 뮬가우젠이라는 자그마한 국경도시에서 잠을 깼다. 그는 거기서 기차를 바꾸어타기 위하여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헨리흐는 가방을 짐보관소에 맡기고 거리로 나갔다. 차칸이 무더워 머리가 무겁던 후이라 미리 정해놓은 행로가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서 랭랭한 대기를 들여마시는것이 기분좋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헨리흐는 이 산보에 싫증이 났다. 그는 육체적인 피로를 느낀것이 아니라 이 거리가 우울하고 불친절하게 느껴진것이였다. 텅 비인 거리들, 특히는 주위를 지배하고있는 심상치 않은 정적이 이상한 인상을 주었다. 외로운 길손들—주로 부인들과 아이들은 이따금 간단한 토막말을 주고받으면서 묵묵히 근심에 싸여 어디론지 서두르고있었다. 학생아이들까지도 자그마한 늙은이들처럼 굴었다. —롱하는 소리, 웃음소리, 보통아이들의 웨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11시에 헨리흐는 시장기를 느끼고 식당간판이 눈에 뜨이는 곳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식당안은 거의 텅 비여있었다. 단 한사람의 손님은 맥주 한조끼를 놓고 졸고있었으며 접대원처녀는 매대앞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새 손님이 들어오는것을 보자 접대원은 급히 다가오더니 우선 식량표가 있는가 물었다. 한참 걸려서 식량표를 떼내더니 그다음에야 장교님께서 아침식사를 청하겠는가고 물었다. 그렇게 묻는것은 접대원처녀의 습관에 의한것이였다. 그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식당에는 이것저것 선택해 주문할것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식사는 닭알 두알, 통졸임, 맥주 한고뿌와 커피 한잔—이것이 아침식사의 전부였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도중식사를 가지고 떠나라던 따르왈리부인의 말을 듣지 않은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통졸임은 어쩐지 의심스러워보이므로 손도 대지 않았다. 맥주는 통에서 떠주었으며 커피는 접대원이 예고한대로 대용품이였다. 닭알을 다 먹었으나 헨리흐는 아직 시장기를 느끼였다. 그가 커피를 마시자고 할 때 그의 눈길은 식당에 있는 또 한사람의 손님에게 돌아갔다. 그 손님은 예순댓 되여보이는 로인이였다.

그는 취해있었다. 한때는 푸른빛이였으나 이제는 늙어서 생기를 잃은 두눈에 악의를 품고 헨리흐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입술은 경멸적인 조소로 이지러지고있었다.

《장교님, 마음에 안드십니까?》 하고 우습게 물어보며 한옆에 밀어놓은 맥주와 통졸임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더 좋은걸 잡수시겠단 말이지요? 내가 말씀드리지요. 없어요! 당신들에겐 이것도 과분해요!》

늙은이는 채 마시지 않은 맥주고뿌를 들고 헨리흐에게 가까이 옮겨

앉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란히 서있는 식탁에 이웃하고 앉아있었다. 늙은이의 갈린 숨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이 도이췰란드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던 곳은 대체 어딘가요? 십년이상이나 나는 그 천국을 기다리고있지요.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과 함께 〈도이췰란드, 가장 높은 도이췰란드!〉하고 웨치던 그때부터 말이요. 내가 그때 천치놀음을 한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이 뜨겁소! 당신들을 믿다니! 어떻게 그렇게 대포를 놓소! 당신들, 우리들—이 두주먹밖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평범한 도이췰란드 사람에게 약속한 그게 다 어디 있는가 말이요?》

헨리흐는 의자등에 기대앉아 로인의 말을 흥미있게 들었다.

《당신은 이렇게 아침식사냄새를 맡아보고나서 밀어놓는구려! 냄새가 나쁜가요? 이런데 습관이 안되였나요? 나는 우리 집 엠마에게 닭알 한알 가져다주지 못하는걸 아시나요? 그걸 아십니까? 당신들은 전세계를 약속했는데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살리는가 말이요. … 당신들은 오스트리아를 강점했소. 그것을 위해서 몇개의 경찰부대면 충분했소. 당신들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점령하였소. 그것이 당신들의 머리를 돌게 하였단 말이요! 당신들은 로씨야에 접어들었소! 당신들은 그 땅과 곡식이 탐이 났겠지? 그런데 내 훸무트는 어디 있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디 있는가 말이요? 내가 겁을 낼가 두려워 그럽니까? 난 당신한테 침을 뱉고싶소! 당신들은 나의 단 하나의 아들을 빼앗아갔소. 지금 나의 안해가 죽어가고있소. 당신은 다른 부모들의 아들들이 볼가강가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하였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으려는거요? 왜 날 그렇게 보오? 날 잡아가시오. 묶어가란 말이요! 그러면 도이췰란드국내의 원쑤를 잡은 값으로 철십자훈장을 하나 더 얻어달겠지. 난 원쑤가 아니요! 당신이 원쑤요! 난 도이췰란드를 사랑하오! 도이췰란드를 사랑하는건 당신이 아니라 나요!》

《말씀 다했습니까?》 헨리흐는 매대쪽을 돌아보면서 침착하게 물었다. 뒤방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있던 접대원과 식당주인은 로인의 반역적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이 말라들었다.

《아니, 난 말을 다 못했소! 내가 말하지 못한건 다름이 아니라 난 한번도 공산당원이 된 일이 없었다는거요. 그러나 지금 텔만의 친구

들을 만나면 세결음앞에서 모자를 벗고 용서를 빌겠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말을 믿은것을 말이요. 거짓말쟁이들!》

골드링은 숟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렸다. 접대원에게 식사비를 물고 나왔다.

《시작되였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쓰딸린그라드격전의 첫 결과가 이렇다. 그의 아들은 볼가강연안의 어느 초원에서 전사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도이췰란드사람은 이미 정신이 들고있다. 그는 전쟁초기에라면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것을 장교의 눈앞에서 당당히 말하고있다!》 하고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헨리흐는 안도감을 느끼며 뮨헨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침대칸 호실을 따로 얻지 못했다. 기차는 장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었다. 그들의 일부는 동부전선으로 가고있었다.

차간안에서는 온밤 류행가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쾌한 기분은 없었으며 죽음터로 가는듯 한 동부전선에 대한 공포를 진정시키고싶은 절망적인 희망이 있을뿐이였다.

아침 4시에 기차는 뮨헨에 도착하였다. 헨리흐는 지난번에 왔을 때 역전려관에 머물렀다고 엘자부인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일이 생각나서 면도하러 잠간 들렸다가 즉시 베르트골드에게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베르트골드부부는, 더우기 로르헨자신은 헨리흐 폰 골드링이 바로 지금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형편이였다. 요사이에 헨리흐가 도착하는것은 아주 시기가 적절치 않았던것이였다.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있었으며 신부자신이 특히 그러하였다. 그놈의 저주로운 목장으로 자기가 갔던것을 얼마나 후회하였던가!

그러나 로르헨이 어찌 일이 이렇게 시시하게 될것을 예견할수 있었으랴.

헨리흐가 처음으로 왔다간 후 부모는 자기네 외동딸의 모든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관대히 대해주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로르헨은 남작부인이 다 된 폭이 아닌가! 비록 공식적인 약혼식은 없었으나 베르트골드는 헨리흐와 하던 담화내용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자기 안해와 딸에게 전했으며 그들은 또 자연히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베르트골드가 딸의 혼처를 잘 정했다는 소문이 퍼

져나갔다. 엘자부인과 로르헨은 또다시 객실에 손님들을 청하게 되였다. 전에는 그들이 이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것이였다. 자존심이 강한 로르헨은 그러한 말을 만족히 생각하였으며 녀동무들이 부러워하는것을 더욱 좋아하였다. 이제 와서 로르헨은 더 착실하게 태도를 취했으며 그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엄격히 재검토하였고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리상으로 삼고있던 베르찌나와는 교제를 끊어버리였다. 베르찌나와 교제를 끊은것은 어머니의 압력에 의한것이였다.

로르헨은 머지않아 남작부인이 될것을 기뻐하였다. 그는 특기할만한 사변을 목마르게 기다렸으며 열성적으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지금 로르헨은 한가한 시간을 다 지참품을 준비하는데 바쳤다. 엘자부인이 옷장이며 농짝에 숨겨두고있던 구식물품들은 전혀 로르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로르헨이 어떻게 자기 부부용침대에 단순한 아마포하불을 펼수 있단 말인가? 그런 조잡한 수를 놓은 잠옷을 어떻게 입는단 말인가? 벌써 반세기동안이나 궤짝밑에 두었던 그런 비단으로 어떻게 멋진 옷을 만들수 있겠는가? 그러면 네데를란드제 엷은 아마포며 부류쎌산 레스며 프랑스식벨베트는 두었다 무엇에 쓰려는건가? 로르헨은 상점으로 돌아다니면서 뒤문치기를 해서 이런것들을 사왔으며 아버지가 로씨야에서 모피를 가져올 대신 그따위 보기도 싫은 조각품들을 가져와서 매일 닭털먼지털개로 털어내느라고 애를 먹는다고 어머니에게 푸념을 하였다. 로르헨은 헨리흐에게, 문벌이 좋은 골드링씨집안의 상속자인 사랑하는 남작님에게 창피를 당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저 돈, 돈 하며 어머니에게 돈만 요구했다.

불운한 목장도 로르헨의 지참품으로 할당되였다. 이제는 미래의 주인인 로르헨이 장난삼아 목장으로 다니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인 이 령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살림군의 눈으로 세세한 점에까지 눈을 밝히는것이였다. 그래서 언젠가 베르찌나가 그에게 선물한 그 탄력이 있으면서도 묵직한 채찍이 지금까지는 쓸모없이 벽에 걸려있었으나 다시 사용되게 되였다. 로르헨은 작업복을 하나 멋지게 만들었다고 어머니에게 자랑하였다. 그 작업복은 로르헨이 궁리해서 만든것이였으며 농장으로 갈 때면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나갔다. 허리까지 오는 가죽상의, 아주 묘하게 지은 승마용바지를 입었으며 목다리가 짧게 만든 에나멜칠을 한 장화를 신고 머리에는 작은 모피모자까지 쓰

고 다녔다. 엘자부인은 채찍이 정말 이런 체육복 비슷한 특수한 의복에 잘 어울린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시기에 있은 딸의 심심풀이에 대해서 생각도 되지만 이제는 그리 걱정되지 않았다. 이젠 로르헨도 상당히 착해진것 같았다. 더우기 로르헨은 이제야 살림살이에 특별히 신경을 쓰느라고 바삐 지내고있었다. 자기의 아늑한 보금자리에 대해서뿐만아니라 그 아늑한 생활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생각할줄 아는 진짜배기 도이췰란드녀성이였다. 사실 로르헨은 얼마동안 괴상한 자기 취미를 억제하고있었다. 그러나 신랑될 사람과 작별한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함에 따라 그의 참을성이 점점 없어졌으며 게으름뱅이로만 보이는 녀자포로들이 자기네 재산에 손해만 주는것 같았다.

그래서 채찍을 더 자주 휘둘렀다. 불쌍한 녀성포로들은 그 가증스러운 도이췰란드처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몹시 공포를 느끼였다.

이 베르트골드의 딸은 그의 말에 불복하거나 웃거나 눈길을 돌리는 것도 자기를 모욕했다고 느꼈을 때에는 특별히 악독하게 징벌하였다. 로르헨이 처음으로 제가 만든 체육복차림으로 목장에 나타났을 때 마리나 브릴리라는 열일곱에 난 한 처녀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입을 가리우고 코웃음을 쳤다.

로르헨은 그걸 못 본척 하였다. 그러나 아침 한나절 그에 대한 원쑤를 갚을 적당한 기회만 노리였다. 인차 그런 기회가 나타났다.

마리나는 사료 찌는데 쓸 물을 길어오다가 발을 잘못 디디여 물통을 든채로 넘어졌다. 그래서 일이 안되느라고 팔을 데였다. 그는 채 일어나기도 전에 채찍에 얻어맞아 다시 쓰러졌다. 그때부터 로르헨은 그 가냘픈 처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리나는 무거운 물통을 량손에 들고 허리도 못 펴고 온종일 물과 사료를 날랐다.

뜨거운 물에 덴 손이 아물지 않았는데 매일 일을 계속하니 상처가 덧나서 일하는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으며 발을 옮겨놓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니 채찍은 매일같이 그를 후려치게 되였으며 어깨며 등이며 아픈 손이며 할것없이 아무데나 채찍에 얻어맞았다.

힘겨운 일과 아픔과 매일같이 심해지는 학대에 지칠대로 지친 처녀는 거의 리성을 잃었다. 자동차의 긴 경적소리만 들려도 처녀는 열병이나 앓는듯이 떨기 시작하였고 다른 동무의 등뒤에 숨으려 하였으며

로르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로르헨은 어떻게 해서나 그 처녀를 발견하고야말았다. 처녀에 대한 학대는 로르헨에게 있어서 특이한 열광적인 놀음으로 변했는데 그때마다 불행한 녀동무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나 구해보려는 모든 처녀들의 굽히지 않는 의지와 침묵의 항거에 부딪치군 하였다.

어느날 아침 마리나는 도저히 일어날수 없어서 로르헨이 도착할 때 녀동무들은 그 처녀를 숨기기로 결심하였다. 사료조리실안에 물이 끓고있는 큰 가마뒤에 마른 나무가지무데기를 집어넣고 그것으로 벌벌 떨고있는 처녀를 가리웠다.

그러나 로르헨은 자기의 희생물이 보이지 않자 그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나무단밑에 누군지 숨어있다는것을 곧 눈치채게 되였다.

그것은 불복이며 반항이며 전례도 없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로르헨은 그들이 몽땅 자기의 손아귀에 잡혀있다는것을 증명하리라 결심하였다. 일을 적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손에 부상을 입게 한 그 태만자를 죽여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몽땅 혼을 내놓으리라 생각하였다. 로르헨은 발로 나무단을 헤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매채를 내리쳤다. 그러나 로르헨은 이번에 그 처녀의 등을 맞히지 못했다.

가마곁에 서있는 늙수그레한 녀인이 마리나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르헨을 밀쳐 넘어뜨리고 가마에서 끓는 물을 떠서 로르헨에게 들씌웠다.

한시간후에 베르트골드가 목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기 딸에게 치명상을 입힌 그 범인은 감시인들에 의해서 꽁꽁 묶이운채 나무단우에 누워있었다. 바로 그옆 땅우에 그의 유일한 사랑이며 희망인 로르헨이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범인을 징벌하는데는 총알 두개면 충분하였다. 베르트골드는 그 이상 범인을 가지고 주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우선 로르헨을 집에까지 운반해갈 방도를 생각해야 하였다. 그들은 자가용차를 타지 못하고 위생마차를 타고 뮨헨으로 돌아왔다. 도로에 홈태기가 있을 때마다 로르헨에게 견딜수 없는 아픔을 주는것이였다. 딸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아픈 베르트골드는 도중에 별로 앉지도 못했다. 만일 가죽상의와 장화가 아니였다면 끓는 물이 전신에 퍼져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위안하는 의사들의 말이 아무 소용도 없

었다. 환자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있을뿐이였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동안 기다리던 약혼식 이틀전에 일어난것이였다.
베르트골드의 가족은 이 의외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근심에 싸여 있었다.
매 사람이 다 자기나름으로 고통을 겪고있었다. 로르헨은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침부터 울기만 하였다. 이런 모양을 하고 신랑을 만난다는것은 로르헨으로서 생각도 못할 일이였다. 베르트골드는 자기 가정의 비극이 남의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가 하는것을 생각만 해도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엘자부인은 딸을 잘 돌보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모든 죄를 자기에게 들씌울가봐 겁을 냈다.
이제는 그가 공상하던대로 약혼식을 화려하게 할수는 없게 되였다.
가정적인 대사가 래일로 박두했는데 베르트골드의 가정에서는 즐겁다는 말은 할수 없게 되였었다.
헨리흐는 아침 네시반에 도착하였다.
모두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정문에서 보초가 전화를 걸자마자 베르트골드자신이 현관으로 나왔으며 그뒤를 따라 엘자부인도 나왔다. 헨리흐는 로르헨이 보이지 않아 다소 의아해하였다. 베르트골드는 긴말을 피하고 로르헨은 몸이 불편해서 지금 자고있다고 설명하는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는 차후에 하지! 우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좀 쉬여야지. 난 군인식으로 아침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인데 두어시간후에 식당에서 만납세.》 하고 베르트골드가 말했다.
헨리흐는 그 말이 반가왔다. 그는 초만원을 이룬 장교차간에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지냈기때문에 지칠대로 지친것이였다.
목욕을 하고나니 정신이 들었다. 한시간쯤 쉬고난 그는 정각 7시에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침식사는 이미 상에 차려져있었다.
베르트골드와 엘자부인은 자기 자리에 앉았다. 로르헨의 의자는 비인대로였다.
《로르헨은 아직 자고있나요?》 헨리흐가 이상해서 물었다.
《당장 불쾌한 소식을 말해서 걱정을 시키고싶지 않아서 말을 안했는데 로르헨은 지금 좀 심하게 앓고있다네.》

《뜻밖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중한 병이래도?》 헨리흐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렸다. 하여튼 약혼식을 미룰수 있게 되였다.

엘자부인과 베르트골드는 그것을 자기들나름으로 해석하였다.

《너무 걱정할건 없네. 생명의 위험은 없으니까!》 하고 베르트골드는 그를 위로하며 말을 이었다. 《글쎄 이틀전에 우리가 결혼선물로 주기로 되여있는 목장으로 로르헨이 가지 않았겠나. 그런데 한 로동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였단 말일세. 리상적인 질서를 사랑하는 로르헨은 아마 우연히 손에 들었던 매채를 들었던 모양이요. 그런데 생각하기도 무서운 일이 아닌가. 야만들중 한년이 로르헨에게 달려들어 밀쳐넘어뜨리고 끓는 물을 로르헨에게 들씌웠단 말이요. 내가 달려갔을 때 불쌍한 우리 애가 어떤 형편이였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걸세!》

로르헨의 손에서 어떻게 채찍이 소리치며 휘둘렀던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그 녀자때문에 공연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게 된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헨리흐는 더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상한 눈길로 베르트골드와 그 부인을 둘러보고 로르헨의 의자를 발로 밀어제치고 모든 사람은 물론 자기자신도 전혀 뜻밖에 옆방으로 달려나가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적의 후방에서 공작하는 전기간에 처음으로 그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다!

그렇게도 우둔하게 자신을 드러냈다.

본빌에서의 초인간적인 신경적긴장, 한초한초가 그의 죽음과 관계되던 긴장한 순간도 견디여냈으며 지하공장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힘을 써야 하였던 게스타포에서의 심문때에도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채 완수하지 못한 임무가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이때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아니다. 이 과오는 그 어떠한 자연적원인에 의하여 광기가 폭발한 것으로 변명을 해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마키의 습격을 당한 후부터 때때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특히 과도하게 흥분한 때에는 그렇다는 구실을 붙여보자.… 로르헨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흥분하게 되였다고!

헨리흐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결연히 문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식

당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그 사람이 로르헨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소! 로르헨이 앓고있다는 말만 듣고도 그가 얼마나 걱정하였던가를 생각해보시우!》 하고 엘자부인이 감동되여 말하였다.

《그렇소, 아마 그 사람이 로르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것 같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과격한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군! 물론 젊고 사랑문제이고 하니 리해할수는 있지만…》하며 베르트골드도 부인의 말을 긍정하였다.

헨리흐는 슬그머니 문에서 물러나 안락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것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자칫했다가는 두번째 과오를 범할번 하였는걸!》 헨리흐는 조용히 혼자 말했다.

그러나 이 희극을 논다는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들며 역겨운것이였던가!

이 방에 앉아서 그가 체험하고있는 감정을 그 누가 알수 있으랴! 잔인무도한 약혼녀를 목을 눌러죽이고싶은 신랑! 헨리흐가 지금 체험하고있는것을 제3자가 본다면 있을수 없는 일로 생각될것이다.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모든것이 참으로 황당하였다. 그가 지하공장의 비밀을 알아낸데 대하여 그에게는 쏘베트군대－대위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였으며 붉은기훈장을 표창받았다. 그는 《골리아프》식땅크의 사명을 알아낸 공로로 해서 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소모한 정신력이 이 약혼식때문에 머리를 쓰는것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것이다.

이 약혼은 비밀보장을 잘하자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조건으로 되지만 적지 않게 역스러운것이였다. 만일 그가 언제인가 뮨헨에 갔다온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 약혼을 그의 자서전의 극히 흥미있는 세부로 치부하고 웃어버리면 그만일것이다. 그런데 그 세부가 그의 막대한 힘을 빼앗아간것이였다. 렘께의 심문을 세번 견디여내는것이 로르헨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것보다 오히려 헐하다 할수 있었다.

《헨리흐! 내가 자네보다 마음이 괴롭지 않겠나.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있지 않나. 진정하라구. 자네가 너무 상심하면 로르헨의 병세가 더 악화될뿐일세. 불쌍한 그 애는 온종일 울고만 있다네. 그

때 난 로르헨의 원쑤를 갚아주었으니 안심하오. 로르헨에게 감히 손을 댄자는 그 값으로 생명을 바쳤네!》 베르트골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서 말하였다.

(로르헨의 원쑤를 갚았다구! 그 불쌍한 로씨야처녀의 원쑤는 누가 갚는단 말인가?!)

탁상전화종이 울렸다. 베르트골드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렇소, 베르트골드소장이요!… 무엇이라구?!》

베르트골드는 송수화기를 쥐여뿌리였다. 그는 그것을 전화기우에 올려놓는것조차 잊어버리고 라지오수신기로 달려갔다. 그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파장을 겨우 맞추었다. 파장이 조절되자 말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전사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전도이췰란드적으로 추모할것을 공포합니다.》

헨리흐는 몸이 약간이라도 움직일가 겁을 내면서 앉아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기쁨의 격류가 터져나와 그 주위를 다 채울것 같기만 하였다.

베르트골드는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듣고있었다.

방송은 끝났다. 장송곡이 흘러나왔다.

헨리흐는 베르트골드가 하는대로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였다.

장송곡이 울리는 시간이 오래 계속되였다. 헨리흐는 그동안에 정신을 차렸다. 빠울류스의 군대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쁨앞에서 그의 모든 곤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모든 개인적인 문제는 사소하게 보였다.

장송곡이 끝났을 때 소장은 헨리흐의 팔을 자기 팔에 끼면서 말했다.

《내 방으로 가세, 좀 이야기할게 있네!》

베르트골드는 미래의 사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사무실로 갔다. 그 방은 모퉁이에 있는 큰 방이였는데 정원과 거리쪽으로 창문이 달려있었다.

두사람은 담배를 붙여물고 한참동안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베르트골드가 먼저 말을 꺼냈다.

《헨리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께서는 제가 제기된 사태에서 어떻게 빨리 방향을 잡는가

를 검열해보시는것이 흥미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돌발적인 사태에 너무나 흥분이 되여 자기 생각을 수습하기조차 힘듭니다.》

베르트골드는 일어서서 방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왔다갔다 하였다.

《돌발적이라! 문제는 그것이 결코 돌발적이 아니라는데 있네. 나 흘전에 내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참모부에서 이미 이렇게 될것을 알았네. …》

《그런데 왜 대책을 취하지 않았나요?》

《보도를 들으면 대책이 취해졌다는것을 알아야지.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의 정예부대의 적지 않은 사단들이 볼가강옆에 묻혔어. 문제는 전쟁이 이미 적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때에 우리에게 전투를 걸어오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기에 있네. … 그러나 불행은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야. 군대내의 모든 망원들이 다 내수중에 있으니까. 내가 아마도 다른 그 누구보다 병사들, 장교들, 최고사령부의 동향을 더 알고있다고 할수 있지.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것은 우리 승리에 대한 신심이 나날이 약화되고있는것일세.》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가요?》

《많이 있지! 아주 많이 있어. 특히 병사들과 오랜 장령들사이에 더 많이 있네. 문제는 그 오랜 장령들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들은 아직 우리에게서 국록을 받고있으면서… 어떤자들은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총통의 전략에서 과오나 들추어내고있단 말이야.》

《그런걸 말하기까지 하나요?》

《물론이지, 은밀하게!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건 사실이야…》

소장은 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벼운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빙빙 돌며 천천히 내리는것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그래 자넨 어떻게 할 작정인가, 만일 말하자면, 전쟁이 도이췰란드의 패망으로 끝나는 경우 말이야?》 그는 뜻밖에 이렇게 물었다.

《저의 권총에는 저자신을 쏠 마지막탄알을 언제나 두고있겠습니다.》

《머저리같은 소리! 란폭하게 말한걸 용서하게. 아버진 때로 표현

을 가릴 새가 없단것을 알아주게. 권총이니… 탄알이니… 그따위 랑만적인 잡꼬대는 도대체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이 이야기가 자네에게 그렇게 염세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 못했군. … 불건전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할수 있어.》

(내가 지나쳤군. …) 하고 헨리흐는 생각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곤난한 시기에 아버님과 같이 현명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미래를 내다보실수 있는분이 옆에 계시니 말입니다. … 저는 항상 무슨 일에서나 아버님 충고대로 하겠습니다!》

베르트골드는 만족한 미소를 띠였다.

《생각이 깊은 늙은이가 항상 과격한 젊은이보다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할수 있지! 나는 자네가 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경험을 믿어주니 행복하네! 내가 이런 말을 하는것은 미래에 대한 자네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것을 믿어주게. 바로 그 반대란 말이야! 나는 자네의 전도를 더 넓혀주고싶어할뿐일세.

쓰딸린그라드부근에서 우리 군대가 진몰하였고 우리 군대, 우리 사령부의 위신이 흔들리기 시작한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이것이 아직 종말이 아니며 종말의 시초도 아니란 말이야. 우리 최고사령부는 불패의 군대의 영예를 도이췰란드에게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지금 미친듯이 작전을 전개하고있네. 이 작전이 어떻게 끝나리라는것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 그러나 나는 볼쉐비크들이 우리 타격의 힘을 느끼게 될것이며 그들의 일시적인 성과는 우리의 새 승리의 영광앞에 빛을 잃을것을 믿고있네!》

《그러나 우리 군대는 매일 후퇴하고있으니…》

《앞으로도 후퇴할수 있소. 방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로씨야사람들은 우리 후퇴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될것이요. 지금 자네 아버지가 어떤 위임을 수행하고있는지 아나?》

《무슨 일이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가정일때문에 그저 휴가를 받은게 아니요. 한주일후에 나는 우리 군대가 퇴각하기 전에 로씨야지역에서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네. 저녁때 그 계획을 자네에게도 이야기해주지. 난 로씨야사람들에게 줄 희한한 선물을 준비했지! 우리가 물러난 후에 그

들은 도시도 마을도 찾아보지 못할게요. 페허와 광야뿐이지! 오! 그것은 전쟁후에 남게 되는 보통 재더미가 아니라 좀더 굉장한것을 나는 계획하고있소. 특별파괴조와 방화조가 세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퇴각시에는 문자그대로 모든것을, 공장도 집도 급수탑도 발전소도 교량도 전야도 과수원도 몽땅 없애치울것이요. 주민들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게 될것이며 가장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장, 기업소와 전야에서 일하도록 실어가고 나머지는 그저 없애버릴것이요. 이런 조건하에서 원쑤들의 군대가 전진하겠으면 하라지! 황페하고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생활을 새로 꾸려보라지!》 베르트골드는 악의와 증오에 차서 씩씩거리며 주먹을 틀어쥐였다. 헨리흐의 가슴속에서도 분노와 증오가 끓어번졌다.

《사실 굉장하군요! 그 계획을 알았으면 기쁘겠습니다. 혹시 로씨야에 대한 저의 지식이…》

《난 정말 깜박 잊었댔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네야말로 상당한 조언자로 될수 있는걸. 그들은 자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될거요!》

발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엘자부인이 머리를 문안으로 들이밀고 말했다.

《여보, 헨리흐가 아침식사전이라는걸 잊으시지 않았소?》

《참견마오. 엘자, 지금 아침식사같은건 문제가 아니요.》

엘자부인은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남편의 성급한 눈초리에 부딪치자 곧 조용히 나가버렸다.

베르트골드는 재털이에 놓인 려송연에서 타래쳐오르는 파르께한 연기를 얼마동안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희망이 이 연기처럼 흩어져버릴수도 있다는것을 자네에게 경고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베르트골드는 담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을수는 없단 말이요. 우리는 예견성있는 사람들로서 모든 정세에 대처하여 준비해야 하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요. 내 말을 주의해 듣소. 나나 자네는 첩보일군이요, 당당한 첩보일군이지! 자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있다고 하지만 조만간에 다시 첩보일군으로 되여야 할것이요. 참모일군들보구 자기들 공로를 자랑하라지. 나나 자네는 다른 사람들

과는 다르니까. 우리없이 현대전을 이길수는 없으니까. 내가 〈우리없이〉라고 말한것은 첩보일군을 념두에 둔거요. 우리는 온갖 정치적 말공부쟁이들, 작가들, 예술가들, 지어 학자들보다 훨씬 더 사회에 필요하오. 전쟁후에도 첩보일군은 지금보다 더 필요하게 될거요. 누가 승리하던지 말일세! 나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승리를 믿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고 준엄한 현실은 또한 전혀 다른것이니까.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준비하는것은 결코 해롭지 않은것이요. 프리드리히대왕도 비록 자기는 락천적인 사람이였으나 자기의 장군들과 국가활동가들을 그렇게 가르치였소. … 우리도 최악의 경우를 예견해보잔 말이요. 헨리흐!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자네에게 돈이 얼마나 있더라? 그리고 무슨 은행에 맡겼지?》

베르트골드는 자기의 철학적인 사색을 순전히 실무적인 질문으로 끝냈다.

《백구십만마르크는 스위스은행에 있고 삼십만마르크는 도이췰란드은행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산의 전부인가?》

《전 그 리자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잘했소, 아주 잘했소! 도이췰란드은행것도 다 스위스은행으로 옮기는것이 좋겠소. 그것이 첫째고 예금을 딸라로 바꾸라구, 그래야 더 안전하지.》

《지금 그래야 할가요?》

《아니 조금 있다가… 추모가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하오. 그리고 될수록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하는게 좋소. 다음으로 내 저금도 자네에게 넘기겠으니 다 자네 구좌에 넣어두게, 나로서는 돈을 외국은행에 옮기는것이 좀 무엇하니까.》

《알았습니다!》

《나는 로르헨의 지참품으로 빵공장을 주겠소. 둘째것은 유감스럽게도 폭격을 맞았소. 목장도 그 애에게 주자고 하오. 이걸 다 누구에게 맡겨서 처리해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역시 스위스은행에 예금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온갖 돌발적인 사태, 례컨대 물가등귀같은것도 고려해야 하오. 전쟁이 딸라의 값을 떨어뜨릴수 있소. 그때에는 우리가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되오. 그런 경우에는 부

동산이 자금투자에 좋은 담보로 될거요. 그러니까 자네는 스위스에서 착실한 기업체를 사는게 필요하오. 려관이라든지 수익성이 높은 좋은 건물이라든지 말이요. 내가 적당한 기회를 타서 한번 가보고 오겠소. 그러나 나하구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는 결정하지 마오. 자네에게는 그런 일에 경험이 없으니까 속히울수 있소.》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전후에도 편안히 살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오. 그다음 문제는 생각할게 없소. 나와 함께 있으면 실패하지 않을테니까. 베르트골드와 같은 첩보일군에게 일이 없을수는 없으니까. 새 상전을 구해다니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찾을테니까. 그에게 조건을 내놓는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조건을 내놓게 될테니까.

나는 조국을 사랑하오! 그러나 만일 사태가 우리들,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마르크대신에 딸라를 벌어야 할테니까. 나는 딸라를 받을것이며 지금처럼 역시 헌신적으로 일할것이요. 돈은 냄새를 풍기는게 아니니까. 누가 이 말을 했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헨리흐는 전혀 다른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베르트골드나 그따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철면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 내 계획에 동의하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때쯤에 앞으로 헨리흐가 쓰게 될 2층에서 약혼녀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로르헨은 지난밤에 자지 못했다. 열이 오르고 덴자리가 무섭게 아팠으며 자기가 신랑을 보지 못하는것이 슬퍼서 심장이 터질 지경이였다. 헨리흐의 도착을 알리는 요란한 종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을 때 울음을 터친것이 그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헨리흐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을 진정시키였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허사였다. 다행히도 하녀가 로르헨에게 거울을 줄 생각이 났다. 로르헨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다. 얼굴은 시뻘겋고 두눈이 퉁퉁 붓고 눈물, 코물이 흘러 계속 손수건을 써서 검붉어진 코구멍은 더 넓어진것 같았다.

처녀는 방바닥에 거울을 집어던지고 더 심하게 울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깨진 거울은 불행의 예고이다!

베르트골드가 헨리흐와 이야기하는 동안 엘자부인은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미용사를 불렀다. 그는 로르헨의 얼굴에 무슨 찜질약같은것을 바르고 크림으로 문댄 다음 분칠을 하였다. 로르헨은 오직 자기 신랑을 만날수만 있다면 무슨짓을 하든 다 공손히 참았다.

아침식사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미용사가 공연히 돈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는 신랑에게 보일수 없었다.

점심식사때 베르트골드는 로르헨이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것을 헨리흐에게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엘자부인도 베르트골드도 매우 기분이 우울해서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헨리흐가 식사가 끝날무렵에 베르찌나가 보내온 사진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이야기가 활기를 띠였다. 엘자부인은 베르찌나가 항상 몰렴치한 사람이며 음모자였다고 말하였으며 그와 교제하는것을 로르헨에게 금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교제는 다만 명예를 훼손시킬뿐이다. 베르트골드 역시 베르찌나를 두고 어찌나 더럽고 철면피하게 말하는지 그의 부인도 귀를 막지 않을수 없었다.

점심식사후 미래의 장인과 사위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려고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베르트골드는 베르찌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며 헨리흐에게서 앞으로는 그와 편지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지금 골드링은 자기자신의 명예뿐만아니라 로르헨의 명예와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였다.

밤이 늦어서야 신랑과 약혼녀의 상봉이 있었다. 엘자부인은 모든 재간을 다해서 침실용 작은 전등을 켜고 탁상전등에는 어두운 색전등갓을 씌워놓음으로써 배를 아래로 하고 누워있는 로르헨의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하였다.

헨리흐는 자기 약혼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웃음을 겨우 참았다. 그는 환자를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며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포옹할수 없게 된 운명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시한번 약혼식을 연기할수 있을것 같아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베르트골드는 그의 생각을 엿듣기나 한듯이 말했다.

《그럼 반지는 래일 저녁에 교환하기로 하지. 그때까지에는 로르헨

도 아마 좀 나아지겠으니 동의하겠지?》

(비록 걸치레를 위해서라도 손과 마음이 나의 제의를 들어주었으면.)하고 헨리흐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말은 달리 하여야 하였다.

《물론이지요!》

그 이튿날 저녁에 약혼식이 진행되였다. 로르헨은 또 한가지 환멸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 병때문에 화려한 축하연을 차리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손님들이 오고 선물과 축하가 있을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사태는 전혀 다르게 되였다. 도이췰란드에는 국가적인 추모기간이 공포되였다. 그래서 베르트골드소장도 자기 딸의 약혼식을 한다는것을 다른 사람들께 알릴수 없게 되였다. 그것을 공개하는것은 헨리흐에게도 불리할수 있었다. 그래서 약혼식에는 자기 식구들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약혼반지는 왼손에 끼게 되여있었으나 왼손은 화상을 입었기때문에 낄수 없었다. 오른손손가락에 반지를 낀 로르헨은 눈물을 흘렸다. 베르트골드소장도 감동되였다. 그는 헨리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미래의 신혼부부에게 세번 십자를 그어주었다.

로르헨의 방에 있는 침대옆에서 약혼녀의 신음소리를 반주삼아 들으면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로르헨은 참아야 한다는걸 때때로 잊어버리고 신음소리를 냈다. 아침에 헨리흐는 떠났다. 베르트골드만이 정거장까지 그를 바래워주었다.

《우리가 이야기한걸 다 잊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걸 알겠지?》

《절 어린애로 아십니까?》

《원 천만에! 자넨 훌륭한 첩보일군이 될걸세!》 베르트골드는 작별할 때 말했다.

이상한 일치였다. 베르트골드의 계획을 접수하였을 때 쏘련에 있는 골드링의 지도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다.

장편소설 적후에서 홀로 (1)

저　자　유리 돌드－미하일리끄
역　자　강필주
편　집　리혜란
표　지　서상호
편　성　윤승화
교　정　정경진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10일

ㄱ－066770ㄴ　　　　　　　값 210원